

2 0 2 0

백 제 왕 도

핵 심 유 적

국 제 학 술 대 회

2020.08.20

- 21

대전 유성호텔 3층 킹홀



# 한반도 도시외곽의 등장과 전개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 백제왕도 핵심유적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 1일차 8.20

### 제 1부 개회

11:00 ~ 11:20 개회식 개회사 정재숙 (문화재청장) 축사 지병목 (국립문화재연구소장)

11:20 ~ 11:50 기조강연 한반도 도시 외곽의 출현과 전개 박순발 (충남대학교)

11:50 ~ 13:00 오찬

### 제 2부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

13:00 ~ 13:30 고대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  
발표 김환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토론 성정용 (충북대학교)

13:30 ~ 14:00 한반도 중세(통일신라~고려) 도시 외곽의 발달과 전개  
발표 박성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토론 이상준 (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4:00 ~ 14:30 한양도성의 도시구조적 특징과 변화 양상  
발표 남호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토론 김병희 (한성문화재연구원)

14:40 ~ 15:10 중국 고대 도성 성곽의 문제  
발표 張良仁 (남경대학) 토론 조윤재 (고려대학교)

15:10 ~ 15:40 일본 고대도시 외곽의 형성과 역할  
발표 山本孝文 (일본대학) 토론 우재병 (충남대학교)

16:00 ~ 18:00 종합토론

## 2일차 8.21

### 제 3부 발굴조사 최신 성과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방안

09:20 ~ 09:50 일본 조선식 산성의 등장과 전개과정 向井一雄 (일본고대산성연구회)

09:50 ~ 10:20 부여 나성의 최신 발굴조사 성과 성현화 (백제고도문화재단)

10:30 ~ 11:00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목록 등재 과정과 의의 이동주 (백제세계유산센터)

11:00 ~ 11:30 세계유산으로서 부여 나성의 관리 및 활용 최희균 (백제고도문화재단)

11:30 ~ 12:00 질의응답

12:00 폐회

# 백제왕도 핵심유적(26개) 현황



# 목 차

1. 한반도 도시 외곽의 출현과 전개 .....	7
박순발   충남대학교	
2. 고대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 .....	25
김환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3. 한반도 중세(통일신라~고려) 도시 외곽의 발달과 전개 .....	45
박성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4. 한양도성의 도시구조적 특징과 변화 양상 .....	59
남호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5. 中国古代都城的郭城问题 .....	85
중국 고대 도성 성곽의 문제 장리양런(張良仁)   남경대학(南京大學)	
6. 日本 古代都市 外郭의 形成과 役割 .....	127
일본 고대도시 외곽의 형성과 역할 야마모토 타카후미(山本孝文)   일본대학(日本大學)	
7. 토론문 .....	145
8. 日本朝鮮式山城의 登場と 展開過程 .....	157
일본 조선식 산성의 등장과 전개과정 무카이 카즈오(向井一雄)   일본 고대산성연구회(古代山城研究会)	
9. 부여 나성의 최신 발굴조사 성과 .....	201
성현화   백제고도문화재단	
10.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목록 등재 과정과 의의 .....	219
이동주   백제세계유산센터	
11. 세계유산으로서 부여 나성의 관리 및 활용 .....	237
최희균   백제고도문화재단	



---

[제1부] 기초강연

---

## 한반도 도시 외곽의 출현과 전개

박 순 발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



# 한반도 도시 외곽의 출현과 전개

박순발<sup>1)</sup>

## <목차>

- I. 도시란 무엇인가
- II. 한반도 고대 도시의 형성 과정
- III. 외곽과 나성
- IV. 동아시아 고대 도시의 유형

### I. 도시란 무엇인가

都市(Urban)를 고고학적으로 인식함에 있어 일찍이 고든 차일드는 10개의 지표를 제시한 적 있다. 특정 제한된 공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의 집중, 수공업 전문화, 경제적 잉여에 대한 정치적 수탈, 기념비적 공공 건축, 사회적 계층화의 진전, 문자의 등장, 정확하고 예측적인 과학의 존재, 자연주의적 예술의 존재, 역외 교역(Foreign trade), 혈연을 넘어선 공동체적 소속감 등이다.

이러한 정의는 도시화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그가 든 지표들 가운데 문자는 결여된 예도 있고 기념비적 건축물은 도시 이전 사회에서도 조영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후 등장한 주류적 입장은 도시를 권력과 지배의 중심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도시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성립인데, 국가는 도시의 등장 없이 성립될 수 있어도 도시는 국가가 없으면 그 존재가 매우 불안한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또한 도시는 식량·인력·원재료 등의 자원을 확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수공업생산·종교·교역의 통제 등의 일련의 전문적 행위들을 집중화 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 밖에 도시를 인지하는 간단한 접근법으로서 대략 5,000명 이상의 인구 규모를 상정하기도 한다(Simon Stoddart 1999).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도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2가지의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인구의 집주(集住)이고, 둘째는 주민들이 일차적인 생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집주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인가하는 문제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설정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도시가 위치한 지점의 자원영역(Resource Catchment territory) 내에서 생산되는 산물로는 부양이 불가능할 정도의 규모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차적 생업으로부터의 분리란 농업이 기본적인 생계가 되는 고대의 경우 농업 생산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도시적 주민이 특정 공간 범위에 집주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통합중추(統合中樞)라 부르기도 하는데(古市 晁 2002), 가령 일본의 경우 소위 야요이(彌生) 도시론에서는 이케가미소네(池上曾根)의 대형건물을 신전(神殿)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통합중추로 이해하는가 하면, 도성(都城) 도시론에서는 왕의 거소인

1)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궁전의 출현과 그에 따른 조하(朝賀) 등 각종 의례(儀禮)를 통합중추로 제시하는 등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도시적 주민의 존재나 집주는 결과적 현상이고 그러한 구심력, 즉 통합중추가 이른바 프라임 무버(Prime mover)인 것이다.

도시적 취락 유형(Settlement pattern)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역시 정치적 권력의 집중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곧 국가사회의 성립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를 권력의 집중, 농업 생산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존재, 일정한 인구의 집주로 규정하기도 한다(藤田弘夫 1993).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도시의 형태는 성벽을 갖춘 성벽취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매우 넓은 관점에서 기원전 4천년을 전후한 무렵의 전 지구적인 한냉건조화가 대하친 유역에 인간의 집주를 유도하였다고 보는 관점이 있으며, 취락 주변에 성벽을 갖추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전쟁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都出比呂志 1997 ; 川西宏幸 2003).

도시의 형태는 크게 방형 혹은 장방형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와 부정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이집트와 중국의 중원지역이 전형적이고 후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관찰된다. 정형화된 형태의 도시는 정치적 혹은 종교적 중심지적 기능이 중심이며, 부정형 도시는 자원의 교역 등 경제적인 기능이 중심인 것으로 이해되기도(川西宏幸 2003) 한다.

중국으로 대표되는 아시아의 도성은 정형화된 도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는 시민권이 보장된 토지 소유계급의 자치적인 도시로서의 유럽의 고전고대 도시와 달리 군주 1인을 위한 시설로 보는 관점도(狩野 久, 1990) 있다. 현상적으로 도성이 보여주는 인구의 집주, 정주구역의 성립, 유통경제의 발달이라고 하는 측면을 중시하여 도성을 도시로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寺崎保廣 1995 ; 小澤 毅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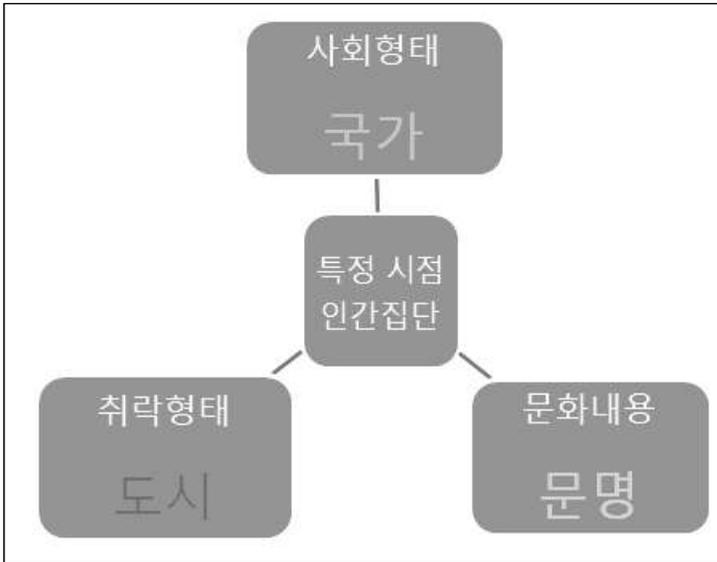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고대의 도성을 고대도시와 등식화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일본 열도에 있어 도성의 개념에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이른바 조방제(條坊制)와 같은 집주성립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이다. 조방제에 주목하는 것은 도시주민의 성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근거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방제 성립이전에도 도시주민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으며, 조방제 그 자체는 도시주민의 성립과 직결된다기보다 율령제에 입각한 주민의 통제·관리 방식이라고 보아, 본격적인 조방제 도성이전의 아스카(飛鳥)를 고대도시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山尾幸久 1998 ; 林部 均 2001).

도시에 대한 이상의 여러 논의를 종합해 필자 나름의 생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말의 ‘도시(都市)’라는 이름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면 도(都)와 시(市)의 결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영어로는 라틴 어원으로 해서 ‘Urban’이라 한다.

‘도(都)’는 원래 주(周)의 제후가 다스리는 지방의 중심취락, 즉 도읍(都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왕의 직할 중심취락인 ‘국(國)’에 대응되는 개념이었다. 춘추(春秋)·전국(戰國) 이후 종주(宗周) 관념이 퇴락하면서 국과 도를 준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 무렵 ‘도’의 의미는 선군(先君)의 종묘(宗廟)가 소재한 곳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어 후한(後漢)의 어휘사전격인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유선군지구종묘왈도(有先君之舊宗廟曰都)”라 하고 있다. ‘시(市)’에 대해서 『설문해자』에는 “사고파는 곳(市, 賣買之所也)”이라 하였고, 그보다 이른 단계의 내용으로 보고 있는 『역경(易經)』 계사(繫辭) 하(下)에는 “낮 동안 시가 열려, 천하의 사람들이 모여 천하의 재화를 교역하고 각기 거처로 물러난다(日中爲市 致天下之民 聚天下之貨 交易而退 各得其所)”라고 하여 일종의 장시(場市)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어원적 의미로 보면 ‘도+시’는 정치적 중심지로서 ‘도’와 재화 교역의 장으로서 ‘시’의 기능이 합쳐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영어로는 도시를 ‘Urban’이라 하는데 그 기원은 라틴어 ‘Urbanus’이다. 본래의 뜻은 건물의 밀도가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흔히 교외(郊外)로 번역하는 ‘suburb’는 그러한 밀주지의 외곽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고학에서 취락 유형(Settlement pattern)을 분류할 때 도시형 혹은 집주형인 ‘Urban pattern’과 그 반대의 상태로서 ‘Rural pattern’을 말한다. 여기의 ‘Rural’은 라틴어로 가옥이나 건물의 배치 밀도가 낮은 것을 의미함은 물론이다. 결국 영어의 ‘도시’는 그 기능이나 성격을 함의(含意)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형태 즉, 형태론적 묘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한자문화권인 동아시아의 도시는 그 명칭 자체가 정치적·경제적 중심지라는 것을 잘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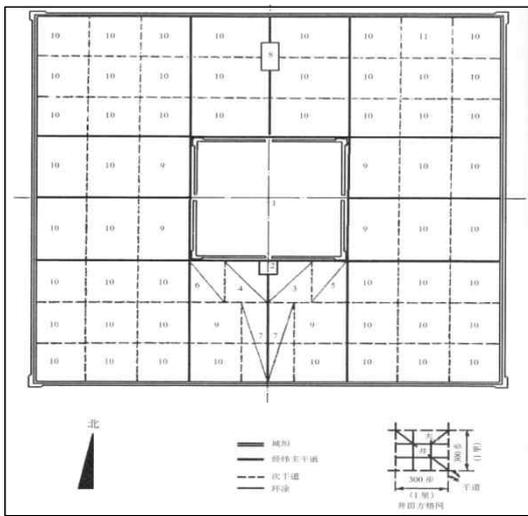
<도 1> 도시, 국가, 문명의 관계

내고 있다. 전술한 다양한 도시론을 관통하고 있는 3가지 키워드가 탈일차생산적 주민·집주·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가능케 한 원동력 혹은 핵으로서 통합중추임을 보았다. 이로써 중국의 중원(中原)으로 대표되는 황하유역 도시는 정치적 및 경제적 기능으로 설명 될 수 있겠다. 중국의 도시 출현과 관련한 기왕의 견해에서는 통합중추로서 중국 특유의 의례(儀禮)에 주목하였다. 일찍이 중국 고대 도시 기원론을 제시한 유명한 Pall Wheatley(1968)는 안양(安陽) 은허(殷墟) 발굴성과를

토대로 하여 의례 중심지가 도시로 발달하는 과정을 설명한 바 있는데, 분산되어 있던 의례 중심이 집중형 의례중심으로 전환되고 마침내 도시가 등장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장광직(張光直 1986)도 중국의 국가 형성 과정의 핵심적 특징으로서 예(禮)를 지목하였다. 국가 성립, 즉 기체로서 정치적 권력의 획득 및 집중은 소수 지배계층 혹은 지배자의 부의 축적은 무격(巫覡)으로 대표되는 제의권의 장악을 통해 가능하였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제의권의 전유(專有)를 통하여 정치적 결정의 권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보다 먼저 국가와 도시가 등장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도 신전(神殿)이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나듯 통합중추는 신(神)에 대한 제의권을 매개로 한 것임은 중국의 경우와 큰 맥락에서는 상통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의 출현에 있어 신에 대한 제의권이 통합중추로 작용하고 있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취락유형으로서 도시를 탄생케 한 것은 혈연을 초월한 것으로서 초월자의 상정과 그에 대한 제의권 전유에 수반된 권위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곳에 기거하던 다수의 혈연집단을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구심력으로서 신과 그에 대한 제의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각 도시는 저마다 섬기는 신이 따로 있는데, 이들의 머리에는 도시의 성벽을 모양을 한 관(冠)을 쓰고 있다. 이것을 ‘성벽관(Mural crown)’이라 하는데, 기원전 7세기 무렵 출현한 앗시리아의 왕관은 이에서 유래한 데서 도시의 주인이 신에서 왕으로 전환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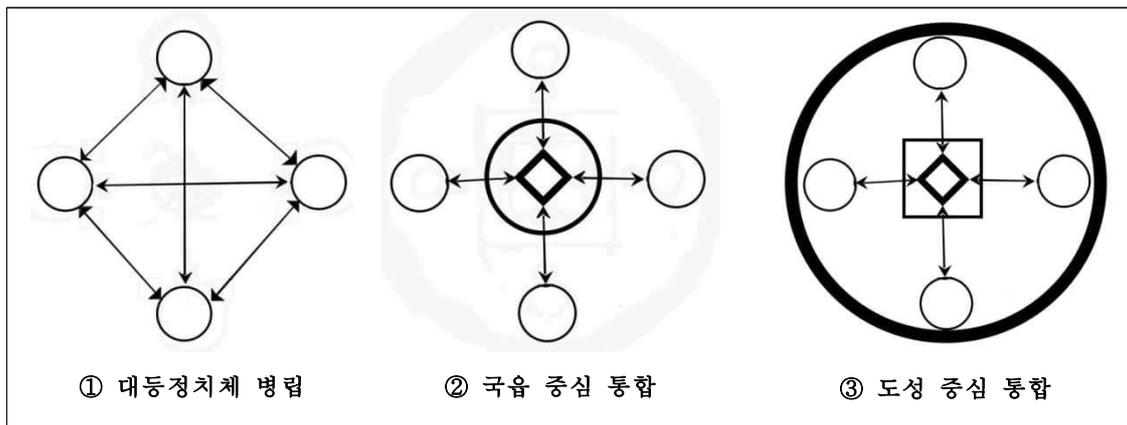
도시의 형태적 공통점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취락을 방어하는 성벽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원형·방형 혹은 장방형·부정형 등이 있으나 취락 전체를 방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 주대(周代)의 왕 직할 중심취락을 ‘국(國)’이라 불렀는데, 그 구조는 한자의 모양 그대로 취락 전체를 방어하는 외곽(外郭)·내부 왕궁을 보호하는 내성(內城)을 무장으로 방호하고 있다. 국가 단계 정치체의 중심취락을 도성이라 함은 전술한 바와 같은데, 중국 도성에서 내성외곽(內城外郭)이 확인되는 것은 상(商)의 이른 시기부터이다. 이것이 동아시아 특유의 도성제도로 이어져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 장인영국(匠人營國)에 기록된 중앙 왕궁을 중심으로 한 “전조후시(前朝後市), 좌조우사(左祖右社)”이라는 도성 주요 시설 혹은 기념물의 배치 원리가 되었다.

<도 2> 주례 고공기 왕성 모식도

(1宮城, 2外朝, 3宗廟, 4社稷, 5府庫, 6廄, 7官署, 8市, 9國宅, 10閭里, 11倉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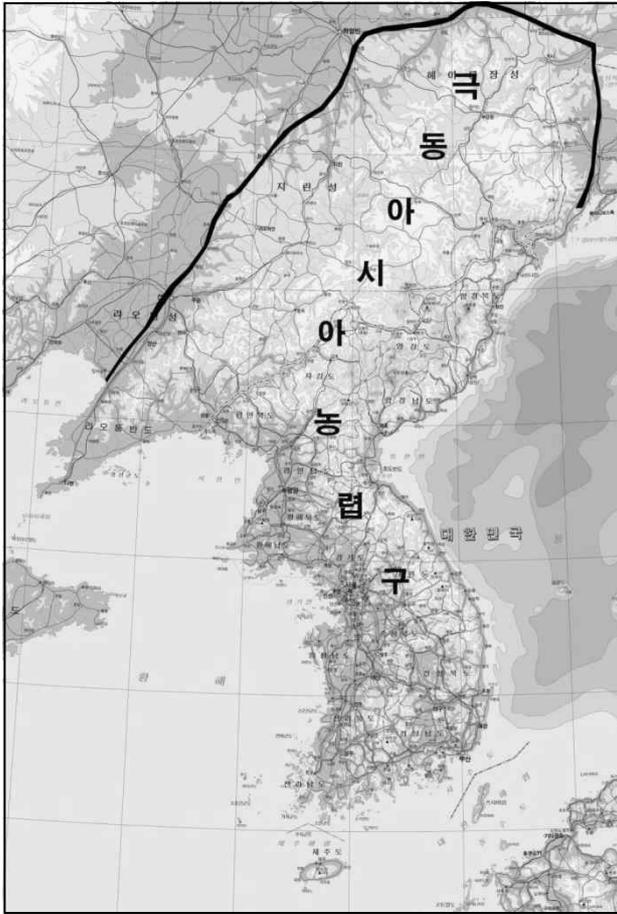
<도 3> 정치체 통합과 교역망 재편 모델

‘전조후시’는 ‘조(朝)’로 대표되는 정치적 결정의 장소이고 ‘시’는 분산되어 있던 경제적 연계를 한곳에 모은 재분배 기능의 핵심으로서 전술한 도시의 주요 기능인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좌조우사’는 왕권의 물적 토대로서의 농업신과 통치의 역사적 정통성의 근원으로서 조상신에 대한 제의권의 전유를 상징한 것이다.

흔히 우리는 도시와 국가의 성립을 문명(文明)이라고도 하는데, 이들 3자의 관계는 동일한 하나의 현상을 3가지의 관점에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취락유형의 관점에서 도시적 주민의 집주와 그를 방어하는 성벽로 되어 있는 형태적 특징을 강조한 것이라면, 국가는 그러한 취락유형을 가능하게 한 정치체의 성격을 강조한 것이다. 혈연을 대신한 새로운 통합력 혹은 구심력을 통해 상호의존적이고 계층화된 사회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일컬어 문명이라 한다.

## II. 한반도 고대도시의 형성 과정

한반도를 둘러싼 일정한 자연지리적 및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필자는 “극동아시아농렵구(極東亞細亞農獵區)”라 부르고 있다(朴淳發 2015). 이 지역에서 성립된 최초의 국가 혹은 도시와 관련한 문헌사료의 내용으로서 고조선의 개국 관련 내용이 흥미롭다. 고조선의 성립에 대해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제1 기이(紀異) 제2 고조선조에는 환인(桓因)의 차자(次子) 환웅(桓雄)이 하늘에서 내려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 신단수(神檀樹) 아래 신시(神市)라 이르고 환웅을 천왕(天王)이라 하였고, 마침내 꿈에서 인간으로 화한 웅녀(熊女)과 결혼하여 고조선의 첫 왕이 된 단군왕검(檀君王儉)을 낳았다는 것이다. 3000명이라는



<도 4> 극동아시아 농렵구

인구의 규모, 신단수라는 제의적 성격을 풍기는 장소, 천왕, 신시 등의 요소는 중국이나 도시 출현 과정의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삼국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삼국지(三國志)』 동이(東夷)·한전(韓傳)에는 당시의 정치체인 ‘국(國)’의 중심취락 ‘국읍(國邑)’에는 천신(天神)에 제사하는 천군(天君)이 있고, 소도(蘇塗)라 부르는 별읍(別邑)이 있으니 부도(浮屠), 즉 불교와 유사하다’고 하여 국 단위 정치체의 통합중추 역시 제의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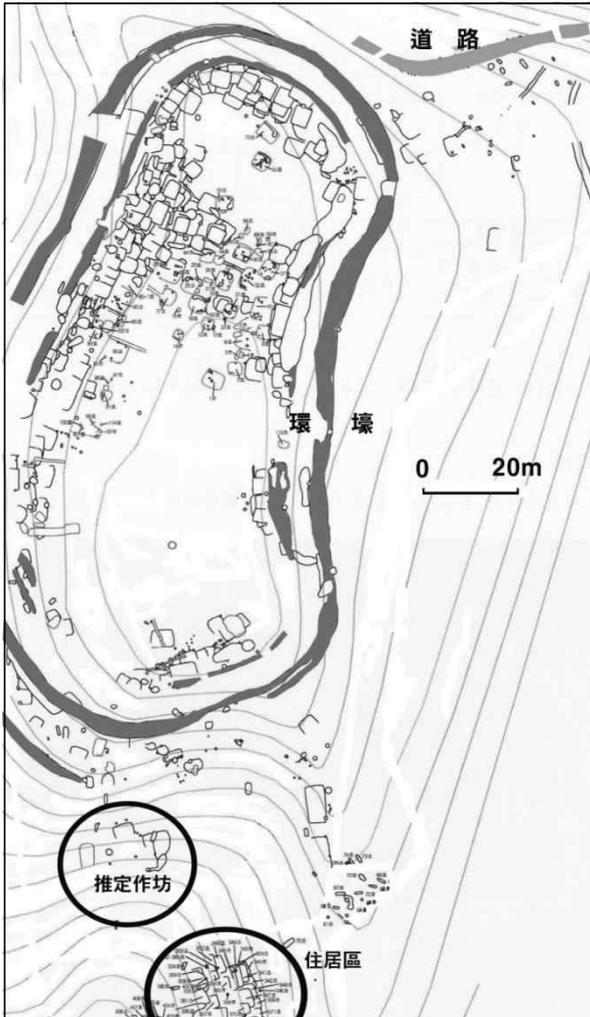
한반도에서 도시가 성립되는 과정은 국가 정치체의 성립과 같은 것은 물론이다. 고조선의 도성과 관련하여 그 최후의 단계에 해당되는 위만조선(衛滿朝鮮)의 왕검성은 대체로 지금의 평양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물론 고고학적 실마리조차 아직 불명확하고, 최초의 성립 지점과 형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를 제외하면 삼국의 중심취락, 즉 도성이 한반도 고대 도시의 모습인 셈이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국가 정치체의 성립과

더불어 그 중심취락은 성벽을 구비한 도시로 나타나고 있는 보편성은 한반도 삼국에서도 적용된다.

최근까지 드러난 고고학자료에 의해 도시 출현과정을 상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본격화와 성공의 결과로서 잉여(剩餘)가 발생하고, 이는 인구성장과 더불어 취락의 확대 및 분화로 이어졌다. 대략 기원전 15~13세기 무렵에 본격화된 농업이 생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기원전 8세기를 전후하여 논농사로 대표되는 집약농경의 출현과 함께 토지 자원을 둘러싼 점유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 결과 취락 간 혹은 취락집단 간 갈등이 평화적 혹은 폭력적으로 해결되곤 하였다. 이 무렵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지석묘(支石墓)로 대표되는 거석분(巨石墳) 혹은 묘역(墓域)의 등장과 부장품으로서 석검이나 동검의 등장이다.

갈등을 성공적으로 조정 해결하는 능력을 인정받은 유력개인이나 그가 속한 씨족의 정치체 내 의사결정 권위가 제고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제의권으로 대표되는 정치체 내 의사결정권이 특정 취락 혹은 가계집단에 귀속되는 양상은 청동제 의기(儀器)를 비롯한 다수의 청동기를 부장한 무덤의 출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대개 사회적 혼란은 권력 탄생의 호기(好機)인 것이다.



<도 5> 원삼국시기 국읍의 구조 : 홍성 석택리  
소국의 국읍을 석택리유형 취락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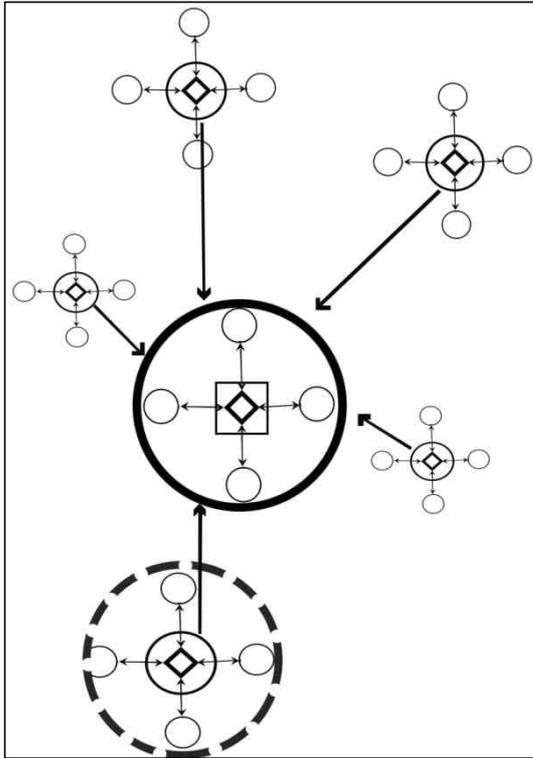
250~300년 사이 마한 소국 가운데 백제국(百濟國)은 대방군(帶方郡)과 밀접한 정치적 연계를 통해 여타 소국에 비해 빨리 국가 단계로 성장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군현으로 통하는 광역 교역망을 장악하여 원거리 교섭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국가 성립 및 성장은 결국 주변의 소국 정치체들을 통합하는 과정이었다 할 것인데, 소국들의 규모나 통합정도가 동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여하하였든 백제국이 주변의 소국들을 신속히 통합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마한연맹을 잘 활용한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 온조26·27년조에는 백제가 마한을 병탄(併吞)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마한이 점차 쇠약해지고 위아래 마음이 달라져 그 세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는데, 만약 다른 곳에서 마한을 아우르면 백제국은 순망치한(唇亡齒寒)의 형국이 되어 돌

일단 형성된 권위나 권력은 확대 재생산 되기 마련이다. 혈연 이외에는 없던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위계화가 진전되고 그 결과 토지나 농업생산물과 같은 사회적 중요성을 가진 자원에의 접근도 차별화 계층화되기에 이른다. 취락 간 규모나 잉여 저장 정도의 차이가 비교적 분명해지는 단계는 문헌사료상 ‘국’으로 표현된 다수의 정치체가 병존 하던 시기에 해당될 것이다. 문헌사료에 의하면 마한지역 54개국, 진·변한이 각 12개국 등으로 대체로 한반도 중부이남 지역에 78개 가량 정치체가 존재한 셈이다.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수록된 조선시대 전통 읍(邑)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2~3개의 군·현이 원삼국 시대 국(國)의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고고학자료로 알려진 중서부지역 원삼국시대 취락유형 가운데 상위 유형은 ‘주거지+저장시설+수공업생산시설+분묘+방어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방어시설은 흔히 ‘환호’라 부르는 것이지만 인위적으로 물을 채우지는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위취락을 소국의 국읍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대략 지금의 읍·면과 전통적인 인구 밀집지역에 해당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시 상위취락의 전모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충남 홍성 석택리(石宅里)에서 확인된 바 있어 필자는 원삼국시대

이킬 수 없음을, 남보다 먼저 마한을 취하는 것만 못하다. 이에 왕이 전렵(田獵)을 핑계로



<도 6> 백제의 국가 성장과 주변 정치체 통합

몰래 마한의 국읍을 병탄하였다. 그때 원산(圓山)·금현(錦峴) 두 성이 항복하지 않았지만, 이듬해 마침내 항복함에 그 백성을 한산(漢山) 북으로 옮겼다. 이로써 마침내 마한이 멸하였다'라는 것이다. 여기의 마한은 물론 마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읍을 병탄하는 것으로 보면 마한 지역의 소국임이 분명한데, 그를 마한과 동일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마한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지만 위의 기사내용으로 보는 한 특정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통합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특정국은 마한의 맹주(盟主) 목지국(目支國)일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다. 목지국의 구체적인 위치비정에 대해서는 천안·아산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견해가 유력한데, 필자에 의한 마한 소국 비정 안(案)에 따르면 목지국 주변에는 광역한 범위에 걸쳐 비정되는 소국이 없으며, 한강유역의 백제국과 맞닿아 있다. 이로써 마한의 맹주 목지국은 결국 상당한 정도로 정치·사회적 통합에 도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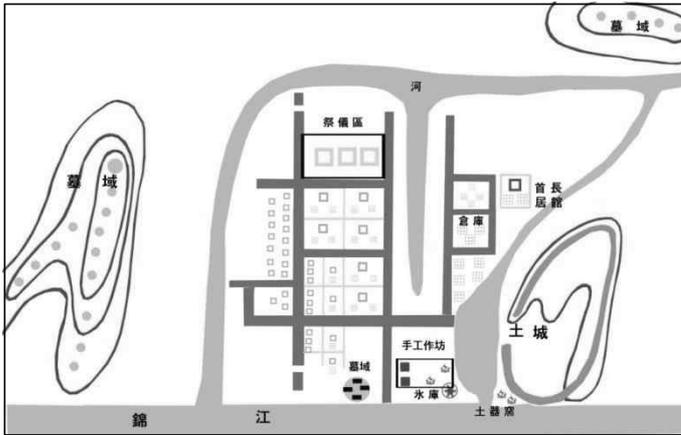
마한 맹주국인 목지국을 통합한 백제국의 위상은 그 이전의 소국과는 달라졌고, 그 중심 취락은 소국의 국읍이 아니라 여러 소국들을 아우른 새로운 국가 단계 사회의 도성이 된 것이다. 도성은 종전 각 소국의 국읍을 단순 통합한 것 이상의 다양한 기능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중국의 예를 보면 국가 성립 시기의 도성은 크게 중심구·거민(居民)생활구·묘역이나 기타 수공업지구 등으로 구성되는데, 중심구에는 궁전구 혹은 궁성(宮城)·귀족거주구·주동(鑄銅)작방·제사(祭祀)구 등이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董琦 2006). 정치체간 통합의 핵심은 재분배(再分配)체제의 통합 및 재편이라 할 수 있다(도 3 참조). 그를 통해 경제적 종속성 및 의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 통합의 관건일 것이다. 그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수취(收取)와 재분배를 통해 달성되므로 유통망과 시(市)를 장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周禮·考工記·匠人營國』에서 ‘국(國)’이 갖추어야 할 필수시설로서 조(朝)와 함께 시(市)를 들고 있는 것(面朝後市)은 그러한 측면을 잘 말해주고 있다.

국가 성립 이후 국가의 영토확장 혹은 성장과 더불어 도성 이외에도 도시가 등장하기에 이른다. 이를 지방도시라 한다. 지금까지 고고학자료로 알려진 지방도시는 세종시 나성리유적으로 대표되는데, 최근 각지에서 점차 그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국가의 기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중앙집권력의 확대 재생산이라 할 수 있는데, 교통과 통신이 지금과 같지 않은 고대에 있어서 영토의 확장은 집권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도성과 별도로 그에 버금하는 역할을 하는 배도(陪都)가 설치되었다. 천도 이전의 옛 도성이나 중요한 지방 거점에 배도가 설치된 예가 많으며, 신라의 경우 치우친 도성의 위치를 보완하기 위해 5개의 소경(小京)을 설치한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인류가 취락 주변에 흙으로 쌓아 올린 담장 형태의 방어시설을 고안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까지 고고학자료로 알려진 대부분의 성원취락은



<도 7> 백제 지방도시 공간 구조 모식도(나성리유적)

국가라는 새로운 계층사회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사람들 사이 그리고 취락들 사이에 의존성은 높아 가고 혈연적인 관계의 범위를 넘어선 대규모 취락에서 지연(地緣)이 더욱 중요한 유대감 내지 귀속감의 기준이 되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먼저 성립된 도시국가들이 저마다의 고유한 신(神)을 가지게 된 데에는 어찌 보면 혈연을 초월한 새로운 지연 사회에 거주하게 된 도시적 주민의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념적 장치였을 것이다.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러한 이념 장치로서 토탐이나 특정 인물의 천부적(天賦的) 신이성(神異性)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단군(檀君)신화로 이해하고 있는 한반도 지역 최초 국가 형성과정에서 천부적 신이성을 가지고 탄생한 단군이 ‘신시(神市)’를 세운 것 역시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국가 단계 정치체의 최고 의사결정은 특정 혈연집단 소속 유력개인에 위임되었으며, 그에 따라 천하의 의사결정, 즉 ‘왕(王)’은 특정 가(家)의 소관이기도 하다. 한자 문화권에서 그러한 정치체를 ‘국가(國家)’라고 부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는 국가의 중심취락에는 항상 왕의 거소인 궁이 그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였다. 국가 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인적 물적 토대인 중심취락을 도성(都城)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자급자족적인 일차생산에서 벗어나 특정 전문적 직능을 발휘하는 도시적 주민이 집주한다. 이렇게 볼 때 도성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왕의 거소로서 궁전(宮殿)구역 혹은 궁성(宮城)과 도시적 주민의 거주구로서 민리(民里)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고대국가의 성립기에도 역시 중심취락 주변에 성벽을 두른 성원취락이 등장하는 역사적 보편성이 관찰된다. 앞선 원삼국시대의 ‘국(國)’의 거수(巨帥)들이 일반민들과 ‘잡거(雜居)’하던 것과 달리 왕의 전용 거주구인 궁전이 출현하였다. 이런 점에서 궁의 존재 및 그것의 민리와의 분리는 국가 단계 도성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성립이후 부단히 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인류 역사상 스스로 영토 즉, 공간적 토대를 축소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고대에 있어 국가의 성장은 곧 영토의 확장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대체로 먼저 국가 단계로 진입한 정치체가 후발 정치체를 병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방 편제 과정이기도 한데, 이 과정에서 도성 이외의 지방성이 출현한다. 그리고 인접 정치체 통합과정이나 그 이후 새로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권력으로서 군경(軍警)인데, 그와 관련된 시설 가운데 하나가 관방성(關防城)이다. 한편 수취는 인체의 혈류와 마찬가지로 국가 체제를 유지함에 있어 필수적이다. 수취체제는 시대마다 구체적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 국가 성장과정에서 수반되는 중요한 시설 가운데 하나가 관창(官倉)으로 대표되는 수취체제인데, 그와 관련된 거점이 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 III. 외곽과 나성

나성(羅城)은 일반적으로 그 내부의 자성(子城)을 감싸고 있는 보다 큰 규모의 성벽을 말한다. 사전(辭典) 용례(商務印書館 1979 : 2487)를 보면, 나성은 “방어력(防禦力)을 더욱 높이기 위해 성장(城牆) 외부에 덧붙인 소성권(小城圈)”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성과 외곽성은 출현 과정이나 본래의 기능에서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중국 정사에 ‘나성(羅城)’의 용례를 검색해 보면 약 33개소가 확인되는데, 그 가운데 본문에 쓰인 가장 이른 예는 554년에 완성된 『위서(魏書)』이다. 그 내용을 보면 모두 지방의 ‘국(國)’이나 주치(州治) 혹은 그에 준하는 규모의 성(城)의 시설과 관련된다<sup>2)</sup>. 남조 양(梁) 배수(裴邃)가 북위의 수춘(壽春 : 현재의 안휘성 六安市 壽春鎮)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그 나성에 침입한 사실, 북위 말년 6진기의(起義) 과정에서 하북 정주성(定州城)이 반군의 공격을 받아 그 나성이 뚫린 사실, 그리고 515년 임성국(任城國) 치소(지금의 산둥성 棗莊市 微山縣)의 나성이 함락된 사실 등이 그것이다.

위서보다 성서(成書) 시점이 늦은 『양서(梁書)』에도 모두 3개소에서 ‘나성’ 용례가 확인된다<sup>3)</sup>. 양서는 수(隋) 요찰(姚察 : 533~606년) 및 그 아들 당(唐) 요사렴(姚思廉 : 557~637년)에 의해 636년에 완성되었다. 그 가운데 “수양성(壽陽城) 나성”은 진술한 양 배수가 공략한 위서의 “수춘” 나성과 동일한 곳이다. 나머지 2예는 모두 후경(侯景)의 난과 관련하여 영주(郢州 : 지금의 湖北 武漢市 武昌) 나성을 회복한 사실, 그리고 후경의 아들 감(鑑)이 합비성(合肥城) 나성을 공격한 사실 등이다. 양서의 용례 역시 지방의 주성급(州城級) 이하의 방어용 나성을 의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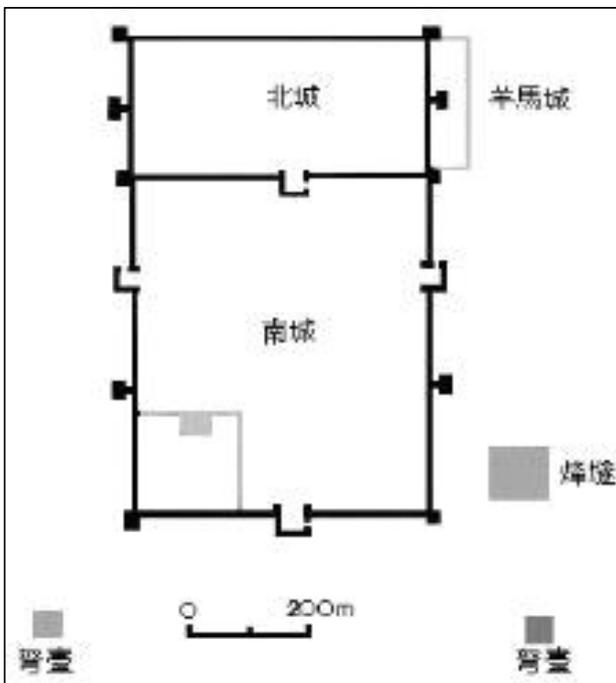
한편 당 위징(魏徵)이 636년에 완성한 『수서(隋書)』에는 ‘나곽(羅郭)’의 용례가 보인다<sup>4)</sup>. 회양군성(淮陽郡城)의 나곽(羅郭)에 구멍이 뚫려 여장(女牆)에 이르렀는데 그 속에서 잉어가 있었다는 진기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원문에는 “羅郎郭”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교주(校註)에는 ‘郎’은 연문(衍文)이라는 점과 아울러 “옛날에 외성을 일컬어 나성 혹은 나곽이라 하였다(古稱外城爲羅城或羅郭)”고 하였다. 이 교주가 어느 시기에 부기(附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세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수서가 성서된 636년 무렵에는 ‘나곽(羅郭)’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당송(唐宋) 이후에 편찬된 중국 정사 기사에는 ‘나성’ 용례가 대부분 지방 도시의 외곽을 지칭하는 가운데 등장하고 있으나, 타국의 도성(都城)이나 이궁(離宮)의 외곽을 의미하는 용

- 2) ① 魏書 列傳 第 46 楊播 子侃  
瓜花等以期契不會，便相告發，伏辜者十數家。邃後竟襲壽春，入羅城而退。遂列營於黎漿、梁城，日夕鈔掠。稚乃奏侃爲統軍。  
② 魏書 列傳 第 46 楊播 椿弟津  
定州危急，(中略)，賊攻州城東面，已入羅城，刺史閉小城東門，城中慄擾，不敢出戰。  
③ 魏書 列傳 第 92, 烈女 80 任城國太妃孟氏  
任城國太妃孟氏，(中略)任城王澄之母。澄爲揚州之日，率衆出討。於後賊帥姜慶眞陰結逆黨，襲陷羅城。
- 3) ① 梁書 本紀 第 3 武帝 蕭衍 下  
(普通 5年 9月)壬戌，宣毅將軍裴邃襲壽陽，入羅城，弗剋。  
② 梁書 列傳 第 39 王僧辯  
僧辯仍督諸軍渡江攻郢，即入羅城。(中略)景既聞魯山已沒，郢鎮復失羅城，乃率餘衆倍道歸建業。  
③ 梁書 列傳 第 50 侯景  
景二年正月朔，(中略)，侯子鑿(中略)至合肥，攻羅城，剋之。
- 4) 隋書 志 第18 五行 下 廳咎 魚孽  
大業十二年，淮陽郡驅人入子城，鑿斷羅郎郭。(校：羅郎郭 古稱外城爲羅城或羅郭。「郎」字疑衍。)

례도 있어 주목된다. 945년 오대(五代) 후진(後晉)의 유구(劉昫 : 887~946년)가 편찬한 『구당서(舊唐書)』 열전(列傳) 제 147에는 남만(南蠻) 서남만(西南蠻) 표국(驃國 : 지금의 미얀마 이라와디강 유역)의 도성을 설명하면서 “그 나성은 벽돌로 쌓았다(其羅城構以磚甃), 둘레는 160리다(周一百六十里)”라 하고 있으며, 1060년 송(宋) 구양수(歐陽脩)와 송기(宋祁)가 편찬한 『신당서(新唐書)』 지(志) 제 27 지리(地理) 1 경조부(京兆府) 경조군(京兆郡)에 언급된 화청궁(華清宮) 관련 기사에 “여산 아래 있다. 정관 18년(644년)에 처음 두었다. 함형 2년(671년) 처음으로 온천궁이라 하였다. …(중략)… 온천을 고쳐 화청궁이라 하였다. 온천을 연못으로 만들고, 주위 산에 궁실을 배치하였다. 또 나성을 축조하여 백사와 십택을 두었다(有宮在驪山下, 貞觀十八年置, 咸亨二年始名溫泉宮…(중략)… 更溫泉曰華清宮, 宮治湯井爲池, 環山列宮室, 又築羅城, 置百司及十宅)”라 한 예가 있다.

자국의 도성 외곽에서도 ‘나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송 설거정(薛居正 : 912~981년) 등에 의해 974년에 완성된 『구오대사(舊五代史)』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sup>5)</sup>. 지금의 개봉(開封)에 외곽성을 축조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도 8> 감숙(甘肅) 고대(高臺) 낙타성(駱駝城)  
(李并成 2006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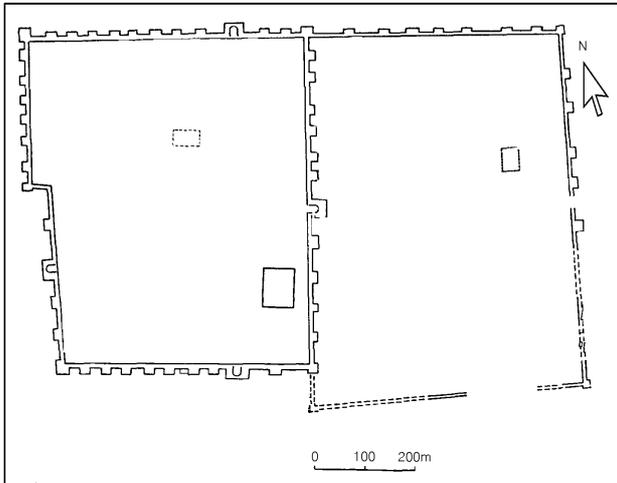
지킨 데(築城衛君, 造郭以守民)”서 성곽제(城郭制)가 시작되었다는 중원(中原) 기원 성곽제와는 그 기원이 같지 않을 것이라 본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북량(北凉) 정권이 태동한 곳으로도 이해되는 낙타성(駱駝城)의 구조이다. 이 성의 초축 시점은 동한 영제(靈帝) 4년(181년)으로 비정되며, 주천군(酒泉郡)

이상의 내용을 통해 ‘나성’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북위가 동위(東魏)와 서위(西魏)로 분열된 6세기 중엽경일 가능성이 높다. 그 무렵 나성은 주군급 치성(治城)에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가축(加築)한 외성을 의미하였다. 이후 7세기 전반의 초당(初唐) 시기까지 ‘나곽’과 ‘나성’이 같은 의미로 병용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10세기 중엽 경에 이르러 타국의 도성이나 이곽의 외곽도 ‘나성’이라 칭하게 되었고, 10세기 후반 경에는 자국의 도성 외곽도 ‘나성’이라 부르게 된다.

이러한 나성 용례의 시기적 변천과 더불어, 나성과 외곽은 비록 실제 의미상으로는 다르지 않으나, 그 기원이 서로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동한 조엽(趙曄 : ? ~83년)이 편찬한 『오월춘추(吳越春秋)』에서 하(夏) 우(禹)의 부(父) 곤(鯀)이 “성을 쌓아 군왕을 보위하고, 곽을 만들어 민을

5) ① 後周書 第 3 紀 第 3 太祖 郭威 廣順 2年(952)  
修東京羅城, 凡役丁夫五萬五千, 兩旬而罷  
② 後周書 第 6 紀 第 2 世宗 柴榮 顯德 2年(955)  
乙卯, 詔於京城四面, 別築羅城  
③ 後周書 第 7 紀 第 3 世宗 柴榮 顯德 3年  
發丁夫十萬城京師羅城



<도 9> 섬서(陝西) 혁련발발(赫連勃勃) 하 동만성(統萬城)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1981 수정)

산하의 표시현성(表是縣城)이었다. 이후 전량(前涼) 장무(張茂) 집정시기(320~324년)에는 건강군(建康郡)의 군치(郡治)이자 표시현성이 되었다. 후량(後涼)의 건강태수(建康太守)였던 단업(段業)이 397년 이성을 도읍으로 정하고 자립하고 399년 장액(張掖)으로 천도하였으나 401년 장액태수 저거몽손(沮渠蒙遜)에 멸망되고 국호가 북량(北涼)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내력을 감안하면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이성을 통해 비한족(非漢族) 정권의 도성 면모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성의 구조는 남·북 2곽(郭)이 병렬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성 성벽 외부에는 양마장(羊馬墻)이 부가되어 있으나, 그 축조 시기는 미상이어서 북량 태동기와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아직 어렵고(李并成 2002), 남성의 남서쪽에 또 다른 곽 역시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李并成 2006). 2012년 필자를 포함한 동아시아비교도성연구회 답사 시에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기존에 보고된 성의 평면도(李并成 2006)와 종합해 필자가 작성한 성의 구조는 [도 8]과 같다.

유목민족의 도성 가운데 낙타성과 유사한 2곽 병렬 구조를 가진 것으로는 흉노(匈奴)의 혁련발발(赫連勃勃)이 건국한 하(夏) 도성 통만성(統萬城)을 들 수 있는데, 418년에 축조가 완성된 후 427년 북위에 멸망되기까지의 도성이었다(도9 참조). 동·서 2성 병렬식으로 되어 있는데, 동성(737~774×504~551m)은 한대(漢代) 상군(上郡) 사연성(奢延城)을 모태로 하였고 서성(692~721×500~557m)은 그에 부가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동성에는 관서(官署)가 위치하고 서성에는 궁성(宮城)이 있는 것으로 비정되는데,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외곽은 없다(劉景純 2004). 송(宋) 태종(太宗) 태평흥국(太平興國) 연간(976~983년)에 완성된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 권 제 37 하주조(夏州條)에 “나성동문왈봉양(羅城東門曰鳳陽)”이라 하므로, 동성(東城)이 나성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낙타성과 통만성처럼 최고지배자의 위성(圍城), 즉 궁성과 연결하여 병렬로 배치된 외성을 ‘나성’이라 하고, 궁성 사방을 포괄하는 외성을 ‘곽’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나성’의 기원은 전통적인 중원의 내성외곽과 다른 계통으로서 비한족 또는 유목민족의 도성 형태와 관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필자는 내외성병렬(內外城並列) 구조의 외성을 나성이라 하고 내성외곽(內城外郭) 구조의 외성을 곽이라 부르고자 한다.

#### IV. 동아시아 고대 도시의 유형

중국 역대 도성의 양상과 변천에 대해서는 필자도 그간 몇 차례 소개한 바 있으며(朴淳發 2010), 궁과 민리의 공간적인 배치 양상을 기준으로 시기적인 변천상을 살펴본 바(朴淳發 2013a ; 2013b ; 2014)도 있다. 필자의 최근 견해(朴淳發 2014)에 따르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고대 도성은 다음과 같은 7개의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1유형은 지배층의 거소(居所)로서 궁(宮)이 아직 민리와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서

도사(陶寺)유적이 대표적이다. 도성의 주민들이 모두 성벽취락 내부에만 거주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성내 주민들의 성격 역시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아직 궁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이 단계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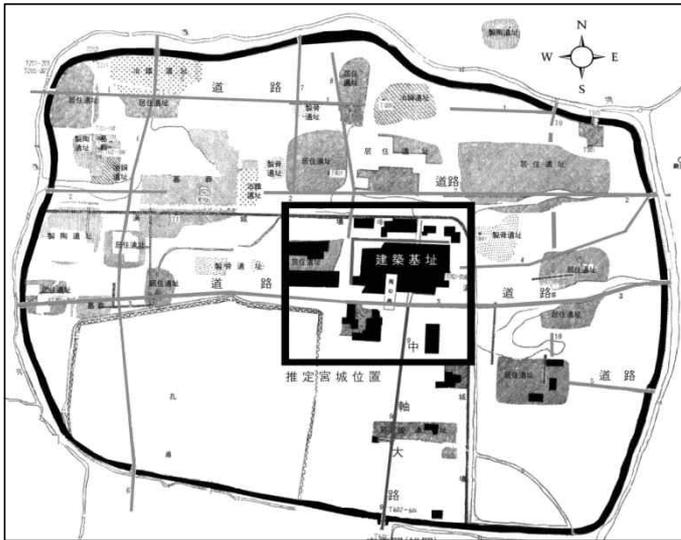


<도 10> 2유형 : 하(夏) 중반기 도성 이리두(二里頭)  
(許宏等 2004)

2유형은 궁이 자체의 방어시설을 구비하여 독립된 궁성형태로 등장하는 것으로서 하(夏)의 이리두(二里頭)가 전형이다. 궁성 주변에는 취락형태의 도성 주민 거주역이 모여 있어 이른바 읍리(畝里) 형태의 민리가 등장하고 있다. '리(里)'라는 글자 자체는 주대(周代)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앞서 2유형에서 이미 민리가 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유형은 읍리 형태의 주민 가운데 일부, 즉 대체로 상위층과 수공장인 등 직능 집단이 도성 외곽내부에 배치된, 내성의외곽형(內城外郭型) 도성이다. 연사(偃師) 상성(商城)이 전형적인 예이다. 산둥 곡부(曲阜)의 노국(魯國)도성이나 베이징 서주(曲阜)의 노국(魯國)도성이나 베이징 서주

연국(燕國) 도성 등 서주 시기의 제후국 도성도 내성의외곽형을 유지하고 있어 서주 시기의 일반적인 도성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서주대에는 배도(陪都)인 낙양(雒陽)의 성주(成周)와 같이 성벽 형태의 외곽 없이 산천등 자연지세를 경계로 다수의 거민구가 배치된 예도 있는데, 이는 전술한 2유형의 지속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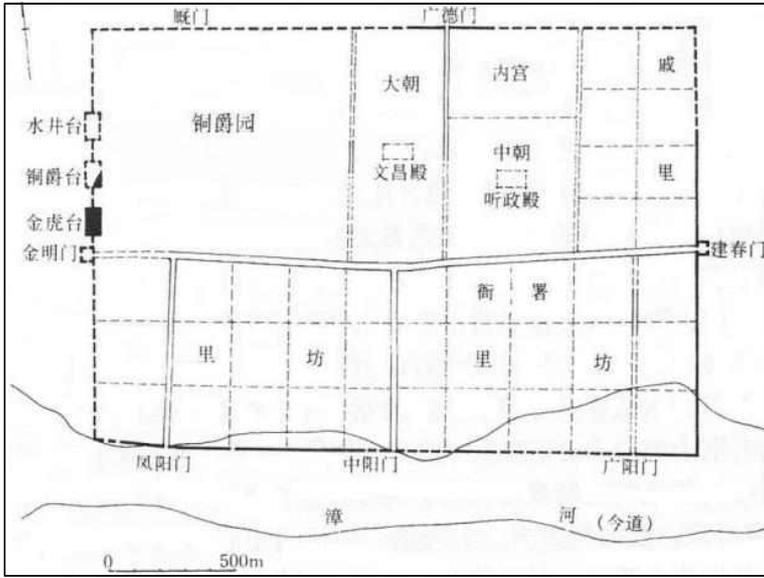
<도 11> 3유형 : 주(周) 노국(魯國) 도성(山東 曲阜)  
(田岸 1982 토대로 필자 작성)

4유형은 궁성이 외곽의 중앙에 위치하던 3유형과 달리 모서리의 한 부분에 치우쳐 독립성이 높아진 형태이다. 거민구 자체가 하나의 성벽취락으로 확대된 모습으로 춘추 전국시대의 도성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5유형은 전국시대가 마감되면서 진(秦)의 함양(咸陽) 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다수의 궁성 주변에 민리들이 광범위하게 산재하는 형태이다. 궁성과 민리의 관계상으로는 2유형과 다르지 않으나 도성 민리의 규모상으로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6유형은 조위(曹魏) 업성(鄴城)에서 비롯된 새로운 유형으로서 단일 궁

성이 도성의 북단에 위치하고 그 남쪽에 가로망을 경계로 한 격자상의 민리가 배치된다. 이후 동아시아 고대 도성 민리 구획의 전형으로 자리 잡아 중국은 물론 한반도·일본열도 등의 고대



<도 12> 6유형 : 조위(曹魏) 업성(鄴城) (賀業鉅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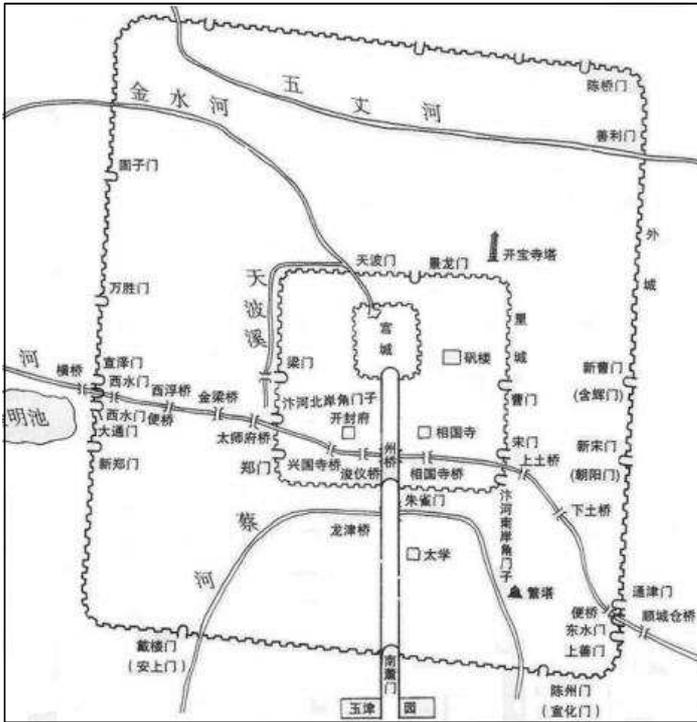
도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유형은 이전의 도성에서 그 기원을 찾기 어려워 그 기원을 둘러싸고 西域 등 서방 기원설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아직 설득력 있는 정설이 없다. 그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고대 인도의 도시구조이다.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저작으로 추정되는 인도의 아르타사스트라(Arthashastra: 實利論)에는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방형의 평면으로 성을 쌓고 성의 바깥에는 3중의 해자를 두른 것으로 묘

사되어 있다. 성내에는 동서 및 남북방향으로 각 3조의 도로를 배치하고, 도로와 성벽이 만나는 지점에 각각 3개의 성문이 설치되는데, 각 성벽에 난 3개 성문 가운데 하나씩을 중심문으로 한다. 그리고 왕궁 혹은 지배자의 거주지는 성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사원과 장인 거주구 등도 엄격한 규칙에 따라 정연하게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형태나 공간 구획의 내용은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의 장인영국(匠人營國)조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나, 직능별 거주구역의 설정 등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상호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장차의 검토 과제가 된다.

7유형은 6유형 외부에 다시 외곽이 부가됨으로써 궁성이 전체 도성의 중앙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서 송(宋) 동경성(東京城)에서 비롯된다. 송 동경성에서 시작되어 이후 금(金) 중도(中都)·원(元) 대도(大都)·명청(明清) 북경성(北京城) 등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유형의 도성 형태이므로, 이를 중앙궁곽융합형(中央宮郭融合型)이라는 별도의 유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태적인 차이와 더불어 6유형 이래 지속된 봉폐형(封閉型) 민리, 즉 리방제(里坊制)가 개방형의 방향제(坊巷制)로 전환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획기가 된다. 그 밖에 황궁의 전각 평면형이 이른바 ‘工’자형 배치를 보이는 점이나 황궁 정남문에서 내성 남문에 이르는 광장에 이른바 ‘천보랑(千步廊)’ 혹은 어랑(御廊)이 만들어지는 등 전술한 바와 같이 이후의 역대 왕조 궁성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구조들이 성립되었다. 그자형 궁전 전각배치는 본래 당대의 지방 관아의 전각배치에 기인된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이제 한반도의 고대 도시로서 도성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백제 한성시기의 도성은 풍납토성의 경우 4세기대에 3유형에서 6유형으로 전환이 관찰되지만, 동시에 왕(王) 전용의 궁성 성격이 농후한 몽촌토성과 조합되어 4유형의 양상도 지속되고 있다. 몽촌토성이 가진 군사적 방어력을 고려하면 민리 중심의 성벽취락인 풍납토성과 관방이 결합된 모습도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최근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연기 나성리유적과 같은 한성기 지방도시의 구조와 유사성이 관찰된다. 가로망의 출현과 민리의 존재로 보면 6유형과 유사하므로 유사 6유형으로 볼 수 있다. 웅진기 도성은 선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 6유형의 지방도시를 도성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외곽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기본



<도 13> 7유형 : 송(宋) 동경성(東京城) (劉春迎 2006)

일본은 5~6세기에 이르기까지 각지에서 환호 등의 방어시설을 구비한 수장 거관이 발견되다가 아스카(飛鳥)시대(592~710년) 중엽경 왕궁 및 그 주변에 분산된 형태의 관서·제의시설·수공업 작방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미야토(宮都)가 나타난다. 문헌의 내용으로 보면 추고(推古)기의 아스카고하리타(飛鳥小墾田)宮(603년)이 궁도의 효시가 되나, 고고학자료상으로는 전기 나니와노미야(難波宮 : 645년)이 가장 이르다(林部均 2001). 수장거관이나 궁도는 비록 성벽을 구비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2유형 도성과 비교된다. 왕의 교체와 더불어 궁의 위치는 부단히 이동되는데, 이를 이른바 역대천궁(歷代遷宮)이라 한다. 역대천궁이 마감되고 아스카라는 비교적 한정된 범위에 고정되기 시작하는 것은 아스카시대 이후이다. 왕궁을 비롯하여 사원·수공작방 등이 있고 그에 종사하는 도시적 주민의 거주를 추정되므로 이를 고대 도시로 이해하기도 한다(古市 晁 2002). 비록 외곽은 없지만 3유형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무튼, 민리가 왕궁과 함께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점은 694년에 세워진 후지와라(藤原)경이 가장 이른데, 이는 중국의 6유형에 해당된다.

한반도나 일본열도에서 6유형 도성이 등장하는 시점은 정치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가의 성장과 함께 결국 모두 6유형으로 전환되는 배경에는 도성 기능의 확대와 집권력의 증대라는 공통요소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적으로 6유형의 성격이 많다. 사비기는 한반도 고대 도성 가운데 최초로 등장한 전형적인 6유형에 해당된다.

한편, 동시기 고구려(朴淳發 2012b)는 집안(集安) 국내성(國內城)이 3유형에 해당되고, 평양 천도 후 장안성(長安城) 시기(586년 遷都, 593년 완성)에 6유형이 등장한다. 신라는 왕궁과 일부 민리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월성(月城)이 3유형에 해당되는데, 6세기 중후엽 월성 외부에 가로망이 개설되면서(黃仁鎬 2004) 6유형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된다. 외곽을 구비하지 않은 점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6유형과는 차이가 있으나 한성기에 등장한 유사 6유형 지방 도시의 구조와 비교될 수 있다.

## ※ 참고문헌

- 朴淳發, 2010, 『백제의 도성』, 충남대학교출판부.
- 朴淳發, 2013a, 「比較都城史の觀點からみた百濟都城の外郭」, 『東アジア都城比較の試み』, 京都.
- 朴淳發, 2013b, 「百濟 都城의 展開와 特徵」, 『백제 도성제와 주변국 도성제의 비교연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 朴淳發, 2014, 「동아시아 고대 도성 民里의 형성과 전개」, 『한국 고대 도성의 구성요소와 생산기반』,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한국고대사학회.
- 朴淳發, 2015, 「極東亞細亞 農獵區 設定」, 『百濟研究』 6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중문]

- 董琦, 2006, 「論早期都邑」, 『文物』 6期.
- 商務印書館(編), 1979, 『辭海』(第 III 冊).
- 劉景純, 2004, 「統萬城布局結構及其相關問題的探討和推測」, 『統萬城遺址綜合研究』, 三秦出版社.
- 劉春迎, 2006, 『考古開封』, 河南大學出版社.
- 李并成, 2002, 「古代城防設施-羊馬城考」, 『考古與文物』 1期.
- 李并成, 2006, 「甘肅省高臺縣駱駝城遺址新考」, 『中國歷史地理論叢』 1期.
- 田岸, 1982, 「曲阜魯城勘探」, 『文物』 12期.
- 賀業鉅, 1996, 『中國古代城市規劃史』, 中國建築工業出版社.
- 何長鳳, 1989, 「有關我國早期城市探索中的幾個問題」, 『考古與文物』 4期.
- 許宏·陳國梁·趙海濤, 2004, 「二里頭遺址聚落形態的初步考察」, 『考古』 11期.

## [일문]

- 古市 晃, 2002, 「都市の成立-古代における集住と統合中樞-」, 『都市-前近代都市論の射程-』, 青木書店.
- 都出比呂志, 1997, 「都市の形成と戦争」, 『考古學研究』 174.
- 藤田弘夫, 1993, 『都市の論理-權力はなぜ都市を必要とするか-』, 中央公論社.
- 寺崎保廣, 1995, 「古代都市論」, 『岩波講座日本通史 古代四』, 岩波書店.
- 山尾幸久, 1998, 「日本古代都市論」, 『日本古代史-都市と神殿の誕生』, 新人物往來社.
- 小澤 毅, 1997, 「古代都市『藤原京』の成立」, 『考古學研究』 175.
- 狩野 久, 1990, 『日本古代の國家と都城』, 東京大學出版會.
- 林部 均, 2001, 『古代宮都形成過程の研究』, 青木書店.
- 川西宏幸, 2003, 「都市の發生」, 『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學V(集落と都市)』, 同成社.

## [영문]

- Kwang-chih Chang, 1986, *The Archaeology of Ancient China*(4th Edition),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and London.
- Paul Wheatley, 1971, *THE ORIGINS AND CHARACTER OF THE ANCIENT CHINESE CITY Vol. 1 The City in Ancient China*, *ALDINE TRANSACTION* (Printed in 2008).
- Simon Stoddart, 1999, URBANIZATION AND STATE FORMATION, *Companion Encyclopedia of Archaeology* Edited by Graeme Barker, Vol.2, ROUTLEDGE.



---

[제2부]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

---

## 고대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

김 환 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



## 고대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

김환희<sup>1)</sup>

### <목차>

- I. 머리말
- II. 고대 도시 관련 쟁점과 유적 검토
- III. 고대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
- IV. 맺음말

### I. 머리말

정치·사회·경제 활동의 중심지인 도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주변 도시들과의 통폐합을 거치면서 거점 도시로 성장하거나 소도시로 전락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의 발전은 고대 국가의 성립과정에서도 관찰되는데, 연맹왕국단계에서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며 나타나는 도성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도성은 고대 국가의 수도로 기능하며, 지방 도시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중앙 도시라 할 수 있다.

고대 도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천도를 중심으로 도성사를 검토(全德在 2010; 김희선 2015)하거나 각 도성을 중심으로 도시 구조 및 경관을 복원(기경량 2019b; 박순발 2019; 서정석 2019; 이상준 2019; 이현숙 2019; 전용호 2019; 심상욱 2020)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의 도성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양식인 외곽의 등장에 대한 검토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양식의 등장은 자체 및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된다. 후술하겠지만 본 발표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도시 외곽은 백제 사비도성과 고구려 장안성에서만 확인되고 있는데, 6세기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 2곳 모두 계획 천도가 이루어진 도성이라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당시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변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삼국시대 도성의 구조적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고대 도시의 핵심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백제 사비도성과 고구려 장안성에서 확인되는 외곽의 등장과 관련하여, 그 등장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하고자 한다.

### II. 고대 도시 관련 쟁점과 유적 검토

도시를 크게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곤 하지만,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라 그 경계는 분명해지기도 또는 모호해지기도 한다. 물론 고대 도시의 경우에는 왕이 거주했던 곳을 중앙으로 그 외 지역은 지방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천도가 단행되면서 선정되는 지역의 이동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설정은 변화해왔다. 다만 변하지 않는 것은 왕을 중심으로 한 곳이 중앙 도시이고, 도성이라 불리는 국가의 수도이며, 왕도라는 사실이다. 한편, 이러한 용어들은 연구자

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간의 인식에 따라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고대사 자료의 고구려 용례 검토를 통해 도성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왕도였던 것으로 파악한 견해(기경량 2017: 184)가 주목된다. 또한 都와 郭, 그리고 京을 중심으로 도성 관련 용어의 검토도 진행된 바 있다(권순홍 2017: 58).

들어가기에 앞서 도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자들은 도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의 복합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시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먼저 도시가 어떤 의미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도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일정한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특정 시설물과 계층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도시 요건으로서 시민들의 기능적 전문화와 노동의 분화가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이성주 2012: 18에서 재인용)가 있는데, 이는 특정 시설물의 존재보다 생산소비와 관련된 사람들의 직능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분화된 시민들이 거주하고 특정 건물의 존재와 이를 총괄하는 도시 기획이 있더라도 도시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이성주 2012: 18)도 있다. 한편 문헌 자료의 검토를 통해 도시와 도성의 의미를 살펴보는 검토도 진행된 바 있다(박선미 2015). 이처럼 특정 요소만으로 도시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로 인정할 수 있는 도시유적들에서 나타나는 구성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면, 역으로 구성요소를 통해서 도시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자가 결합된 형태를 볼 때, 도시는 都(도읍=그 나라의 수도)과 市(시장)이 결합된 것으로, 특정 시설물과 계층을 가리키고 있다. 즉, 사람의 군집과 더불어 정치적 수장의 존재, 그리고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시장의 존재 등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중시한다면 결국 도시는 수도, 즉 도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시장이라는 경제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 용어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다음으로 도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도성은 ‘왕이 평상시 거주하는 궁성과 관부 및 그 주위를 에워싼 성곽으로, 군사적인 목적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고고학사전)’을 의미한다. 즉, 도성은 특정한 정치적 위상을 가지는 읍을 중심으로 외곽에 담장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방어 및 통치체계를 갖춘 구조를 말한다. 한자의 뜻을 풀이하면 都와 城이 결합된 것으로, 市 대신 사용된 성의 등장이 주목된다. 도읍을 감싸는 성은 경계 설정과 방어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보다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과 관련하여 성곽이라는 용어가 주목된다. 성곽은 ‘내성(內城)과 외곽(外郭)의 합성어로, 안쪽에 지배자 집단의 구역을 에워싼 벽과 그 바깥으로 피지배자 집단의 거주 공간까지 에워싼 성벽으로 구성되는 이중의 구조(고고학사전)’를 의미한다. 중국 옛 문헌인 『管子』 도지편에는 ‘안에는 성을 만들고 성 바깥에는 곽을 만든다’ 고 하여(기경량 2017: 175) 성과 곽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吳越春秋』에는 ‘성을 쌓아 군왕을 보위하고 곽을 지어 백성을 지킨다. 이것이 성곽의 시초였다’ 고 하여 성과 곽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박순발 2019: 217). 여기서 성곽은 도성의 하나의 구성요소로 여겨지지만, 도성이 아닌 일반 도시에서도 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도성만을 위한 시설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 발표에서 다루는 고대 국가의 도성에서도 성은 이른 시기의 도성부터 나타나고 있지만, 곽은 6세기에 조성된 백제 사비도성과 고구려 장안성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한다. 신라에서는 곽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광의 축조는 6세기대 계획 천도 과정에서 기획된 시설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용어는 어떤 시설물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도시에는 시장이, 도성에는 성이, 성곽에는 성과 광이 항상 존재해야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도시와 도성이 혼재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념상으로 이해할 때 각 용어가 포괄하는 범위는 도시, 도성, 성곽 순으로 좁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고대 도시의 조사·연구는 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국시대 도성의 구성요소 검토를 통해 역으로 고대 도시 경관의 구성요소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 1. 고구려

고구려의 도성 체계는 평상시 거주용인 평지성과 비상시 방어용인 산성의 세트 구조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구려 도성 연구는 평지성과 산성을 어떤 유적에 비정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초기 도성은 환인지역의 하고성자성과 오녀산성, 중기 도성은 집안지역의 국내성과 환도산성, 후기 도성은 평양지역의 안학궁과 대성산성으로 위치가 알려져 있다. 다만 고구려 도성 유적의 발굴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후대 개발로 인해 원형이 상당 부분 훼손되어 당시 도성의 모습을 복원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 속에서 도성의 위치 비정, 축조시점, 구조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절에서는 고구려 도성의 구조와 구성요소를 검토하기에 앞서, 도시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당시 중심 도시인 도성이 어디였으며, 그 시기는 언제였는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성별 쟁점 몇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초기 도성에서 쟁점은 졸본성을 어느 유적에 비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존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하고성자성, 나합성, 고령묘자촌 일대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고성자성을 졸본성으로 비정하는 견해(박순발 2012: 46-49; 한국고고학회 2011)가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졸본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를 세웠다.”는 광개토왕비문 기록에 따르면 졸본성은 오녀산성의 동쪽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하고성자성은 오녀산성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록과 실제 방위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하고성자성의 발굴조사 결과 내부에서 궁전으로 볼만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다(기경량 2019a: 49). 한편, 위에서 언급된 위치에 대한 기록을 적극 해석하여 오녀산성 동쪽에 위치한 나합성을 졸본성으로 보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나합성은 거리상 오녀산성과 지나치게 멀고, 그 사이 공간도 여러 개의 산줄기로 막혀 있어 교통이 용이하지 않으며, 주변에서 주목할만한 초기 고분군도 확인되지 않아서 졸본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기경량 2019a: 52-53). 또한 석축의 모습이 성벽으로 보기는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채집된 유물도 모두 중화민국 시기라는 점(양시은 2014: 45)을 보면, 나합성을 졸본성으로 비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최근에는 위에서 언급된 여러 문제(오녀산성과의 거리, 방위, 유력 고분군의 존재 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고령묘자촌 일대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앞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성의 실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梁志龍 2008: 63)은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한편 고령묘자촌 일대의 지형 조건을 검토한 결과 깊은 골짜기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중심지로 기능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기경량 2019b: 96-97)도 제시되었다. 이처럼 졸본성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평지성이 아닌 오녀산성 자체에 주목하여, 도성의 중심 공간이 산성인 오녀산성이고 평지의 거처는 임시로 머무는 보조적 존재로 인식하면서 오녀산성이 곧 고구려의 왕성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기경량 2019a: 62-63).

중기 도성에서 쟁점은 졸본에서 집안으로의 천도 시점과 국내성의 축조 시점에 대한 것이다. 기존 연구내용들을 살펴보면, 해당 시기의 평지성이 국내성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천도 시점에 대해서는 유리왕대(B.C.19~A.D.18), 태조왕대(53~146), 신대왕대(165~179), 산상왕대(197~227) 등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기경량 2019b: 100). 각각의 의견을 정리하기에는 양이 방대하여 본 절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유리왕대 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한 것 같다(박순발 2012: 56). 한편 국내성에서 조사된 고고자료를 토대로 산상왕대로 보는 견해 등 연구자간 다양하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여호규 2005: 69; 양시은 2014: 53).

다음으로 국내성의 축조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축조 시점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고국원왕 12(342)년조에 “봄 이월에 환도성을 수축하고 또 국내성을 축조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발굴조사에서도 석축 성벽에서 니질 태토의 토기 파편이 출토되어, 축조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양시은 2014: 51). 한편 권운문와 당과 층위양상을 통해서, 4세기 전반에는 국내성 내부 전체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그 상한은 3세기 중반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여호규 2012: 68). 그러나 앞서 살펴본 집안으로의 천도 시점을 B.C. 1세기 유리왕대로 상정하고, 국내성의 축조 시점을 4세기대로 상정한다면 두 시점간 공백의 시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환도산성과 함께 인식하여 적어도 3세기 중반에서 4세기 중반까지 집안지역에 평지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환도산성이 왕성으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기경량 2019b: 106)가 주목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오녀산성도 평지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왕성으로의 역할과 위상을 가졌다고 보는 것과 같은 인식이다. 그러나 환도산성 역시 내부에서 확인된 궁전지와 팔각형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5세기대 이후로 편년되어(양시은 2014: 54) 여전히 논란이 있다.

마지막으로 후기 도성의 쟁점은 안학궁의 성격과 축조 시점에 대한 것이다. 북한 학계에서는 전기 평양성의 산성인 대성산성과 함께 구성된 평지성으로 보고 있다(양시은 2014: 57에서 재인용). 그러나 안학궁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와당의 문양과 형태가 청암리토성 출토 와당보다 늦다는 점, 고구려에서 유일하게 암막새가 출토되는 점, 5세기 말~6세기 초로 편년되는 고구려 황혈식석실분을 파괴하고 축조된 점을 통해 안학궁은 평양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박순발 2012: 73; 양시은 2014: 60). 한편 문헌기록에서 묘사되고 있는 평양성의 모습, 입지상의 설명 등을 토대로 청암리토성을 전기 평양성의 평지성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박순발 2012: 68-69). 다만 청암리토성의 발굴조사 결과에서 사찰 유구만 확인되고 있어서 성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해석의 일환으로 왕궁에서 사찰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도 한다(임기환 2007: 17-18). 반면 내부 공간의 협소하고 사찰 유구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왕성으로 기능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한다(기경량 2019b: 113). 한편, 안학궁 남쪽에서 확인되는 격자형의 구획에 대해서, 북한학계에서는 안학궁의 도시 구조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도면이나 사진 자료들이 제시된 바 없으며, 일제강점기 지적도에서도 바둑판 형태의 도로망이 확인되지 않아서 관련 자료의 확보 이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기경량 2019b: 114).

종합하면 고구려 도성 연구의 여러 문제들은 무엇보다도 자료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소략한 조사내용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발굴조사는 해석의 영역을 더욱 확장

시켰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고고자료의 부족은 도성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추후 도성의 구조를 밝힐 수 있다면 역으로 도성의 비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앞서 언급된 해당 유적들은 도성의 유무를 떠나서라도 중요 도시로 판단되기 때문에 각 성의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공통점과 차별점이 간취된다면, 역으로 성의 구성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과 문헌기록을 토대로, 고구려 성의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표 1).

먼저 발굴조사 자료를 통해 보면, 성의 구성요소에서 성, 문, 중심 건물은 규모나 구조에서 대동소이하지만 성을 구성하는 필수 구성요소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종묘 등과 같은 의례시설은 현재 환도산성에서만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이 조사자료의 확보 여부에 따른 것인지, 환도산성의 주된 성격을 보여주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도성에서 종묘와 같은 의례시설은 필수요소였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편, 도로의 경우 평지성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어서 당시 구획의 흔적을 보여주며, 특히 장안성에서 보이는 격자형 구획은 당시 도시 구획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장안성에서 등장하는 광의 존재라 할 수 있다. 결국 장안성 단계에서 광이 등장하고 격자형 도시 구획이 나타나는 등 도성 조영의 획기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일부 도시 구획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국내성의 경우에도 국내성 내에는 나부의 지배세력이 도성으로 중심으로 각 방위별로 집주하면서 경관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여호규 2012: 73)고 보기도 하지만, 실증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아직 조심스럽다는 지적도 있다(기경량 2019b: 108). 한편 지금까지 조사된 주거지의 양상을 통해 볼 때 평지성 외부의 넓은 공간에 일반민들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기경량 2019b: 109). 이처럼 고구려 성 내부에서 확인되는 구성요소는 지배층과 관련된 요소들이 주로 확인되고 있으며, 피지배층인 백성들의 거주역 등은 확인되지 않아 당시 성 내부는 백성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며, 장안성 단계가 되어야 백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성이 기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三國史記』에도 도성 내 구성요소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별궁<sup>2)</sup>, 사당<sup>3)</sup>, 종묘와 사직<sup>4)</sup>, 창고<sup>5)</sup>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살펴본 고고자료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어서 참고할만하다.

2) 『三國史記』 卷第十三 高句麗本紀 第一 琉璃王 三年, 秋七月, 作離宮於鶻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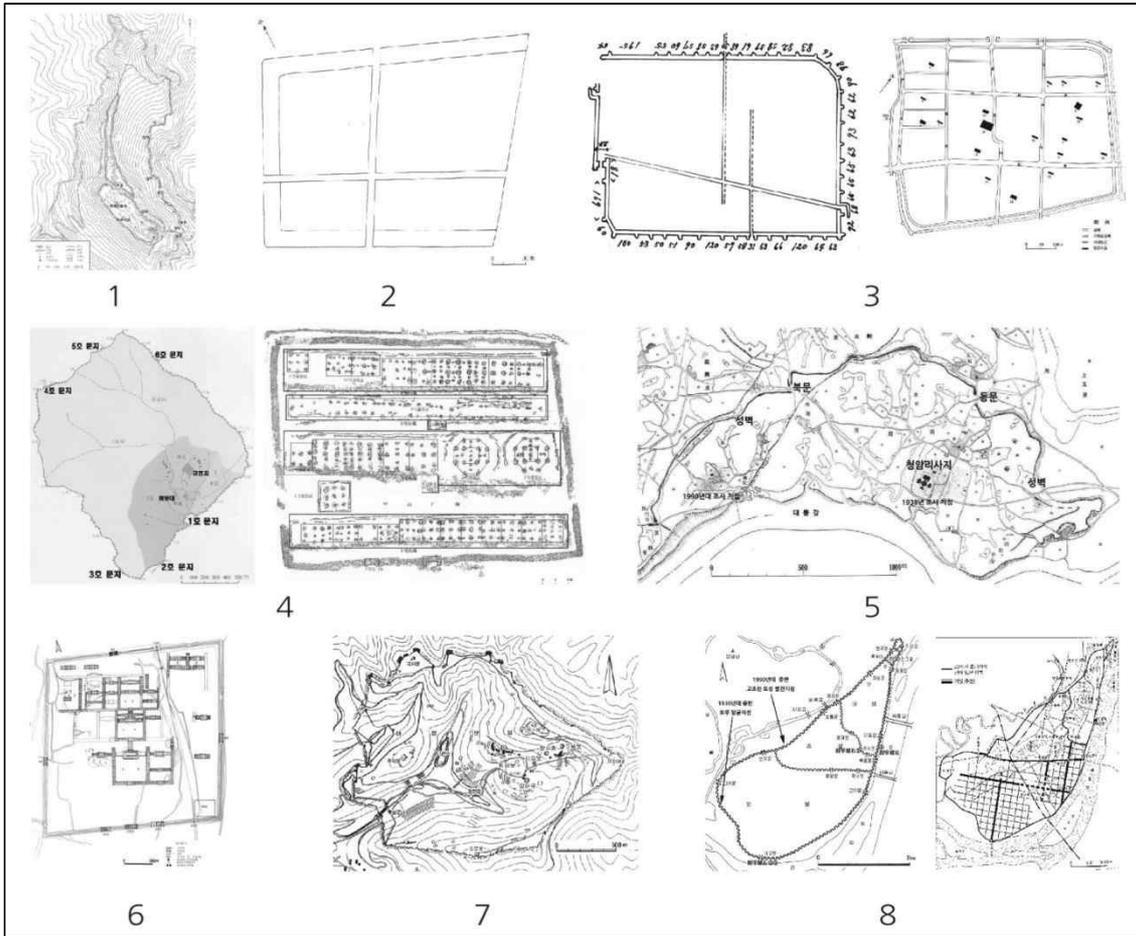
『三國史記』 卷第十三 高句麗本紀 第一 琉璃王 秋七月, 作離宮於豆谷.

3) 『三國史記』 卷第十四 高句麗本紀 第二 大武神王 三年, 春三月, 立東明王廟.

4) 『三國史記』 卷第十七 高句麗本紀 第五 東川王 二十一年, 春二月,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三國史記』 卷第十八 高句麗本紀 第六 故國壤王 三月, 下教, 崇信佛法求福. 命有司, 立國社, 修宗廟.

5) 『三國史記』 卷第十八 高句麗本紀 第六 故國壤王 六年, 春, 饑人相食, 王發倉賑給.



<도 1> 고구려의 도시 유적 모음(스케일不同) ※관련 논문 및 보고서에서 재인용  
 1.오녀산성(양시은 2013a: 21), 2.하고성자성(박순발 2012: 48), 3.국내성(양시은 2013: 57),  
 4.환도산성(양시은 2013a: 61), 5.청암리토성(양시은 2013b: 92), 6.안학궁(양시은 2013b: 83),  
 7.대성산성(양시은 2013b: 86), 8.장안성(양시은 2013b: 89, 한국고고학회 2011: 236)

<표 1> 고구려 성 구성요소 (※면적의 경우 미보고자료는 구글 지도, 해당 도면의 축척으로 산출)

유적명	규모 (전체둘레/면적)	구성요소								비고
		성	곽	문	중심 건물	도로	의례 시설	저장 시설	생산 시설	
오녀산성	4,574m / 730,000m <sup>2</sup>	○	×	○	○	×	×	○	×	· 고구려 기와는 전혀 출토되지 않음
하고성자성	약 1,000m / 약 38,400m <sup>2</sup>	○	×	○	×	×	×	○	×	· 와당 1점을 제외하면 기와 출토되지 않음 · 왕궁으로 볼만한 건축 유구 확인되지 않음
나합성	약 800m / 약 40,000m <sup>2</sup>	-	-	-	-	-	-	-	-	· 수물지역로 구체적인 양상 알 수 없음
국내성	2,738m / 약 350,000m <sup>2</sup>	○	×	○	○	△	×	×	×	· 성 중앙 중요건물지를 왕궁으로 추정 · 평면도에 표시된 도로 망이 고구려 당시의 도로망일 가능성 있음

환도산성	6,947m / 약 1,950,000m <sup>2</sup>	○	×	○	○	×	○	×	×	· 궁전지 조성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음
안학궁	2,488m / 약 386,000m <sup>2</sup>	○	×	○	○	×	×	×	×	· 안학궁 외부 남쪽에 도로망 구획 (실물자료 미확인)
대성산성	7,076m / 약 2,670,000m <sup>2</sup>	○	×	○	○	×	×	○	×	· 170여기의 저수시설 · 불경과 불상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 출토
청암리 토성	3,450m / 약 1,890,000m <sup>2</sup>	○	×	○	○	×	×	×	×	· 사찰로 추정 · 서문지 동쪽 지점에서 대형 초석건물지 확인
장안성	약 16,000m / 약 12,630,000m <sup>2</sup>	○	○	○	○	○	×	×	×	· 내성은 궁성, 중성은 행정 관청, 외성은 백성 거주 구역 · 외성 격자형 구획

## 2. 백제

백제는 475년 한성에서 웅진으로, 이후 538년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단행한다. 천도의 요인은 외세 침입에 따른 세력의 축소와 국력 회복에 따른 세력의 확대라는 극명하게 다른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인은 당시 도성의 입지와 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도성 연구는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한 자료 확보와 이를 기초로 진행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도성의 면모가 상당 부분 밝혀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도성의 구조라는 틀에서 벗어나 도성 경관을 복원하기 위한 연구(박순발 2019; 서정석 2019; 이현숙 2019; 전용호 2019; 심상욱 2020)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아직까지도 분명하지 않은 왕궁의 위치, 특정 시설물의 조성 시점 등은 여전히 이견이 있는데, 이는 다각적 검토와 진행되고 있는 발굴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절에서는 백제 도성의 구조와 구성요소를 검토하기에 앞서, 시기별 도성 연구의 쟁점 몇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도성의 구조와 구성요소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한 한성기 도성은 지속적인 조사·연구 결과를 통해 구조와 성격 등이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도성들의 위치 비정을 비롯한 축조 시기 등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박순발 2010: 47-63). 현재 고고자료와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된 한성기 도성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2곳이며, 2개의 성이 하나의 세트르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각 성의 축조 선후관계나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풍납토성의 경우 성벽의 축조 시점에 대해서 2세기설과 3세기 중·후엽설로 구분되는데, 성벽의 발굴조사와 종합적인 연대 검토를 통해 초축 성벽의 축조는 3세기 중후반~4세기 초 무렵에 착공하여, 4세기 전반~중엽 무렵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된다(박순발 2014b: 19). 한편 몽촌토성의 축조 시점도 3세기말·4세기 초를 하한으로 하는 어느 시점으로 추정된다(박순발 2014b: 19-20). 이처럼 한성기 도성의 경관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주변에 분포한 백성들의 거주역, 그리고 바깥에서 확인되는 묘역 등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박순발 2014b: 20). 다만 전체를 감싸는 광의 존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왕성이 어느 성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풍납토성을 왕성으로, 몽촌토성을 군사방어성으로 보는 견해(여호규 2002: 9)와 풍납토성이 북성이자 대성으로, 몽촌토성이 남성이자 왕성으로 보는 견해(박순발 2014a: 20)가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웅진기 도성에서 중요 쟁점은 왕궁의 위치가 어디인가인데, 크게 공산성 외부설과 내부설로 구분된다. 공산성 외부에 왕궁이 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 중에 왕궁으로 볼만한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산성 남쪽의 공주 시가지 일원에 왕궁이 있었다고 추정한다(박순발 2010: 205). 그러나 시가지 일대 역시 아직까지 왕궁으로 볼만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와를 비롯한 중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서 여전히 공산성 내부에 왕궁이 존재한다고 추정하기도 한다(서정석 2019: 109). 한편 최근까지 진행된 공산성 쌍수정 남쪽의 추정왕궁지와 공북루 남쪽의 발굴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그 결과 쌍수정 일대의 추정왕궁지는 백제의 왕실 중심 의례건축공간으로서 정전과 같은 시설일 가능성을, 그리고 도로와 배수로에 의해 별도의 공간구획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벽주건물지가 조성된 공북루 일대의 왕궁 관련 유적(문서행정, 관영공방, 생활건물 등)을 왕궁의 흔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이현숙 2019: 42). 한편 웅진도성에 나성(=외곽)이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지만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나성의 존재는 상정하기 어렵다(박순발 2010: 204).

마지막으로 사비기 도성에서의 쟁점은 나성, 즉 외곽의 축조 시점에 관한 것인데, 크게 천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외곽의 축조를 천도 이전이라고 보는 주된 논거는 도성 방어에 필수적인 외곽이 없이 천도가 이루어졌다고 상정하기에는 순서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 경외매장이라는 인식의 반영 아래 나타나는 능산리고분군과 외곽의 위치 관계를 고려한 점, 성벽 절개 조사시 성토층에 혼입된 삼죽기가 5세기 전반으로 비정 가능한 점 등이다(박순발 2010: 235-236). 한편, 천도 이후에 축조되었다고 보는 주 논거는 능산리사지 중간 즈음에 해당하는 외곽이 만족하여 휘어진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능산리사지가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외곽이 이를 우회하여 축조된 형상으로 이해하여, 능산리사지 조영(567년)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축조의 배경으로는 위덕왕대(554~598년) 신라와의 군사적 긴장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였다(이남석 2014: 274-276).

정리하면, 백제 도성 연구에서 쟁점은 자료의 해석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두는가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행히 해당 유적들의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연구 성과가 꾸준히 누적되고 있어서 이러한 논의가 곧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도성의 구조와 경관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도성, 즉 도시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도시의 성격에 따라 구성요소가 달랐을 것이라는 점은 생각해볼 수 있지만 실제 중앙도시, 즉 도성과 지방도시, 즉 거점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에 문헌자료와 현재까지 보고된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일부 지방도시(이영철 2016)와 함께 도시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표 2).

먼저 중앙 도시, 즉 도성은 여러 시설로 구성된 경역을 성으로 둘러 감싸고 있는 양상이다. 내부에는 궁과 관청 등 지배계층과 관련된 중심 건물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의례 시설, 생산시설, 저장시설 등이 함께 분포한다. 각 공간은 특정 의도를 가지고 구획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되며, 일부에서는 도로를 통한 세부 구획도 확인된다. 한편, 피지배계층인 백성들의 거주역은 두드러지지 않는 편이다. 풍납토성의 경우 성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거주역이 확인되고 있지만 공산성의 경우 내부에서 백성들의 거주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비 도성은 도성을 감싸고 있는 광이 새롭게 등장하며, 내부와 외부에 도로망을 기준으로 한 백성들의 거주역이 배치되는 구조의 변화가 확인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고구려 장안성에서 보이는 것과 같아 III장에서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지방 도시 즉, 거점 도시에서는 도시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성벽은 확인되지 않으며,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공간은 지상건축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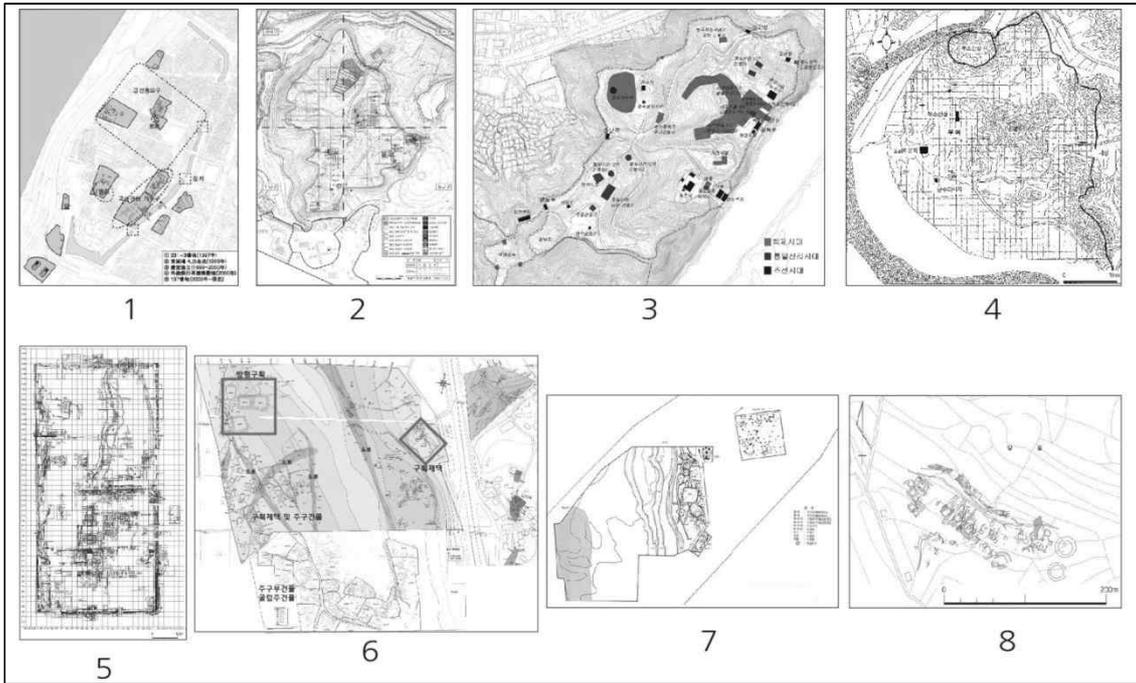
아닌 구를 통해서 구획된 점이 주목된다. 이를 제외하면 거관의 처소를 비롯해 의례시설, 생산 시설 등도 구획된 공간에 배치되고 있어서, 큰 틀에서 중앙 도시인 도성과 차이가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三國史記』에도 도성 내 구성요소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당<sup>6)</sup>, 제단<sup>7)</sup>, 남당(=政廳)<sup>8)</sup>, 제방<sup>9)</sup>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살펴본 고고자료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어서 참고할만하다.

<표 2> 백제 도성 및 지방도시 구성요소

(※면적의 경우 미보고자료는 구글 지도, 해당 도면의 축척으로 산출)

유적명	규모 (성벽길이/면적)	구성요소								비고
		성	곽	문	중심 건물	도로	의례 시설	저장 시설	생산 시설	
풍납도성	약 3,500m / 약 840,000m <sup>2</sup>	○	×	○	○	○	○	○	×	· 백성들의 거주역이 성 내·외부에서 확인
몽촌도성	약 2,300m / 약 216,000m <sup>2</sup>	○	×	○	×	○	×	○	×	· 적심건물지, 관측대지 등이 확인되나 시기가 불분명함
공산성	약 2400m / 약 200,000m <sup>2</sup>	○	×	○	○	○	○	○	○	· 문서행정, 공방 등 확인 백성 거주역 확인되지 않음
사비도성	남북·동서 4,000m / 약 16,000,000m <sup>2</sup>	×	○	○	○	○	○	○	○	· 외곽시설 등장
왕궁리유적	약 1500m / 약 115,000m <sup>2</sup>	○	×	○	○	△	×	○	○	· 유적 외부 남쪽에서 도로유구 확인
세종 나성리유적	- 최소 약 200,000m <sup>2</sup>	×	×	×	○	○	○	○	○	· 외부 방어성 별도 존재 · 구획구를 통한 공간 구분
광주 동림동유적	- 최소 약 100,000m <sup>2</sup>	×	×	×	○	○	○	○	×	· 구획구를 통한 공간 구분
광주 산정동유적	- 최소 약 24,000m <sup>2</sup>	×	×	×	○	○	○	○	○	· 구획구를 통한 공간 구분
무안 양장리유적	- 최소 약 12,800m <sup>2</sup>	×	×	×	○	×	×	○	○	· 수리시설, 인공수로 확인

6) 『三國史記』 卷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溫祚王 元年, 夏五月, 立東明王廟.  
『三國史記』 卷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溫祚王 夏四月, 立廟以祀國母.  
7) 『三國史記』 卷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二 古尒王 十年, 春正月, 設大壇, 祀天地·山川.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東城王 冬十月, 王設壇, 祭天地.  
8)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東城王 十一月, 宴羣臣於南堂.  
9)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武寧王 十年, 春正月, 下令完固隄防, 驅內外游食者歸農.



<도 2> 백제의 도시 유적 모습(스케일 不同) ※관련 논문 및 보고서에서 재인용  
 1. 풍납토성(신회권 2007: 73), 2. 몽촌토성(한성백제박물관 2019: 77), 3. 공산성(이현숙 2018:290),  
 4. 사비도성(한국고고학회 2011: 271), 5. 왕궁리유적(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8: 14),  
 6. 세종 나성리유적(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5: 75, 허수정 2019: 17 도면 합성),  
 7. 무안 양장리유적(木浦大學校博物館 1997: 45), 8. 광주 산정동유적(湖南文化財研究院 2008: 41)

### 3. 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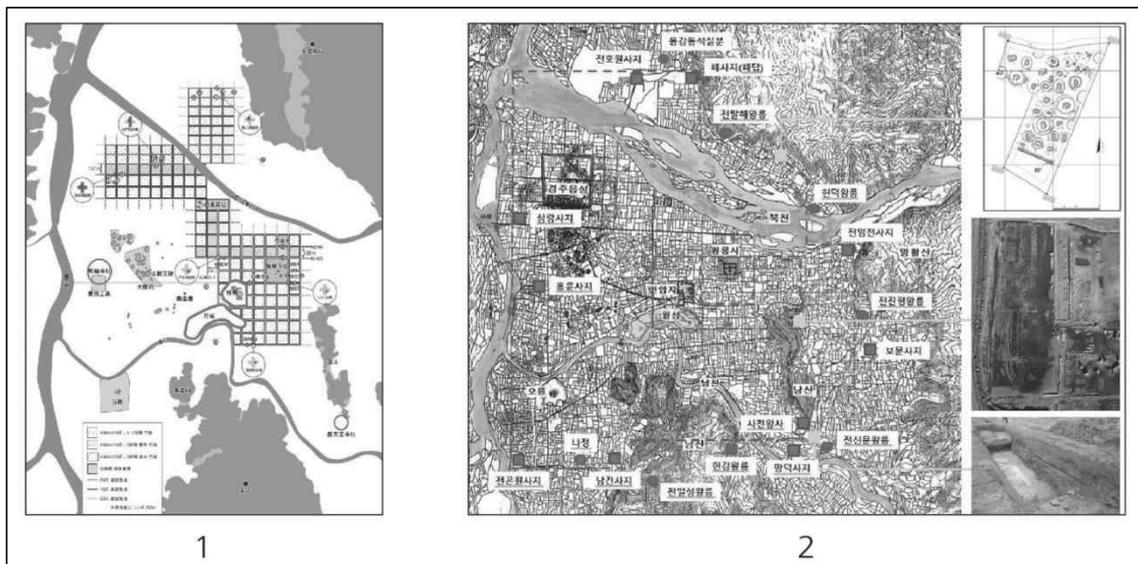
몇 차례 도읍을 옮겼던 고구려, 백제와는 다르게 신라는 처음 경주에 자리 잡은 이후 계속 도읍으로 유지되었다. 여러 문헌기록에 따르면 신라 최초의 왕성은 금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실체와 위치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황보은숙 2014: 92 참조). 다음으로 언급되는 왕성은 월성이다. 월성은 파사이사금 22년(101)에 축조하고 정궁을 옮겨 궁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문헌에서 보이는 축조시기와 고고자료의 편년 설정의 차이가 확인되고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된다. 월성 해자와 성벽의 기저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이 3세기 후반으로 편년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월성의 축조시기는 3세기 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한국고고학회 2011: 336). 이후 월성에 대한 기록은 자비마립간 18년(475)에 명활산성으로 잠시 이거하였다가 소지마립간 9년(487)에 월성을 수리하고 이듬해인 488년 다시 월성으로 이거한 기록 등이 확인되고 있다. 즉, 지속적인 유지 관리 아래 월성이 왕성으로 꾸준히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6세기 이후에는 월성 외에 양궁과 사랑궁이 존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고고자료로 밝혀진 바는 아직까지 없다(한국고고학회 2011: 337).

최근 신라 왕경과 경관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주문화재연구소·한국상고사학회 2019a, 2019b). 신라 왕경 연구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주로 도시구획과 관련된 조방제와 이에 따른 왕경 복원 등이 주 관심사였다(황보은숙 2014: 59-60 참조). 이후 1970년대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다수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중요 유적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 성과에 따르면, 신라 왕경의 도시화는 6세기 전반까지 월성 주위에 적석목곽분이 계속 조영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全德在 2010: 337), 6세기 중엽을 시작으로 단계별 확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황보은숙 2014: 69). 다만 왕경과 왕도의 인식과 왕경과 도시화의 범위 설정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 차이가 있다(황보은숙 2014: 98 참조).

한편 신라 왕경이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시기인 6세기 중엽대의 고구려의 백제의 도성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곽의 존재 여부라 할 수 있다. 고구려 장안성과 백제의 사비도성의 경우 외곽을 축조하여 경계 및 방어체계를 갖춘 것으로 이해되는데 반해 신라에서는 곽 대신 사방에 산성(동-명활산성, 서-서형산성과 부산성, 남-남산신성, 동북-북형산성)을 축조하여 곽의 역할을 하며, 방위를 담당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국가별 도성의 입지 또는 방어체계의 차이에 따라 곽이 조영되었으며, 도성의 필수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헌자료와 고고자료를 통해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 특히 『三國史記』에서는 시조묘<sup>10)</sup>, 신궁<sup>11)</sup>, 남당(=政廳)<sup>12)</sup>, 우역과 관도<sup>13)</sup>, 시장<sup>14)</sup>, 창고<sup>15)</sup>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왕경 내 지배계층과 관련된 왕궁, 의례시설, 관청시설부터 피지배층까지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시장까지 갖춰진 도시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왕성, 고분, 사찰, 산성, 도로 등 왕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확인되어 당시 신라 왕경을 이루는 도시 구성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도 3> 신라 왕경 도시 구획 및 경계(스케일 不同) ※관련 논문 및 보고서에서 재인용  
 1. 시가지 구획 모식도(황인호 2010: 32)  
 2. 신라 왕경의 경계(이상준 2019: 20)

발굴조사와 문헌기록을 토대로 살펴본 고대(고구려, 백제, 신라) 도시의 구성요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 도시의 경우 내·외부를 경계 지으며 방어시설의 역할을 하는 성이

10) 『三國史記』 卷第一 新羅本紀 第一 南解次次雄 三年, 春正月, 立始祖廟.  
 11) 『三國史記』 卷第三 新羅本紀 第三 炤知麻立干 九年, 春二月, 置神宮於奈乙. 奈乙始祖初生之處.  
 12) 『三國史記』 卷第二 新羅本紀 第二 沾解尼師今 秋七月, 作南堂於宮南 南堂或云都堂.. 以良夫爲伊浪.  
 13) 『三國史記』 卷第三 新羅本紀 第三 炤知麻立干 三月, 始置四方郵驛, 命所司修理官道.  
 14) 『三國史記』 卷第三 新羅本紀 第三 炤知麻立干 三月, 龍見鄒羅井. 初開京師市, 以通四方之貨.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智證麻立干 十年, 春正月, 置京都東市.  
 15) 『三國史記』 卷第一 新羅本紀 第一 南解次次雄 秋七月, 蝗, 民饑, 發倉廩救之.

도시 전체를 감싸고, 그 내부에 왕과 관련된 중심건물을 비롯하여 의례시설, 관청, 생산과 저장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내부는 도로를 이용하여 도시 구획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백제 사비도성과 고구려 장안성의 격자형 구획이 대표적이다. 한편, 성 내 백성들의 거주역 비중은 크지 않다가 앞서 언급한 사비도성과 장안성 단계에 확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방 도시의 경우 도시 전체를 감싸는 성은 확인되지 않으며, 도로가 아닌 구획 구를 이용한 공간 구분이 차이라 할 수 있다.

### III. 고대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대 도시에서 외곽이 등장하는 곳은 백제 사비도성과 고구려 장안성 뿐이다. 각각의 도시 구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제 사비도성은 공간적으로 서·남·북쪽의 금강과 동·북쪽의 외곽의 내부에 위치한다. 도성 내·외부를 경계 짓고 방어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외곽을 기준으로, 내부에는 부소산성과 왕궁으로 추정되는 관북리유적 및 쌍북리유적 일대, 도시 구획의 흔적을 보여주는 도로유구, 정립사지 등 중요 사찰 등이 위치하고 있다. 유적들의 배치 상태를 토대로 도성 내 전체에 격자형의 구획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것은 아니어서 추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관 측면에서 본다면 배후에 비상시 왕성인 부소산성을 두고 그 앞에 왕궁-관청-사원-저자 등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고고학회 2011: 270). 고구려 장안성은 공간적으로 대동강가에 인접한 만수대와 모란봉, 그리고 평탄지 일대에 위치한다. 장안성은 4개(북성, 내성, 중성, 외성)의 성으로 구성되는데, 내성은 왕궁, 중성은 주요 관아 시설과 귀족의 저택, 외성은 일반 거주 지역으로 추정된다. 장안성 내부에는 격자형 구획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성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중성과 외성에서도 일부 구간에서만 확인되고 있어서 추후 자료의 확보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기경량 2019b: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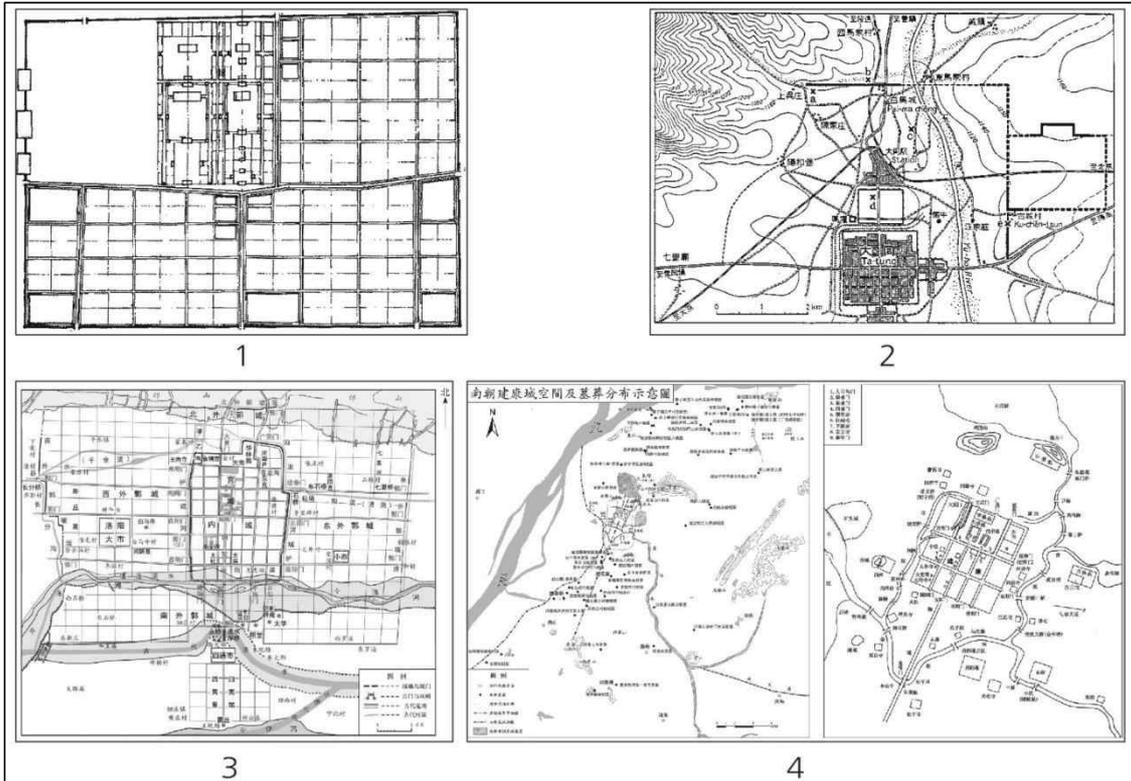
이처럼 사비도성과 장안성은 여러 공통점이 확인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6세기라는 점<sup>16)</sup>, 정치적으로 계획 하에 단행된 천도라는 점, 구조적으로 지형을 반영하여 필요한 부분만 광을 들렀다는 점<sup>17)</sup>, 공간적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내부에 격자형 구획을 배치하고 백성들의 거주역이 충분히 마련되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2곳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구조와 형태를 보인다는 사실은, 이 시기에 공유되었던 혹은 기준이 될 만한 도성의 모습이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동아시아 고대 도성이라는 기준 아래 일본과 중국을 함께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외곽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중국에서는 외곽이 이른 시기부터 등장하고 있어서 한반도 고대 도시의 외곽과 함께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역대 도성의 양상과 변천을 검토하고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연구(박순발 2014: 14-17)가 주목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발췌하면, 평면 형태는 다르지만 외곽이 갖춰진 것은 3·4·6·7유형이며, 그중에서도 내성외곽의 구조를 보이는 것은 3·6·7유형이다. 다만 7유형의 경우 시기적으로 늦게 등장하고 있어서 제외하면, 고대 도시 외곽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3유형과 6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2개 유형은 내성외곽이라는 점에서 구조상 유사한 편이지만 궁성의 위치와 외곽 내부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누구인지에 따른 차이가 관찰된다. 3유형은 외곽 내부에 상위층과 수공장인 등 직능집단이 위치하고, 6유형은 백성들의

16) 백제는 사비천도(538년)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구려는 문헌기록과 명문석 등을 통해 552년 준공, 566년 내성 축조, 586년 천도, 589년 외성 축조, 593년 북성 축조 및 완공(박순발 2012: 76에서 재인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7) 백제의 외곽은 구릉을 연결하여 광을 두르고, 고구려의 외곽은 강가를 접하여 광을 들렀다.

거주역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박순발 2014: 14-17). 6유형은 조조 업성(204년), 북위 평성(422년), 북위 낙양성(501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도성 주민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외곽이 확인된 것은 아직까지 낙양성 외곽이 유일하다고 보았다(박순발 2019: 237).



<도 4> 중국 고대 도성(스케일 不同) ※관련 논문 및 보고서에서 재인용

1. 조위 업성(조운재 2016: 133), 2. 북위 평성(조운재 2016: 139),
3. 북위 낙양성(錢國祥 2019: 74), 4. 남조 건강성(좌:張學鋒 2019: 85, 우:錢國祥 2016: 39)

이러한 중국의 도성의 변화단계를 한반도 고대 도시들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쉬운 일은 아니다. 구조 및 형태적으로 유사성이 같은 경우도 적으며,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어서 전체 모습을 복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장 세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큰 범주 아래 묶어서 살펴보는 시도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유형 분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과곽을 토대로, ‘성 또는 곽을 1개소 갖춘 것’, ‘성은 있고 곽은 없지만 곽의 역할을 갖춘 것’, ‘내성과 외곽이 2중으로 갖춘 것’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 실제로 고대 도시 중 상당 부분은 성 또는 곽을 1개소 갖춘 것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성의 경우에 중요건물지를 둘러싼 궁성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 성 또는 곽을 1개소 갖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3유형인 내성외곽형’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곽이 존재하지 않는 풍납토성도 3유형으로 추정하기도 하며,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을 세트로 이해하고 4유형으로 보기도 한다(박순발 2014: 30-33). 다만 현재 상황만으로는 세부 유형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성 또는 곽을 1개소 갖춘 것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성은 있고 곽은 없지만 곽의 역할을 갖춘 곳은 백제 공산성과 신라 월성이 이에 해당한다. 2곳 모두 도시 바깥의 구릉에 산성을 설치하여 외곽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내성과 외곽을 2중으로 갖춘 것은 사비도성과 장안성이 해당한다. 2곳은 중국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6유형과는 달리 궁성의 위치, 곽의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규모가 확장되고

내부에 가로망 구획과 같은 격자형 구획이 존재하고 있으며, 백성들의 거주역이 포함된다라는 점을 보아 6유형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구조는 『吳越春秋』에 기록된 “성이 왕을 지키고, 관이 백성들 지키다”는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

Ⅲ장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제 사비도성과 고구려 장안성에서 나타나는 외곽의 등장을 비롯한 여러 공통점들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요소의 등장이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외부에서부터 유입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박순발 2019)에서는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도성의 도시화에 따라 기능의 확대되고 이에 따른 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방어시설로서 외곽이 등장한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외곽이 등장한 6세기대 국제 정세를 보면, 백제와 교류가 빈번하였던 남조의 건강성에서는 외곽이 확인되지 않아서 남조와 연관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며, 북조 역시 교류 기사<sup>18)</sup>가 단 한건뿐이라는 점 때문에 북위 낙양성의 외곽과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박순발 2019: 237-238). 다만 도성의 구조에서 보이는 유사성에 주목한다면, 교류 기사의 숫자만으로는 연관성 여부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함께 검토할 사항은 고구려 장안성의 등장배경에 대한 것이다. 유사한 시기에 등장한 유사한 시설물(외곽), 그리고 그 내부 구조의 유사성(격자형 구획), 도시 규모의 확대 등에 주목한다면, 2곳에서 나타나는 여러 요소들의 등장 동기가 같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시 고구려의 국제 정세를 먼저 살펴보면, 백제에 비해 북조와의 교류 기사<sup>19)</sup>가 상당히 많이 확인되고 있어서, 북조의 영향력도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구려 장안성의 경우에는 북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외곽 내부에 형성된 격자형 구획의 구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데, 북위 낙양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김희선 2006: 62-63)와 수의 대흥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기경량 2019b: 117)가 있다. 이처럼 공통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등장에 대해서 백제는 자체 발생, 고구려는 북조의 영향이라는 이견이 존재한다면, 해당 시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문헌자료인 『삼국사기』에서는 여제동맹이 체결되는 643년 이전에 지속적인 전쟁 내용만이 수록되어 있으며, 교류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사비기의 고고자료(토기, 기와, 건물지, 고분 등)에서 고구려적 요소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서 영향 관계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土田純子 2009; 서현주 2019; 서현주·이솔연 2020). 즉, 6세기대에 전쟁기록으로 점철된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속에서도 전쟁과 별도로 문화 교류가 계속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대외 관계 내용과 함께 종합해보면, 문헌상 백제에서 고구려와 북조의 교류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고구려는 북조와의 교류 관련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다만 해당시기 백제의 고고자료에서 고구려적 요소가 다수 확인되는 점을 보아 문헌자료만으로 교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외곽의 등장 시점이 고구려보다 백제가 빠르다는 사실 때문에, 전과의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외곽이 등장이 고구려의 영향에 따른 등장이라고 보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천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과 사비기에 고구려적 요소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외곽의 개념을

18) 5세기 비유왕대부터 6세기 성왕대(천도가 이루어진 538년 이전)까지의 남조와 북조 교류 기사를 살펴보면, 남조는 11건, 북조는 1건으로 확인된다.

19) 5세기 장수왕대부터 6세기 평원왕대(외성이 축조된 589년 이전)까지의 남조와 북조 교류 기사를 살펴보면, 남조는 30건, 북조는 70건, 수는 9건으로 확인된다. 물론 장수왕대에 북조와의 교류 기사가 43건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다고 해도 상당한 수라 할 수 있다.

일찍부터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과 북조에서 고구려로, 고구려 또는 북조에서 백제로의 영향 관계를 추정해볼 수도 있다. 즉, 백제 사비도성과 고구려 장안성에서 새롭게 등장한 외곽의 축조는 도성의 도시화라는 변화 속에서 백성들을 수용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북조의 영향을 받아 자체적으로 지형 및 상황에 맞게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IV. 맺음말

고대 도시의 구조와 경관을 복원하는 일은 당시 시대상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고고자료와 문헌기록을 토대로 고대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중앙과 지방 도시 대부분에서 중심건물(남당, 거관시설 등), 의례 시설(종묘, 사직 등), 공방시설, 창고, 도로 등이 갖추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중앙 도시인 도성의 경우 여러 구성요소를 감싸는 성벽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어서, 별도의 성벽 없이 구획 구를 이용한 공간을 구분하는 지방 도시와 차이점이 파악된다. 또한 그 규모나 규격성에서도 중앙과 지방은 큰 차이가 확인된다.

다음으로 고대 도시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외곽의 등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고대 도시유적에서 외곽이 등장하는 곳은 백제 사비도성과 고구려 장안성 뿐이다. 이 2곳은 여러 공통점이 보이는데, 6세기에 진행된 계획 천도라는 점과 규모가 확대된 도시에 광을 두르고 그 내부에 격자형 구획과 백성들의 거주역을 마련하였다는 점 등이다. 이처럼 국가가 다른 2곳에서 유사한 양상이 관찰된다는 점은, 이 시기에 공유되었던 도성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등장배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데, 사비도성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보는 반면, 장안성의 경우에는 북조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 문헌자료와 당시 대외정세와 도성 구조의 유사성을 살펴본 결과, 북조와 고구려,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물론 외곽의 축조 시점이 고구려보다 백제가 빠르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천도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 아래 진행된다는 점과 사비기에 고구려 요소가 다수 확인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외곽의 축조는 도성의 도시화라는 변화 속에서 백성들을 수용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북조의 영향을 받아 자체적으로 지형 및 상황에 맞게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영남고고학회, 2019b, 『신라 왕경과 월성의 공간과 기능』 .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한국상고사학회, 2019a, 『고대도성과 월성의 공간구조와 경관』 .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8, 『왕궁리 발굴중간보고XI』 .
- 권순홍, 2017, 「도성 관련 용어 검토 -‘都’·‘郭’·‘京’을 중심으로-」, 『사림』 62, 수선사학회.
- 기경량, 2017, 「한국 고대사에서 왕도(王都)와 도성(都城)의 개념 -고구려의 용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4, 한국역사연구회.
- 기경량, 2019a, 「高句麗 王都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기경량, 2019b, 「고구려 왕도·도성의 공간과 경관」, 『고대도성과 월성의 공간구조와 경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김희선, 2006, 「6~7세기 동아시아 도성제와 고구려 長安城 -도성의 가로구획방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43, 한국고대사학회.
- 김희선, 2015, 「고대 동아시아의 천도와 도성 -계획 천도와 좌북조남석 도성구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 63, 한양대학교 출판부.
- 木浦大學校博物館, 1997, 『務安 良將里 遺蹟』 .
- 박선미, 2015, 「한국고대도시의 기원 연구」, 『白山學報』 101, 백산학회.
- 박순발, 2010, 『백제의 도성』, 충남대학교출판부.
- 박순발, 2012, 「高句麗의 都城과 墓域」, 『한국고대사탐구』 12,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박순발, 2014a, 「동아시아 고대 도성 民里의 형성과 전개」, 『역사문화연구』 5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박순발, 2014b, 「동아시아 도성사에서 본 백제도성」, 『古代 東亞細亞 都城과 益山 왕궁성』,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박순발, 2019, 「백제 도성의 경관」,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 서정석, 2019, 「웅진 왕도 경관의 시론적 탐색」, 『동아시아 도성경관의 상징, 백제왕도』,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 서현주 2019, 「부여 능산리고분군과 사비기 능묘」, 『사비백제 고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서현주·이솔연, 2020, 「백제 웅진·사비기 벽주건물의 변천과 분포」, 『호남고고학보』 65, 호남고고학회
- 신희권, 2007, 「풍납토성의 도성 구조 연구」, 『풍납토성 500년 백제 왕도의 비전과 과제』, 국립문화재연구소.
- 심상육, 2020, 「발굴자료를 통해 본 사비도성의 변천과 경관」, 『百濟文化』 6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양시은, 2013a, 「고구려 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시은, 2013b, 『고구려 성 연구』, 진인진.
- 양시은, 2014, 「고구려 도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高句麗渤海研究』 50, 고구려발해학회.
- 여호규, 2002, 「城時期 百濟의 都城制와 防禦體系」, 『百濟研究』 3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여호규, 2005, 「高句麗 國內 遷都의 시기와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8, 한국고대사학회.
- 여호규, 2012, 「고구려 국내성 지역의 건물유적과 도성의 공간구조」, 『한국고대사연구』 66, 한국고대사학회.

- 여호규, 2019, 「高句麗 國內城期の 도성 경관과 토지 이용」, 『高句麗渤海研究』 65, 고구려발해학회.
- 이남석, 2014, 「사비도성의 경관과 나성의 축조배경」 『百濟文化』 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이상준, 2019, 「신라왕경의 개발과정과 고고학적 경계」, 『신라 왕경과 월성의 공간과 기능』,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이성주, 2012, 「마을(村落)과 都市에 관한 考古學의 論議」, 『고고학』 11-2, 중부고고학회.
- 이영철, 2016, 「백제 地方都市의 성립과 전개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1, 한국고대사학회.
- 이현숙, 2018, 「공산성의 조사경과와 앞으로의 과제」, 『百濟文化』 5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이현숙, 2019, 「최신 조사성과를 통해 본 공산성과 웅진왕도의 경관」, 『동아시아 도성경관의 상징, 백제왕도』,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 임기환, 2007, 「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137, 한국사연구회.
- 全德在, 2010, 「韓國 古代의 王京과 都城, 地方都市」, 『歷史學報』 207, 歷史學會.
- 張學鋒, 2019, 「南朝建康의 都城空間與葬地」, 『中華文史論叢』 總第一三五期.
- 錢國祥, 2016, 「中國古代漢唐都城形制的演進」, 『中原文物』 第4期.
- 錢國祥, 2019, 「北魏洛陽外郭城的空間格局夏原研究」, 『華夏考古』 第6基.
- 전용호, 2019, 「고대 익산 지역의 왕도 경관 성립과 변천」, 『동아시아 도성경관의 상징, 백제왕도』,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 조윤재, 2016, 「中國 古代 陪都制의 形成과 類型 -古代 韓國 都城의 復都制 검토를 위한 예찰-」, 『중앙고고연구』 20, 중앙문화재연구원.
- 土田純子, 2009, 「泗泚樣式土器에서 보이는 高句麗土器의 影響에 대한 검토」, 『韓國考古學報』 72, 한국고고학회.
- 한국고고학회, 2011, 『한국 고고학 강의(개정 신판)』, 사회평론.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5, 『연기 나성리유적』.
- 한성백제박물관, 2019, 『몽촌토성Ⅲ』.
- 허수정, 2019, 「백제 한성기 지상건물의 전개양상」,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湖南文化財研究院, 2008, 『光州 山亭洞遺蹟』.
- 황보은숙, 2014, 「신라의 왕경과 지방도시」, 『신라고고학개론』, 진인진.
- 황인호, 2010, 「新羅 王京 整備의 基準線과 尺度」, 『韓日文化財論集Ⅱ』, 국립문화재연구소·나라문화재연구소.



---

[제2부]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

---

한반도 중세(통일신라~고려)도시 외곽의  
발달과 전개

박 성 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



## 한반도 중세(통일신라~고려)도시 외곽의 발달과 전개

박성진<sup>1)</sup>

### <목차>

- I. 머리말
- II. 통일신라 이후의 왕경
- III. 후삼국시대와 태봉 철원도성
- IV. 중세수도 '개경'의 형성과 변화
- V. 맺음말

### I. 머리말

‘도시(都市)’란 사전적 의미로 정치 또는 행정의 중심지라는 뜻의 도읍(都邑)과 경제적 중심지라는 의미의 시장(市場)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는 사회·경제·정치 활동의 중심으로 수천, 수만명 이상의 인구가 집단 거주하여 가옥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로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sup>2)</sup>.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에는 다양한 도시들이 나타났으며 이들 도시 중 한 국가의 수도는 ‘도성(都城)’이라 불렸다. 도성은 궁성에 거주하는 왕과 외곽의 넓은 지역까지 방어할 수 있는 외곽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삼국시대 도성 중에는 고구려 평양성과 백제 사비성이 대표적이다. 신라 왕경 역시 삼국시대에 출현하지만 도성의 바깥으로 성곽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형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후삼국시대를 거쳐 고려가 한반도의 중심이 될 때까지 이어졌다.

후삼국시대는 기존 신라 중심의 질서가 지방 호족세력의 성장과 신라 사회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상당 부분 붕괴되었으며, 이는 고대에서 중세로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새롭게 나타난 지방세력 중 견훤의 후백제와 궁예의 후고구려는 국가체계를 갖추고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신라와 함께 후삼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혼란은 궁예의 신하였던 왕건이 그를 축출하고 고려를 세워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왕건 세력은 서해 중심의 해상활동을 바탕으로 성장한 집단이다. 고려의 건국으로 인해 신라의 서쪽변방은 역사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한반도 중서부지역은 정치·경제적 중심지로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통일신라대 신라왕경의 변화 양상과 오랜 기간 사용되지는 못하였으나 태봉 철원도성으로 상징되는 후삼국시대 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중세도성으로서 고려 수도 개경이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되고 확장되어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원  
2) 웹서비스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 ‘도시’ 검색

## II. 통일신라 이후의 왕경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외곽성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고대~근대국가의 수도를 지칭하는 ‘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왕도(王都) 또는 왕경(王京)으로 불리고 있다. 사로국을 기반으로 4세기 중반 무렵 출현한 신라는 점차 고대국가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6세기 전반 이후 국가체계의 중앙집권적 재편과 함께 지방을 州, 郡, 村으로 개편하고, 도시들을 위치시켰다.

신라는 초기 금성(金城)이라는 공간을 왕성으로 이용하였으나 현재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다<sup>3)</sup>. 『삼국사기』 신라 본기는 파사니사금 22년(101년) 2월에 월성을 축조하였고 같은 해 7월에 국왕이 거처를 월성으로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자비마립간 18년(475년)에 명활성으로 왕이 거처를 옮겼으며, 소지마립간 9년(487년)에 월성에 대한 대대적인 개축 이후 다음해에 왕이 월성으로 돌아왔다. 문헌상으로는 2세기 초엽부터 월성을 궁성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월성해자 등에서 확인되는 고고학적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월성의 축성 시점은 4세기 후반보다 빠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월성 주변으로는 6세기 전반까지 적석목곽묘가 조성되었으며 따라서 월성 주변으로 시가지가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6세기 전반에 고분의 양식이 횡혈식석실분으로 바뀌고, 무덤을 경주 시내 외곽의 산기슭에 조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부터 신라는 중앙집권적 국가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을 州, 郡, 村으로 개편하였는데 기존 경주분지 내의 6부가 자리하였던 공간은 지금의 ‘왕경’과 유사하게 인식되었을 것이다<sup>4)</sup>.

중앙집권적 국가체계 정비 과정에서 왕경 내부에는 시장을 비롯한 시설들이 생겨났으며 인구 역시 늘어났을 것이다<sup>5)</sup>.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금까지 월성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활용되던 왕경 내부의 공간은 점차 확장되어졌다. 특히 이전까지 월성 주변으로 자리 하던 규모가 큰 고분군들은 더 이상 시내 권역에 조성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왕경 외곽으로 자리하기 시작했다.

신라는 진흥왕 14년(553년) 월성의 바깥으로 새롭게 궁궐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대신 皇龍寺를 창건하였다. 황룡사를 중심으로 하는 경주분지 중앙부에 대한 개발은 6세기 중엽부터 8세기까지 월성과 황룡사 인근에 대한 도시계획을 기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로 출발하지 않은 신라왕경은 자연적 상태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도시화되면서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이러한 도시화는 통일기에 이르러서 기존 경주분지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통일 이후 689년 達句伐(대구)로 천도하려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신라가 6세기 중엽부터 왕궁을 옮기려고 한 것은 기존의 월성 중심의 공간 구성이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이는 왕경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수도들은 일반적으로 외곽에 羅城을 쌓아 도성의 경계를 구분하고 중요 지역을 방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나, 신라왕경에서는 아직까지 도성의 외곽을 방어하는 羅城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라는 중국의 도성 축조 원리를 수용하여 방리제를 적용했으나 북쪽에 왕궁이 자리하고 그 중앙으로 ‘주작대로’가 뻗은 중국식 도성의 형태와 다르게 분지 지형을 감안해 월성과 중앙관청을 중앙에 두고 월성 북쪽과 주변 구릉에 왕릉을

3) 신창수, 2002, 「新羅의 王京」, 『강좌 한국고대사 7 춘락과 도시』,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李恩碩, 2004, 「왕경의 성립과 발전」, 『통일신라시대고고학』, 한국고고학회.  
이희준, 2010, 「신라 왕경유적 발굴조사 성과」, 『韓國의 都城』,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4) 전덕재 『신라육부재연구』 (일조각, 1996) 등

5) 『삼국사기』 신라본기 炤智麻立干 12년(490년) 3월 京師에 시장을 개설하고 사번의 재화를 유통시켰고, 智證王 10년(509년) 정월에 東市를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배치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신라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신라왕경이 경주분지라는 지형을 고려하여 점차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Ⅲ. 후삼국시대와 태봉 철원도성

후삼국시대는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태봉·마진)-고려가 공존했던 시대로, 고대에서 중세로 전환되는 의미를 가진다. 통일신라는 9세기 접어들어 극심한 왕위 쟁탈전으로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자,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기회로 지방의 호족들은 급속히 성장하였다. 호족들의 출신과 세력기반은 다양하였으나 기존 신라사회의 진골귀족 중심 골품체제에 반대한다는 부분에서는 모두 동일하였다.

이러한 혼란기에 성장한 견훤(甄萱), 궁예(弓裔), 양길(梁吉) 등 지방 세력들의 발생은 기존 신라의 중앙집권체제를 무너뜨렸다. 지방의 호족들은 신라의 영향력에서 독립한 세력임을 주장하며 각 지역을 상징하는 주체로 발전하였다. 특히 이들 중 후백제의 견훤과 후고구려의 궁예는 국가 단계로 세력 확장되었다. 이들은 경주 주변으로 영향력이 축소된 신라와 함께 후삼국을 이루었으나 궁예가 신하였던 왕건에게 축출된 후 고려가 후고구려를 대신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후삼국을 대표하는 도성 중 하나인 태봉 철원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현황

철원도성은 철원·평강분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용암 분출로 형성된 지역으로 평강에서 철원까지 낮고 평평한 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랜 기간 침식과 퇴적의 반복으로 소하천과 낮은 구릉이 발달하였다. 일제강점기 지도에는 철원도성의 일부만 표시되어 있지만, 이를 보면 외성과 내성은 방형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1942년)에서는 철원도성의 내외성을 모두 방형으로 인식하였다<sup>6)</sup>. 하지만 1950년대 촬영된 항공사진의 모습으로 볼 때 내성은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외성은 서쪽 하단부가 꺾여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sup>7)</sup>.

#### 2. 규모

成俔은 『慵齋叢話』에서 “철원은 궁예가 차지하여 태봉국을 세웠던 곳인데, 지금도 重城의 옛터와 궁궐의 층계가 남아 있어 봄이면 화초가 만발한다. 地勢가 막혀 江河는 漕運이 어렵다<sup>8)</sup>”고 하였는데 철원도성이 이중성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당시 궁궐 터가 어느 정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철원도성의 외성의 둘레가 1만 4천 4백 21척이고, 내성의 둘레는 1천 9백 5척이다. 모두 흙으로 쌓았다. 지금은 절반이 퇴락하였다. 궁전의 옛터가 뚜렷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9)</sup>. 일제강점기 자료인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외성은 흙과 돌이 섞여 있는데, 높이는 4~12척, 폭은 2~6칸, 둘레는 약 6,000칸이며, 내성은 토성으로 높이가 7척, 폭은 12척, 둘레는 약 400칸으로 기록되어 있다<sup>10)</sup>. 1950년대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거하여 외성은 12.5km, 내성은 7.7km로 계산되었다.

일제강점기 대정 연간(1912~1926)의 대대적인 측량 사업과 그 일환으로 지적도가 제작되

6)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景仁文化社.

7)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1996, 『江原道 鐵原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8) 『慵齋叢話』 권 1, 1525; 『大東野乘』.

9) 『新增東國輿地勝覽』 철원도호부 고적 조.

10)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었으며, 철원도성 일대에 대한 지적도도 만들어졌는데 논, 밭, 강, 도로 등의 표와 함께 토축으로 축조된 도성의 현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이 자료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측량을 통해 철원도성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 3. 도시계획

철원도성의 평지 입지와 내외성을 갖춘 방형 성이라는 점에서 唐의 도성제를 모델로 하여 방리제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sup>11)</sup>도 있으며, 철원도성과 당 장안성, 발해 상경용천부, 일본의 평성경, 신라 왕경의 이방제와 고구려 장안성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연구<sup>12)</sup>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철원도성은 거란, 발해 도성과 유사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 遼 中京城, 祖州城, 발해 西古城과의 개연성 등 북방 국가들과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sup>13)</sup>.

철원도성의 도시 구조와 관련해서 신라 왕경의 坊과 비교하여 도성 내 방의 개수 등을 추정하는 연구들<sup>14)</sup>이 진행된 바 있으나 도성 내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된 바 없어 아직까지 정확한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다만 주변 지형과 일제강점기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도성 내부의 구조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철원도성의 중앙에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두 개의 소하천과 구릉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형상의 특이점으로 인해 도성 내부 전체에 대한 방리를 구획하기 위한 도시설계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을 것이지만 방리 구획에 불리한 구간을 제외한다면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방리를 설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내성과 궁성 주변의 지형으로 볼 때 이들을 연결하는 대형 중심도로가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sup>15)</sup>.

이러한 가능성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1/1,200)에서 확인되는 일정한 규모의 방형으로 이루어진 지번의 구획 형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성의 지번 구획은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어 철원도성이 방리제의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sup>16)</sup>.

도성 내에는 각종 관부들은 물론 광장이 있어 毬庭으로 이용되거나 국가 의례를 치르는 장소로 쓰였으며, 시장도 자리 잡았다<sup>17)</sup>. 문헌기록에는 궁성에는 포정진, 의봉루를 비롯한 전각들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內倉 혹은 內庫도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sup>18)</sup>.

현재 문지로는 ‘남대문지’만이 알려져 있지만, 외성의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과연 남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있다. 사방의 문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된 바 없다.

11) 田保橋 潔, 1941, 「弓裔とその都城址」, 『京城帝大 史學會誌』 17. 1997.

12)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 2009, 『철원 태봉국도성 조사 자료집』.

13) 이기석, 2016, 『철원 풍천원과 태봉국 도성지의 지리』 (지리모노그래프2).

14)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 2009, 『철원 태봉국도성 조사 자료집』.

15) 유병하·나병호, 2014, 「궁예도성과 견훤도성」,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국립전주박물관, 전주시, 백제학회 주최, 발표 자료집).

16) 이기석, 2016, 『철원 풍천원과 태봉국 도성지의 지리』 (지리모노그래프2).

17) 하일석, 2014, 『태봉국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 재조명』, 강원발전연구원.

18) 조인성, 2017, 「태봉 철원경의 경관 복원을 위한 문헌 자료 정리」, 『태봉도읍지 & 고려 개국지, 철원』 (2017 태봉학술대회).



<도 1> 항공사진으로 본 철원성 유곽(태봉국 도성 복원의 추진방안, 2014. 강원발전연구원)

#### IV. 중세 수도 '개경'의 형성과 변화

『고려사』 고려세계(高麗世系)에 인용되어 있는 김관의(金寬毅)의 『편년통록(編年通錄)』에 따르면, 왕건의 집안은 부소산(扶蘇山)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였으나 서강(西江) 영안촌(永安村: 개풍군 남면 창흥리) 지역의 해상세력과 협력해 예성강 하구(혈구진)의 해상세력으로 자리하였다. 이후 왕건의 조부인 작제건(作帝建)에 이르러 4주 3현을 아우르는 세력으로 성장하고 부친인 왕융(王隆)대에는 경기북부 예성강 일대의 대표적인 지방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왕융은 궁예에게 송악에 발어참성(勃禦槩城)을 쌓고 왕건을 성주로 세울 것을 건의하였다<sup>19)</sup>. 왕융은 궁예를 자신의 세력권에 두어 자신의 지역적 위상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본인의 지역에 수도를 위치시켜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하였다. 궁예 역시 국가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이 필요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철원에서 송악으로 천도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왕건의 세력권이었던 송악은 국가를 운영하고 확장시키기에 유리한 거점이었으나 왕건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지 못한 궁예는 해상세력 중심의 송악에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철원으로 다시 천도하였다. 왕건 역시 철원에서 궁예를 축출하였으나 곧 궁예의 지지세력과 지방세력의 반발을 고려하여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확실한 지역인 송악으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신라의 변방이던 송악은 서해안 해상세력인 왕건 일가의 부흥과 함께 통일신라 이후 경주 중심의 국가 운영을 한반도 중앙으로 이동시켰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전체적으로 얇은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해발 700m 이상인 천마산·국사봉·제석산이, 동북쪽으로 화장산(563m), 동남쪽으로 진봉산(488m), 서북쪽으로 만수산(228m) 등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다. 개경을 방어하고 도시의 경계를 확정하는 羅城은 개경의 주산인 송악산(488m)에서 남쪽의 용수산(177m)으로 뻗은 구릉들의 정상부와 능선을 이용하여 자리한다.

개경의 주변으로는 경제적 활동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이 조성되어 있었다. 임진강, 사천강, 예성강, 벽란도 등을 이용한 물자 운송의 편리성과 장단·풍덕·김포평야의 넓은 경작지는 개경의 경제생활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예성강과 벽란도는 전국 각지의 세금과 물자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상선들이 교역을 위해 모여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제와 운송 등과 관련된 조건들은 개경을 수도로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개경을 수도로 정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정신적 믿음이 포함된 풍수도참설 등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이는 고대 삼국의 수도 선정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다. 개경은 마두명당(馬頭明堂), 부소명당(扶蘇明堂), 송악명당(松嶽明堂)이라 하여 명당으로 불리던 지역이었다<sup>20)</sup>.

개경은 신라 변방의 군현에서 출발해 수도로 성장한 지역이다. 본래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부소갑(扶蘇岬)으로 불렸으며 신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온 이후 송악군(松嶽郡)으로 불렸다. 고려 태조 2년(919년) 수도를 송악산 남쪽으로 정하고 궁궐을 지으면서<sup>21)</sup> 이 지역은 개주

19) 『高麗史』 권1 太祖 충서, 왕융은 궁예에게 “대왕께서 만일 조선(朝鮮), 숙신(肅愼), 변한(卞韓)의 땅에 왕이 되시려거든 먼저 송악에 성을 쌓고 나의 장자로써 그 성주를 삼으소서”

20) 『高麗史』 序文, 신라의 감간(監干) 팔원(八元)은 “만일 군(郡)을 산남(山南)에 옮기고 술을 심어 암석이 드러나지 않게 하면 삼한을 통합할 자가 나오리라”

『高麗史』 序文, 도선(道詵)의 “이 지맥이 왕방인 백두산 모목간(母木幹)으로부터 내려와 마두명당에 떨어졌으면 그대는 또 수의 명수를 지녔으니 마땅히 수의 대수를 쫓아 집을 짓되 66으로 하여 36구를 만들면 천지의 대수에 부응되어 명년에는 반드시 성자를 낳을지니 이름을 마땅히 왕건으로 지으라”

21) 『高麗史』 권5 志610 地理1 王京開城府

(開州)로 불렸으며 3성(省) 6상서관(尙書官) 9사(寺)를 설치하였다. 또한 시전(市廛)을 세우고 방리(坊里)를 구분하였으며 5부를 나누고 6위(衛)를 두었다.<sup>22)</sup> 고려 건국 당시 개경 내에 법왕사(法王寺), 자운사(慈雲寺), 왕륜사(王輪寺), 내제석원(內帝釋院), 사나사(舍那寺), 보제사(普濟寺), 신흥사(新興寺), 문주사(文珠寺), 원통사(圓通寺), 지장사(地藏寺) 10개의 사찰들이 창건되었다<sup>23)</sup>. 이들 중 법왕사, 자운사, 왕륜사, 내제석원은 도성의 북쪽 궁성 구역에 자리한 것으로 비록 사찰이기는 하나 군사적 성격도 포함하였을 것이다. 또한 문주사와 원통사는 태조 왕건 가계의 시조설화와 관련된 성거산 인근에 자리하였는데, 이들 사찰의 위치로 볼 때 개국 당시의 사찰들은 궁성 주변 및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경도성 주변으로 자리한 왕릉들의 위치는 ‘성동(城東)’, ‘성서(城西)’, ‘성남(城南)’, ‘성북(城北)’, ‘남교(南郊)’, ‘북교(北郊)’ 등으로 표현된 것들도 있는데 이는 도성 내의 5부(중부, 북부, 동부, 서부, 남부)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나성 건설 이전에도 비록 인공적인 경계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도성 안과 밖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개경의 지리적 범위는 옛 송악군을 중심으로 궁성을 주변의 송악산, 남산, 용수산을 비롯하여 시조설화 또는 왕실과 관련된 지역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성의 건설 이전 개경은 ‘도내(都內)’와 ‘교(郊)’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는데 현종 20년 나성이 건설된 뒤에는 ‘도성’과 ‘교’로 그 경계가 분명해졌다.

태조대의 궁성과 관청, 시전과 유시 등의 신설, 개경과 인근에 사찰이 창건됨으로 수도로서의 도시 건설은 대략적으로 정리되었을 것이나 한 국가의 수도로 기능하기에는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가 후삼국 통일기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도시 시설들로 개경을 구성하였을 것이다.

고려 광종 11년(960년) 3월 개경을 ‘황도(皇都)’로, 서경을 ‘서도(西都)’로 개칭하였다. 다음 해에는 ‘수영궁궐도감(修營宮闕都監)’을 설치하고 궁궐의 수리를 시작해 14년 6월에 완공하였다<sup>24)</sup>. 광종의 궁궐 수리는 기존 궁에 당시의 방어참성(勃禦槩城)을 활용한 궁성의 협소함도 있었지만 잦은 왕위 계승에 따른 문제들을 일단락 하기 위함도 있었을 것이다. 광종은 사찰의 건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광종 2년(951년)에는 개경의 남쪽에 봉은사(奉恩寺)를 창건하여 태조의 원당으로 하였으며, 개경 동쪽 교외에 어머니의 원당(願堂)인 불일사(佛日寺)를 창건하였다. 또한 광종 11년 7월에는 송악산 동쪽 기슭에 귀법사(歸法寺)를 창건하기도 하였다<sup>25)</sup>.

태조와 광종대에 이루어진 개경의 건설은 성종대에 와서 일단락되었다. 성종 6년 5부방리의 개편과 함께 성종대에는 유교적 예제 원리가 적용되면서 도시구조를 ‘주례(周禮)’의 도성체계에 맞추려고 하였다. 또한 개경이 ‘황도(皇都)’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체제(祀典體制)’를 정비하여<sup>26)</sup> 환구(圜丘)를 설치하고 태조의 신위를 모셨다. 뿐만 아니라 성종대에는 백관의 관제 개편, 12목의 설치와 3성 6부 7시의 정비, 호구조사, 태학(太學) 중수 등 기존 체도를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성종이 진행한 일련의 사업들은 유교적 예제 운영과 『주례』의 전조후시(前朝後市)와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질서를 바탕으로 도시시설을 갖추고 개경의 행정

22) 『高麗史』 권1 태조 2년 春正月

23) 『高麗史』 권1 태조 2년 3월

24) 『高麗史』 권2 광종 14년 6월

25) 최승로는 광종대에 이루어진 궁궐과 사찰 건립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해 “궁실 차림은 반드시 제도에 넘쳤으며 의복과 음식은 극히 진귀하고 고운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토목공사는 농사철을 가리지 않았고 공예품의 제작에는 휴일이 없었습니다. 대략 평상시의 1년간 비용이 족히 태조 당시의 10년간 비용으로 될 만합니다.”라고 비판하였다.

26) 성종은 개경이 황도(皇都)의 위상에 걸맞도록 도시공간을 재배치하였으며, 태조와 광종이 강조하였던 황제국에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사들을 정비하였다.

편제를 5부방리로 정리하였다.

강조의 정변(1009년)으로 목종의 폐위와 함께 왕위에 오른 현종은 즉위년 3월 개경에 나성을 쌓는 것을 논의하였다<sup>27)</sup>. 당시는 거란의 침략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는데 현종 5년의 김훈(金訓)과 최질(崔質)의 난으로 현종이 서경으로 피신하는 등<sup>28)</sup> 당시의 혼란한 국내정세와 거란 침입 이후의 개경 복구로 인해 곧바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현종 2년 정월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 광종 때 대대적으로 중건된 궁성은 모두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sup>29)</sup> 고려군은 1개월 만에 거란군을 물리쳐 현종은 2월에 나주에서 개경으로 돌아와 수창궁(壽昌宮)에 머물렀으며, 8월에는 송악성(松嶽城)을 중수하였다. 현종 5년(1013년) 정월 궁궐이 완성되면서 현종은 신궐(新闕)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신궐은 현재 고려궁성의 정전 구역인 회경전 일곽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의 축대로 구성된 건축군으로 추측된다. 거란 침입 이후의 궁궐 공사는 현종 2년 10월부터 5년 정월까지, 11년 8월부터 14년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공사들은 이후 ‘수창창궐공신(輸忠創闕功臣)이 하사된 왕가도(王可道)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현종의 나성 축조는 기존 도성의 성곽(발어참성, 송악성, 황성)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는 군사적 판단과 거란의 침입으로 파괴된 개경의 복구, 도성 내부에 대한 통제력 강화, 경기지역의 인원과 물자 공급에 대한 체계구축 등 다양한 목적이 반영되어 있었을 것이다.

당시 나성 건설과 관련된 기록으로 볼 때 현종 1년에 시작된 나성 축조사업은 현종 20년에 와서야 마무리 될 수 있었는데<sup>30)</sup> 당시 공사를 주도하였던 왕가도는 사람들에게 일산(日傘)을 들고 성 주위에 서게 한 후 높은 곳에서 지휘하여 나성의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sup>31)</sup> 일산을 들게 하여 성의 위치를 잡았다는 기록은 현재 개성에 남아있는 나성이 송악산에서 뻗어 내린 산맥과 자연구릉의 정상부를 이용하여 축조된 것으로 볼 때 나성 공사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적절하게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종 20년에 나성이 완공되면서 개경은 궁성-황성-나성의 3중성을 이루게 되어 외형적으로는 황제국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나성을 경계로 도성 내부의 5부방리가 개편되었고 외부의 4교가 설정되었다.

완성된 개경도성의 나성에 대한 당시 개경인들의 믿음과 애정은 나성을 ‘금강성(金剛城)<sup>32)</sup>으로 부른 것에서 잘 드러난다. 도성의 경계, 그리고 개경이라는 도시의 체계적 운용과 황제국으로의 위상이라는 부분에서 나성의 건설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개경도성의 나성은 건설이후 가장 큰 외침이었던 몽골 침략과 고려말의 홍건적의 침입에서 개경을 지켜내지 못했다. 고려말에 이르러서는 다시 수도 천도에 대한 논의가 나타났으며 공민왕과 우왕은 천도지까지 물색하기에 이르렀지만 천도는 쉽지 않았다. 천도가 어려워지자 개경을 방어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우왕 3년(1377년) 개성부에서 나성으로 개경을 방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성(內城)을 새롭게 쌓을 것을 건의하였다<sup>33)</sup>. 최영 또한 개경이 넓어 10만의 병력으로도 방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내성을 쌓아 대비하자고 하였다<sup>34)</sup>.

27) 『高麗史』 권4 현종 즉위년

28) 『高麗史』 권4 현종 5년 11월

29) 『高麗史』 권4 현종 2년 정월, 거란군은 개경에 침입하여 대묘와 궁궐, 민가들을 모조리 불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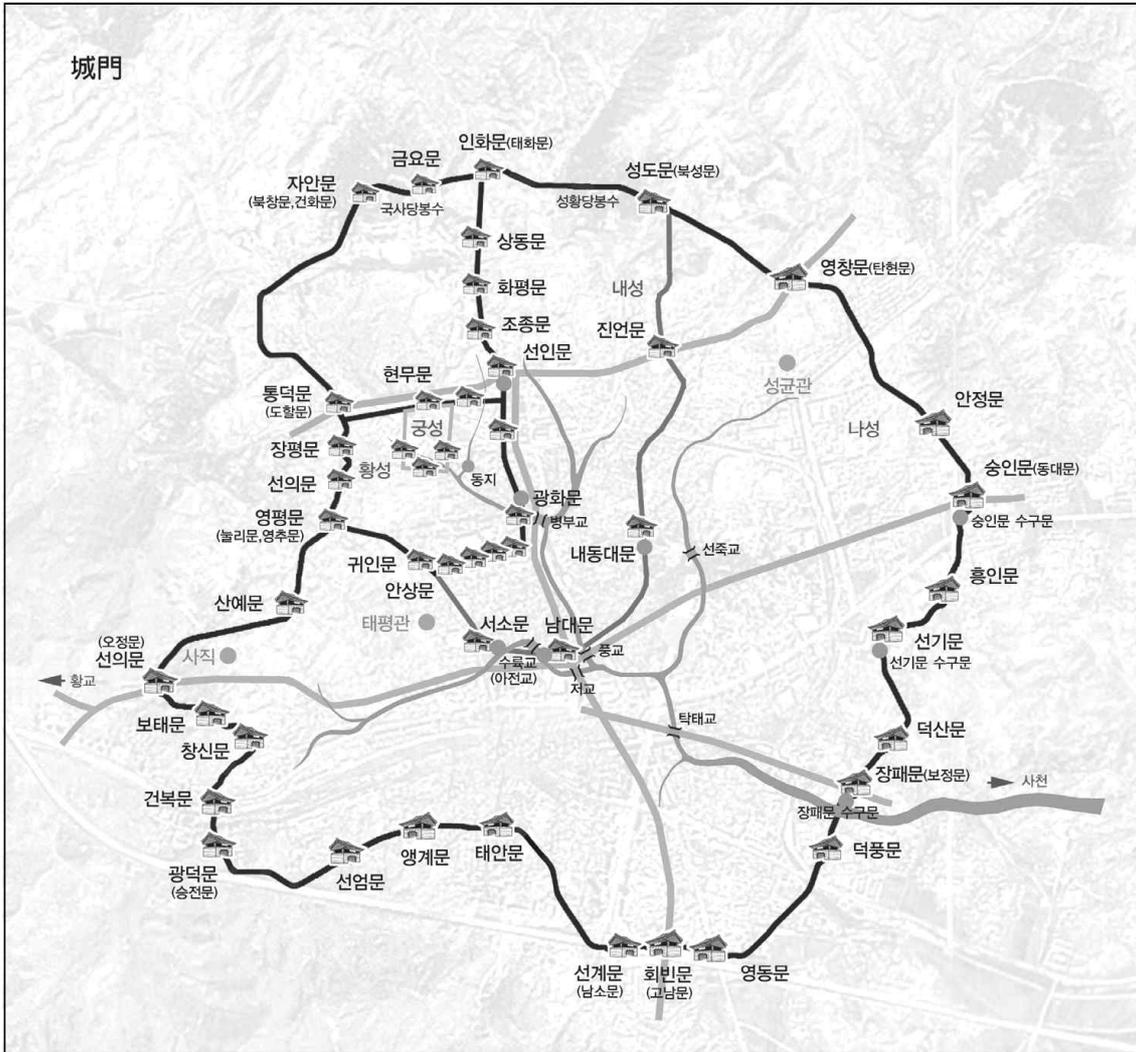
30) 『高麗史』 권56 지10 지리1 왕경개성부

“현종 20년(1029년)에 나성이 준공되었다. 왕이 즉위하자 즉시 30만 4천 4백명을 징발하여 이 성 축조에 착수하였는데 이 해에 와서 공사가 끝났다. 성의 주위는 2망 9천 7백 보, 대문이 4개, 중문이 8개, 소문이 13개인 바.....”

31) 『高麗史』 권94 열전7 왕가도

32) 『高麗史』 권71 지25 악2 속악

33) 『高麗史』 권82 지36 병2 성보



<도 2> 개성의 나성과 성문 위치(고려도성 기초학술연구1.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 IV. 맺음말

본 발표에서는 통일신라대 신라왕경의 변화양상과 후삼국시대 태봉 철원도성의 현황, 그리고 고려 수도 개경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라는 935년 고려 태조에게 경순왕이 귀부하여 멸망할 때까지 경주를 수도로 삼았다. 이로 인해 신라왕경은 동시기 동아시아 주변국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구조와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도성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으나 경주분지의 지리적 한계로 인해 완전히 적용될 수 없었다. 또한 신라왕경을 둘러싼 산성들은 외성의 기능을 수행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도성 전체를 둘러싸는 나성에 대한 축조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철원 태봉도성은 한반도에서 보기 드문 방형의 도성으로 수·당으로 대표되는 중국 도성제를 모델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이의 비무장 지대에 위치하여 지금까지 성벽과 궁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없었다. 향후

34) 『高麗史』 권112 열진26 최영

남북 또는 남한지역 단독 조사 등을 통해 유적의 자료를 확보한 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태조 왕건은 918년 철원에서 궁예를 축출한 뒤 고려를 건국하고 919년 정월 본인의 근거지인 송악 남쪽에 도읍을 정하고 궁궐과 시전을 건설하고 5부방리를 나누었다. 태조의 천도는 개국 후 6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마도 이전 궁예시절부터 사용되었던 발어참성 등의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렇듯 고려의 수도 역시 신라왕경과 같이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시작하였으며 이후 점차 규모를 확장하여 광종-성종-현종을 거치면서 '도성'으로서의 형태를 만들어 나갔다. 이 과정은 고려 건국 이후 약 100여년의 기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조선이 한양에 도성의 성곽을 건설한 뒤 천도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 참고문헌

- 『三國史記』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慵齋叢話』  
전덕재, 1996, 『신라육부채재연구』, 일조각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1996, 『江原道 鐵原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景仁文化社.  
신창수, 2002, 「新羅의 王京」, 『강좌 한국고대사 7 춘락과 도시』,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이은석, 2004, 「왕경의 성립과 발전」, 『통일신라시대고고학』, 한국고고학회.  
이희준, 2010, 「신라 왕경유적 발굴조사 성과」, 『韓國의 都城』,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田保橋 潔, 1941, 「弓裔とその都城址」, 『京城帝大 史學會誌』 17.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 2009, 『철원 태봉국도성 조사 자료집』  
이기석, 2016, 『철원 풍천원과 태봉국 도성지의 지리』 (지리모노그래프2)  
유병하·나병호, 2014, 「궁예도성과 견훤도성」,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이기석, 2016, 『철원 풍천원과 태봉국 도성지의 지리』 (지리모노그래프2)  
하일식, 2014, 『태봉국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 재조명』, 강원발전연구원.  
조인성, 2017.12, 「태봉 철원경의 경관 복원을 위한 문헌 자료 정리」, 『태봉도읍지 &고려 개국지, 철원』 (2017 태봉학술대회).



---

[제2부]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

---

## 한양도성의 도시구조적 특징과 변화양상

남 호 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



## 한양도성의 도시구조적 특징과 변화양상

남호현<sup>1)</sup>

### <목차>

- I. 머리말
- II. 한양도성의 축조배경
- III. 한양도성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과정
  - 1. 행정처소 및 체제시설
  - 2. 교통로와 행정구역
  - 3. 성곽
  - 4. 상업지역
  - 5. 거주구역
- IV. 맺음말

### I. 머리말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는 중국 역대 왕조의 도성 건설에 규범으로 기능했고 조선(朝鮮)이 1396년 낙성한 한성(漢城)의 건설에도 전범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sup>. 고공기는 “匠人營國，方九里，旁三門；國中九經九緯，經途九軌；左祖右社，面朝後市.”라는 도성건설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단순하지만 도시구성의 핵심요소들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공기에서 ‘국(國)’이란 국도(國都)를 의미하며 국도는 사방이 9리인 벽(성벽)을 갖추고 각 성벽에 3개의 문을 둔 성이다. 성 내부로는 성문과 직결하는 남북, 동서방향의 9개 도로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9경9위(九經九緯)라 한다. 경도9궤(經途九軌)는 각각의 성문에 낸 세 갈래의 평행도로를 뜻하며 도로마다 출입의 구분을 두었는데 사람의 출입은 가장자리로 수레는 중앙의 도로를 따라 통행하도록 하였다. 좌조우사(左祖右社)는 종묘와 사직을 말하며 도성의 정중앙에 놓여질 여좌를 기준으로 태묘는 동쪽에 사직은 서쪽에 건설하여 서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하였다. 면조후시(面朝後市)는 조정은 궁정의 남면에 시장은 궁의 북쪽에 둔다는 개념이다. 고공기에는 도성의 기본적인 구조와 핵심시설 및 지원시설의 배치, 도로망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의 구획, 도로의 개념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단순하지만 실용적이며 조선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은 유교의 세계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조선의 건국자들도 고공기의 기본개념을 채용하여 도성을 건설했다. 물론 당대의 정치사회적 분위기, 지형조건 등의 제한 등으로 실제 완성시킨 모습과 운영 방식은 원류인 중국과도 다르고 그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일본의 고대 도성들과도 차이가 있었다. 한양도성이 고공기보다는 고려로부터 이어온 도성건설 관습에 더 충실하게 따랐을 것이라는 견해(김동욱 2017)도 있지만 고공기에

1)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2)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 권근 등의 저술에는 『주례』의 구절이 직접 인용되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세종 때는 16책의 단행본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표현된 도시구성 요소들이 고려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도성구상에 미친 영향을 굳이 축소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본고에서는 전술한 관점에서 도시구성의 핵심요소들을 고공기의 개념에 기준하여 분류하고 이들 요소의 조성배경, 변화의 원인과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검토대상은 행정처소 및 국가 상징물(조정, 단묘), 방어시설(성곽), 교통 및 행정구역(도로), 상업시설(시장)로 하고 검토의 공간적 범위는 한성부(漢城府)의 행정구역인 오부(五部)와 성저십리, 시간적 범위는 조선건국에서 개항 이전까지로 정한다.

## II. 한양도성의 축조배경

한양도성의 축조와 변화과정에는 다각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당대의 정치·사회적인 상황과 자연지리적인 요인이었을 것이다. 전자는 당시의 통치 이데올로기, 도성을 설계·구상한 이들이 확보했던 인적자원들의 특징, 정치외교적 상황 및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겠고 후자는 자연지형으로 설명되는 산하(山河)의 유무와 특징, 규모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중국을 위시하여 동북아시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유교였다. 자금성을 축조한 명나라는 앞선 몽골 왕조와 차별화를 위해 유교적 원리를 기초로 자금성을 계획했으나 사회 전반에 남아있던 도교·불교적 영향이 침습하고 계획을 벗어나는 사치가 더해지면서 유교적 모범을 만들려던 원래 계획은 흐트러지게 된다. 조선왕조의 창업자들도 이전의 고려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유교원리를 중심에 두고 한양도성과 중심 궁궐인 경복궁을 설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최종 완성된 한양도성의 모습은 본래의 구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양도성은 조선 개국 후, 前 왕조의 왕도였던 개경에서 천도하며 만들어진 것인데 당시의 한양은 고려에서 남경으로 불리우던 지역으로 이미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도시였다. 사실 남경으로의 천도 논의(일시적 천도 포함)는 이미 고려 고종 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고려가 멸망하는 공양왕대까지 계속되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의 문을 연 이성계와 당시 정도전을 필두로 한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말의 정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역성혁명이 성공한 이성계는 개경을 벗어나 한양으로 천도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다. 하지만 유력한 신진사대부들이 천도를 반대하고 심지어는 다른 곳을 천거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와중에 계룡산에 신도공사가 착공되기까지 하지만 하륜 등의 반대로 다시 중지되고 천도계획은 표류하게 된다. 하지만 이성계의 의지가 확고하고 일부 관료들과 왕사인 무학 등이 남경 천도에 동조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결국, 남은 관료들도 이를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남경천도가 확정된다(최종현 2008).

조선은 개국시기부터 명을 상국<sup>3)</sup>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들은 원 왕조의 통치시스템과 이념보다는 명의 그것을 모범으로 삼으려고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도 건설의 이념과 체계도 명의 그것을 참조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명의 자금성은 오히려 경복궁보다 25년 늦게 완성(1395년 완공)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도 구상에는 명을 중심으로 한 중화중심의 유교질서를 반영하려 했겠으나 실제 신도건설에 적용된 설계개념과 축조기술은 원元 대도大都와 고려 개경성의 그것이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양도성과 경복궁, 종묘 등의 주요시설물을 조성하는데 실무를 담당했던 이들이 김사행과 김자청 같이 원에서 유학하고 고려에서 활약했던 기술관료들

3) 예를 들어, 역성혁명이 성공한 뒤, 왕조의 이름을 바꾸고자 청하는 국호개정부터 ‘朝鮮’, ‘和寧’ 중 어떤 것을 국호로 정할지 채택하는 것까지 전부 명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

<표 1> 조선왕조 신도 후보지 <원형환, 1988 참조 후 수정>

순번	도읍 후보지	추천자	시기
1	한양	이성계, 조준, 김사형	1392.8
			1394.8
2	계룡산	권중화	1392.12
3	모악(무악)	하륜	1393.8
4	불일사(개경인근)	유한우, 이행달 등 서운관원	1394.7
5	신고개(개경인근)		
6	노원역	-	1394.8
7	광실원(적성)	양원식	
8	도라산(임진현)	민중리	

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버들 외 2018)<sup>4)</sup>.

한양도성의 축조에는 입지적인 특징도 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양은 산으로 둘러진 분지인데 분지 안에도 고저차가 존재하는 지형에 있다. 이는 동시기 주변 국가들의 도성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다.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평탄한 지형을 선택하여 방형으로 외성곽을 두르고 내부의 일정한 주축선을 기준삼아 궁궐과 주요시설물을 배치하는 형태였다. 반면 前朝 고려의 개경성은 송악의 사면을 따라 4겹의 구조를 가진 외곽성을 두르고 특별한 주축선 없이 주요 시설물을 배치한 형태였다. 궁장의 범위에 기준해서 보면 궁궐전각의 배치도 서북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특별한 중축선 없이 송악의 경사를 따라 만들어진 형태였다. 이러한 모습은 이웃한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데 한양도성의 입지적 특성이나 시설배치는 개경성과의 유사성이 간취되는 부분이 있다.

유교의 성리학을 통해 ‘예(禮)’를 통해 다스려지는 ‘예치국가’를 목표로했던 조선의 건국세력은 이러한 통치 이데올로기를 현시하는 수단으로서 ‘예제건축’의 기준에 따라 신도건설을 진행한다. 한양에 서북쪽으로 정궁인 경복궁을 배치하고 좌측(동편)에는 종묘, 우측(서편)에는 사직을 건립했다<sup>5)</sup>. 처음에는 정궁의 북편에 시전을 두지만 이후 궁 남쪽에 개설한다. 뒷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주요시설물의 배치와 건축적인 요소에 예제적인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지만 실행 과정에서는 완벽하게 규범을 따르지는 않았던 부분도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한양도성을 연상하면 4대문 안의 궁궐과 5부, 다시 말해 성곽 안쪽 지역만 떠올리기 쉽다. 실상 한양의 범위는 한양도성 외곽의 성저십리까지를 포함하며 여기까지가 한성부가 직접 관할했던 지역이다. 본래 한양도성을 포함하여 성저십리는 고려 초기는 양주의 일부였다가 現 서울 도심일대가 남경으로 승격되면서 서대문구 일부와 용산구 일대가 편입되어 만들어진

4) 박자청(1357~1423/선공감, 공조판서, 관환성 부사를 역임한 조선전기의 관료)은 한양도성 축성, 청계천 정비, 시전행랑 건설, 개성 경덕궁, 한양 연희궁과 창덕궁 등 궁궐 축조, 모화루와 경회루, 개경사와 연경사, 성균관, 군자감 등 도성 내 주요시설과 제릉·건원릉·헌릉 등 왕릉까지 조선전기의 주요 시설물을 설계 건축하였다. 그의 스승인 김사형(?~1938/여말선초의 고위관료) 원의 환관으로 북경에서 수학하였으며 고려 공민왕릉, 노국공주능 등을 설계하고 조선에서는 경복궁과 흥천사. 문묘, 정릉의 축조에도 관여했다.

5) 태조가 개성 수창궁에서 즉위하며 반포한 교서에는 ‘천자는 칠묘七廟를 제후는 오묘五廟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를 오른쪽에는 사직을 세우는 것이 옛제도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것이다. 태조 북악 남편의 종로 일대로 도읍을 정하는데 1395년 한성부 행정구역이 획정되며 사대문안과 주변 일부 지역이 한성부로 편제되었고,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다가 세종 시기에 들어와 성저십리의 경계가 잡혔다. 조정에서는 한양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외곽에 금표(禁票)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성저십리의 경계, 다시 말해 한양의 외곽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치환하면 한강(용산포구)-마포-불광동-북한산-우이천-미아리-중랑천을 잇는 선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자료마다 성저십리의 경계가 다르게 표현되어 정확한 경계를 규정하기 어려우나 자연지물인 우이천, 중랑천, 한강, 홍제천을 외곽경계로 보면 그 공간적 범위가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초창기 성저십리에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지 않았지만 인구증가에 따른 도심의 확대와 민간상업의 번성 등과 맞물려 점차 개발이 촉진된다. 한양도성이 가지는 도시로서의 성격은 성저십리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한양도성을 완성하기 위해 조선 건국 직후에는 수많은 공역이 행해졌다. 태조 대에는 종묘, 사직, 궁궐, 관청, 성곽, 도로 등의 핵심시설을 갖추는 데 주력했고, 태종대에는 창덕궁, 문묘, 경회루, 행랑 등을 건설함으로써 기존 시설을 확장하였다. 개천도 준설하여 범람을 예방하기도 했다. 인구 유입이 확대되며 민가 가옥의 증설이 이루어졌고, 도로와 시전도 정비되었다. 세종대에는 외성곽의 보수와 궁궐 등 예제시설의 정비 등이 진행되어 한양도성의 물리적 형태가 완성되었고 도성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도 정착되었다. 이와 같은 공역에는 막대한 인력과 물자가 요구될 수밖에 없었는데 조정에서는 인민의 고충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각 공역 구간의 징발 단계에서부터 도별로 토지와 인정의 규모를 감안하여 균등하게 배분하려고 했다. 또한 공정에 따라 목표 단계에 진입하면 농번기나 혹서, 혹한기 등을 고려하여 인력들의 소집을 해제했다가 다시 징집하는 등 운영의 유연성을 살리고자 했다. 물론 공역의 성격에 따라 흉년이나 기타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나 공납을 강행<sup>6)</sup>한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실록의 기록에서는 계획의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최대한 효율성과 유연성을 고려하려 노력했던 모습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성된 한양도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적지 않은 기록들이 있지만 그 중 태종실록의 기사가 한양의 경관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성 5부의 이전에 방의 이름인 방명을 세워서 변별하여 보게 하였는데, 지금 이것이 모두 퇴락하였으니 ~중략~ 큰 길 이외에 여리의 각 길도 본래는 모두 평평하고 곧아서 거량의 출입을 편리하게 하였는데 사람들이 자기 집을 넓히려고 길을 침로해 길이 좁고 구불구불해졌으며 ~중략~ 도로를 전과 같이 닦아 넓히소서. 한성의 가사(家舍)는 모두 띠로 덮었고 조밀하여 화재가 두려우니 각 방에 한 관령마다 수웅(水甕)을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하소서. 길 옆의 각 호는 모두 나무를 심게 하고 냇가의 각 호는 양안에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게 하소서.”*

기사에는 도성 내의 행정구역 현황, 도로의 규모와 상황 및 무단점거 실태, 재해예방 대책, 가로 및 하천정비 방안 등 도시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상과 당시 상황이 그려져 있다. 후술하겠지만 필자는 유교적 세계관으로 만들어졌던 도시가 현실문제와 맞닥드리게 되면서 변화해가는 모습이 한양도성이라는 대도시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도시 구성의 핵심요소들이 어떤 사회·경제적 동인에 노출되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6) 대규모 공역의 성격상, 각 도에서는 상시적인 공납 외에 별도의 공납까지 부담해야 해서 종종 상소를 통해 부담을 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대 역사가 이어졌던 상황에서 공납 축소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 같다. 별도의 수요를 대비하는 조치가 행해지긴 했지만 대부분 공물로 징집하고 백성을 동원해 운반했다(김윤주 2018).

### Ⅲ. 한양도성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과정

#### 1. 행정처소 및 제례시설

##### 1) 궁궐(조정)

유교국가에서 ‘예(禮)’를 통해 천자에서 서민까지 각각 차등을 두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통일시켜 안정된 통치를 펼치기 위함이다. 한양도성 건설에 있어 전체적인 성곽 구조로부터 건축물의 세부양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고민되었던 사항이 예제적인 질서를 어떻게 현시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런 건축원리는 군신 간의 준비와 귀천을 차등적으로 구분하여 국왕의 최고의 권위를 밝혀주는 예제질서 실현의 방법이자 권력구조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러한 예제건축의 핵심이 바로 통치자가 거주하는 궁궐이다. 따라서 도성에서 왕성의 배치와 구조, 들어서는 건축물들은 당대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이상향으로 삼은 유무형의 가치를 물리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지면으로 세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경복궁을 포함한 궁궐의 모든 건물은 분명한 위계성을 매개로 이어져 있는데 같은 궁궐의 전각이라고 해도 왕과 왕비, 세자, 종친 등 건물을 사용하는 이의 신분에 따라 건물의 격이 달라진다. 건물의 명칭은 기본이며 각 건물의 높이와 규모, 담장의 높이와 두께, 익공(翼工)의 수, 계단 층수, 지붕 용마루의 유무 등 예제건축의 개념이 철저하게 적용되어 있다.

한양도성에는 총 6개의 궁이 있었다. 법궁인 경복궁 외에 창덕궁, 창경궁, 인경궁, 경덕궁(경희궁), 경운궁(덕수궁)이 있다. 인경궁은 광해군 대에 사직단 동쪽에 만들었는데 인조 대에 훼손되어 목재는 창경궁과 창덕궁을 짓는데 사용된다. 본장에서는 인경궁을 제외한 5대궁 이력과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 (1) 경복궁

조선왕조의 법궁이며 다른 궁궐과 비교하여 도성 내부에서의 위치를 제외하고는 가장 ‘정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진 궁궐이다. 고공기의 개념과는 다르게 도성 중앙이 아니라 북악산을 뒤로 두고 시전을 궁궐의 전면에 배치한 형태이다. 그래도 경복궁은 조선이 유교 국가를 표방한 뒤, 만들어진 최초의 궁궐이기 때문에 궁의 배치나 궁궐 전각의 배치 등 여러 요소에서 가능한 고공기에 충실하려 한 노력의 흔적이 보여지는 편이다. 이후의 궁궐들이 굉장히 개성적인 입지와 전각배치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경복궁은 법궁으로 조성(1395)되지만 정종대의 개경환도와 태종대의 이궁운영이라는 변수가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세종 대에 이르러서이다. 세종이 공식적으로 경복궁에 임어하게 되면서 궁궐 내의 각종 제반시설의 정비가 완료된다(장재혁 2004). 경복궁의 각 문들에 이름을 붙이고 동궁을 만들고(세종 9년), 사정전과 경희루를 중수(세종 11년)하고 광화문을 개축(세종 13년)하고 흠경각을 만들고 선원전을 이건(세종 20년)하고 교태전(세종 22년)을 만들고 자격루(세종 20년)를 설치하는 등 제대로 된 궁궐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경복궁을 정비·확대해 나아가는 모습은 단순히 궁의 규모를 확장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세종이 조선의 통치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궁에 동궁(東宮)을 건립한 것과 세자가 조례를 받는 계조당(繼照堂)을 마련한 것은 세자궁과 관련한 의례를 정립하는 동시에 차기통치자인 세자가 중앙정치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과 동일한 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기 완성된 경복궁의 규모는 이견은 있으나 『태조실록』의 기록을 참고할 때, 대략 390여 칸이었다고 추정된다. 대략적인 구역의 범위는 광화문을 남쪽 경계로 강녕전을 북쪽 경계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sup>7)</sup>. 이후 명종 8년(1553년)의 화재로 다수의 건물이 소실되어

다시 재건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세종 대에 완성된 경복궁의 기본 골격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임진왜란을 거치며 소실(1592년)된 경복궁은 오랜기간 한동안 폐허로 남아있게 된다. 전쟁이 종결되고 선조 38년(1606년) 궁궐영건도감을 설치하여 근정전, 광화문 등 중요건물만이라도 먼저 복구할 계획을 세웠으나 전란 후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 실행되지 못한다. 이후 조선 후기에는 창덕궁이 실제적인 법궁 역할을 맡고 경덕궁이 이궁으로 병용되게 된다<sup>8)</sup>.

조선말의 혼란 속에 고종이 즉위한 뒤, 실권을 잡은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상징인 경복궁 재건을 추진한다. 경복궁이 중건될 당시의 조선의 대내외적 상황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키기에는 녹록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나 무리한 공사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의 실물 경제는 더 엉망으로 망가진다. 여하간에 중건된 경복궁은 왕실의 권위를 표상하는 건축물로 부활(1868)한다. 남아있는 도형자료를 통해 역산해 보면 전체 7,225.5칸 규모로 후원 둘레만 698.5칸, 궁성 담장의 길이는 1765칸에 달한다. 궁궐이 완성되고 왕이 이어하지만 고종35년(1895) 을미사변이 발생하고 왕이 러시아 공관으로 도피함에 따라 또다시 방치되게 된다. 버려져 있다시피 했던 경복궁은 일제의 국권침탈 과정에서 전각들이 헐려 민간에 방매되고 1917년 창덕궁에 화재가 발생하자 남은 전각마저 철거하여 그 자제들로 창덕궁을 수리하기도 하였다.

현재 경복궁과 관련해 남아 있는 자료들은 조선후기의 것이 대부분이라 초창기 경복궁이 모습이 어떠했을지 그려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발굴 등을 통해 일부 드러난 조선 전기의 전각들은 중건기의 것들과 동일한 배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중건된 자료를 통해 일정수준 경복궁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나 일본의 궁들이 그러하듯 경복궁도 「고공기」에 기록된 사상과 배치구법이 각 전각들의 배치원리에 반영되어 있다. 크게는 전조후침(前朝後寢)과 삼문삼조(三門三朝)의 원리가 그것인데 왕이 정치를 하는 조정을 궁궐의 앞에 그 뒤에는 거처인 침전을 배치하고, 궁궐을 3개의 영역으로 나눠 각 영역에 3개의 문을 둔다는 것이다. 3개의 영역은 내조(內朝)(연조燕朝), 치조(治朝), 외조(外朝)를 뜻하는데 간단히 말해 왕의 침전과 왕실의 생활공간인 연조는 치조와 외조보다 궁궐의 안쪽에 위치한다는 개념이다<sup>9)</sup>. 경복궁에는 이러한 개념이 충실히 발현되어 왕이 국내·외의 공식적 행사를 진행하는 정전과 신하와 정사를 의논하던 편전, 왕이 거주하던 침전, 이 세 영역이 경복궁 중앙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이 중심축을 주변으로 북편에는 후원이 궁장 안쪽의 좌우 남은 공간에 후궁전과 기타 궐내 각사들이 놓여졌다. 후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는데 조선후기 『북궐후원도형(北闕後園圖形)』을 보면 북쪽 신무문 밖으로 별도의 정원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지만 이것이 전기의 후원영역과 관련되는지는 알 수 없다.

- 7) 태조실록 4년 9월의 기사 중 “總三百九十餘間也”의 해석을 기사 내에서 기술한 궁궐 전각들의 총규모로 해석하여 390여칸으로 보는 의견이 있고 내전과 외전에 대한 서술내용을 분리시켜 내전 170여칸, 외전 190여칸, 궐내각사 390칸 총 750여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당시 건물규모를 정면칸수만 기록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고종 대의 건청궁이 250칸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과는 다른 서술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본문에서는 태조실록의 기록을 참고하여 서술한다.
- 8) 조선후기의 군주들은 대체로 경복궁에 무심했다. 숙종때 중창이 의제화되지만 사실상 묵살된 건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영조는 드물게 관심을 보인 군주였는데 숙빈 최씨 사당인 육상묘(毓祥廟)를 세우고 자주 참배하였으며 근정전의 뜰을 시험장소로 사용하고 경회루 주변도 정비하는 등 경복궁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영조 때도 그 이후에도 경복궁 중창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
- 9) 삼문삼조설에 대한 개념이 『주례』에는 없고 이를 해석한 후대학자들에서 비롯된 것이라 경복궁 전각배치에 사상적 원리가 반영되었다는 설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김동욱 2001).

## (2) 창덕궁

한양도성의 북쪽에 위치하며 동남쪽으로 종묘, 동쪽으로 창경궁과 연결되어 있다. 태종은 즉위 후, 한양으로 옮겨 오는데 무악 근처에 새로이 도성을 건설하고자 하나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된다. 이때 경복궁에 들어가지 않고 새로이 만든 궁궐이 창덕궁이다. 창덕궁은 태종 11년(1411) 조성한 진선문과 금천교, 그 이듬해 만들어진 궁궐 정문인 돈화문이 세워지고 다른 전각들이 점차 들어서면서 궁궐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창건 당시 창덕궁은 외전72칸, 내전118칸의 규모로 만들어졌는데 정전, 편전, 침전 등 필수전각 위주로 지어졌기 때문에 협소하다는 인식도 있었던 것 같다<sup>10)</sup>. 하지만 태종은 즉위기간동안 대부분 창덕궁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미비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정궁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sup>11)</sup>. 이러한 태종의 전례가 이후의 군주들이 창덕궁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 이후 세조는 인정전을 개수하며 전각의 명칭도 새로이 정하고 궁의 후원 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 창덕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데 이 시기가 창덕궁이 궁궐로서 완성된 시기이다. 세조 때 완성된 창덕궁도 임란을 거치며 멸실된다. 전쟁이 종료되고 궁궐을 재건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어지는 와중에 법궁인 경복궁보다 규모가 작은 창덕궁을 재건하는 것으로 중지가 모아진다. 선조 38년(1623)부터 재건 준비를 시작하여 광해군 원년(1609)에 인정전을 비롯한 주요 시설물이 거의 복구가 되지만 인조반정(1623)을 거치며 다시 전각들이 소실되어 인조25년(1647)에 가서야 창덕궁의 복구가 완료된다<sup>12)</sup>.

창덕궁은 인정전(정전)과 선정전(편전)을 중심으로 한 치조영역, 회정당과 대조전을 중심으로 한 침전영역, 그리고 후원인 비원영역과, 조선후기 만들어진 침전인 낙선재로 구성되어 있다. 낙선재는 『궁궐지』에 창경궁의 건물로 기록되어 있지만 창덕궁과 창경궁을 잇는 위치에 있어 명확한 구분은 어렵다. 낙선재 영역의 건물들은 서쪽의 낙선재와 동쪽의 수강재, 그 가운데에 끼어있는 석복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왕을 비롯한 중친들이 거처했다. 조선시대 침전건물은 대체로 좌우대칭의 형태인데 반해 일반 사대부가의 형태(안채, 사랑채)를 보이고 있어 특이하다. 창덕궁 전각들의 배치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특정한 중심축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전과 편전은 거의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침전은 치조의 동북쪽에 정문인 돈화문은 정전의 서남쪽에 위치<sup>13)</sup>하고 있다. 이렇게 유연한 배치는 북악의 응봉에서 펼쳐진 구릉지에 궁궐이 위치하더라도 기인하였을 것인데 필자는 설계 담당자였던 박자청이 고려의 산지가람배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 (3) 창경궁

세종은 즉위(1418)하며 상왕(태종)을 모시기 위해 창덕궁 옆에 수강궁을 지었다. 수강궁은 태종과 왕실가족들이 거주했는데 태종 승하 후에는 후궁들이 거처했다. 이후 단종이 즉위년에 잠시 머물고 세조가 말년에 사용하는 정도로 사용되었다. 성종14년(1483) 대왕대비 정희왕후와 성종의 모친 소혜왕후 등을 모시기 위해 수강궁을 증축하여 별궁을 만드는데 이것이 창경궁이다. 창경궁은 처음부터 이궁으로 설계되고 성종 대의 증축도 창덕궁의 공간부족으로 인한 단순확장<sup>14)</sup>이었기 때문에 경복궁, 창덕궁과 비교하면 궁궐로서의 격이 떨어지는 부

10) 정전 등 의례가 이루어지는 외전들이 협소하여 태종 대에 다시 개축이 이루어질 정도였다.

11) 태종은 대부분 창덕궁에 머물렀지만 사신이 오면 반드시 경복궁 사정전에서 영접했고 연회를 베푸는 등 국가 행사는 대부분 경복궁에서 치렀다. 경복궁을 분명히 법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12) 숙종, 영조, 정조 시기에도 대보단, 규장각이 만들어지는 등 소소한 변화는 이어진다.

13) 이를 대문에서 내당이 직접 보이지 않게 하는 중국식 사합원의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상해 2004)도 있다.

분도 간취된다. 창덕궁과 창경궁이 종묘와 인접해 왕이 종묘의 신위를 참배하기 편리하였기 때문에 경복궁 동쪽에 만들어졌다는 견해도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창경궁은 임란을 거치며 소실되었다가 광해군 7년(1615)에 다시 중건된다. 이후 인조(이괄의 난/1624)와 순조(환경전 화재/1830) 대에 입은 화재로 재건되기를 반복한다. 효종 3년(1652)과 7년(1656)에 걸쳐 많은 전각들을 수리·신축되었으며 현종과 숙종, 정조 연간에도 전각과 문 등이 새로이 만들어졌다. 창경궁은 정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창덕궁과 인접하여 왕들에게 빈번하게 쓰였으며 시대 상황에 맞추어 궁궐의 확대·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창경궁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선시대의 궁궐 가운데 유일하게 동향을 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경운궁이나 경덕궁도 정문(오문)의 방향은 동쪽이지만 내외전의 주요 건물은 남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궁궐 전반이 동향인 창경궁과는 구별된다. 창경궁의 외전을 이루는 건물군은 동향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내전의 건물군은 남향을 하고 있다. 다시말해 오문인 홍화문에서 정전인 명전전은 동향을 편인인 문정전, 침전인 통명전과 환경전은 남향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경궁은 대왕대비 등 왕실가족들의 거주를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대비전, 후궁처소, 왕의 침전영역이 섞여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흥미로운 것은 궁의 ‘격’에 어울리지 않게 무려 5개 ‘전(殿)’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세명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 특별하게 마련되었을 것이다(김동욱 2017). 거주공간은 명전전의 북쪽에 배치되었고 궐내각사 등 부속시설은 정전의 남서쪽으로 배치되었다. 창덕궁은 순종이 즉위하고 급격히 변화하였는데 일제강점기인 1909년에는 전각들을 헐어내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설치하였고 1911년에는 자경전터에 박물관이 들어서게 되면서 명칭도 ‘창경원’으로 바뀌게 된다.

#### (4) 경덕궁(경희궁)

광해군은 선조 대부터 이어온 창덕궁 재건을 완료하지만 이어하기를 내키하지 않았던 듯하다. 오히려 인왕산 아래에 새로이 인경궁과 경덕궁을 짓도록 한다. 광해군 9년(1617)에 영건재의가 있는 뒤, 인경궁 공사가 길어지자 경덕궁을 먼저 완공토록 하여 광해군 12년(1620)에는 거의 완공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인조반정(1623)과 이괄의 난(1624)으로 창덕궁과 창경궁이 소실된다. 이때 인조는 광해군의 흔적을 지우는 의미에서 인경궁을 해체하여 창경궁과 창덕궁을 수리한다. 이후 효종 8년(1657)에는 창덕궁 만수전 복구를 위해 경덕궁 전각을 훼손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숙종 19년(1693)에는 대대적인 수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경덕궁에서는 숙종이 탄생했으며 경종, 정조, 현종이 즉위하고 숙종, 영조, 순조는 치세말년을 보내다가 승하하는 등 왕궁으로서 활발히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영조는 궁의 이름을 경희궁으로 개칭(1760)하고 즉위기간의 반이상을 경희궁에서 머무는 등 애착을 보이기도 한다. 경희궁은 규모나 격식이 별궁의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데 순조 29년(1829)에는 화재로 융복전, 회상전등 내전 전각들이 소실되지만 하지만 곧바로 복구에 착수하여 2년(1831년)만에 마무리 하는 등 별궁 이상의 지위를 누린다. 철종은 경덕궁을 수리(1859)하고 이어(1860)까지 하지만 반년정도만 머물고 다시 창덕궁으로 옮기는데 이 시기를 끝으로 이궁으로 역할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고종 대 경복궁이 재건된 이후에는 이용이 더 드물어지고 1868년에는 궁내의 빈 땅을 경작지로 불하하면서 사실상 궁궐로서의 경관과 지위를 상실한다.

궁의 배치는 『서궐도안』 등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정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동남

14) 창경궁은 궁역이 명확하지 않은데 실제로 창덕궁 하나의 궁궐처럼 사용되었고 둘을 묶어 동궐(東闕)로 지칭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다.

편에 있는 정문에서 서행하다가 숭정문이 보이는 곳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독특한 구조이다. 물론 정전인 숭정전은 남면하고 있고 정전 북편과 동편에 편전(자정전, 흥정당)을 갖추고 동쪽으로 동궁(경현당), 내전(회상전, 집경당)과 대비전(장락전)을 두는 기본적인 체계는 충실히 따르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특히 내전과 외전의 주요 정전에 월대를 마련하여 의식까지 준비하는 등 정궁이 가져야 할 기본요소는 모두 갖추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궐내의 지원시설로 보이는 행각들은 궁역의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이어지는 대각선으로 배치시켜 내전과 침전 등 주요 영역으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다. 궐내각사는 궁 남쪽에 배치되어 내전과 외전을 분리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지정된 후원영역은 없으나 궁궐 북쪽의 광명전과 주변의 춘화정·영취정이 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 (5) 경운궁(덕수궁)<sup>15)</sup>

임란을 거치며 궁궐들이 모두 소실되어 한양에 돌아온 선조는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이때 한양에 남아있는 저택 가운데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저택이 가장 규모가 컸었기에 이곳을 임시 행궁으로 삼게 된다. 하지만 규모가 충분치 않아서 인근의 계림군과 심의검의 집을 궁내로 편입시키고 ‘정릉동행궁’으로 부르며 창덕궁 재건 전까지 사용한다. 광해군 3년(1611)에 경운궁이라는 정식명칭이 생기지만 인조가 즉위식을 거행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왕이 사용하지는 않았다. 인조 원년(1623)에 경운궁의 침전인 즉조당과 석어당을 제외하고 월산대군 집안에 돌려주었기 때문에 고종 대 을미사변(1896) 발발 이전까지는 궁궐로서의 권위와 기능을 상실한다. 고종은 아관파천 후, 대비와 태자를 러시아 공사관과 인접해 있던 경운궁으로 옮겨놓는데 이후 본인이 환궁하기 위해 경운궁을 대대적으로 증건한다. 이 시기에 궁내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선원전, 함녕전, 즉조당 등 많은 전각들이 들어서게 된다. 대한제국을 개창하고 광무4년(1900)에는 궁장을 쌓았고 1901년에는 돈덕전 등 양관건물을 만드는 등 궁궐 체제를 정비하나 1904년의 화재로 주요 전각들이 전소된다.

경복궁을 제외한 4대궁은 궁역의 형태와 전각의 배치에서 높은 자유도가 간취되는데 경운궁은 그 가운데 가장 비정형적인 형태를 보인다<sup>16)</sup>. 궁역이 면적面的인 점유형태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도성의 도시계획 안에서 이미 궁궐 영역이 안배되어 있었던 경복궁이나 다른 궁궐과 다르게 완성된 시가지 안에서 외국공관 등을 피해 기존의 거주역을 편입시켜야 했기 때문이다(안창모 2010). 경운궁은 크게 중화전(내외조 및 침전) 영역과 수옥헌(중명전) 영역, 흥원(선원전)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중화전 영역은 현재의 경운궁 영역이며 흥원은 제사 및 왕실가족의 교육공간(양이재, 함회당), 수옥헌은 1904년 화재 때 왕실이 거주했던 공간이다.

덕수궁은 전체적인 평면배치가 경덕궁하고 흡사한 부분이 두드러지는데 일단 정문인 대안문이 동향이고 정전인 중화전이 정문과 ‘L’ 형태로 이어진다는 것, 특별한 후원영역이 없다는 점이 그러하다. 물론 정전의 동측으로 편전(덕흥전)이 있고 그 동측으로 침전(함녕전)을 배치하고 그 동쪽으로 왕대비전(수인당)과 동궁을 배치했는데 궁궐 전각의 기본배치를 어느 정도 추종하고 있다. 경덕궁과 다른 부분은 정문에서 정전으로 이어지는 통로 안쪽으로 궐내각사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시의 시대상황에 맞추어 석조전과 중명전, 정관헌 등 양식건물이 들어서 있는 점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5) 순종에게 양위한 고종이 경운궁에 머물게 되면서 고종의 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덕수궁으로 명명된다.

16) 『경운궁중건배치도』와 小田省棼의 『덕수궁사』 덕수궁평면도를 병합하여 제작도한 도면에 기준한다.

## 2) 궐외각사

경복궁 영건과 함께 광화문 전면 대로에 도평의사사(후에 의정부)를 위시한 육조와 중요 관아들을 배치되고 이 거리는 ‘육조대로’ 명명된다. 광화문 동쪽으로 도평의사사가 자리잡고 그 아래로 이조와 한성부, 호조가 배열되고 서쪽으로는 예조, 사헌부, 병조, 형조, 공조 등의 관아가 배치된다. 초창기 육조대로의 관아들이 어떠한 모습<sup>17)</sup>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임란 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고종 대에 증건된 관아들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비정해 볼 수 있는데 관아들은 육조거리 방향으로 솟을삼문을 놓고 문 안쪽으로는 본청(당상대청)을 배치시키고 그 뒤로 연못이나 정자를 마련한 구성이 정형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궐외각사는 육조대로에만 있던 것은 아니다. 태종 12년5월(1412) “도성 좌우의 행랑이 완성되었다. 궐문에서 정선방 동구까지 행랑이 4백72칸이고, 진선문 남쪽에 누문 5칸을 세워 돈화문이라고 명명하였다. 의정부에서 창덕궁 문 밖의 행랑을 각사(各司)에 나누어 주어 조방(朝房)으로 만들 것을 아뢰었다.”는 기록이 있다. 기록의 궐문은 당시 정황으로 보아 창덕궁 쪽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도성 좌우의 행랑을 관청가로 볼 경우, 광화문의 육조대로와 돈화문의 관청가가 함께 운영되었던 정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육조대로의 관청은 본부, 창덕궁 관청가<sup>18)</sup>는 출장소나 외청이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도성 곳곳에 관청들이 배치되었는데 금위영은 창덕궁 주변, 훈련원은 남소문 근처, 어영청은 성균관 근처에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비변사<sup>19)</sup>의 경우, 창덕궁과 경희궁 근처에 각각 청사를 두기도 하였다. 의정부나 육조 등 핵심관서들은 여전히 육조대로에 있었으나 비변사의 청사가 나뉘어 있었던 것은 왕들이 주로 이어하는 궁궐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돈화문 관청가와 비변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적인 법궁을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왕과 국정을 논의하기 용이한 궁궐의 인근에 청사를 두고 이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제례시설

한양건설은 종묘와 사직을 먼저 짓고, 궁궐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곽을 쌓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왕이 거쳐해야 할 궁궐보다도 도성을 지키는 성곽보다도 종묘와 사직을 우선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례의 실행과 현시를 위해 구축된 공간을 예제건축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공간들이 대체로 단(壇)과 묘(廟) 형태로 나타나므로 ‘단묘건축’으로 부르기도 한다<sup>20)</sup>. 궁궐이 국왕의 권력을 위(威儀)하는 동시에 이를 과시하는 상징물이라면 궁궐의 좌우에서 국가의 권위를 지탱해 주는 것이 종묘사직인 것이다.

유교가 조선에 뿌리 내리며 예제시행을 위한 다양한 제사시설이 도성에 들어서게 되는데

- 17) 태종대 장랑건설과 함께 육조아문을 정2품으로 승격시키며 육조대로에 관아들이 배치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세종시기 국가기관의 통합과 신설이 이루어지고 육조관청간의 위계조정도 있었는데 이때 변화된 위계에 맞추어 대로내 관청의 배치도 조정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김동욱 2017).
- 18) 중심행정기관이 아닌 승문원(외교문서), 교서관(책제작, 제서관장), 좌포청, 통례원(국내외 교섭), 둔녕부(왕의 친척에 대한 족보관리)등의 관청도 있었다.
- 19) 비변사는 원래 국방과 관련한 중요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였으나 임란이후 재정을 비롯한 국정 전반을 다루게 되면서 업무영역이 의정부를 넘어서게 된다.
- 20) 국가의례는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과 도덕적 가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국조오례의』를 보면 의례의 대상을 천신(天神), 지기(地祇), 인귀(人鬼)로 적시하고 있는데 각각의 의례 명칭 또한 다르다. 이들 의례는 중요도와 성격에 따라 다시 대·중·소사(大·中·小祀), 기고제(祈告祭), 주현제(州縣祭), 속제(俗祭)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국가의례들이 이뤄지는 공간이 주로 단(壇)과 묘(廟)의 형태로 출현하므로 ‘단묘건축’으로도 지칭하기도 한다(梶川晶哲 2005).

묘(廟)와 단(壇)뿐만이 아니라 사(祠, 사당)도 그 수가 증가한다. 조선시대의 묘, 단, 사는 처음에는 도성내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지만 이후 도성 안팎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조선전기 태종대에는 풍운너우단, 영성단, 우사단 등 15개 이상의 단이 만들어졌다. 임란 이후에는 전쟁에서 죽은 명군을 위한 사당인 민충당과 명의 병부상서를 위한 선무사가 홍제원에 세워지고 도성의 남쪽(1598)과 북쪽(1602)에 관왕묘도 만들어진다. 이외에도 숙종 때는 명 신종을 위한 대보단이 창덕궁 안에 세워지고 중국 진나라의 선비를 기리는 숭절사도 만들어진다(이상해 2004).

언급된 시설들은 대체로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제례시설인데 시간 경과에 따라 사묘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묘의 증가와 반대로 도성내부의 경관을 구성하던 사찰의 수는 격감하는데 흥천사(지금의 덕수궁), 원각사(탑골공원), 흥덕사 등은 원각사 십층탑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진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교의 교조적인 성격이 강화되면서 도성내부의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시설물이 사묘로 교체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성 외부 성저십리에는 일반 백성들의 소묘로 만들어진 제사시설이 들어차기 시작한다. 조선전기의 성저십리는 거주나 벌목, 이동 등 여러 가지 행위가 지극히 제한을 받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의 수요를 충족할 만한 시설들이 들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한양으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며 성저십리의 거주민이 증가하고 초기의 제한이 알음알음 느슨해지며 성저십리 곳곳에 민간신앙에 기반한 제사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본장에서는 한양도성 내 제례시설의 핵심인 종묘, 사직과 문묘를 중심으로 언급하도록 한다.

### (1) 종묘

종묘는 국왕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으로서 종법사회의 수직적 위계질서의 표상이다. 『예기(禮記)』 21)에 따르면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로 짓게 되어있으나 앞서 고려는 양제의 사이에서 변경을 거듭한다<sup>22)</sup>. 조선은 처음에는 5묘제의 개념을 적용하여 종묘를 설계하나 이후 변화를 거듭하여 결론적으로 중국의 그것과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태조 4년 정전을 영건한 이후, 태종 10년 정전의 형태를 고치고 세종 때 별묘인 영녕전을 지었는데 이때 완성된 형태가 종묘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증축을 반복하다가 임란 때 소실된 것을 선조 39년(1606) 종묘궁궐영건도감을 설치해 재건을 추진하여 광해군 원년(1608)에 완성시킨다. 이때 재건된 정전은 명종 때의 규모이다. 종묘의 역사는 ‘증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조 내에 이루어졌던 종묘의 전각구성, 신위의 배치와 관련한 논쟁은 모두 공간부족으로 인한 증축과 연결시켜 설명가능하다. 종묘는 처음에 5칸의 신실을 갖추고 있었다. 세종1년(1419) 정종이 승하하고 그 신위를 종묘로 안치시켜야 했는데 이미 가득찬 신실이 문제가 된다. 이에 송(宋)의 예를 따라 별묘인 영녕전을 세워 목왕의 신위를 옮기게 된다. 사실 영녕전은 성격이 다른 사친묘와 조묘가 합쳐진 형태로 중국의 그것과 구분되는 조선 종묘의 가장 큰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세차(世次) 중심의 서상제(西上制)를 기본으로 운영하였지만 성종 때까지도 원칙이 정립되지 않은 체 임시변통으로 운영되어 임금이 승하하면 항상 신주를 어디에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신위문제가 발생하였다.

21) 天子七廟 諸侯五廟 大夫三廟 士一廟 庶人祭於寢

22) 고려의 종묘기록은 성종7년 오묘제를 정한 것이 최초이다. 처음엔 세대당 1위의 신주를 모셨으나 성종9년에 5묘9실제(네자리는 불친위)를 채택한다. 이후 5묘9실제를 유지하다가 의종 대에 들어와 천자식 7묘제로 개편한다. 몽골의 침략을 맞아 강화도로 천도하며 5묘제로 복귀한다. 이후 원종이 개경(1270)으로 환도하며 7묘제 채택하나 천자식 예법은 충렬왕 대부터 쓰지 못하고 다시 5묘제로 바뀐다.

<표 2> 종묘의 변화과정

연대	내용	세부내용
태조 4년(1395)	종묘 창건	▶ 정전 대실 7칸, 신문3칸, 동문3칸, 서문1칸 ▶ 공신당 5칸, 신주7칸, 향관청5칸, 재궁5칸
태종9년(1410)	종묘 앞으로 가산 조성	
태종10년(1410)	증축 및 전각배치 변경	▶ 정전 좌우에 동서월랑을 증축, 정전의 평면이 '-자 >' 'ㄷ'자로 바뀜 ▶ 정전 담의 안 동쪽으로 공신당 이축
세종3년(1421)	영녕전 건립	▶ 영녕전 6칸
성종5년(1474)	증축	▶ 정전7칸, 동서 협실 각2칸 ▶ 영녕전4칸, 동서 협실 각2칸
명종 원년(1546)	증축	▶ 정전 신실 4칸 증축
선조25년(1592)	임진왜란 소실	
광해군 원년(1608)	종묘 재건	▶ 정전 신실11칸, 동서 협실 각2칸 ▶ 영녕전 중앙4칸, 동서협실 각3칸
현종8년(1667)	증축	▶ 영녕전 및 동서 협실 각1칸 증축
영조2년(1726)	증축	▶ 정전 4칸 증축
영조43년(1767)	증축	▶ 공신당 증축
헌종2년(1836)	증축	▶ 정전4칸 증축 ▶ 영녕전 및 동서 협실 각 2칸을 증축

거기에 연산군 시기 불천위 다시 말해 세실을 도입함으로써 정전의 대실부족 문제는 배가된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증실 밖에 없었기에 그 이후로도 증축이 이어진다. 임란 후 명종 때의 규모로 종묘가 재건되는데 고려의 사례<sup>23)</sup>를 참조하여 서상제를 기본으로 한 동당이실제도<sup>24)</sup>로 운영하게 된다. 서상제를 기본으로 한 동당이실제를 적용하게 되면 예법에 어긋나지 않고 건물 증실도 용이하게 되는 이점이 생긴다. 1자형의 건물의 양측면에 새로운 전각을 붙이는 것으로 증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증축에 따른 신위의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란 이후의 안정치 못했던 사회·경제적 정황이 제도 채택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종묘는 유교 건물의 정수답게 건물의 규모, 배치 등에서 엄격한 위계성이 반영되어 있다. 영녕전은 정전에 비해 건물영역이 좁고 가운데 4칸의 4친을 모신 부분만 정전과 같은 크기와 높이이다. 영녕전에는 공신당과 칠사당도 없다. 현재 남아있는 주요 건물의 규모를 보면 정전은 감실 19칸, 좌우협실 2칸, 협실과 연결되는 좌우월랑이 5칸 규모로 자리잡고 있

23) 고려는 당제(唐制)를 모방하여 오묘(五廟) 및 이조묘(二祧廟), 동당이실방을 기본으로 세차 중심의 실수제한을 고려않는 원칙하에 9실을 지키며 별묘를 두었다. 이는 조선에도 영향을 준다(梶川晶哲 외 2000).

24) ‘천자는 7묘로 태조묘와 3소(昭) 3목(穆), 제후는 5묘로 태조묘와 2소2목을 뜻하는데 간단히 말해 신위(神位) 및 묘실(廟室)을 배치하는 순서에 대한 규정이다. 왕제설(王制說)과 제법설(祭法說)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소목제는 본래 태조묘를 중심으로 동서(東西)로 배치하는 것이 통례이나 조선은 임란 후에 역대 세차에 따라 서(西)를 상위로 하여 일자형의 동당이실(同堂異室)로 운영하였다.

으며 영년전은 감실 16칸, 좌우월랑 5칸이다. 공신당은 일자로 16칸 규모이다.

종묘가 다른 국가의 종묘와 구분되는 또다른 특징은 선대왕조인 고려 공민왕의 사당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태조가 역성혁명을 통해 왕위에 올랐지만 전조의 정통을 이어받아 조선을 개창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sup>25)</sup>

## (2) 사직

사직은 인민의 생존을 좌우하는 지기(地祇·토지신), 곡신(穀神·곡식신)을 모신 제단으로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사회의 경제적, 물질 토대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예전의 변천을 통해 당대의 인식 변화를 추적해보면 ‘종묘’보다 우선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설이다<sup>26)</sup>. 태조 4년(1335) 종묘와 함께 한양도성의 시설물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이후 태종6년(1406)에 사직단을 개수하고 이를 지키는 사직서를 두었다. 사직단은 중국의 그것과는 다르게 완전한 정남향을 하고 있지 않는데 주변지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국조오례의』 「사직단도」와 『세종실록』 「오례조」를 참조하면 사직단은 동쪽의 사단과 서쪽의 직단으로 구성되며 단의 안에는 방위에 따른 색의 흙으로 꾸미고 황토를 덮었다. 단의 규모는 사방 2장5척, 높이 3척에 사방으로 3층 계단을 낸 형태이다. 이 양단은 25보(15장) 길이의 얇은 담(塼, 이하 유)이 두르고 있으며 담의 사방으로 홍살문 형태의 유문을 두었다. 유 바깥으로 다시 담을 둘렀는데 둘레담에도 홍살문을 두었다. 둘레담의 북쪽문만 삼문이다. 임란을 거치며 소실되는데 언제 다시 복구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선조 36년(1603)에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종묘보다 앞서 복원되었던 것 같다. 이때 복원된 사직단은 대체로 처음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단의 높이가 4치 정도 높아지고 유의 길이가 22보로 줄어드는 등 세세한 변화도 간취된다. 정조 7년(1783)의 『사직서의궤』 「사직서전도」에는 부속건물이 증가한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제사 등 사직단을 관리하는 일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사직단 관련 기록을 통해 비정해 보면 숙종 이전까지는 그리 중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숙종 시기 이후 특히 영·정조시기에 왕의 왕례나 신하들의 섭행이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사직단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대한제국 수립 이후이다. 단의 규모와 담장의 길이가 두배 이상 확장되고 계단도 5계단으로 높아진다. 이전의 사직단은 철저히 중화 중심의 제후예를 추종<sup>27)</sup>하고 있었으나 대한제국 시기의 사직단은 전례를 벗어난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확장과 사직단의 위상은 오히려 반비례하게 되는데 사직단에서 지내던 기우제나 기곡제가 원구단에서 행해지게 되면서 사직단의 위상은 추락한다.

## (3) 문묘

조선은 유교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은 국가였다. 따라서 공자, 즉 문선왕을 기리며 유학을 가르치는 시설이 필요했으며 대성전과 명륜당이 있는 문묘를 한양과 지방거점에 설치하였다. 문묘는 크게 제사공간인 묘우(廟宇, 대성전)와 강학공간인 학사(學舍, 명륜당)를 가지고 있으며

25) 태조 즉위교서에는 “나라이름은 이전대로 고려라하며 의장과 법제도 고려의 고사를 따른다” 기록되어 있다.

26) 국조오례의에서는 종묘보다 사직이 먼저 언급되나 고종 년간의 『대한예전』에서 종묘가 선행되고 이후에 사직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선초에는 ‘종묘사직’이 아니라 ‘사직종묘’였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국왕의 친제나 행례 관련 기록에서는 종묘가 빈번하게 노출되지만 ‘왕실’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는 사직이 우선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27) 예를 들어 중국의 『문헌통고』에는 천자의 사직은 길이가 5장이고 제후가 그 반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조선 사직단의 규모는 정확하게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이 시설들의 배치에 따라 대성전을 앞에 두고 명륜당을 뒤에 둔 경우를 전묘후학(前廟後學), 명륜당을 앞에 두고 대성전을 뒤에 둔 경우를 전학후묘(前學後廟)로 구분한다. 한양의 문묘와 지방 거점 향교에는 전자의 형태를 따르고 나머지는 후자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성 내 최초의 문묘는 태조 7년(1398) 한양의 숭교방에 96칸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대성전을 비롯하여 동무·서무, 그리고 명륜당과 동재·서재 등이 들어선다. 하지만 창건 2년만인 정종 2년(1400) 소실되어 7년 뒤인 태종 7년(1407)에 재건된다. 연산군 때에는 문묘가 태평관으로 옮겨지기도 하였는데 종종 즉위와 함께 돌아오게 된다. 임란을 거치며 소실된 문묘는 선조 34~35년간(1601~1602) 대성전 일곽이 먼저 중건되고 이듬해에 동무·서무·신문·중문을 선조 39년(1606)에는 명륜당과 동재·서재를 중건·확충하였다. 인조 4년(1626) 정록청·존경각 등을 재건하였으며, 고종 6년(1869)에도 보수공사가 있었다.

묘우의 중심공간인 대성전은 정면5칸 측면4칸 규모의 건물로 묘당건축의 특성에 맞추어 전면에 퇴칸을 내고 나머지 삼면을 벽채로 감싸 어둡게 조성했다. 남면한 신문(신삼문)에서 대성전까지 신로가 이어진다. 명륜당은 학사의 중심건물인데 담으로 대성전 일곽과 구분되어 있다. 명륜당은 중앙3칸 양쪽의 익당3칸 규모의 건물이며 중앙의 정당이 강당으로 사용되었다. 명륜당은 전체적으로 건물규모와 규모를 대성전보다 격을 낮추어 만들었다.

조선 전기까지 활발히 운영되던 문묘는 16세기 이후로 별시(別試)의 시행, 음서의 성행, 지방의 서원(書院)의 융성 등 분위기에 휩쓸려 교육기능을 점차 잃어가기 시작하고,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지되며 이후에는 묘우로서의 기능만 유지하게 된다.

## 2. 교통로와 행정구역

한성부는 성내 5부와 성저십리로 구성되는데 이들 구역은 크기는 성곽으로 구분되고 성내 5부는 성곽내외의 도로망과 자연지형을 기준으로 성저십리도 마찬가지로 자연지형과 도로망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구역구분이 이루어졌다. 성내 5부는 중부와 동부, 서부, 남부, 북부를 두었는데 성저십리 일부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5부 아래로는 방坊과 계契·동洞의 하부 행정구역을 두었다. 동부는 종묘동편에서 혜화문으로 나가는 길과 청계천, 도성 바깥으로는 혜화문에서 청계천 사이의 지역이 포함된다. 서부는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개천을 기준으로 북부와 경계를 이루고 승례문으로 가는 길을 기준으로 남부와 경계를 이뤘다. 도성 바깥 지역으로는 승례문에서 마포, 승례문에서 인왕산 남쪽까지가 서부의 행정구역이었다. 남부는 경복궁과 승례문 사이의 지역을 중심으로 청계천을 기준으로 동부 및 중부와 경계를 맞닿고 있었다. 도성 외곽지역은 승례문과 용산 사이의 지역이 포함된다, 북부는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개천과 혜화문 도로 사이의 지역을 중심으로 도성 바깥으로는 혜화문에서 인왕산에 이르는 서쪽지역도 포함된다, 5부 아래의 하부 단위로 방坊이 존재하였는데 태조 대(1396) 동부의 12방, 남부 11방, 서부 11방(성저십리 2방 포함), 북부 10방, 중부 8방의 총 52방 체제였다가. 세종시기(1424)에 서부지역의 방 3개를 축소(병합)시키며 49방 체제로 정비된다. 물론 한양 도성은 중국이나 일본의 도성에 베풀어진 바둑판 같은 조방제가 적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조선 초기의 성내 도로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태조3년(1394) 한양에 권중하 등을 보내 종묘·사직·궁궐·시장·도로의 터를 정하게 하였다는 기록을 볼 때, 도로구획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때 계획한 도로구획의 일정부분은 남경 시절의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종의 개경 환도 후, 도로정비는 거의 진척되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왕위에 오른 태종은 한양으로 재건도하며 행정구역과 도로정비에 착수하게 되는데 태종 7년(1407) 5부의 각방 및 교량에 이름을

붙이고 도로정비와 함께 가로수 식목을 장려하는 등 정비작업을 진행시킨다. 이후 1415년 도성 내 도로폭을 규격화하고 성 안팎의 도로개설 등도 진행하여 본격적으로 한양도성의 도시골격을 형성시키게 된다. 가로에 대한 정비는 세종대에 더욱 구체화된다. 특히 태종대부터 이어온 도로 규격을 확정하게 되는데 1대로는 7척, 중로는 2척, 소로는 1척으로 결정하게 된다. 충분한 도로 폭을 얻기 위해 도로를 불법점거한 가옥을 철거시키고 세종 13년(1431)에는 민호를 나누어 동리를 만들고 방리 사이에 새로이 도로를 개통한다. 새로운 도로를 부설한 것은 이전부터 다발했던 도성 내 화재에 대비한 조치이기도 한데 행랑에 화방용으로 담장을 만들고 가옥사이에 우물을 개발하는 등 대책도 추가한다.

도성 내 가로에 대한 개선은 계속 이어진다. 성종 대에 이르러 『경국대전』에는 대로56척, 중로16척, 소로는 11척으로 하며 도로의 측구는 2척 너비로 확정함으로써 도성 내 도로 규격이 완전히 정해진다. 이후, 도성내의 도로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보수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전술했듯 한양도성은 바둑판 모양으로 완벽하게 구획된 조방제는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도성내부의 주요 도로망은 자연 구릉이나 하천 등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결국 도성 내의 도로구획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규정했던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과는 다르게 한양도성내의 행정구역은 도로망이 일정정도 구분기준으로 작용하지만 실제로는 자연지형에 더 영향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한양도성 내부의 도로 가운데 사료에서 정식명칭이 확인되는 것은 육조대로와 운중가뿐이다. 이는 한양도성의 내부 축선이 이 두 도로를 기준으로 조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운중로는 실제 도성의 동맥으로 기능하는 도로였는데 궁성 연결통로인 육조대로와 연결되어 도성의 경관을 장엄하는 기능도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꿔 말해 궁궐의 중심축과 연결되어 도성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소위 주작대로(朱雀大路)로 불리는 중심도로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을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주요국의 사신이 도성에 들어와 입조하기 위해 통과하는 도로는 그 나라의 정체성이나 국력 등 정량화시키기 어려운 정보를 주변의 경관을 통해 구체화시켜 방문자에게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한양도성내의 주요 간선도로가 육조거리를 제외하고 중국의 그것과 다르게 남북축이 아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이유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sup>28)</sup>. 한양도성의 내부 도로망은 경복궁, 창덕궁 및 종묘, 사직단 그리고 4대문과 4소문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방·계·동 사이로 혈맥처럼 뻗어나간 지선도로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성의 8문에는 숙정문을 제외하고 성저십리 및 지방과 연결되는 도로들이 있었는데 『대동여지도』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양과 지방을 연결하는 간선은 18세기 중엽까지 6대로, 18세기 후반 9대로에서 19세기 후반 10대로로 증가하는데 이 도로들이 가장 많이 연결되는 곳이 승례문, 흥인문, 돈의문 순이었다. 한편 조선전기의 기록에는 도로망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선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정비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소홀히 했으며 도로 부설상황도 매우 조악했다. 개화시기 선교사들의 건문기록<sup>29)</sup>에는 이러한 양상이 잘 묘사되어 있다.

28) 조선과 주로 교류하던 국가는 명, 왜, 여진이었다. 그들의 숙소는 각각 태평관과 모화관(중국), 북평관(여진), 동평관(왜)이었는데 승례문과 흥인지문, 돈의문에 인접해 있다. 의도적인 배치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사신숙소에서 도성으로 진입하며 도로를 따라 도성경관이 조망되는 곳에 마련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29) 비숍(Bishop, I.B.)은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하루 낮이 걸린다. 도로 너비는 겨우 1m 내외로 논둑 발뚎을 지나는 돌투성이 길이다.”라고 묘사하고 있고 뮐렌도르프(Mollendorf, P.G.von)는 “길은 조악하고 교량은 드물다”고 표현하고 있다.

### 3. 성곽

태조는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며 성곽공사도 계획하는데 종묘와 궁궐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도성축조도감을 설치(1935)하고 이듬해 공사에 착공, 두 차례의 공사 끝에 완성시킨다.

성곽은 내사산(북악, 인왕산, 남산, 낙산)의 능선을 따라 도읍의 윤곽을 정한 자리에 축성하였는데 석재가 부족하여 3분의 2 정도는 흙으로 쌓았다. 석재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대부들에게 의무적인 상납을 독려하는 등 노력했으나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다. 낙성 후에는 배수지로 5칸수문·2칸수문 등을 만들고 성의 관문으로 숙청문(북대문)·홍인문(동대문)·돈의문(서대문)·승례문(남대문)의 4대문과 혜화문(동소문)·광희문(시구문)·창의문·소덕문(서소문) 4소문을 합해 8문을 완성하였다. 축성기간은 봄, 가을 2회에 걸쳐 98일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원 총인원은 19만7천470명, 성곽의 길이는 대략 59,500척(약 17.85km), 석성 높이는 15척, 토성 높이는 25척이었다고 전해진다<sup>30)</sup>.

이후, 양위 받은 정종이 개성으로 환도함에 따라 한양은 방치되고 성곽도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 태종은 즉위 후, 한양으로 환도(1405)하게 되는데, 하윤 등이 주창해 경성수보도감<sup>31)</sup>을 설치(1413)하여 성곽 보수에 나서려 하나 백성들의 고생을 감안하여 공사를 중지시킨다. 하지만 성곽붕괴가 임계점<sup>32)</sup>에 이르자 상왕(1421/세종 3년)으로서 다시 성곽수축을 지시한다. 공사는 43만명을 징발할 계획이었으나 대언 등이 간하여 10만명을 감한 인원을 동원한다. 실록을 참조한다면 꽤나 급박하게 수축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진다.<sup>33)</sup> 공사와 관련된 관원들에게 수시로 술을 내려 위로하는 한편 공문시행이나 업무에 태만한 관료들을 처벌하기도 하였다. 그 와중에 수문을 증축한다든지 하는 변경도 있어서 노역에 동원된 인민들은 상당히 고달팠을 것이다. 세종 4년의 기록에는 공사 중 죽은 이가 872명이고 공역에서도망가는 자들은 곤장을 치거나 참형에 처하겠다고 공표하고 있어 부역기피자들도 속출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4)</sup>. 세종 때 완성된 성곽은 전체 4만3백여척의 토성구간을 석성으로 개축하고 성곽의 길이도 약 400m정도 확장했다<sup>35)</sup>. 토성구간은 석성으로 개축되며 전반적인 높이는 낮아졌지만 기존의 석성 구간은 크게 보강되어 성벽높이도 전체적으로 1척 이상 높인 것으로 보인다<sup>36)</sup>. 이후, 문종 원년(1479)과 광해군 8년(1616)에도 성곽에 대한 수축이 이루어지나 태조~세종 시기의 대대적인 공사와는 거리가 있는 수준이었다.

이후 성곽의 질적인 변화는 숙종 대에 이루어진다. 숙종은 왜란과 호란을 거치며 무너진

30) 실록기록을 참고하면 평지의 토성은 4만30척, 석성은 1만9천200척. 수구는(석성구간 포함) 1,050척이었다고 한다. 봄의 1차 공사에서는 성벽전체와 수구 조성에 주력하였고, 가을의 2차 공사에는 성문과 누각 조성을 진행하면서 휴지기간 무너진 구간의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31) 경성수축도감(태조2년), 경성수보도감(태종 13년), 도성수축도감(태종16년, 세종3년), (문종1년, 단종1년)등 도성 수축과 관련된 기관들의 명칭은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실록의 기록을 존중하여 해당시기의 감독기관에는 실록명칭을 원용한다.

32) 세종실록(세종3년)을 참고하면 토성으로 된 곳은 2만5천5백35척, 석성으로 된 곳은 3천9백46척이 허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록을 신뢰한다면 토성은 60%이상, 석성은 20%정도가 붕괴된 것이다.

33) 당시 호구자료에 따르면 조선 인구는 672만명이었고 한성부 인구는 약10만명 정도였다. 태조 때 벌인 한양도성 축성공사에 19만 7000명이 고려 현종 때 개경 낙성 축조에 23만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개축공사 이상의 인력이 투입된 것이다.

34) 세종4년의 기록을 보면 부역에서 도망쳤던 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곤장형에 처했다.

35) 세종실록(세종30년)에는 도성주위를 겐 수치가 6만8백92척8촌(약 18.26km)으로 기록되어 있다.

36) “성을 돌로 쌓았는데, 험지는 높이가 16척이요, 그 다음으로 높은 곳이 20척이요, 평지는 높이가 23척이었다. 수문 2칸을 더 설치하여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서전문을 막고 돈의문을 설치하였다. 성 안팎에 너비가 15척인 길을 내어 순심하는데 편리하게 하였다. 사용된 쇠는 10만6천1백99근이요, 석회가 9천6백10석이였다. 『세종실록』 15권4년”, 사용된 석회가 성가퀴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판축이나 돌쌓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수도방위 시설을 정비하려 계획한다. 이 와중에 북한산성을 먼저 축성하느냐 도성을 정비하느냐 하는 논쟁도 있었는데 결국 도성성곽을 먼저 수축하기로 결정한다. 성곽 수축은 사실 병자호란이 끝나고 70년이 지난 후에야 착공된 것인데 이는 ‘新舊성벽은 수리하거나 새로 쌓지 않는다’는 조약에 의해 훼손된 성곽이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의 공사는 오군문<sup>37)</sup>에 맡기고 각 군문에 석재 및 목재 채취, 인력 등을 분담시켰는데 이전의 공사들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중지당하고 사상자도 많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공사기간 동안 흉년으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자는 의견들도 개진되나 무시당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상당히 가혹했던 부역이었던 것 같다. 이외에도 숙종은 북한산성과 탕춘대성을 쌓고 남한산성의 외성도 새로이 축성하는 등 전반적인 수도 방어체계의 보완도 함께 모색한다. 여하간에 숙종 때 보축한 성은 장정 4명이 들 정도의 크고 반듯반듯한 돌을 사용하여 성벽석의 대형화와 규격화를 꾀한 것이 특징이다. 숙종 때의 성곽수축은 1704년 3월 착수하였으나 흉년과 내부적인 반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한다. 이후 1705년 6월 숙종의 결단으로 재추진되어 1706년 9월까지의 동쪽과 서쪽 성곽을 1709년에는 남쪽과 북쪽 성곽을 그리고 이듬해 성첩공사까지 완공함으로써 대략 6년에 걸친 성곽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숙종 때 수축한 한양도성은 30여년이 지나 영조 대(1743)에 개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이시기의 보수는 태종이나 숙종 대에 이루어진 규모의 공사는 아니고 훼손된 40여 곳의 성벽에 대한 제한적인 공사였다. 물론 망실된 창의문, 소덕문, 혜화문의 문루를 새로이 올리고 흥인지문~광희문 구간에 5개의 치雉를 설치하는 등 성벽에 대한 계량도 병행되었다. 공사는 비변사를 통해 각 군문에 배당하였으며 우의정 조현명의 의견에 따라 지방에 경비를 부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하였다.

한양도성의 성곽은 크게 태조, 태종(세종), 숙종 시기를 거치며 완성되었다. 먼저 태조대는 성곽이 골격이 만들어졌고 태종~세종을 거쳐 성곽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정비되었으며 숙종 대의 보축공사는 기존의 방위개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성벽은 처음에는 토성이 주가 되는 형태였고 일부구간에 메춧돌로 쌓은 초보적인 형태의 석축성이 부가되어 있었으나 점차 대형의 가공석을 사용해서 성벽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변화였다(차용걸 2016).

이외에 한양도성의 축조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는 부역의 철저한 분배와 책임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다. 공사에 배당되는 부역에 대해 담당부서와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인정별로 균등하게 분담시키려 한 노력의 흔적이 사료 곳곳에서 쉬이 확인<sup>38)</sup>되며 아직까지 성벽에 남아있는 각자성석<sup>39)</sup>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4. 상업지역

조선 개국 후, 개경에서 천도가 결정된 이후 한양에는 각종 시설물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먼저 서쪽에 사직을 만들고 경복궁을 세운 뒤, 동쪽에 종묘를 완성시켰다.

37) 조선 후기에 오위(五衛)를 고친 훈련도감,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급위영의 다섯 군영을 이른다.

38) 예를 들어 태조시기 성곽을 쌓을 때, 전체 성벽이 5만9500척인데 이를 북악에서 시계방향으로 600자로 구분하여 천자문 순서로 97구간을 만들고 각 구간을 균등 배분시켰다. 놀라운 것은 어느 구간을 맡든 인정의 1인당 평균 담당구간은 0.493척으로 같았다. 감독체계도 피라미드 형태로 구역별 책임자가 구분되는 형태로 구성했으며 구간 담당자가 맡는 600척 아래로 구분을 두어 100척이 감독단위로서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었다.

39) ‘각자성석(刻字城石)’이라고 하며 성곽돌에 이름과 지명 등이 새겨져 있다. 현재 252개의 각자성석이 존재한다(2013. 12 기준). 성석에는 14명의 임금이 등장하는데 확인불가능한 44개(17%)를 제외하고 세종 때 것이 113개(44%), 순조 40개(15%), 태조 23개(9%). 숙종이 19개(7%)가 남아있다. 따라서 어느 시기에, 어떤 지역에서 동원된 인력과 감독관이 성곽공사를 진행했는지 알 수 있다(박계형 2008).

궁궐 남문인 광화문 앞에는 육조가 들어설 관아가를 조성하여 조정(朝廷)의 형태를 갖춘다. 이 시기에 북쪽의 신무문 밖에 시장을 두어 전조후시와 좌묘우사 시설배치를 완료한다. 대체로 이 시기를 조선전기에 이루어진 한양도성의 1차 정비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왕위에 오른 태종은 종묘 북쪽으로 창덕궁을 짓고, 종로 인근에는 행랑을 만든 다음 시전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에 따라 1410년 개천도감을 설치, 저습지였던 운중가 일대를 정비하여 개천화(청계천)시키고 내부 토지를 정비하며 이 과정에 나온 준설토로 도로와 대로의 행랑을 정리하여 시전을 만든다. 『고공기』에 기준하여 본다면 대략 이 시점에 전조후시와 좌묘우사의 원칙이 흐트러졌다고 볼 수 있다. 태종은 주민들의 이주를 촉진하고 한양의 도시기능을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경의 시장개설을 금지하는데 이는 제법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생활 물품의 조달이 점차 어려워진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의 주민이주가 촉진되기 시작한 것이다(윤경진 2003). 여기에 이주민들에 대한 조세와 부역도 크게 경감시켜 한양 이주민들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약속하였기에 많은 백성들이 한양으로 이주하게 된다<sup>40</sup>).

여하간에 이때 만들어진 시장은 육조거리에서 육의전이 있던 종각인근까지를 점유하였으며 조선최고의 변화가인 운중가로 자리매김한다. 본래 시전은 조선시대에 도시나 성읍에 있었던 시장을 말하는데 5일장이 아닌 상설시장을 지칭한다. 조선에서 가장 큰 시전들은 거의 운중가에 있었으며 시전의 범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동쪽으로 확대되었다. 사실 조선은 상공업을 천시하였기 때문에 조선전기의 일반적인 시전에서는 그리 활발한 물물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국가에서 관리했던 운중가의 대형시전들은 본래 목적이 왕실과 관청의 물자수급이었기 때문에 민간수요, 다시 말해 도시의 기능발달이나 거주민 생활향상에 필요한 물자의 수급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한양의 인구가 폭증하며 민간 수급역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육의전<sup>41</sup>은 한양도성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바뀌어 가게된다.

본래 육의전은 왕실이나 관청납품 품목을 제외하고는 생활필수품을 주로 취급하였다. 특히나 운중가의 시전상인들은 ‘금난전권’을 가지고 있어서 민간소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시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후기 대동법의 시행, 신해통공 발표(금난전권 폐지), 인구증가, 농업기술 발달 등으로 상업 발달의 계기가 마련되는데, 운중가 뿐 아니라 성문 주변에도 시장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후 언급하겠지만 이들 시장의 형성은 성저십리의 거주민 증가와도 맞닿아있다. 조선후기 한양의 상권은 ①종로 운중가, ②서소문 바깥의 칠패장, ③서호(용산, 마포), ④동대문 외곽의 적전(이현장), ⑤서대문 외곽의 다전, ⑥現성동 일원의 목장 ⑦성북지역의 상점가, ⑧송파장, ⑨강남과 영등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김경록 2008). 이 가운데 도성 내부의 ①과 ⑧, ⑨를 제외하면 모두가 성저십리 지역에 위치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준희 2001).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업 클러스터가 성 외곽을 중심으로 더 활발하게 기능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다. 인구증가에 따른 거주지 확대와 민간주도 상업의 발달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양은 기본적으로 조운에 유리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수로가 합류하는 곳에는 자연스레 포구가 생기고 창고가 만들어져 있었다. 성문에서 출발하는 주요 간선로는 육로상에 위

40) 대신 이주민에게는 도성의 정비를 위한 방역坊役이 부과되고 도성내부로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재산세인 토지와 가옥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었다.

41) 선전(비단), 면주전(명주), 면포전(무명), 저포전(베), 지전(종이), 어물전이 대표적인 상점으로 육의전으로 불리웠다.

치한 도성외곽의 요충지와 한강의 나무터로 연결되었는데 전국에서 한성으로 들어오는 물품의 집산지였다. 이렇게 번성한 시장 가운데는 서호와, 칠패, 이현장의 규모가 가장 컸다. 서호(현재의 마포, 용산, 서강 지역)는 서해의 연안항로와 한강의 내륙수운을 통해 전국의 물자들이 집하되는 곳이었다. 조선전기까지 서호(西湖)<sup>42)</sup>지역의 상권은 시전상인의 통제하에 있었으나 중기 이후 상업의 발달에 따라 이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경강상인 돌출하며 조선의 상권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로 성장한다. 승례문 앞에는 대동법 시행 이후에 선혜청이 설치되어 지방에서 올라오는 세곡이나 공물을 보관하고 포나 전을 출납하게 되어 유통이 활발해지는데 여기서 새로이 형성된 시장이 칠패장이다. 이현장은 정조가 즉위 후 경모궁(景慕宮)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모민층에게 여객주인권(旅客主人權)을 제공하며 상업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동대문 지역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sup>43)</sup>.

한편 성저십리에서는 성거주민에 대한 공급을 목적으로 상업농경이 행해졌다. 물론 논농사를 중시한 조선의 농경정책이 성저십리에도 적용되어 조선 전기에는 채소나 과수농업이 아닌 논농사가 일반적이었다. 성저십리는 농업은 조선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는데 서강방, 용산방, 둔지방, 한강방 등 ‘삼문 밖’<sup>44)</sup>으로 일컬어지던 서부 및 남부지역과 채소 재배가 중심이 된 동부지역이 대표적이다. 조선전기에는 상업적 성격보다는 도성 내 거주민들의 자족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18세기의 인구변동과 사회변화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적으로 이윤추구를 위한 채소나 과일재배 등도 발달하게 된다. 한편, 한양의 인구증가와 성저십리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성저십리의 농업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성저십리내의 거주역의 확대와 맞닿아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농지는 축소되고 조선 후기 성저십리 내, 남은 농경지는 완전히 상업적 성격으로 전환된다.

## 5. 거주구역

조선이 건국되고 한양으로 천도한 초기, 한양의 행정구역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다만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부락을 북부, 목격산 아래 동네를 남부, 낙산 아래를 동부, 인왕산 아래를 서부, 청계천변을 중부로 가늠하였는데 이때 부를 촌이라고도 불렀다.

대체로 북촌과 동촌, 서촌으로 불리우는 북악과 응봉의 남편 사면에는 고위관료층의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풍수적으로 명당에 요즘말로 ‘직주근접’까지 확보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고위관료층이나 권문세족이 선호하는 가장 선호하는 장소였을 것이다. 여기에 덩으로 최고의 변화가인 운종가와와 접근성도 우수했기 때문에 생필품을 구하거나 유흥을 즐기는 면에 있어도 가장 유리한 입지였을 것이다. 하급관료와 출사하지 못한 사대부는 청계천 이남의 남산 자락에 거주했는데 이곳을 남촌으로 지칭했다. 북촌보다는 궁궐이나 상가와 거리가 있어 거주 편이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남산의 북사면에 위치하여 거주쾌적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의 중상계급 이상이 살아가는 고급 주거지였을 것이다. 운종가를 중심으로 청진동과 수표교 일대를 중촌으로 불렀는데 이곳에는 상업에 종사하는 중인들과 역관, 의원, 화원 등 기술직 하급관료들의 거주구가 있었다. 중촌에서도 대체로 흥인문과 광희문 주변에는 군교(軍校)들이 거주하고 상인들은 청계천 주변으로 거주하였는데 이들의 주거지 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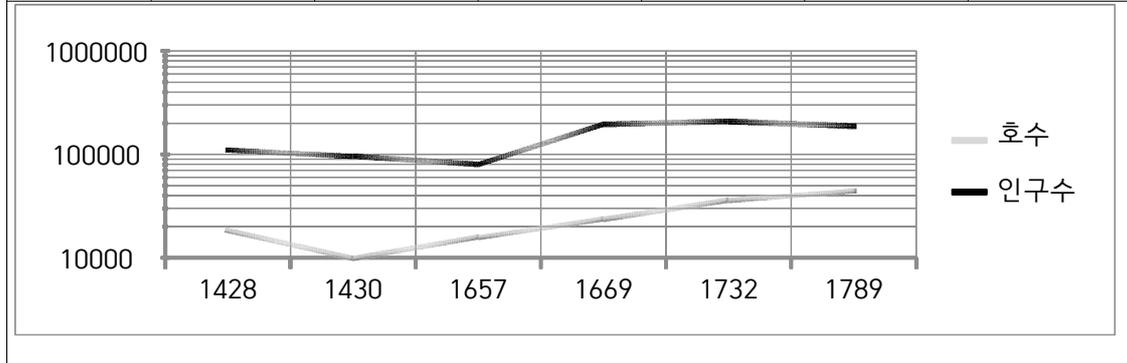
42) 현재의 마포에서 서강에 이르는 지역을 일컬었던 조선시대의 지명이다. 경창京倉이 있어 삼남지방에서 올라오는 곡물을 저장하였고 한강상류의 여러 지역과도 수운을 통해 많은 물자를 수송했다

43) 성균관 노비는 소 도살과 관련하여 독점권한이 있었다. 이것이 상업화 진전과정에서 고기 판매가 가능한 현방(懸房) 운영으로 발전하는데 이런 과정을 이현장의 발아기로 보기도 한다(유슬기 외 2017).

44) 삼문은 승례문, 소의문, 돈의문을 지칭하는데 삼문 밖 지역의 중심이 서소문이었기 때문에 서소문 밖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표 3> 실록의 기록으로 본 한성부 인구의 변화 (실록기록 수치만 표기)

연도	성중5부(도성내)		성저십리(도성외)		총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409	11,056				11056	
1428	16,921	103,328 (관령46)	1,601	6,044 (관령15)	18,522	109,372 (관령61)
1432	17,015		1779		18,794	
1435	19,522	119,267	2,339	8,888		
1648					10,066	95,569
1657					15,760	80,572
1669					23,899	194,030
1672					24,800	
1732					35,768	207,733
1777					38,593	197,957
1783					42,281	207,265
1789	22,094	112,371	21,835	76,782	43,929	189,153
1792					43,963	189,287



본인들의 생업장소와 가까운 곳이라는 특징이 있다. 다만 상업지역이라 번잡하고 위생적인 문제도 있었으며 청계천의 범람에 노출되어 있는 등 북촌과 남촌보다는 분명히 거주성이 떨어지는 곳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성 안에 위치한 거주지역 다시 말해 성중5부는 성저십리에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고급 거주지로 받아들여졌으며 중촌을 제외한 동서남북 네 개의 촌은 양반 등 상류계층의 주거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sup>45)</sup> 한편 성중5부는 천도 초기부터 거주구역의 협소함으로 불협화음이 잦았는데 천도 초기에는 거주민들에게 배분할 땅이 부족함을 이유로 1~6품까지의 관료는 10부, 나머지 백성은 2부로 정하여 토지를 분배하였지만 토지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계속된다. 세종은 신분에 따라 집 면적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시행하지만 이런 정책들도 결국 효과를 보지 못하고 도성 내부에서 지배층의 토지수탈은 이어진다. 결국 도성 내 토지부족이 심화되면서 하위계층은 도성 바깥으로 내몰리게 된다(이근호 2004; 유승희 2009).

전술했지만 성중오부 이외에도 도성 밖의 10리까지는 한성부가 관할하는 성저십리로 북으로는 북한산, 남으로는 한강, 동으로 중랑천, 서쪽으로는 대략 홍제천까지를 그 경계로 본다.

45) 조선중기 봉당(朋黨)들의 이름도 이들의 거주지역에서 따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동인은 김효원이 동촌에, 서인은 심의겸이 서촌에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 당파에 따른 주거분포도 조선후기에 들어 서인의 노론에 의한 일당 지배가 완성되며 퇴색하기 시작한다. 입지가 으뜸인 북촌에는 노론이, 노론에 밀린 소론과 북인은 동촌과 서촌에, 가장 세력이 약했던 남인과 무인들은 남촌에 거주지를 꾸리게 된다.

이 지역들은 조선전기에는 벌목과 조묘, 농경 등에 대한 제약이 강했고 거주지역 역시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어 상주인구가 많지 않았다. 돈의문 밖의 서부 반송방, 서소문 밖의 서부 반석방, 수구문 밖 청계천 이북 지역의 동부 송신방과 인창방 등 모두 4개 방의 일부지역 정도에 거주민이 있었다(이준희 2001).

16세기에 들어서 토지 점유에서 배제된 지방 농민과 유민들이 생도가 있는 한양으로 향하게 되는데 17세기 이후에는 상품경제 발달로 인한 농민계층의 분화<sup>46)</sup> 및 자연재해로 한양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몰려든 유민들은 광통교나 효경교 아래에서 움막을 짓고 생활하기 시작(유승희 2009)하는데 성중5부의 인구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현)서울역 주변과 창신동, 송인동 일대부터 민락이 뻗뻗하게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특히 송례문, 돈의문, 홍인지문 등 간선도로와 연계성이 좋은 지역 주변으로 주민들의 주거가 증가한다. 시간이 경과하면 성저십리의 거주지역은 더욱 확대되는데 18세기 후반의 『호구총수戶口總數』에서는 성저십리의 둔지방, 두모방, 한강방, 용산방, 서강방, 상평방, 연희방, 연은방 등에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양옥희 1991). 이들 지역들은 대체로 수운과 육로를 통해 물자가 모이는 도성 외곽의 물류거점들이었다.

조선 후기의 성저십리 지역 중에 두드러지게 거주구역이 확대된 곳은 세곡과 물자가 모이는 경강(京江)지역<sup>47)</sup> 특히 서호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sup>48)</sup>. 경강지역에 거주민이 증가한 것은 교역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더라도 하물을 하역하거나 그곳에 밀집한 객주에 고용된다거나 빙고에서 얼음을 채취하는 부역에 종사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품팔이가 가능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육로를 통해 동북부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입구인 노원,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 육로로는 광주, 이천을 통해 강원도와 중부 남부 지방으로부터 물자가 도달하는 송파에서도 새로운 거주구가 형성되어 갔다.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한성부 거주민의 반수 이상이 성저십리에 거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양도성의 거주공간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조선전기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궁궐이나 관아를 제외한 민간주택의 경우, 주거입지, 주거면적 뿐만 아니라 자재에서까지 법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상하류 계층의 거주지는 확연히 구별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상류층 거주지는 기와건물이 밀집해 있고 이를 제외한 도성의 나머지 거주구는 대체로 초가집이 모여 있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저십리의 경우, 조선전기에는 거주구역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고 실제로 거주민도 적었기 때문에 대체로 산야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시간이 경과하며 성외로 주거지역이 확대되고 도성 내부의 집들은 점차 기와집의 비율이 증가<sup>49)</sup>하고 성저십리 중에도 사대문과 인접한 거주구역, 상업활동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이들이 거주하는 서호지역 등에도 기와집의 비중이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46) 농업기술의 발달로 단위 면적당 경작에 소요되는 노동력이 감축되고 자영농이 아닌 농민들의 일 자리는 감소한다.

47)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의 지역을 통털어 일컫는다. 많은 어촌과 선촌들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광진, 삼전도, 서빙고, 한강도, 동작진, 노량진, 마포진, 서강진, 양화도가 있다.

48) 정조 13년 한양의 인구분포를 보면 대략 17% 정도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49) 성중5부와 성저십리에서 기와건물의 증가하는 원인에는 다소 이원적인 요소가 있다. 조선전기 한양도성내의 빈번한 화재로 세종대에 들어 대대적으로 한성부의 가옥을 와가로 개량하는 작업을 추진하는데 성중5부의 기와건물 증가 추세는 정책적인 요소도 반영이 되어있다. 반면에 성저십리의 기와건물은 대체로 중상계층 이상의 거주민들이 주거편이성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 IV. 맺음말

한양도성은 조선의 건국세력이 '예치'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현시<sup>50)</sup>하기 위해 구상되고 만들어졌지만 실제 도시로서 완성되어 과정에는 현실문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한양도성이 만들어진 조선 초는, 고려 말의 사회적 혼란상을 새로운 이데올로기인 유교를 토대로 정비해나가는 시기였다. 이 시기는 기성질서와 새로운 체계모니가 부딪히며 뒤섞여 가는 과정이었다고 정의된다. 시대정황은 도성과 주요시설을 설계하고 구축해 가는 모든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도성의 기본 틀은 철저하게 유교적 질서에 뿌리를 두고 구상되지만 도시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굳건한 이데올로기는 점진적으로 현실과 타협하여 해체되고 조정된다. 유교의 개념이 가장 강하게 투영된 궁궐과 단묘건축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더 두드러진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선은 사상적으로 더욱 교조화되지만 실제 왕실을 비롯한 거주민들의 생활양식과 도시의 변화를 규정했던 것은 현실문제, 다시 말해 경제적인 동인이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잘못된 정책집행으로 힘겨워하던 인민들이 생도를 찾기 위해 한양으로 모여드는 경향성이 발생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임진왜란은 결정적인 분기가 된다. 궁궐, 시전, 성곽 등 기초 인프라는 완전히 붕괴되고 전쟁 후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더욱 가혹해진다. 거기에 전란을 거치며 토지생산성은 괴멸적 타격을 입고 생업을 포기한 농민들은 한양으로의 집중을 가속화하지만 한양이 재기능을 하게 되는 것은 한동안 요원한 일이었다. 인구집중은 필연적으로 거주영역의 확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시키는데 조선후기 대동법 시행과 함께 민간상업경제가 활발해지며 전반적인 생산력이 재고된다. 이로서 도시재생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한양도성의 도시영역도 성곽을 넘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민간상업경제의 발달은 새로운 상업 지구를 생성시키고 상업 활동에 기대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증가시켜 상업지구와 맞닿아 있는 새로운 거주구역도 들어서게 된다. 거주민들이 증가하며 도시의 밀집도가 높아짐에 따라 난개발, 위생문제 등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영·정조 시대에 들어 이런 난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계천 준설, 도시정비, 신도시 건설 등을 시도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이후, 근본적인 도시구조의 개량은 진행되지 못하고 개항을 맞게 되는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한양도성의 모습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 현재 서울 강북의 도시골격은 대체로 이 시기에 완성된 것이라 보아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한양도성은 유교적 이념을 토대로 만들어진 도시 골격 속에 후대의 변화가 누층되며 완성된 도시이다. 그 모습에는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실패, 타협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단편적인 논고를 통해 조망하다 보니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싶다. 특히 도시 경관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본고에서 다루어진 구성 요소들 이외에 왕릉이나 궁묘, 궁실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당대 만연했던 풍수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하지 못했다. 향후 논고의 범위를 확대시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가고 싶다.

50)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계획되고 만들어진 한양도성을 일컬어 ' 으뜸가는 선'이라는 의미의 '수선(首善)'으로 칭하기도 했다.

## ※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국역(<http://sillok.history.go.kr>)
- 김경록 외, 2019, 『조선시대 다스림으로 본 성저십리』, 서울역사편찬위원회.
- 김동욱, 2001, 「경복궁 건물배치의 '三門三朝'설에 대한 의문」, 『건축역사연구』 10권1호.
- 김동욱, 2017, 『서울의 다섯 궁궐과 그 앞길』, 집.
- 김동실, 2008, 「서울의 지형적 배경과 도시화 양상」,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수, 2010, 「조선초기 한성부의 성립과 도시기능의 발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현, 2002, 『서울의 궁궐건축』, 시공사.
- 김버들·조정식, 2018, 「왕릉건축을 통해 본 박자청(朴子靑)의 김사행(金師幸)건축 계승」, 『건축역사연구』 27권2호.
- 김용호, 2008, 「조선 태조대 단묘의 건립과 운용」, 『인천학연구』 8권8호.
- 김윤주, 2018, 「조선 태조~태종대 한양건설 공역의 인력동원과 물자수급」, 『조선시대사학보』 86권86호.
- 김중혁, 2001, 「조선 후기 한강유역의 교통로와 장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호현, 2016, 『조선 궁궐의 주거공간』, 민속원.
- 박계형, 2008, 『刻石-잊혀진 각석을 찾아가는 서울 성곽의 역사-』, 조은.
- 박평식, 2004, 「朝鮮前期의 都城商業과 漢江」, 『서울학연구』 24.
- 이근호, 2004, 「17,18세기 여가탈입을 통해 본 한성부의 주택문제」, 『도시역사문화』 2호.
- 이준희, 2001, 『조선시대의 한양과 경기』, 혜안.
- 이상해, 2004, 『궁궐·유교건축』, 솔.
- 원형환, 1988, 「한양천도와 수도건설고- 태종대를 중심으로-」, 『향토서울』 45.
- 유슬기·김경민, 2017, 「조선시대 한양도성 안 동부 지역의 상업도시화 과정」, 『서울학연구』 67.
- 유승희, 2009, 「15~16세기 漢城府의 주택문제와 정부의 대응」, 『사학연구』 94권94.
- 우대형, 2002, 「조선후기 인구압력과 상품작물 및 농촌직물업의 발달」 『경제사학』 34.
- 윤경진, 2003, 「조선초기 한성부의 인구통제와 역제운영」, 『서울학연구』 21.
- 안창모, 2010,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과 증명전 복원이 남긴 과제-덕수궁-」, 『대한제국의 역사적 위상회복과 덕수궁, 증명전 복원의 의미』, 한국건축역사학회.
- 양옥희, 1991, 「서울의 人口 및 居住地 變化 : 1394-1945」,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梶川晶哲, 2005, 「朝鮮時代 儀禮空間의 構成體制와 禮制建築의 形式」,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梶川晶哲·전봉희, 2000, 「한국과 중국의 종묘건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16.
- 장재혁, 2004, 『조선전기 경복궁의 건축형식에 관한 연구 -예서에서 나타나는 예제운영과 건축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용길, 2016, 『한국 축성사 연구 2』, 진인진.
- 최종현, 2008, 「朝鮮朝 漢陽遷都時 儒·佛 合意 背景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9권4호, 한국도시설계학회.



---

[제2부]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

---

中国古代都城的郭城问题  
중국 고대 도성 성곽의 문제

张 良 仁  
南京大学 教授

장 리 앙 런  
남경대학교 교수

---



## 中国古代都城的郭城问题

张良仁<sup>1)</sup>

### 有关中国古代都城的争议

关于中国古代都城的布局问题，中国和外国学者很早就开始研究了。参与研究的学者有历史学家、考古学家和建筑史学家，由于各位学者的角度不同，对传世历史文献和考古资料的倚重不同，所以对中国古代都城的发展史看法各异。经过几十年的研究，现在已经形成了很多学说，可以说是百家争鸣，百家齐放。而各位学者之间的分歧主要在于先秦和两汉时期的都城。在这篇文章中，由于篇幅的限制，我想集中讨论从龙山时代到唐代，尤其是先秦和两汉时期的都城。为了便于论述，我先介绍几位代表性学者的学说：

一位是日本京都学派的代表人物宫崎市定。他在上世纪五十和六十年代发表了系列文章，提出了一些很有意思的看法。与中国学者侯外庐一样，他认为中国上古时代的都城与美索不达米亚和希腊的城邦类似，为城市国家，一个国家的国民，包括统治者、手工业者和农民，都居住在城里。其中农民白天在城外的农田耕作，晚上住在城内的里中。在上古时期的中国大地上，到处分布着这样的大大小的城市。各个城市中间则是荒无人烟的山川河谷，只是因为两汉时期豪族庄园和屯田的兴起，才在三国时期开始出现村庄。<sup>2)</sup>

五十年代以后，随着中国考古工作的展开，发现的聚落越来越多，宫崎市定的城市国家说存在的问题也逐渐暴露出来。日本学者池田雄一修正了宫崎市定的一些看法，提出古代居民并非总是集中居住在围筑城和郭的城市中；城和郭只是为了政治和军事需要才修筑的；相反，从仰韶时期以来中国古代聚落一直存在“散村化”的趋势。进入商代以后，除了散村，出现了城市。不过，一直到西汉，城市大多为都城，里面存在大规模的宫殿建筑；除此之外，城内还有大量的空地。无论是城墙形状还是城内空间，都没有规划。<sup>3)</sup>

中国历史学家杨宽在上世纪90年代出版了一本著作，专门研究了中国古代都城的形制变化。他认为，要研究都城形制，就要重视城和郭的形成与发展。他将先秦到唐代的都城分为三期：商代都城有城无郭；从西周到西汉的都城，由西面的城和东面的郭连接而成；从东汉到唐代，中国都城形制发生了重大改变，城由西南三面的郭包围而成。值得注意的是，秦汉两代的咸阳城和长安城大部分为宫殿所占据，他认为它们都是城；二者的东侧都有郭，只是二者的郭没有城墙，而是利用山川和漕渠作为防御设施。<sup>4)</sup>

杨宽的观点同样与现已发现的中国古代都城有所龃龉。河南省的二里头遗址、殷墟遗址和陕西省的丰镐和周原遗址(不含近10年来发现的周公庙遗址)都没有发现郭城。中国考古学家俞伟超认为，都城是在社会出现了手工业生产、商品交换和财富集中时形成的；与此同时，都城以外存在一些孤立和分散的乡村。在商和西周时期，都城往往没有城墙，但是集中了手工业作坊；与此同时，许多居住区出土了农具，说明有些居民是从事农业生产的。到了东周和秦汉时期，居民集

1) 南京大学历史学院

2) 宫崎市定著，张学锋、马云超、石洋译：《中国聚落形态的变迁》，上海古籍出版社，2018年，第106页。

3) 池田雄一著，郑威译：《中国古代的聚落与地方行政》，复旦大学出版社，2020年，第7-17页。

4) 杨宽：《中国古代都城制度史研究》，上海古籍出版社，1993年，第1-5页。

中居住在都城和全国800个左右的县城中。都城由宫城和郭城构成，郭城内除了官署、手工业作坊和商业区，还有以里为单位的居民区。在三国以后的邺城、平城和洛阳等都城内出现了规划整齐的里坊，而在郭城以外出现了拥有大量部曲和佃客的世家大族的庄园。<sup>5)</sup>

上述学者的看法差异很大，都有可取之处，但是也都有错误之处。要准确把握中国古代都城的郭城问题，我认为需要回答三个核心问题：

### 1. 何为国？

中国古代都城形态与社会形态密切相关，不能忽视。但是上述四位学者中，只有宫崎市定讨论了先秦至秦汉的社会形态。现在看来，他的城市国家说是不能成立的。实际上，关于西周的社会形态，国内外学者做了很多研究，形成了一些大同小异的想法。简而言之，就是西周实行的是分封制。周王在扩张中，不断分封自己的子弟和异姓功臣到新征服的区域，授予他们土地和人民，让他们建立自己的诸侯国。据《左传》，周文王封其诸子为管、蔡、鲁、卫、雍、曹侯；周武王封其诸子为晋、应、韩侯；周公封其子孙为凡、蔣、邢、茅侯；这些诸侯除了向周王提供赋税和军队，拥有很大的自治权。他们又将自己的子孙封为卿大夫，授予他们土地和人民，让他们建立自己的采邑；卿大夫除了向诸侯提供赋税和军队，同样拥有很大的政治和经济自主权。因此，其采邑与诸侯国的都城形态相近，只是规模较小。这样在西周国土上分布着许多这样的诸侯国和采邑，也就是金文和历史文献中的“国”。

商代是否实行分封制？关于这个问题，历史文献和甲骨文提供的信息有限，所以学术界存在争议。王国维认为商代实行王位兄终弟及制度，兄弟均为储君，所以没有嫡庶之分，也就没有分封子弟之事，只有异姓诸侯。<sup>6)</sup>不过，甲骨文提到的“大邑”、“大邑商”，陈梦家认为是商代的都邑，<sup>7)</sup>其周围分布着许多隶属的族邑。由考古资料来看，商代晚期的“大邑商”殷墟，除了小屯和花园庄一带的王族邑，还有分布于北辛庄、孝民屯、白家坟等地的许多族邑。<sup>8)</sup>甲骨文中的“多白与多君”、“侯田或多田”、“方白或邦白”，陈梦家认为分别为商王国境内、边境和境外的诸侯。<sup>9)</sup>境外的诸侯常常是商王的征伐对象，而境内和边境的诸侯臣属于商王，缴纳贡赋，参加征伐，做商王的屏障；但是拥有世袭领地和官僚机构，相对独立，与西周时期的诸侯国相似。<sup>10)</sup>由考古资料来看，在距离殷墟较远的罗山天湖、西安老牛坡、济南大辛庄和滕州前掌大都发现了典型的商文化遗址，<sup>11)</sup>表明商人迁徙到了这些地方，建立了殖民地。这些殖民地常常发现高等级的商文化墓葬，可能就是商代的诸侯国。

王国维否定商代存在分封同姓诸侯的原因就是因为商代没有实行宗法制。到了西周时期，分封制是和宗法制配套实行的。周王、诸侯将自己的特权传给嫡长子，然后把其他儿子分封出去，让他们建立自己的诸侯国和采邑；周王和诸侯与诸侯和卿大夫既是君臣关系，又是大小宗关系。<sup>12)</sup>这些诸侯和卿大夫拥有世袭领地和人口，自主经营农业和手工业，从事水利和城市建设。由考古资料来看，在西周时期，周王、诸侯和卿大夫很少修建城池。但是进入春秋战国时期以

5) 俞伟超：《中国古代都城规划的发展阶段性》，《文物》1985年2期，第52—58页。

6) 王国维：《殷周制度论》，《观堂集林》第二册，中华书局，1959年版，第466页。

7) 陈梦家：《殷墟卜辞综述》，中华书局，1998年，第316页。

8) 郑若葵：《殷墟“大邑商”族邑布局初探》，《中原文物》1995年第3期，第84—93，83页。

9) 陈梦家：《殷墟卜辞综述》，中华书局，1998年，第332页。

10) 厉声：《先秦国家形态与疆域、四土与见一以殷商国家叙述为主》，《中国边疆史地研究》2006年第16卷第3期，第1—8页。

11)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编著：《中国考古学》夏商卷，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3年，第305—320页。

12) 叶国庆：《试论西周宗法制封建关系的本质》，《厦门大学学报》1956年第3期，第2—8页。

后，由于兼并战争加剧，他们纷纷修建城池。与此同时，各个诸侯国开始改革土地和税收制度，强化诸侯集权，削弱卿大夫和各级贵族的政治和经济权力。这样逐渐瓦解了西周以来的分封制和宗法制，向秦汉帝国时期的郡县制和中央集权转化。

## 2. 何为郭？

上述四位学者中，宫崎市定、杨宽和俞伟超都认为东周时期就已经出现了城和郭。在东周时期的历史文献中可以找到不少记载，可以印证他们的看法。我们摘录其中重要的几条：

《左传》隐公五年郑人“伐宋，入其郭。”<sup>13)</sup>《说文解字》说：“郭，郭也”。郑人攻入宋国的郭，说明郭是一道防御设施，也就是城墙。

《礼记·礼运篇》记录了孔子的话：“大道之行也，天下为公，……故外户而不闭，是谓大同。今大道既隐，天下为家，……城郭沟池以为固，礼仪以为纪……是谓小康。”<sup>14)</sup>这段说的是在大同社会，无须城和郭；但是在小康社会，人们修建了坚固的城和郭，说明它们都是两道城墙。孔子心目中的大同社会是西周周公时代，由考古资料来看，西周很少修建城和郭；而小康社会就是他经历的春秋时代，正是城和郭兴起的时代。

《孟子·公孙丑下》说：“三里之城，七里之郭。”<sup>15)</sup>这条文献说明城小于郭，城在郭内。

《管子·八观篇》记载：“大城不可以不完，周郭不可以外通；里域不可以横通，……故大城不完则乱贼之人谋，周郭外通则奸遁，逾越者作，里域横通则攘夺，窃盗者不止。”这条文献同样说明了城和郭是两道城墙，城用来防止“乱贼”，也就是保护国君；郭用来防奸贼，也就是保护“民”；里也有围墙，可以防盗匪，同样是保护“民”。

## 3. 何为民？

中国古代都城内住着何种居民？东汉赵晔撰《吴越春秋》说：“筑城以卫君，造郭以居民”，清楚地说明了城和郭的用途：城用来保护君王，而郭用来安置“民”。那么何为“民”？一些学者因为受了马克思主义学说的影响，以为“民”就是统治者“君”的对立面，也就是劳动人民，也就是手工业者和农民。修建郭，就是统治者为了控制这些劳动人民。<sup>16)</sup>关于这个问题，现有的历史文献不多，我们可以找到以下几条，可以证明这种理解是有问题的。

《国语·齐语》记载：“桓公曰：‘定居之民若何？’管子对曰：‘制国以为二十乡。’桓公曰：‘善。’管子于是制国以为二十乡：工商之乡六；士乡十五。”<sup>17)</sup>管子在都城內设置了21个乡，用来安置手工业者、商人以及士人。换句话说，就是都城內的居民为手工业者、商人和各级贵族。

《战国策·齐策》记载：“临淄之中七万户，臣窃度之，下户三男子，三七二十一万，不待发于远县，而临淄之卒，固以二十一万矣。临淄甚富而实，其民无不吹竽，鼓瑟，击筑，弹琴，斗鸡，走犬，偷跖者；临淄之途，车毂击，人摩肩，连衽成帷，举袂成幕，挥汗成雨。”这样看起来，临淄城內的居民吹竽鼓瑟，乘车闲游，都是些有钱有闲有教养的人，似乎都是拥有世系地位和财富的各级贵族(士人)。但是在战时他们需要应征参战。

文献记载比较多的是北魏洛阳城。洛阳城城内布置了50个里；景明二年(501)年，宣武帝修建

13) 【晋】杜预：《春秋经传集解》(一)，上海古籍出版社，1978年版，第35页。

14) 【清】孙希旦：《礼记集解》卷二一，中华书局，1989年。

15) 【清】焦循：《孟子正义》，中华书局，1987年，第251页。

16) 这种看法在中国学者中相当普遍。宿白在其论文《隋唐长安城和洛阳城》(《考古》1978年第6期，第413页)说隋长安城的宫城、皇城、郭城和里坊规划是为了“对劳动人民进行严密控制和监视”。

17) 陈桐生：《国语》，中华书局，2013年，第246页。

了郭，在郭内布置了大约273个里。在东、西、南侧郭内各有一个市。据《洛阳伽蓝记》，西郭有洛阳大市，“周迴八里。……市东有通商、达货二里，里内之人，尽皆工巧，屠贩为生，资财巨万。……市南有调音、乐律二里，里内之人，多酝酒为业。……市北慈孝、奉终二里，里内之人，以卖棺椁为业，赁輶车为事。……别有淮财、金肆二里，富人在焉。凡此十里，多诸工商货殖之民。”<sup>18)</sup> 东郭的市名为小市，面积较小；南侧的市名为四通市。除了三个市，洛阳城还有很多佛寺。城内有永宁寺、景林寺等多座寺院，郭内分布冲觉寺、宝光寺、白马寺等佛教寺院。神龟元年(518年)任城王澄上奏说：“都城之中，寺踰五百，占夺民居三分且一。”说明佛寺占了郭内面积的三分之一。

据《洛阳伽蓝记》，北魏洛阳城的城内和城外的323里内，分布着大量王公贵族、官吏宦者的住宅。城内永康里有将军元叉的住宅，延年里有宦官刘腾的住宅，永和里有太傅录尚书长孙稚、尚书右仆射郭祚等官员的住宅。<sup>19)</sup>西郭内有范围达东西二里，南北十五里的寿丘里，是皇室宗亲居住区。在南郭，则住着高阳王的府邸、南朝的降服者和外国商人。据《魏书·植深传》，拓跋恪(宣武)时，“琛表曰：京邑诸坊，大者千户，五百户，其中皆三公卿尹，贵室姻戚，豪滑仆隶，荫养奸徒，高门邃宇，不可干问。”这条文献的坊为里的俗称，其中的居民为皇亲国戚和三公卿尹。在洛河以南还有20里，用来安置四方来降的客人。南齐建安王萧宝夤来降后，受封为会稽公，曾居住在归正里；后来晋封为齐王，娶了南阳长公主，得以迁入城内永安里。<sup>20)</sup>

由上述三点来看，先秦文献所谓的城实际上指的是宫城，而郭就是高官贵族、手工业者、商人和僧侣居住的区域。它们就是商代的族邑和西周的国；在西周以前，都城有时不修建郭城或宫城，而在东周时期以后，都城普遍修建了城墙。曹魏时代以后规划整齐的里坊出现，是因为皇亲国戚、官僚、佛教寺院和手工业者增加，里是为了保护他们而修建的。其目的与宫城相同，只是地位要比宫城低。如果我们可以这样理解，那么我们就可以将中国都城发展史可以分为以下几个阶段：

#### 第一阶段：龙山时代-战国时期

中国现知最早的城址出现于长江中游的澧县八十垱遗址。该遗址面积约3万平方米，其北面可能与古河道相连，东、南、北有城墙和环壕，形成了一个封闭的居住区。此地地势低洼，开挖环壕和堆筑城墙的目的可能是为了防洪。居住区外面发现了大批土坑墓。该城址属于城头山文化，年代约为公元前7000-6000。<sup>21)</sup>该区域后来的大溪文化(约公元前4600-3300)的澧县城头山遗址和屈家岭文化(约公元前3400-2500)的石首市走马岭、澧县城头山<sup>22)</sup>和黄河中游的郑州西山(公元前5300-4800)有所扩大，但是功能大体相同。就城址内外发现的房屋和墓葬来看，这些城址没有发生显著的社会分化，处于美国人类学家塞维斯(Elman Service)所说的部落或酋邦阶段。

18) 尚荣译注：《洛阳伽蓝记》卷四，中华书局，2012年，第290-299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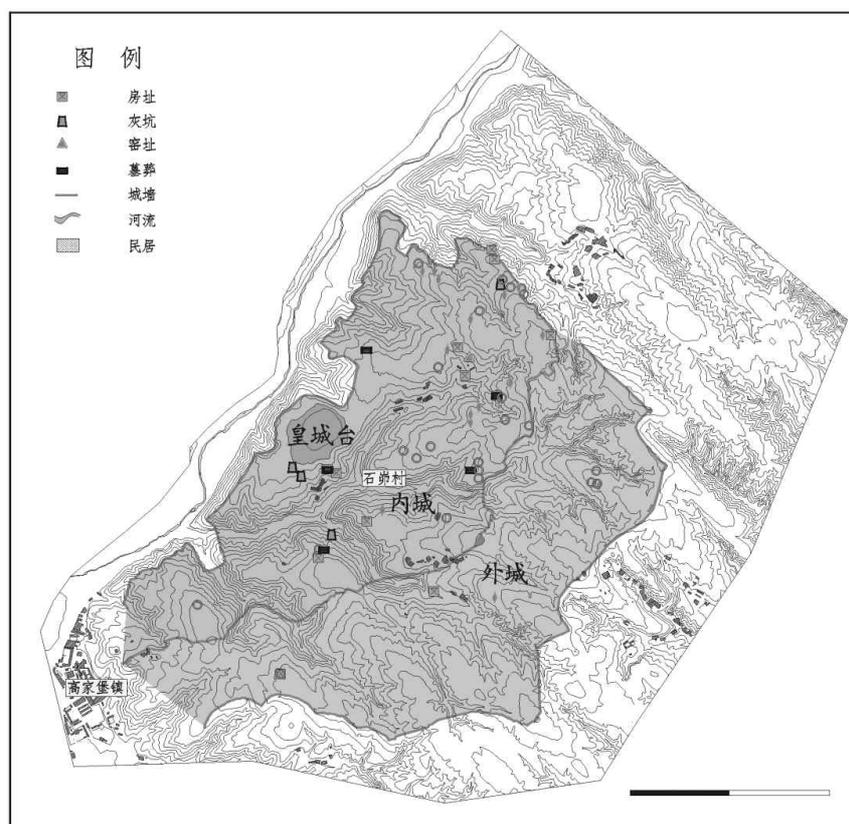
19) 尚荣译注：《洛阳伽蓝记》卷一，中华书局，2012年，第54-55、59、82页。

20) 关于北魏洛阳城城内和国内寺院和各类居民的详细考证，见何炳棣：《何炳棣思想制度史论》第十三章《北魏洛阳城郭规划》，中华书局，2017年，第440-450页；钱国祥：北魏洛阳内城的空间格局复原研究—北魏洛阳城遗址复原研究之一，《华夏考古》2019年第4期，第78-83页；钱国祥：北魏洛阳外郭城的空间格局复原研究—北魏洛阳城遗址复原研究之二，《华夏考古》2019年第6期，第72-82页。

21)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编著：《中国考古学》新石器时代卷，中国社会科学出版社，2010年，第166-173页。

22)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编著：《中国考古学》新石器时代卷，中国社会科学出版社，2010年，第414-450页。

石峁城。到了龙山时期(2600-1800BC)，城址大量出现于中国各地。这些城址规模宏大，但是保存较好且做过大规模发掘的只有石峁、良渚、石家河和陶寺，为了节省篇幅，本文仅介绍石峁城。石峁城遗址位于黄土高原北部的榆林市。该城址在上世纪70年代因为出土玉器而引起了考古工作者的注意。2011年以来，考古工作者大规模调查并发掘该城址，发现了皇城台、内城与外城，总面积达400万平方米(图一)。皇城台位于内城中央，是一座圆角方形的高台，面积达8万平方米，周围的护坡为台阶形，表面包裹石块。其东侧修建了复杂的城门，由瓮城、广场和墩台构成。高台上修建了大型夯土台基，台基侧面包裹石块，里面包含30多块浮雕石块。门址和护坡上出土了铸造铜器的石范和上万枚骨针和骨料，说明皇城台内曾经有铸铜作坊和制骨作坊。其它重要遗物有乐器骨质口簧；高台周边发现了石雕人头像、鳄鱼骨板和彩绘壁画。经碳十四测年和树轮校正，该城址的年代为公元前2300-1800年。其周围为内城，发现了3处居住区，里面为窑洞式建筑和墓葬。在内城东南侧修建了外城，里面也发现了窑洞式建筑。发掘者注意到，内城的窑洞式建筑较皇城台的地面建筑简陋，而外城的窑洞式建筑又较内城简陋，它们之间显然存在等级差异。内城和外城城墙上，除了城门，还修了角台和马面。石砌墙体中发现了玉铲和玉璜。其东北部有一座城门，城门之内的墙体绘壁画，周边地面和墙体之下发现了6座祭祀坑，里面各埋葬人头骨1-24个，其中以女性居多，非正常死亡。垒砌墙体的石块之间镶嵌了不少玉铲、玉璜和玉钺。<sup>23)</sup> 该城址规模巨大，出现了社会分化和高等级器物，是一个酋邦或早期国家的都城。



图一 石峁遗址平面图(图片来源：孙周勇、邵晶和邱楠，石峁遗址的考古发现与研究综述，《中原文物》2020年第1期，图二)

23) 刘庆柱：《“早期中国”都邑遗址考古发现与研究》，载刘庆柱主编：《中国古代都城考古发现与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6年，第54-57页；孙周勇、邵晶和邱楠：《石峁遗址的考古发现与研究综述》，《中原文物》2020年第1期，第39-48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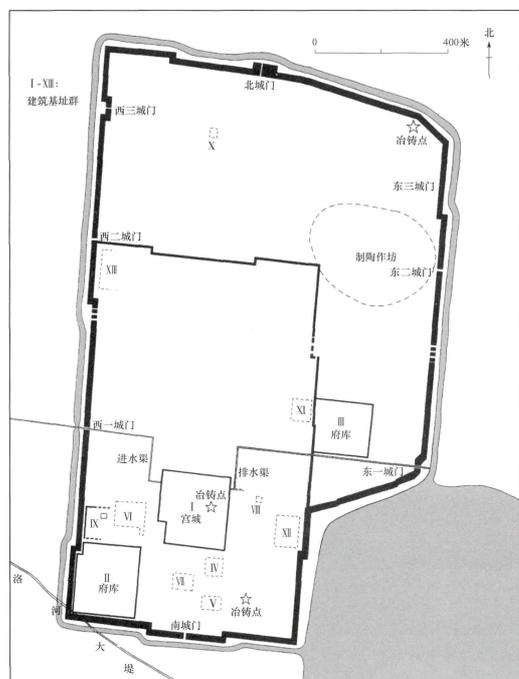
二里头遗址。该遗址位于洛阳盆地内伊河和洛河之间的河间平原上。从1957年发现该遗址以后，考古工作者经过60多年的调查和发掘，现知其面积达3平方公里(图二)。该遗址的二里头文化遗存可以分为四期，经碳十四测年，其年代范围为公元前1750-1530年。上世纪60、70年代，考古工作者发现了一号、二号宫殿基址。其中二号基址长方形，坐北朝南，长87.28米，宽57.5-58米。四边为围墙和廊柱构成的廊庑，中间为空旷的庭院，只有北部有一座三开间台基建筑，南墙设一个门道。这类基址不适合居住，而适合朝会，为学术界讨论二里头是否为夏都奠定了基础。此后继续开展的考古工作表明，这两座基址属于一座长方形宫城。宫城大体长方形，东西宽约300米，南北长约360-370米，面积约10.8万平方米。一号和二号宫殿和宫城是在二里头三期建造的；除此之外，还发现了二期的五号宫殿以及同时期的贵族墓葬。宫城附近还发现了铸铜作坊、绿松石作坊、贵族墓地、居住区和祭祀区，但是分布并不密集。但是迄今为止没有发现外围的郭城。<sup>24)</sup>在中国考古学界，有关其性质争议很大，有些学者认为它是夏代的都城斟鄩，有些学者认为它是商代的都城亳。这个争论在我看来，在没有发现文字资料之前，是没法解决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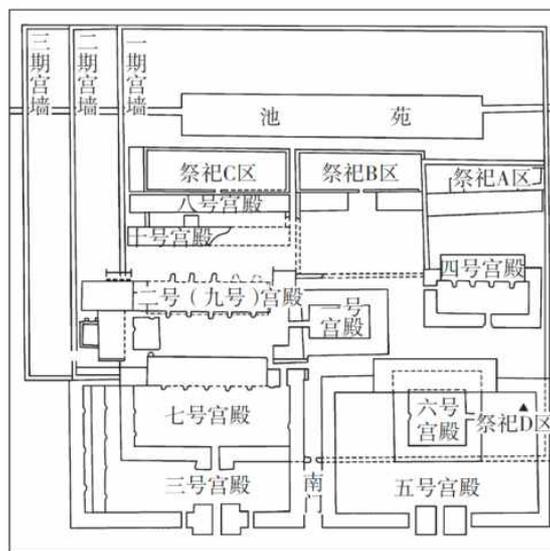
图二 二里头遗址平面图(图片来源：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二里头工作队，河南偃师市二里头遗址宫殿区5号基址发掘简报，《考古》2020年第1期，图一)

24) 刘庆柱：《“早期中国”都邑遗址考古发现与研究》，载刘庆柱主编：《中国古代都城考古发现与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6年，第60-70页。

偃师商城。在二里头遗址之后出现了偃师商城和郑州商城。郑州商城位于今河南省郑州市区，因为压在现代城市下面，发掘比较困难，了解比较有限。偃师商城位于洛阳盆地东部，在二里头遗址6公里以东的洛河以北，保存较好。1983年，考古工作者为了配合首阳山电厂扩建工程，勘探发现了这座城址。经过近40年的调查和发掘，现知有宫城、早期郭城和晚期郭城。最早修建的是早期郭城中央南部的宫城，大体呈方形，南北180-185米，东西190-200米，面积为4.5万平方米(图三：2)。宫城内发现了九座宫殿建筑，分为三期；也就是说宫殿建筑群经过两次重建，为此宫城也经过二次扩建。这些宫殿大多与二里头遗址的二号宫殿相似，主体建筑位于北侧，与东、南、西三侧廊庑构成一个庞大的庭院；不同的是，主体建筑取代了北侧廊庑。其中第三期的五号与三号宫殿规模最大，东西对称。五号宫殿东西104米，南北91.3米长，面积达9000平方米。这种东西对称、同时存在的宫殿相当引人注目，其背后的原因还不得而知。在宫城的北部发现了大型祭祀区和水池。早期郭城形状比较规整，长方形，长1100米，宽740米。后来早期郭城经过扩建，形状呈刀把形，长1710米，北墙长1200米(图三：1)。早期郭城和晚期郭城内发掘都较少，只在晚期中部和北部发现一些铸铜、制陶、制骨作坊和小型墓葬。<sup>25)</sup>



图三 1. 偃师商城平面图(陈国梁：偃师商城遗址聚落形态的初步考察，《三代考古》，2015年，图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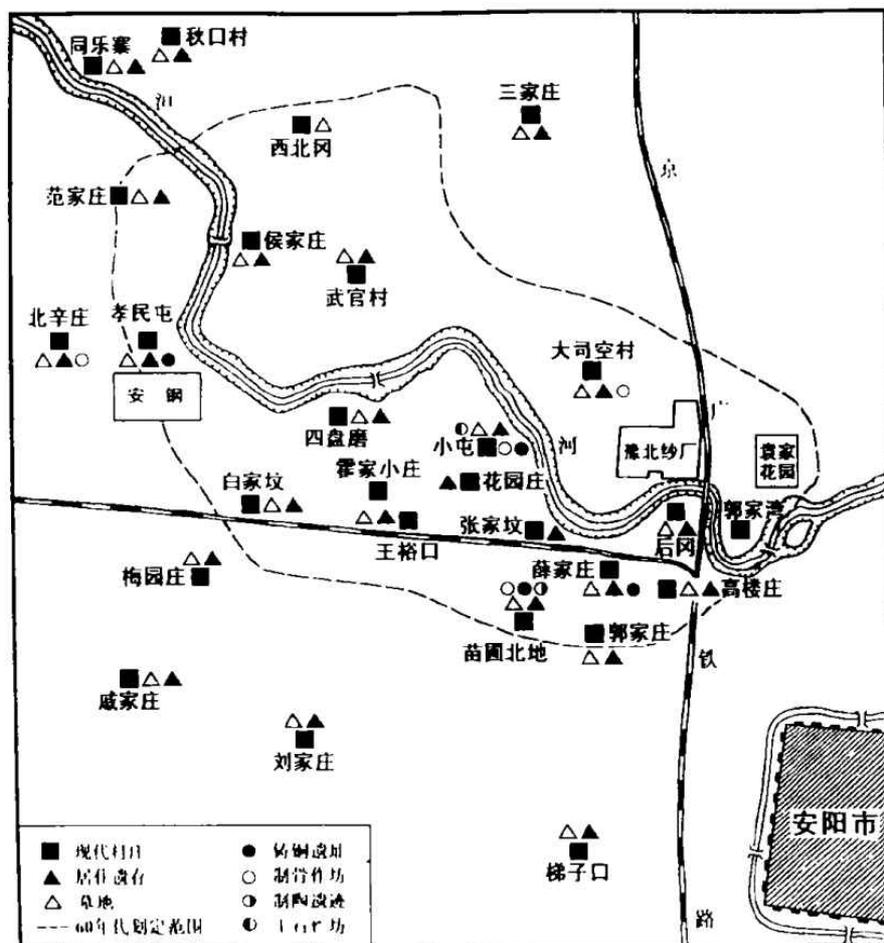


图三 2. 偃师商城宫城平面图(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河南第二工作队：河南偃师市偃师商城宫城祭祀D区发掘简报，《考古》2019年第11期，图一)

殷墟。在偃师商城和郑州商城之后，考古工作者发现了郑州小双桥、洹北商城等都城级别的城址，其形制与偃师商城和郑州商城相似，这里不再叙述。我们着重讨论的是商代晚期都城殷墟。殷墟位于河南省安阳市西郊，洹河南岸。上世纪初因出土甲骨文而引起我国学术界的注意，

25) 刘庆柱：《偃师商城遗址考古发现与研究》，载刘庆柱主编：《中国古代都城考古发现与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6年，第83-98页。

1928年考古工作者开始发掘，以后断断续续持续了80多年，其布局比较清晰。宫殿区位于小屯和花园庄，上世纪30年代揭开了53座宫殿基址。但是因为当时发掘技术有限，这些宫殿基址的整体布局不清晰(图四)。本世纪以来，一些学者提出这些宫殿建筑原来都是长方形四合院结构。后来考古工作者又发现了一些建筑基址，证实了上述学者的看法。不过，到今天为止，没有发现所谓的“宫城”，只发现西侧和南侧的大灰沟，与流经宫殿区北侧和东侧的洹河相连接。发掘者推测，它们与洹河共同构成了一个保护圈。在这个圈内，除了宫殿建筑，还发现了一座大型水池、储存甲骨档案的灰坑、高等级墓葬、铸铜作坊、制玉作坊、制骨作坊和制陶作坊。后来随着时间的推移，宫殿区向西扩展到了灰沟以西。这样，宫殿区遗迹种类众多，包含了宫殿建筑群、各类手工业作坊和墓地，说明商王族的居住区。在宫殿区以外的北徐家桥、孝民屯，考古工作者发现了众多类似的居住遗迹(水井、窖穴和灰坑)、手工业作坊和墓地合一的贵族“族邑”。殷墟遗址可分为四期，有学者认为，这些族邑与王族邑在一期呈点状分布，后来随着人口的增加，逐渐扩大，从而连接成片。但是与二里头遗址一样，殷墟遗址没有发现郭城。<sup>26)</sup>



图四 殷墟平面图(图片来源：郑若葵，殷墟“大邑商”族邑布局初探，《中原文物》1995年第3期，图一)

26) 何毓灵：《殷墟考古发现与研究》，载刘庆柱主编：《中国古代都城考古发现与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6年，第99-147页。

丰镐。根据历史文献，文王、武王等周王分封子弟和功臣为诸侯。各诸侯国除了承担朝觐和贡赋等义务，具有相当的自治权。周文王自己“作邑于丰”，武王建都于镐。现在我们知道，丰京和镐京位于陕西省西安市西南的沣河两岸。根据历史文献的记载，考古工作者从上世纪30年代就开始调查丰镐遗址，从50年代开始发掘，现已确认丰京在沣河西岸，而镐京在东岸。在沣河以西的马王镇分别发现了四座大型夯土建筑基址，可能为宫殿建筑，可惜保存不佳，同时没有发现宫城；在马王镇以西的张家坡发现了一座宗族墓地和一座双墓道大墓；在附近发现了青铜器窖藏和制骨作坊。但是周围没有发现郭城。在沣河以东的镐京也在西汉修建昆明池时遭到严重破坏，不过考古工作者在斗门镇以北发现了10余座大型夯土建筑基址，其中的五号基址形制独特，呈“工”字形，主体建筑居中，附属建筑居于两翼。在这些基址附近，也发现了一些墓葬。与丰京一样，这里既没有发现宫城，也没有发现郭城。<sup>27)</sup>不过丰京与镐京与殷墟类似，属于王族邑。而在周原，则分布了很多类似于殷墟的集高等级建筑、墓葬、手工业作坊和青铜器窖藏的贵族族邑。

灵寿城。周王室迁都于洛阳以后，势力逐渐衰微，诸侯国崛起。它们吞并小国，争夺霸权，先后出现了“春秋五霸”和“战国七雄”。筑城之风因此大兴，仅《左传》记载的新筑城址就有63座，考古发现的城址有30多座。<sup>28)</sup>这些城址规模庞大，保存状况不一，考古工作大多集中在高台建筑、高等级墓葬和手工业作坊，年代和布局都不甚清楚。值得注意的是，在大多数诸侯国都城，考古工作者发现了郭城，但是没有发现明确的宫城。这里就以比较清晰的中山国灵寿城为例予以说明。灵寿城位于河北省平山县，滹沱河流出太行山，即将进入冀北平原的河谷中。该城是北方游牧族群白狄的一支鲜虞建立的中山国的战国时期都城。1980年考古工作者开始发掘这座城址，1987年结束。从已经发掘的郭城以外的中山王厝墓和其它墓葬来看，中山国已经全面接受周文化。该城呈不规则桃形，东西最宽约4000，南北最长处4500米。城内经调查和勘探，现存11处大型建筑基址，分散于郭城内中部和东北部，似乎没有宫城。郭城内中部和南部分布着大面积的手工业作坊，其中有铸铜、铸币、冶铁、制陶作坊。后来出于某种原因，在城址中央修了一条南北向的城墙，将该城分为东西两部。在西城北部，分布着两座王陵和陪葬墓，其中一座已经发掘。在城址以西，也分布着一座王陵和附属的陪葬墓，此王陵已经发掘。可以说郭城有保护王陵的作用；郭城以外的王陵可能也准备修建城墙，但是因为此时中山国已经邻近灭亡，没有修成。<sup>29)</sup>

27) 徐龙国：《西周都城遗址考古发现于研究》，载刘庆柱主编：《中国古代都城考古发现于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6年，第148-159页。

28)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编著：《中国考古学》两周卷，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4年，第227页。

29) 河北省文物研究所：《战国中山国灵寿城—1975—1993年考古发掘报告》，文物出版社，2005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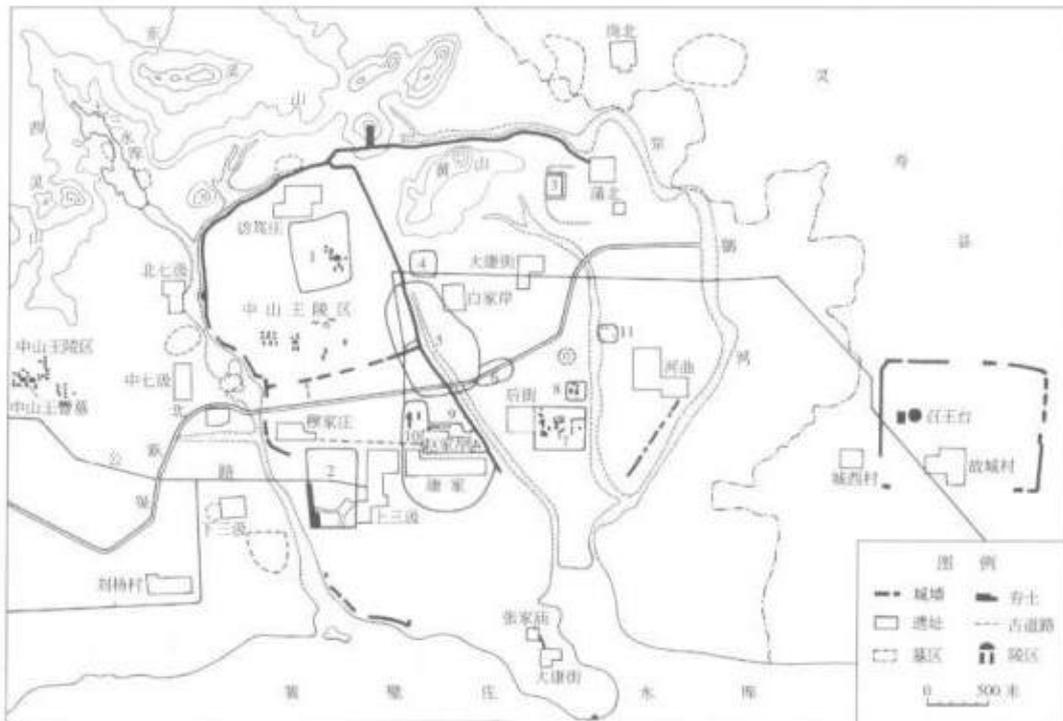


图7-8 平山中山国灵寿故城平面图

图五 灵寿城平面图(图片来源：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编著，《中国考古学》两周卷，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4年，图7-8)

由以上几座都城来看，有些(如石峁、良渚、偃师商城)修建了宫城和郭城，有些(二里头、殷墟和丰镐)没有郭城，有些没有宫城。尽管如此，它们都有明确的空间规划，宫殿区在中心区域，而手工业区、一般居住区和墓葬区分布在周围。这些功能区构成了一个王族邑；不过，在殷墟，除了王族邑，还分布着很多族邑。这种集居住区、手工业区和墓葬区于一体的现象继续出现在东周时期的都城。东周时期的都城规模更大，手工业较为分散。历史文献记载的一般居民区“里”，在已有的考古工作中还没有发现。

## 第二阶段：秦汉时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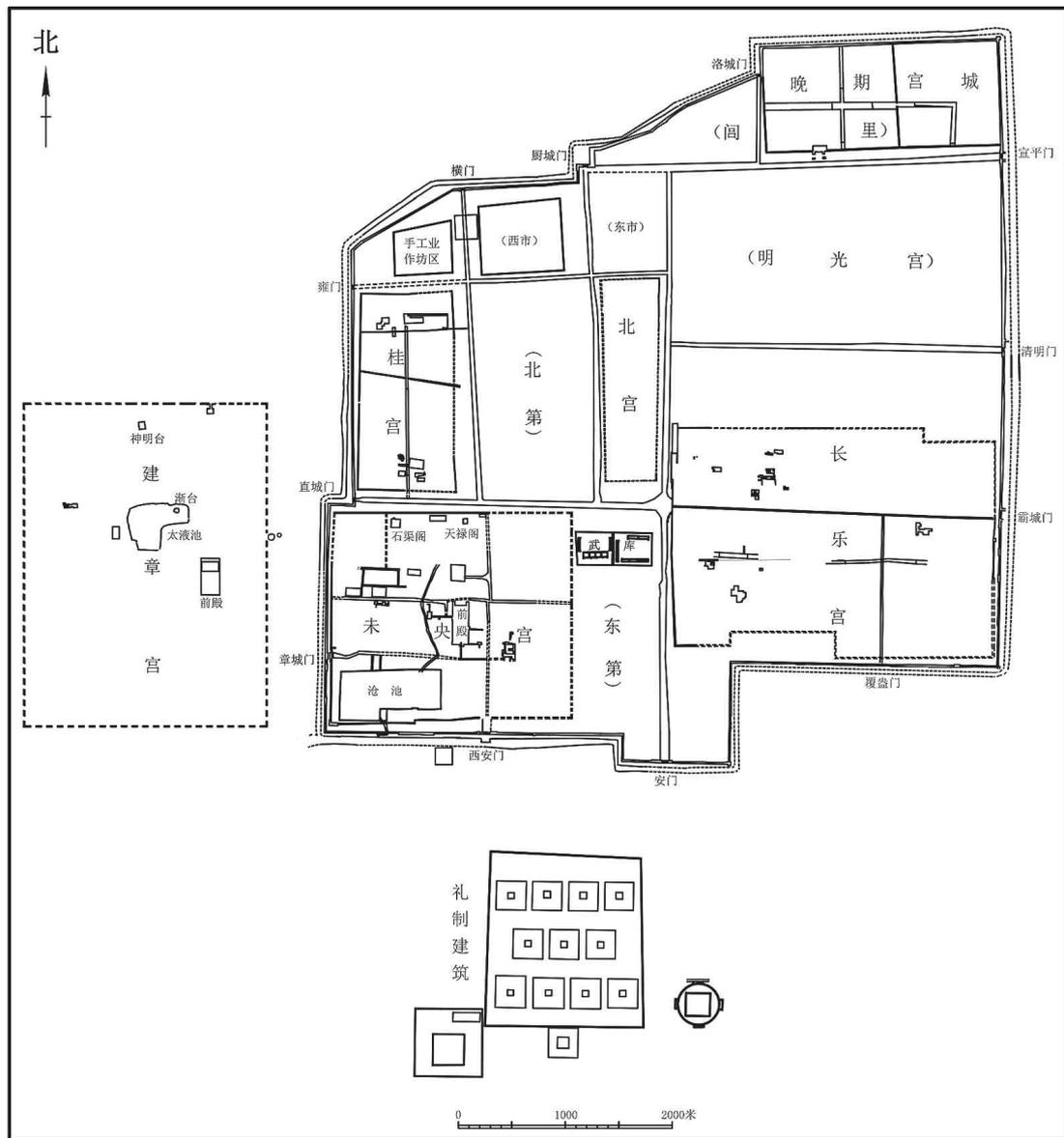
**秦咸阳城。**秦孝公十二年(公元前350年)在今咸阳市以东营建咸阳城，首先营建的是渭河北岸的宫殿区，后来历代秦王继续建造宫殿，由渭河北岸延伸到渭河南岸，其中有兴乐宫、章台、诸庙、甘泉宫、上林苑。秦始皇在统一六国时，每灭一国，就在渭河北岸重建该国的宫殿；后来又在渭南修建了信宫、甘泉前殿，并开始营建阿房宫，但是没有完工。这些渭北和渭南的宫殿可能就有咸阳出土封泥上印的“北宫”和“北宫”。上世纪50年代以来，考古工作者持续调查、勘探和发掘，没有发现郭城，只发现了宫城。宫城大体呈梯形，北墙长843米，西墙长576米，里面发现了七座大型夯土建筑基址。在宫城以东和以西，勘探发现了26座建筑基址，其中一些建筑出土了具有六国特征的遗物，发掘者推测它们是秦始皇仿建的“六国宫室”。据《史记》，秦国在咸阳旁修建了270多座宫观，可能是为了安置秦始皇迁徙的“天下富豪”十二万户，这些可能是其中一部分。在宫城以西的聂家沟、胡家沟发现了官营制陶作坊，以及铸铜、冶铁等官办作坊，在宫城西南侧发现了市府和民营制陶作坊，这些作坊原来都是为秦王室和皇室服务的。迄今为止，在宫城周围

没有发现官吏宦者和手工业者的居住区，但是在塔尔坡、任家嘴和黄家沟等大型墓地，说明它们附近是存在上述居民的居住区的。<sup>30)</sup>

汉长安城。汉长安城不是事先规划好的城市。公元前202年，汉高祖在秦代离宫兴乐宫的基础上修建了长乐宫未央宫；汉惠帝即位后才修建城墙，公元前190年完工。汉高祖和惠帝在位期间，又修筑了北宫、东市、西市；后来汉武帝增修了桂宫和明光宫。汉长安城形状并不规则，东城墙长5916米，南城墙长7453米，面积达34平方公里。未央宫位于西南部，东西长2250米，南北宽2150米，面积达5平方公里(图六)。汉长安城内的地势西南高，东北低，未央宫修在西南部，地势最高。值得注意的是，由历史文献可知，未央宫是举行登基、发布诏书、寿诞仪式，处理朝政之所，里面有前殿。但是除此之外，还有作为池苑的沧池、皇后居住的椒房殿和其它后宫建筑、少府、中央官署以及存放档案和图书的石渠阁和天禄阁等。因此未央宫是一座集朝政、行政、居住、档案和休闲的多功能宫城。桂宫、北宫也是后宫；除了它们和明光宫，汉长安城内还发现了储存兵器的武库、奉祀高祖的高庙。在西北部，坐落着东市和西市；二者均有围墙，四面各开二门，门内东西和南北各两条大街将市场分为九个区域。根据考古资料，在西市之西，分布着一些官营手工业作坊，包括制陶、冶铸和铸币；而东市为商业中心。而大小官吏、侍者可能住在未央宫以东的东第、未央宫以北的北第和东北部的闾里。在汉长安城的南郊，考古工作者发现了西汉末年王莽修建的宗庙、辟雍和社稷。<sup>31)</sup>与秦咸阳城一样，帝陵和其它居民的墓葬都分布在汉长安城外。按照本文开始的定义，未央宫、长乐宫等本身为宫城，而外城实际上就是郭城。

30) 刘庆柱、李毓芳：《秦咸阳城遗址考古发现与研究》，载刘庆柱主编：《中国古代都城考古发现与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6年，第231-257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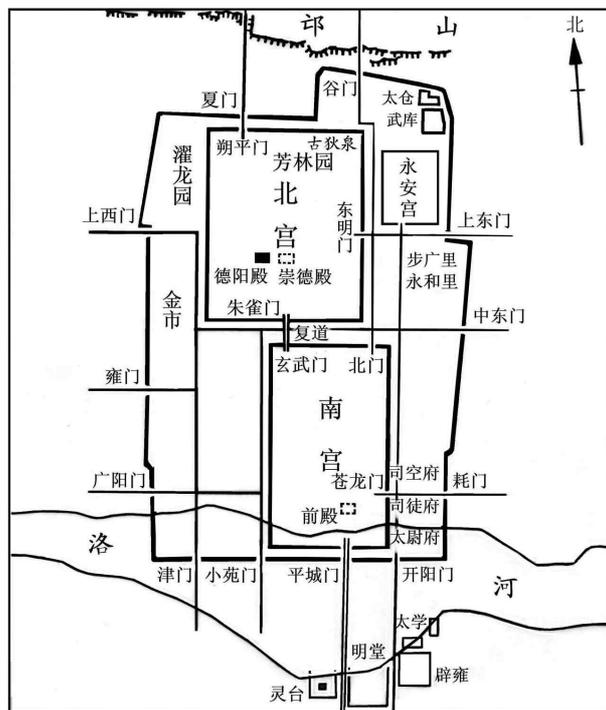
31) 刘庆柱：《汉长安城遗址考古发现与研究》，载刘庆柱主编：《中国古代都城考古发现与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6年，第258-306页；刘庆柱、李毓芳：《汉长安城考古的回顾与瞻望——纪念汉长安城考古半个世纪》，《考古》2006年第10期，第12-21页。



图六 汉长安城平面图(刘振东：汉长安城城门遗址考古发现与研究，《华夏考古》2018年第6期，图一)

东汉洛阳城。东汉时期的洛阳城位于今河南省洛阳市以东15公里，地处洛阳盆地中部。公元25年，光武帝建都于此，此后东汉前后十二位皇帝都定居于此。1954年以后，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1978年以前隶属中国科学院)，连续60多年勘探和发掘了这座城址。考古工作表明，该城延续了西周、东周和秦代的城址，南北长3900米，东西长2700米。城内同样延续了西汉长安城的格局，主要为北宫和南宫占据。与汉长安城相比，宫城数量减少。人们推测这是因为后妃居住的宫城减少了。在北宫的西侧有皇家苑囿濯龙园；东侧有太后住所永安宫、太仓和武库以及达官贵族的居住区，如步广里和永和里。同时，一些官署如太尉府、司空府和司徒府出现在南宫的东南侧。南宫的西北侧有金市。在东郊有马市。建武五年(公元29年)，光武帝在南郊修建太学，中元元年(公元56年)明帝又修建了南市和皇家礼制建筑辟雍、明堂和灵台。明帝在西郊修建了白马寺，用于翻译佛经。<sup>32)</sup>除此之外，考古工作者在西郊还发现了一座大型墓葬，在东郊发现了刑徒

墓地，发掘出墓葬500座。<sup>33)</sup>由此看来，南宫和北宫为宫城，而洛阳城实际上就是郭城。



图七 东汉洛阳城平面图(图片来源：钱国祥，中国古代汉唐都城形制的演进—由曹魏太极殿谈唐长安城形制的渊源，《中原文物》2016年第4期，图二)

由上可见，进入秦汉时期以后，宫殿建筑和宫城占据的面积很大，但是官衙和皇族贵戚居住的里逐渐出现在郭城内。手工业作坊和市场集中在小区域内，而帝陵和各级官僚贵族的墓葬则移到郭城以外。一些执行政府职能的衙署出现在郭城里。在这个阶段，帝国形成不久，族邑刚刚打破，而体现帝国意志的都城形态还在萌芽之中。

### 第三阶段：三国-隋唐时期

曹魏邺城。邺城位于河北省临漳县。204年，三国时期曹操开始营建邺城，后来作为都城为后赵、冉魏、前燕、东魏和北齐沿用，历时370年。关于这座都城，日本学者村田治郎和秋山日出雄根据历史文献，做了详细的复原研究。<sup>34)</sup>与此同时，北平研究院和北京大学开始田野调查。1983年以后，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和河北省文物研究所系统发掘了邺城遗址。由上述研究和考古工作可知，该城有南城和北城两部分组成。其中南城为东魏和北齐的都城，北城为曹魏、后赵、冉魏和前燕的都城，东西宽2620米，南北长1700米。<sup>35)</sup>该城以建春门-金明门之间的大街分为南北两个部分(图八)。北部中央为宫殿区，西侧为苑囿和后宫，东侧为皇亲国戚居住的“戚里”；南部分为思忠、永平、吉阳和长寿等里，为官署和居民区。在中国城市规划史上，邺城开创了南北中轴线和棋盘格里坊，具有里程碑意义。<sup>3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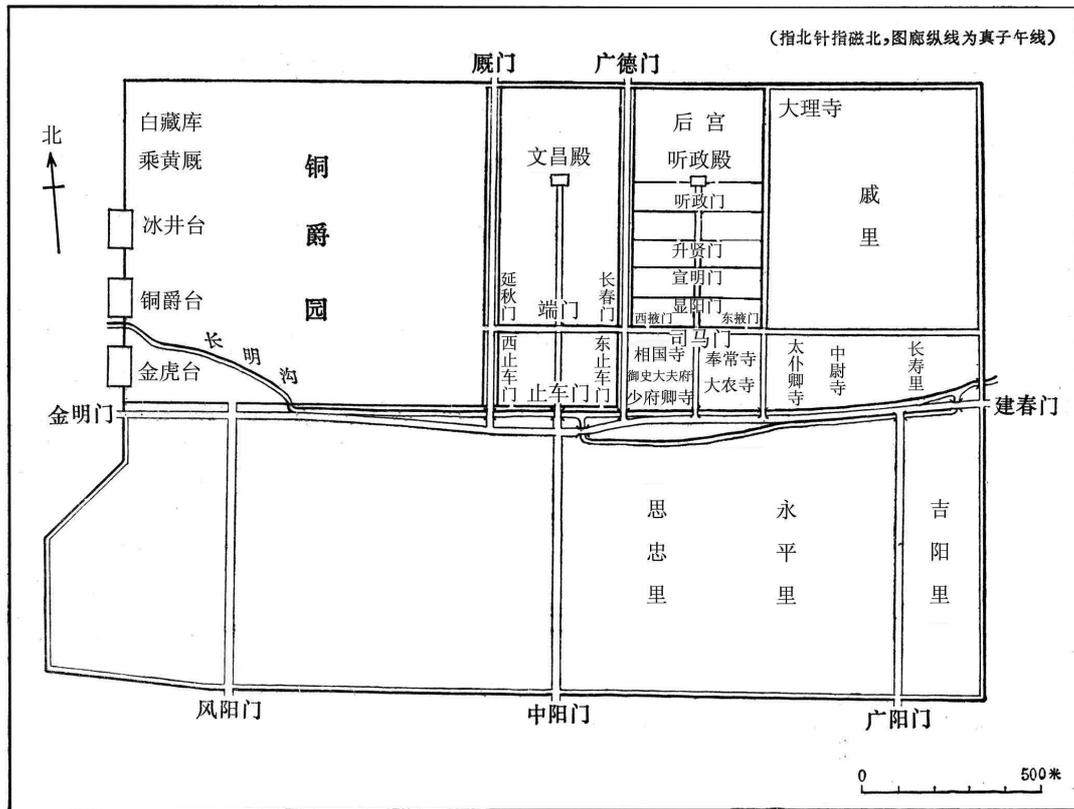
32) 王仲殊：《中国古代都城概说》，《考古》1982年第5期。

33) 徐龙国：《东汉洛阳城遗址考古发现与研究》，载刘庆柱主编：《中国古代都城考古发现与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6年，第320-331页。

34) 俞伟超：《中国古代都城规划的发展阶段性》，《文物》1985年2期，第58页。

35) 姜波：《魏晋南北朝都城遗址考古发现与研究》，载刘庆柱主编：《中国古代都城考古发现与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6年，第346页。

36) 俞伟超：《中国古代都城规划的发展阶段性》，《文物》1985年2期，第58页。



图八 曹魏邺城平面图(钱国祥, 中国古代汉唐都城形制的演进—由曹魏太极殿谈唐长安城形制的渊源,《中原文物》2016年第4期,图三)

北魏洛阳城。公元190年,董卓作乱,烧毁了东汉洛阳城。公元220年,曹魏魏文帝在旧址上重建都城;但是在公元311年,该城在永嘉之乱再次遭到焚毁。永安二年(公元529年),南朝陈庆之在造访洛阳之后说,人们曾称洛阳为“荒土”,但是北魏孝文帝迁都洛阳城以后,已经成为一座汉化都城。<sup>37)</sup>公元495年,北魏孝文帝迁都洛阳,再次重修洛阳,在东汉北宫旧址修建了洛阳宫,没有重建南宫,从此二宫制改为一宫制。<sup>38)</sup>北魏在曹魏时代的洛阳宫旧址修建了宫城。建春门和阊阖门之间的东西大街将宫城分为南北两部分,南半部为朝堂,而北半部为寝宫、华林苑。宫城以东为太仓署、籍田署等官署、苑囿和“拟作东宫”的空地。以西原为西晋时金市所在,北魏改为长秋寺。<sup>39)</sup>在宫城南侧的东阳门-西阳门东西大街以南的区域,以铜驼街为中轴线,分布着太庙、太社、太尉府、司徒府等官署。在剩余的空间里,可容纳50个里,安置了王公贵族捐建的永宁寺、景林寺等佛教寺院和永康里、治粟里等贵族、官员和宦官居住区(图九:1)。因此此时的洛阳城也为郭城。景明二年(501)年,宣武帝征发民夫五万人,在洛阳城外增建了第二重郭城。考古勘探表明,东郭城东西长3500,现存南北宽1800米,西郭城东西长3500-4200,南北现宽4400米。由此推算,以洛河为南界,郭城东西20里,南北15里,与文献记载相吻合(图九:2)。在郭城内,一共划分了273个里;每里四周筑墙,开四门,每门设置里正二人,吏四人,门士八人。<sup>4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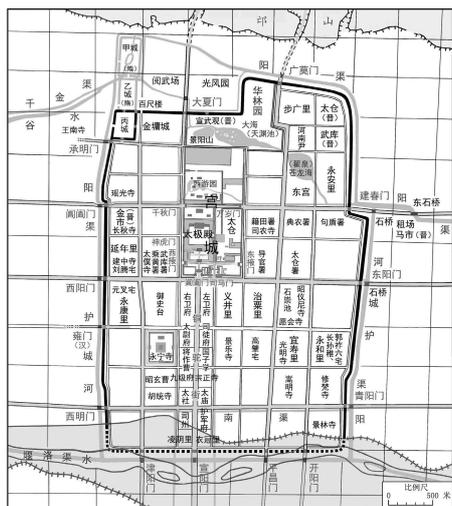
37) 宿白:《北魏洛阳城和北邙陵墓》,《文物》1978年第7期,第42页。

38) 徐龙国:《东汉洛阳城遗址考古发现与研究》,载刘庆柱主编:《中国古代都城考古发现与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6年,第329-330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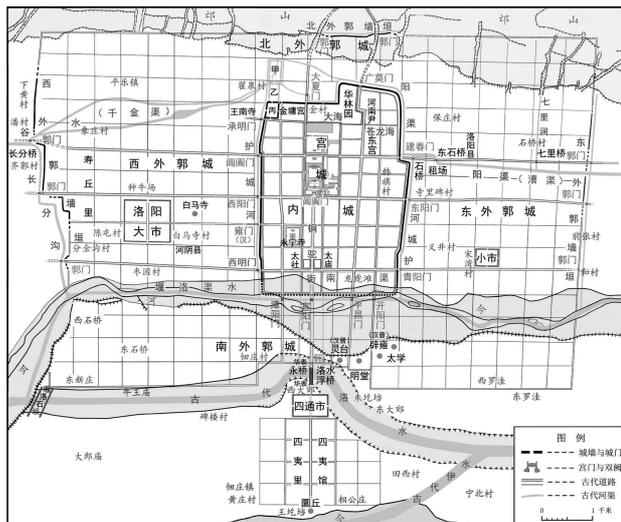
39) 宿白:《北魏洛阳城和北邙陵墓》,《文物》1978年第7期,第42页。

40) 杨銜之著,尚荣译注:《洛阳伽蓝记》卷五,中华书局,2010年

在郭城里分布了大市、小市和四通市。在洛河以南，孝文帝重修了东汉的太学、辟雍、灵台和明堂。41)



图九 1.北魏洛阳城平面布局(钱国祥：北魏洛阳内城的空间格局复原研究—北魏洛阳城遗址复原研究之一，《华夏考古》2019年第4期，图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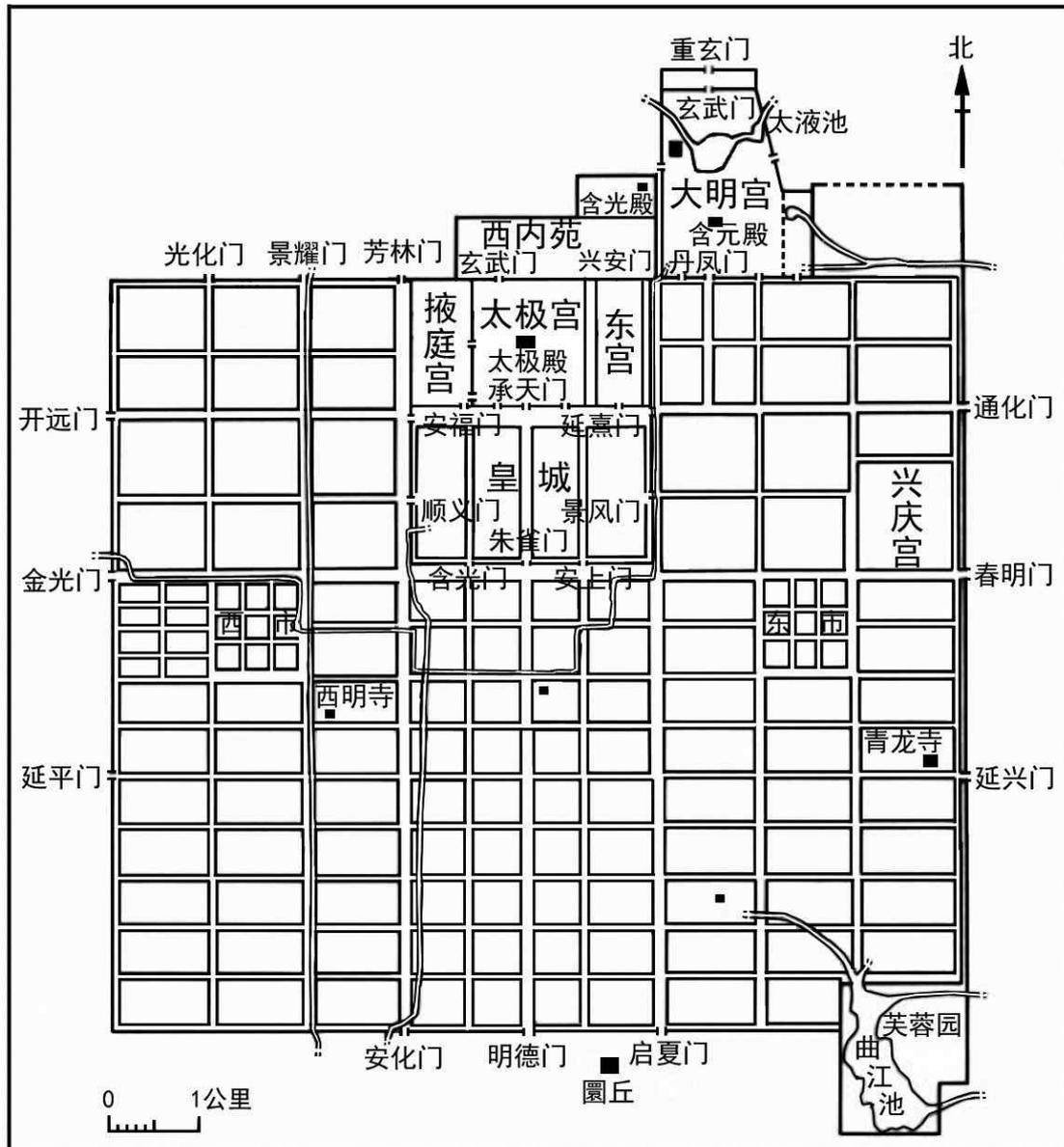


图九 2.北魏洛阳城郭城布局(钱国祥：北魏洛阳外郭城的空间格局复原研究—北魏洛阳城遗址复原研究之二，《华夏考古》2019年第6期，图一)

隋唐长安城。开皇二年(公元582年)，隋文帝命高颖、宇文恺等人在汉长安城东南的龙首原规划建造新的京城，命名为大兴城，唐朝改名为长安城。与以往历代都城不同的是，有关隋唐长安城唐代学者韦述撰写了《两京新记》，详细地记录了长安城的城坊规划。宋代学者宋敏求踏查长安城故址，撰写了《长安志》；后代又有很多学者继续考订。上个世纪以来，国内外学者开始调查发掘长安城。42)与北魏洛阳城不同的是，该城将皇城和郭城都纳入规划之中，将宫殿区放在宫城内，将官署安排在皇城内，而将其他皇亲国戚的住宅放在郭城内。整个大兴城，实测东西长9721，南北8651米，周长36.7公里。贞观八年(634年)，唐太宗在宫城东北侧的禁苑内开始修建大明宫，龙朔三年(663年)以后唐朝宫廷迁至大明宫。长安城南北十一条、东西十四条街道，将郭城分为108坊(北魏时原为里的俗称)。以朱雀大街为中轴线，这些坊分别归属大兴和长安两县。都会和利人两市对称地分布于皇城的东南和西南侧，各占二坊的面积。两市周围都修建了围墙，各开八门，内设井字形街道，十字路口设置管理市场的市署和平准署。其它各坊则用于安置王室、官衙和寺观。隋文帝让自己的四位儿子，即蜀王、汉王、秦王和蔡王在归义、昌明、道德和教化四坊建立宅邸。宇文恺又将东南角的高地改为芙蓉池，兴建离宫。唐代大和开成年间(827-840年)将其扩大，改造为游乐休憩的芙蓉园。唐代兴庆宫成为唐玄宗的藩邸，后来唐玄宗改邸为宫，在此听政。与此同时，隋朝大兴寺观，在大兴城内修建了一百多座佛寺和十余座道观。43)考古工作者现

41) 姜波：《魏晋南北朝都城遗址考古发现与研究》，载刘庆柱主编：《中国古代都城考古发现与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6年，第332-344页；钱国祥：北魏洛阳内城的空间格局复原研究—北魏洛阳城遗址复原研究之一，《华夏考古》2019年第4期，第78-83页；钱国祥：北魏洛阳外郭城的空间格局复原研究—北魏洛阳城遗址复原研究之二，《华夏考古》2019年第6期，第72-82页。  
 42) 姜波：《隋大兴、唐长安城遗址考古发现与研究》，载刘庆柱主编：《中国古代都城考古发现与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6年，第351-356页。  
 43) 宿白：《隋唐长安城和洛阳城》，《考古》1978年第6期，第409-421页。

已发掘了新昌坊的青龙寺和延康坊内的西明寺。<sup>44)</sup>为了治安，隋朝在每坊设置里司，四角设置武侯铺；同时，又设“左右金吾卫，左右街使，掌分察六街徼巡”。但是，郭城南部四列坊到盛唐时期仍然无人居住；虽然偶尔居住，但是人烟稀稠，成了农田。<sup>45)</sup>



图八 唐长安城平面图(图片来源：钱国祥，中国古代汉唐都城形制的演进—由曹魏太极殿谈唐长安城形制的渊源，《中原文物》2016年第4期，图十)

在此阶段，不仅宫城和市，而且作为皇亲国戚、官吏宦者和佛教寺院所在的里坊都纳入规划之中。而行使政府职能的衙署在北魏长安城安排在内城以南的中轴线上，而在隋唐长安城中全部纳入宫城以南的皇城中。

### 结语

44) 姜波：《隋大兴、唐长安城遗址考古发现于研究》，载刘庆柱主编：《中国古代都城考古发现于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6年，第369页。

45) 宿白：《隋唐长安城和洛阳城》，《考古》1978年第6期，第409-421页。

虽然各国学者围绕中国古代都城做了长期的研究，获得了不少进展，但是仍然存在一些盲点。究其原因，一是历史文献和考古资料严重不足，无法让人详细准确地复原先秦以前的都城布局；一是因为研究者的学术背景不同，对于历史文献和考古资料有所偏重。笔者认为，要认识中国古代都城，就要搞清国家形态、城郭功能和居民构成。中国古代都城本质上为族邑，也就是居于统治地位的宗族的聚落，里面有王室居住的宫殿、其他居民居住的里、手工业作坊和墓葬。有时一座都城如殷墟由若干族邑构成。在需要防御的时候，就修建宫城和郭城，分别保护王室和其它居民。而郭城的居民，即历史文献中的“民”，实际为各级贵族官吏、手工业者、商人和宦者的住宅；北魏以后，郭城还出现了大量的佛教寺院。到了东周时期，这种族邑随着分封制和宗法制逐渐瓦解，在秦汉时期以后向帝国都城转化。

为此，笔者将龙山时代-唐代之前的中国古代都城分为三个阶段。在龙山-东周时期，都城形态为族邑，集王宫、一般居住区、手工业作坊和墓葬为一体；有时一座都城由若干族邑构成。这种族邑在西周以前，有时没有宫城或没有郭城，有时既有宫城又有郭城。进入东周时期以后，由于兼并战争加剧，各诸侯国纷纷修建城郭，保护自己的族邑。但是迄今为止，没有出现衙署和特定的手工业区域。在第二阶段的秦汉时期，宫城占据了都城的大部分面积，手工业作坊集中在特定的“市”内，出现了衙署和达官贵族居住的“里”，而墓葬移出郭城以外。到了第三阶段，不仅宫城、手工业作坊和市场，而且作为皇族贵戚居住区的里坊都规划整齐，而衙署也逐渐由分散走向集中，最后在隋唐长安城纳入皇城里。与此同时，皇宗贵戚、官僚宦者的住宅和佛教寺院迅速增加，导致郭城在北魏和隋唐不断扩大。在这个阶段，体现帝国意志的都城形态逐渐形成，至隋唐时期趋于成熟。



## 중국 고대 도성 성곽의 문제

장리양런(張良仁)<sup>1)</sup>

### <목차>

- I. 머리말
- II. ‘국가(國)’란 무엇인가
- III. ‘곽(郭)’이란 무엇인가
- IV. ‘백성(民)’이란 무엇인가
- V. 맺음말

### I. 머리말

중국 고대의 도성(都城) 구조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중국과 해외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한 바 있다. 이 연구에는 역사학자, 고고학자, 건축사학자 등이 참여했으며 학자들마다 시각의 차이가 있어 역사문헌과 고고학 자료의 취사선택이 다르므로 중국 고대도성의 발전사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었다. 수십년의 연구 끝에 이런 견해들은 이미 학설로 자리를 잡아 현재는 다양한 학설들이 함께 나타나는 백가쟁명(百家爭鳴)의 형국이라 말할 수 있겠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 차이는 주로 선진시대(先秦時代)와 양한시기(兩漢時期) 도성에 대한 문제에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편폭의 제한이 있는 관계로 용산시대(龍山時代)에서 당대(唐代), 특히 선진(先秦)과 양한(兩漢) 시기의 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논술의 편의를 위해 먼저 대표적인 학자들의 학설을 소개한다.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분으로는 일본 교토학과의 대표인물인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가 있다. 그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중국학자 허우와이루(侯外廬)와 마찬가지로 그는 중국 상고시대의 도성은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의 도시 국가처럼 도시 국가이며 통치자를 포함한 수공업자, 농민 등 한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모두 그 성 안에 거주하였다고 보았다. 그 중 농민은 낮이면 성 밖의 농경지에서 농업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성 안에 들어와 거주하였다. 상고시기의 중국 대륙에서는 이러한 크고 작은 도시가 도처에 분포하고 있었다. 각각의 도시 사이 중간지대는 인적이 없는 산천과 계곡지대였다. 양한(兩漢)시기에 호족들의 영지(莊園)와 둔전(屯田)이 생기면서 삼국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촌락(村莊)이라는 것이 생겨났다<sup>2)</sup>.

1950년대 이후, 중국의 고고학 연구가 진행되어 촌락이 갈수록 많이 발견되면서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도시국가설에 존재하는 문제도 점차 드러나게 되었다. 일본학자 이케다 유이치(池田雄一)는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몇 가지 시각에 대해 수정을 했는데, 즉 고대 주민들이 항상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집중하여 모여 산 것이 아니라 성곽은 정치,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 구축된 것이며 오히려 양소시기(仰韶時期) 이래 중국 고대의 촌락은 계속해서 분산(散村化)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상나라(商代)에 진입하면서 분산된 촌락 외에도 성시(城市)

1) 남경대학교 역사학과

2)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 저, 장쉬에펑(張學鋒), 마윈차오(馬雲超), 스양(石洋) 번역 ‘중국 부락 형태의 변천’, 상하이고적출판사, 2018년, p. 106.

가 출현했다. 서한시대(西漢時代)에 이르러서야 성시의 대부분이 도성(都城)으로 발전하였고 그 안에는 대규모의 궁전 건축물이 존재했다. 이 외에도 도성 내에는 대량의 궁터가 존재했다. 성벽의 형상이든 성내의 공간이든 모두 계획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sup>3)</sup>.

중국의 역사학자 양관(楊寬)은 1990년대에 중국 고대 도성의 형태 변화에 관한 저술을 편찬한 바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도성의 형태에 대해 연구하려면 성(城)과 곽(郭)의 형성 및 발전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는 선진시대로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도성을 3가지 시기로 분류하였다. 상대(商代)의 도성은 성(城)은 있으나 곽(郭)은 없었다. 서주에서 서한의 도성은 서쪽의 성과 동쪽의 곽이 연결되며 이루어졌다. 서한에서 당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중국 도성 형식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성은 동서남 3면의 곽으로 둘러싸여 이루어졌다. 주목할만한 점은 진한 양대의 함양성(咸陽城)과 장안성(長安城)은 대부분 궁전이 차지했는데 양관은 이런 것들을 모두 성으로 분류했다. 이 두 성의 동쪽에는 모두 곽이 있었는데 단지 성벽은 없고 산천과 운하 같은 것을 이용해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방어 시설로 사용했다<sup>4)</sup>.

양관의 관점 역시 현재 발견된 중국 고대 도성의 고고학적 사실과는 아귀가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허난성(河南省)의 이리두(二里頭)유적지, 은허(殷墟)유적지 및 산시성(陝西省)의 풍호(豐鎬), 주원(周原)유적지에서는 모두 곽성(郭城)이 발견되지 않았다. 중국의 고고학자인 위웨이차오(俞偉超)는 도성의 형성은 고대 사회에 수공업의 생산과 상품교역, 부의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많은 거주지에서 농기구가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일부 주민들이 농업생산에 종사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동주(東周)와 진한(秦漢) 시기에 이르러 주민들은 도성과 전국의 800개 정도 되는 현성(縣城)에 집중 거주하였다. 도성은 궁성(宮城)과 곽성(郭城)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곽성 내에는 관서, 수공업공방, 상업지구 외에도 리(里)를 단위로 하는 주민 거주지역이 있다. 삼국 이후 업성(鄴城), 평성(平城), 낙양(洛陽) 등 도성 내에는 가지런하게 계획된 마을(里坊)이 나타났는데 곽성 밖에는 대량의 사병부대와 소작농을 소유한 세도가문의 영지(莊園)가 나타났다<sup>5)</sup>.

앞서 기술한 학자들의 견해차는 매우 크나 각각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중국 고대도성의 곽성(郭城) 문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II. ‘국가(國)’란 무엇인가

중국 고대 도성의 형태와 사회의 형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4명의 학자들 중 미야자키 이치사다 만이 선진에서 진한(秦漢) 시대의 사회 형태에 관해 논술하였다. 지금에 와서 볼 때 그의 도시국가설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서주(西周)의 사회형태에 관해서는 국내와 해외에서 많은 연구가 되었고 대동소이한 견해로 집대성되었다. 요약하여 보자면 서주에서 시행한 제도는 분봉제도(分封制)였다. 주왕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자신의 자제들과 다른 성씨의 공신들에게 새로 정복한 지역을 봉지로 나누어 주어 그 땅의 토지와 백성을 관할하게 하면서 각자의 제후국을 세우도록 하였다. <좌전(左傳)>의 기록에 따르면 주나라 문왕(周文王)은 그 자손들을 관(管), 채(蔡), 노(魯), 위(衛), 옹(雍), 조(曹) 제후에 봉했으며 주 무왕(周武王)은 자손들을 진(晉), 응(應),

3) 이케다 유이치(池田雄一)저, 정웨이(鄭威)역 <중국고대의 부락 및 지방행정(中國古代的聚落與地方行政)>, 복단대학출판사, 2020년, p. 7-17.

4) 양관(楊寬) <중국고대도성 제도사 연구>, 상하이고적출판사, 1993년, p. 1-5.

5) 위웨이차오(俞偉超) <중국고대 도성계획의 발전단계성>, <문물> 1985년 2기, p. 52-58.

한(韓) 제후에 봉했다. 또한 주 공왕(周公王)은 그 자손을 범(凡), 장(蔣), 형(邢), 모(茅) 제후에 봉했다. 이들 제후들은 주왕에게 세금과 군대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막대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또 자신의 자손을 경대부(卿大夫)에 봉하여 그들에게 토지와 백성을 주어 자신의 영지(采邑)를 세우게 하였다. 경대부는 제후에게 세금과 군대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매우 강력한 정치경제적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때문에 영지와 제후국의 도성은 형태가 비슷하며 단지 규모가 비교적 작을 뿐이었다. 서주 국토에는 이처럼 많은 제후국과 영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금문(金文)과 역사문헌 속의 '국(國)'이다.

상대(商代)에는 과연 분봉제가 시행되었을까? 이 문제에 관한 역사문헌과 갑골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학술계에서는 쟁의가 분분하다. 왕귀웨이(王國維)의 견해에 따르면 상대에는 왕위의 형종제급(兄終弟及: 형이 죽으면 아우가 물려받는)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형제가 모두 황태자로 적자와 서자의 구분이 없었다. 다시 말해 자제에게 분봉하는 일은 없었고 다른 성씨의 제후가 있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sup>6)</sup>. 하지만 갑골문에서 언급한 '대읍(大邑)', '대읍상(大邑商)'에 관해 천명지아(陳夢家)는 상대의 도읍으로 보고 있으며<sup>7)</sup>, 그 주변으로는 예속된 족읍(族邑)이 다수 분포하고 있었다.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볼 때 상대 말기의 '대읍상(大邑商)' 은허(殷墟)는 샤오툰(小屯)과 화원장(花園庄) 일대의 왕족들의 마을(王族邑) 외에도 북신장(北辛庄), 효민둔(孝民屯), 백가분(白家墳) 등 많은 종가들의 족읍(族邑)들이 존재했다. <sup>8)</sup>갑골문 중 언급한 '다백(多白)과 다군(多君)', '후전(侯田) 혹은 다전(多田)', '방백(方白) 또는 방백(邦白)'에 대해 천명지아는 순서대로 각각 상왕국경 내, 변경, 그리고 국경 외의 제후를 가리킨다고 분석했다<sup>9)</sup>. 국경 외의 제후는 일반적으로 상왕의 정벌대상이었다. 이에 반해 국경 내와 변경의 제후들은 상왕에게 신하로 귀속되어 세금과 공물을 바쳤으며 정벌에 함께하고 상왕의 방패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영지를 세습하는 관료기관을 가진 걸로 보아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었으며 서주 시기의 제후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고고학 자료에 근거하면 은허(殷墟)에서 비교적 먼 곳에 위치한 나산천호(羅山天湖), 시안 노우과(西安老牛坡), 지난 대신장(濟南大辛庄) 및 성저우 전장대(勝州前掌大)에서 모두 전형적인 상문화의 유적지가 발견되었으며<sup>11)</sup>, 이것은 상나라 사람들이 이 곳으로 이주하여 식민지를 세웠음을 시사해 준다. 이들 식민지에서는 높은 등급의 상문화(商文化) 고분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상대의 제후국의 것으로 추정된다.

왕귀웨이(王國維)가 상대에 같은 성씨의 제후 분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근거는 상대에 종법제(宗法制)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주시기에 이르러야 분봉제가 종법제와 함께 시행되었던 것이다. 주왕과 제후들은 자신의 특권을 적장자(嫡長子)에게 물려주었고 다른 아들은 분봉하여 나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제후국(諸侯國)과 영지(采邑)를 건설하도록 하였다. 주왕과 제후, 그리고 제후와 경대부 사이는 군신관계임과 동시에 종족간의 서열관계에 있었다<sup>12)</sup>. 이들 제후와 경대부는 세습되는 영토와 백성이 있었으며 농업과 경공업

6) 왕귀웨이(王國維) <은주(殷周) 제도론>, <관당집림(觀堂集林)> 제 2권, 중화서국, 1959년판, p. 466.

7) 천명지아(陳夢家) <은허복사총론(殷墟卜辭綜述)>, 중화서국, 1998년, p. 316.

8) 정뤄웨이(鄭若葵) <은허 '대읍상(大邑商)' 구조초탐>, <중원문물(中原文物)>, 1995년 제3기, p. 84-93.

9) 천명지아(陳夢家) <은허복사총론(殷墟卜辭綜述)>, 중화서국, 1998년, p. 332.

10) 리성(厲聲) <선진시대 국가형태와 영토(先秦國家形態與疆域、四土芻見—以殷商國家敘述爲主)>, <중국변경사지연구(中國邊疆史地研究)>, 2006년 16권 제3기, p. 1-8.

11) 중국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편저, <중국고고학> 하상권(《中國考古學》夏商卷),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3년, p. 305-320.

12) 예귀칭(葉國慶) <서주종법제봉건관계의 본질(試論西周宗法制封建關係的本質)>, 샤먼대학학보(廈門大學學報) 1956년 제3기, p. 35.

에 대한 자주경영권이 있고 수리와 도시건설에 종사하였다. 고고학 자료에 근거하면 서주시기 주왕, 제후와 경대부가 성과 해자(城池)를 건설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춘추전국시기에 진입하면서 합병을 위한 전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들은 앞다투어 성과와 해자(城池) 건설에 착수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후국들은 토지와 세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제후집권을 강화하고 경대부와 여러 귀족들의 정치, 경제적 권력을 약화하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서주이래로 시행되어 온 분봉제와 종법제는 점차 와해되기 시작했고 진한제국시기의 군현제와 중앙집권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 Ⅲ. ‘곽(郭)’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열거한 4명의 학자 중, 미야자키 이치사다, 양관, 위웨이차오는 동한시기부터 성과 곽이 출현했다고 주장했다. 동주시기의 역사문헌 중에 발견되는 적지 않은 기록들이 이들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여기서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요약해 보고자 한다.

<좌전(左傳)> 은공 5년에 정나라 사람이 “송을 벌하려고 그 부(鄆)에 진입하였다.”<sup>13)</sup> 라는 기록이 있으며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이르기를 “부(鄆)는 곽(郭)을 가리킨다”라고 하고 있다. 정나라 사람이 송국의 곽(郭)을 공격하여 진입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곽은 일종의 방어 시설이며 그것은 바로 성벽(城牆)이다.

<예기(禮記) 예운편(禮運篇)>에는 공자의 어록이 기재되어 있다. “큰 도가 행하여질 때 천하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된다. …… 그러므로 대문을 닫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대동사회(大同社會)라고 부른다 …… 이제 지금의 형세는 큰 도가 없어졌으니 천하(天下)가 일가(一家), 일성(一姓)의 재산이 되고 말았다. …… 제후천자들의 권력은 세습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제도가 되었고 성과 곽을 지어 견고한 방어로 삼았다.”<sup>14)</sup>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대동사회(大同社會)에서는 성과 곽이 필요 없으나 소강사회(小康社會)에 이르러 사람들은 견고한 성과 곽을 지었다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 모두 두 줄의 성벽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공자의 마음 속 대동사회는 서주 주공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서주는 성과 곽을 거의 짓지 않았다. 반면 소강사회란 공자가 겪었던 춘추시대로 이때가 바로 성과 곽이 많이 지어지던 시대였다.

<맹자(孟子) 공손추하(公孫丑下)>에 “삼리의 성과 칠리의 곽(외성)이 있다(三里之城，七里之郭)” 는 말이 나온다<sup>15)</sup>. 이 문헌에서는 성이 곽보다 작고 성은 곽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자(管子) 팔관편(八觀篇)>에 기록되길 “내성(內城)의 성벽은 견고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안되며 외성(外城)의 사방 주위는 밖으로 통하는 틈새가 있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나쁜 것을 하기 위해 경계를 넘는 자가 틈탈 수 있기 때문이다. 리(里)에 있는 성벽이 옆으로 통하게 만든다면 강도와 도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 하였다. 이 문헌에서도 다른 문헌과 마찬가지로 성과 곽은 두 줄의 성벽이며 성(城)은 “난적(亂賊)”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고 있다. 이는 곧 나라의 임금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곽(郭)은 “간적(奸賊)”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하였고 그것은 바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리(里)에도 둘러싼 성벽이 있었는데 이는 도적을 막기 위함, 즉 마찬가지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13) 【진(晉)】 두예(杜預) <춘추경전집해(春秋經傳集解)> (一), 上海古籍出版社, 1978년판, p. 35

14) 【청(淸)】 손희단(孫希旦) <예기집해(禮記集解)> 卷二一, 中華書局, 1989년.

15) 【청(淸)】 초순(焦循) <맹자정의(孟子正義)>, 中華書局, 1987년, p. 251.

#### IV. ‘백성(民)’이란 무엇인가

중국 고대 도성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동한시대 조엽(趙曄)은 <오월춘추(吳越春秋)>에서 말하기를 ‘성을 지어 임금을 보위하고 곽을 지어 주민을 보호한다’라고 하여 성과 곽의 용도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성은 군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반면 곽은 ‘백성’을 편안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렇다면 ‘백성’이란 무엇인가? 일부 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 학설의 영향을 받아 ‘민(民)’이란 통치자인 ‘군(君)’에 대립되는 개념이며 노동인민, 즉 수공업자와 농민을 말한다고 여겼다. 곽을 세운 것은 통치자가 바로 이 노동인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sup>16)</sup>이 문제에 관해 현존하는 역사적 문헌 자료는 충분치 않으나 그럼에도 몇 개의 자료를 근거로 이런 이해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국어(國語) 제어(齊語)>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환공(桓公)이 물었다. “백성의 거주지는 어떻게 정하는가?” 관중(管仲)이 답하기를 “전국을 21개 향(鄉)으로 나눌 것입니다.” 환공이 말했다. “중소.” 관중은 이에 전국을 21개의 향으로 나누었는데 장인과 상인의 향은 6개, 선비와 농민의 향은 15개로 나누었다<sup>17)</sup>. 관중은 도성 내에 21개의 향을 두어 수공업자, 상인 및 선비들을 배치하였다. 다른 말로 이것은 도성내의 거민은 수공업자, 상인, 그리고 여러 계급의 귀족이었음을 말해준다.

<전국책(戰國策) 제책(齊策)>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 “제(齊)나라 도읍 임치(臨淄)에는 7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 내가 추측하건대 가장 낮게 잡아 계산해 보아도 가구당 3명의 장정이 거주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3\*7은 곧 21만 명이니 멀리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올 필요 없이 임치의 장정만으로도 21만 명의 병사를 충당할 수 있다. 임치의 백성은 매우 부유하여 사람들이 통소를 불고 비파와 금을 연주하며 닭싸움 개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바둑경기도 하는 등 예전에 없던 성세를 누리고 있다. 게다가 거리에는 마차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서로 부딪치기도 하며 행인들이 많아 서로 어깨를 부딪치면서 다닌다. 옷깃을 연결하면 휘장을 만들 수 있고, 소매를 연결하면 막사를 지을 수 있다. 이들이 땀을 흘리는 것만 모아도 큰 비처럼 내릴 것이다. “ 이 내용에서 보면 임치 성내의 주민들은 통소나 금을 연주하며 마차를 타고 다니며 한가로이 노니는 돈 있고 한가하며 교양 있는 사람들로 세습지위나 부를 영위하는 다양한 귀족계층(선비)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시에는 그들도 징용되어 참전해야 했다.

문헌의 기록이 비교적 많은 것은 북위(北魏) 낙양성(洛陽城)이다. 낙양성 성내에는 50개의 리(里)를 세웠다. 경명 2년(景明二年 A.D501년)에 선무제(宣武帝)는 곽을 수축하고 곽 안에 약 273개의 리(里)를 만들었다. 동, 서, 남쪽의 곽 내에는 각각 1개의 시(市) 경제적 거래를 하는 시장)가 있었다.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 의하면 “서곽(西郭)에는 낙양대시(大市)가 있었다. 주변으로 8리가 있었는데.....시동(市東)은 통상(通商), 달화(達貨) 두개의 리가 있어 리 내부의 사람들은 모두 공예기술이 뛰어나 그것을 판매해 생계를 꾸렸는데 자산이 막대하였다. .... 시남(市南)은 조음(調音), 악률(樂律) 두 개의 리가 있는데 리 내에 사는 사람들은 술을 빚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 시북(市北)에는 자효(慈孝), 봉종(奉終) 두 개의 리가 있는데 리 내의 사람들은 관을 짜는 일, 영구차를 임대하는 일을 했다. .... 또 준재(準財), 금사(金肆)라는 두개의 리에는 부자들이 살았다. 이 10개의 리에는 공업과 상업에

16) 이런 견해는 중국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보편적이다. 쑤바이(宿白)는 그의 논문 ‘수당 장안성과 낙양성(隋唐長安城和洛陽城)’ (<고고학(考古)>1978년 제 6기, p.413)에서 장안성의 궁성, 황성, 곽성과 이방의 설계는 ‘노동인민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감시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17) 천통성(陳桐生) <국어(國語)>, 중화서국, 2013년, p. 246.

중사하는 백성들이 많았다.<sup>18)</sup> 동곽의 시는 소시(小市)라 이름 했는데 면적이 비교적 작고 남측의 시는 사통시(四通市)라 칭했다. 이 3개의 시 외에도 낙양성에는 불교사찰(佛寺)이 많이 있었다. 성내에는 영녕사(永寧寺), 경림사(景林寺) 등 많은 사원들이 있고 곽내에는 충각사(沖覺寺), 보광사(寶光寺), 백마사(白馬寺) 등 불교의 사원들이 있었다. 신귀원년(神龜元年 A.D.518년)에 임성왕(任城王) 징(澄)이 조서를 올려 말하기를 “도성 안에 절이 5백 개가 넘어 백성 거주지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는 불교사원이 곽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했음을 설명해 준다.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 따르면 북위 낙양성의 성내, 성밖에 있는 323개의 리 중에는 많은 왕공귀족, 관리, 신하들의 주택이 자리잡고 있었다. 성내 영강리(永康里)에는 장군 원차(元叉)의 주택이 있었으며, 연년리(延年里)에는 환관 류등(劉騰)의 주택이, 영화리(永和里)에는 태부녹상서(太傅錄尚書) 장손치(長孫稚), 상서우복사(尚書右僕射) 곽조(郭祚) 등 관료들의 저택이 있었다. <sup>19)</sup>서곽 내에는 동서로 2리, 남북으로 15리의 범위에 달하는 수구리(壽丘里)가 있었는데 이곳은 황실 종친이 거주하는 구역이었다. 남곽은 고양왕(高陽王)의 저택이 있었으며 남조(南朝)에서 항복한 자들과 외국 상인들이 거주했다. <위서정심전(魏書 楨深傳)>에 따르면 탁발각(拓跋恪 宣武) 시기에 침(琛)이 말하기를, “경읍 내의 여러 방(坊)에서 토지와 집들은 대부분 권력가와 귀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큰 귀족은 천여개의 집을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작은 이들도 5백채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가들은 중앙정부의 고위관리와 일반 관리들, 그리고 귀족과 그들의 친척들입니다. 그들의 집은 호화롭고 웅장하며 안에는 많은 노비들이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몰래 간사한 이들을 두고 키워 나쁜 일을 할 때 부리기도 합니다. 그들의 권세는 그들의 집처럼 크고 높아서 외부사람이 그 내부를 잘 볼 수도 없고 함부로 그들에게 물어보지도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이 문헌 속에서 말하는 방(坊)은 리(里)의 속칭으로 그곳의 주민은 황친이나 제왕의 외척과 국가의 고관 공신들이었다. 낙하 남쪽의 20리는 사방에서 투항하여 들어온 귀순자들에게 나눠주어 안착하게 하는 곳이었다. 남제(南齊)의 건안왕(建安王) 소보인(蕭寶夤)이 투항한 후, 회계공(會稽公)에 분봉되어 한 때 귀정리(歸正里)에 거주하였다. 나중에 제왕(齊王)으로 봉해지고 남양공주(南陽公主)를 아내로 맞으면서 성내 영안리(永安里)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다<sup>20)</sup>.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로 볼 때 선진 문헌속의 소위 말하는 ‘성(城)’은 실제로는 궁성을 가리키며, ‘곽(郭)’은 바로 고관귀족, 수공업자, 상인과 승려들이 거주하던 구역이었다. 그것들은 바로 상대의 ‘족읍’과 서주의 ‘국’이었다. 서주(西周) 이전의 도성은 곽성이나 궁성을 짓지 않았던 반면, 동주(東周)시기 이후로는 도성에 보편적으로 성벽을 수축하였다. 조위(曹魏)시대 이후 가지런히 기획 정비된 리방(里坊)이 출현하였는데, 이것은 황친과 황실의 외척, 관료, 불교사원, 수공업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리(里)는 바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축된 것이었다. 그 목적은 궁성과 동일하였으나 단지 지위가 궁성보다 낮았을 뿐이었다. 위와 같이 우리가 이해한다면, 중국 도성의 발전사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로 구분

18) 상릉(尙榮)역주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 4권, 중화서국, 2012년, p. 290-299.

19) 상릉(尙榮)역주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 1권, 중화서국, 2012년, p. 54-55, p.82.

20) 북위 낙양성 성내와 국내사원 및 각종 주민에 대한 상세한 고증은 허빙디(何炳棣)의 <허빙디사상 제도사론(何炳棣思想制度史論)> 13장 <북위낙양 성곽기획(北魏洛陽城郭規劃)>을 참고, 중화서국, 2017년, p.440-450 치엔귀상(錢國祥) <북위낙양 내성의 공간구조 복원연구-북위낙양 성유적지 복원연구의 하나>, <화하고고학(華夏考古)> 2019년 제 4기, p.78-83 / 치엔귀상(錢國祥) <북위낙양 내성의 공간구조 복원연구-북위낙양 성유적지 복원연구의 하나>, <화하고고학(華夏考古)> 2019년 제6기, p.72-82.

할 수 있겠다.

### 1. 제 1단계 : 용산(龍山)시대~전국(戰國)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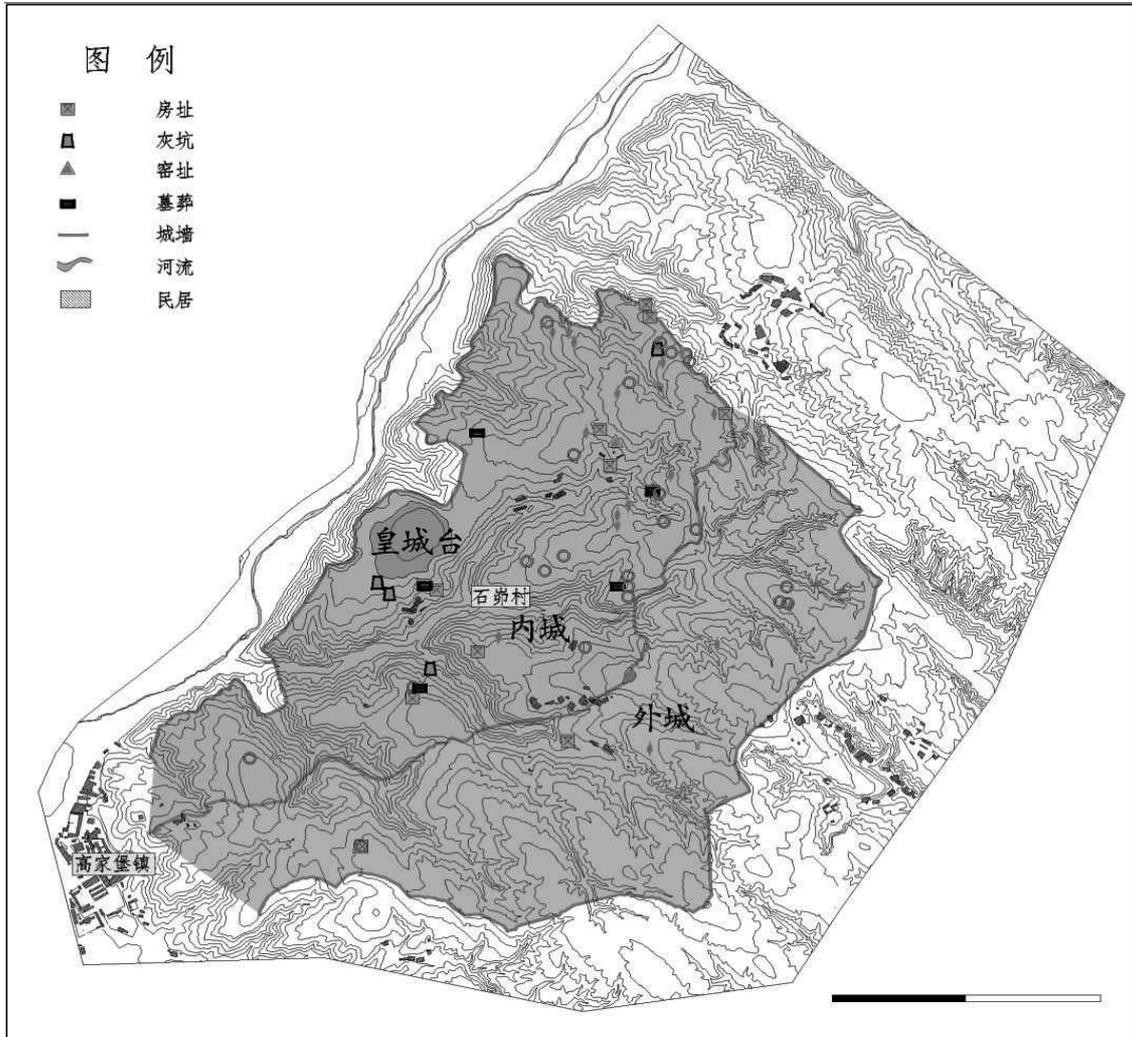
지금까지 알려진 중국의 가장 오래된 성(城)유적지는 장강(長江) 중류의 예현팔십당(潁縣八十塘) 유적지이다. 이 유적지의 면적은 대략 3만㎡ 정도이며 북쪽은 고대의 강류와 연결되어 있고 동, 남, 북쪽에 성벽과 둘러싼 참호들이 있어 폐쇄된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은 지형이 저지대로 고리 모양의 참호와 성벽을 수축한 것은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주지역 외곽으로는 대량의 흙구덩이 무덤이 발견되었다. 이 유적지는 성두산문화(城頭山文化)에 속하며 대략 기원전 7000-6000년 경의 유적지로 추정된다. 21) 훗날 이 지역에 생겨나는 대계문화(大溪文化 B.C.4,600~3,300) 예현(潁縣) 성두산(城頭山)유적지와 굴가령문화(屈家嶺文化)의 석수시(石首市) 주마령(走馬嶺), 예현성두산(潁縣城頭山)<sup>22)</sup>, 황하 중류지역의 정주서산(鄭州西山)은 좀더 규모가 확장될 뿐 기능에 있어서는 대체로 동일하다. 성유적지 안팎에서 발견된 가옥과 무덤으로 볼 때, 이 성유적지는 뚜렷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미국 인류학자 엘만 서비스(Elman Service)가 말하는 부락 또는 주장마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석묘성(石峁城) :** 용산시기(龍山時期 B.C 2600~1800)에 이르러 성터(城址 성지)는 중국 각지에 대량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터들은 규모가 비교적 웅장하고 크다. 하지만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대규모로 발굴된 곳은 석묘(石峁), 양저(良渚), 석가하(石家河), 도사(陶寺) 정도이다. 편폭의 제한이 있으므로 그 중 석묘성(石峁城)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석묘성 유적지는 황토고원(黃土高原) 북부의 율림시(榆林市)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지는 1970년대에 옥기(玉器)가 출토되어 발굴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2011년 이후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지를 대규모로 발굴하여 황성대(皇城臺), 내성(內城), 외성(外城)을 발굴하였는데 총면적이 400만㎡에 달한다(그림1). 황성대 내성 중앙에는 넓이가 80,000㎡에 달하는 원각방형(네각이 둥글게 다듬어진 사각형)의 높은 누대가 있고 주변의 축대는 계단형으로 생겼고 그 계단 표면은 돌덩어리로 둘러 쌓여 있다. 그 동쪽은 복잡한 성문이 수축되어 있는데 웅성(瓮城), 광장(廣場), 돈대(墩臺)로 이루어져 있다. 높은 누대에는 단단하게 다져진 기반이 있는데 이 기반 주변은 돌덩어리로 둘러 쌓여 있고 그 중엔 양각으로 모양을 새긴 돌덩어리가 30여개 포함되어 있다. 문터와 축대에서 동기를 주조할 때 쓰던 돌주물틀과 만 여개의 뼈바늘과 뼈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과거 황성대 내에 동기공방과 뼈공예 공방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다른 중요 유물로는 악기와 뼈로 만든 입피리(口簧) 같은 것들이 있다. 높은 누대 주변에서는 돌로 조각한 사람의 얼굴형상, 악어뼈판, 채색벽화 등이 발견되었다. 탄소연대측정법과 나이테연대측정법에 의하면 이 성터의 생성연대는 B.C.2300~1800년이다. 그 주변은 내성이며 3개의 거주지 구역을 발견했는데 동굴식 건축물과 무덤을 발견했다. 내성 동쪽에는 외성을 수축했고 그 안에서도 동굴식 건축이 발견되었다. 발굴자들은 내성의 동굴식 건축이 황성대의 지면 건축과 비교해 비교적 누추하고 간소하였고 외성은 내성의 동굴식 건축물보다도 더 간소한 형태임을 주목하였다. 이들 건축물 간에는 등급의 차이가 확연하게 존재했다. 내성과 외성 성벽에는 성문 외에도 각대(角臺 : 성벽의 모퉁이 각에 세운 누대)와 마면(馬面 : 외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성벽에 말 얼굴처럼 튀어나오게 만든 벽)도 수축하였다. 돌을 쌓아 만든 성벽 내에서는 삼머리 모양과 반달 모양의 옥장식이 발굴되었

21) 중국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편저 <중국고고학> 신석기시대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10년, p. 166-173.

22) 중국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편저 <중국고고학> 신석기시대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10년, p.414-450.

다. 동북쪽으로는 성문이 하나 있는데 성문 안의 성벽벽화, 주변의 지면, 성벽 밑에서 6개의 제사굴이 발견되었으며 그 안에는 1~24개의 해골이 매장되어 있었다. 해골은 여성의 것이 많으며 정상적인 사망이 아니었다. 돌을 쌓아올린 성벽의 돌덩어리 사이에는 많은 삼자루 모양, 반달모양, 도끼모양 옥장식이 상감(象嵌)되어 있었다<sup>23)</sup>. 이 성터의 규모는 거대하며 사회 분화와 등급을 보여주는 고급 기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추장도읍과 초기국가의 도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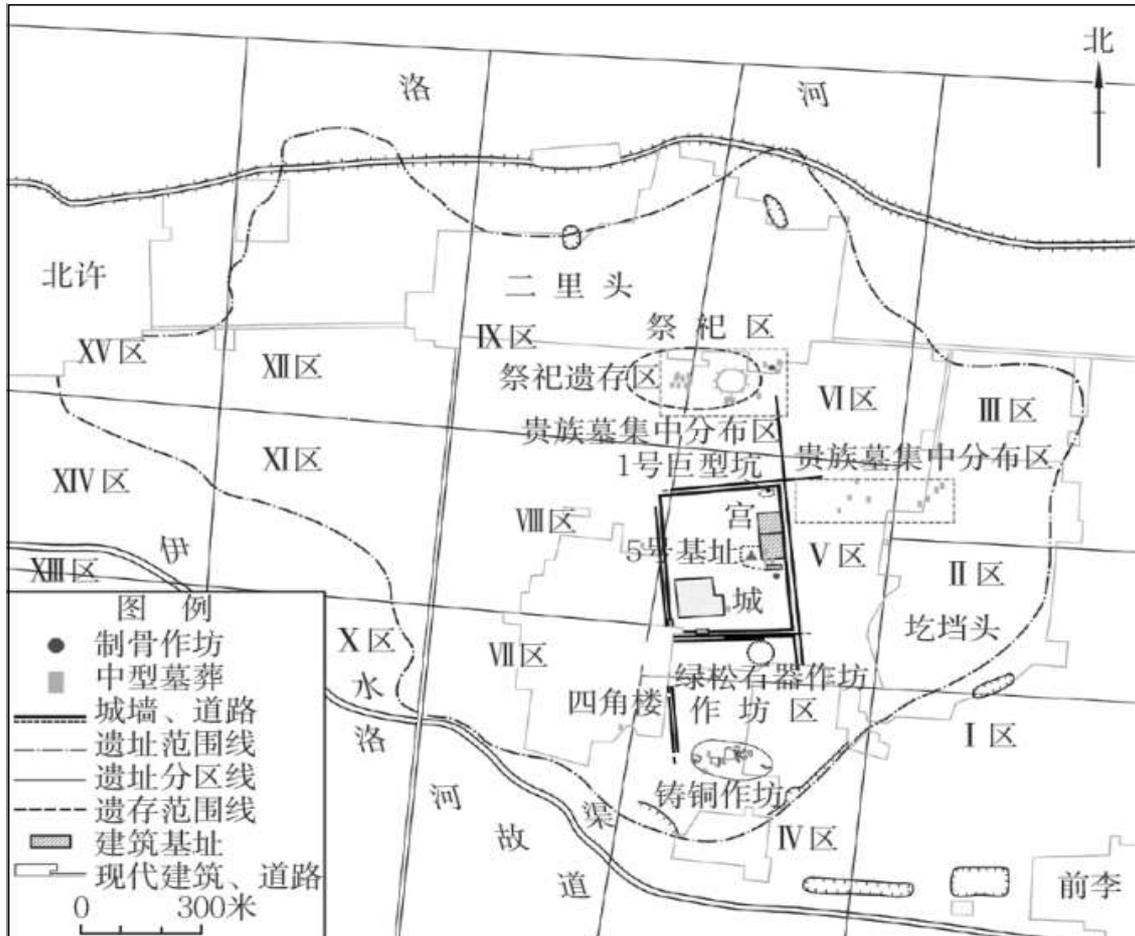


<도 1> 석묘유적지 평면도 (그림 출처 : 쑤저우용(孫周勇), 샤오징(邵晶), 디난(邸楠) '석묘(石峁)유적지의 고고학발견 및 연구 총론', <중원문물(中原文物)> 2020년 제1기, 그림2)

**이리두(二里頭)유적지** : 이 유적지는 낙양분지(洛陽盆地) 내 이하(伊河)와 낙하(洛河) 사이 하간평원(河間平原) 위에 위치하고 있다. 1957년 이 유적지를 발견한 이후 고고학자들은 60여 년의 조사와 발굴을 통해 그 면적이 3km<sup>2</sup>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도 2). 이 유적지의 이리두 문화 유물은 4가지 시기로 나뉜다. 탄소연대측정법을 통해 그 시기는 B.C 1750~1530년으로 밝혀졌다. 1960~70년대에 고고학자들은 1호, 2호 궁전궁터를 발견하였는데 그

23) 리우칭주(劉慶柱) <조기중국 도읍유적의 고고학적발견과 연구> / 리우칭주 편집 <중국 고대도성의 고고학적발견과 연구>,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6년, p.54-57 / 쑤저우용(孫周勇), 샤오징(邵晶), 디난(邸楠) <석묘유적지의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중원문물>, 2020년 제 1기, p.39-48.

중 2호 궁터는 장방형으로 남쪽을 바라보고 북쪽에 터를 잡았으며 길이가 87.28m, 넓이가 57.5~58m 이다. 사면은 둘러싼 장벽과 회랑기둥으로 이루어진 긴 회랑이 있다. 중간은 비어있는 정원인데 북쪽에만 세칸짜리 방의 축대건축물이 있고 남쪽 성벽은 문이 하나 나왔다. 이러한 궁터는 주거에 부적합하며 조회(朝會 : 조정의 회의)에 적합한 형식이기 때문에 학술계에서는 이리두가 하(夏)나라 도성의 기초를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벌어졌다. 이후 계속해서 진행된 고고학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두개의 궁터는 장방형의 궁성에 속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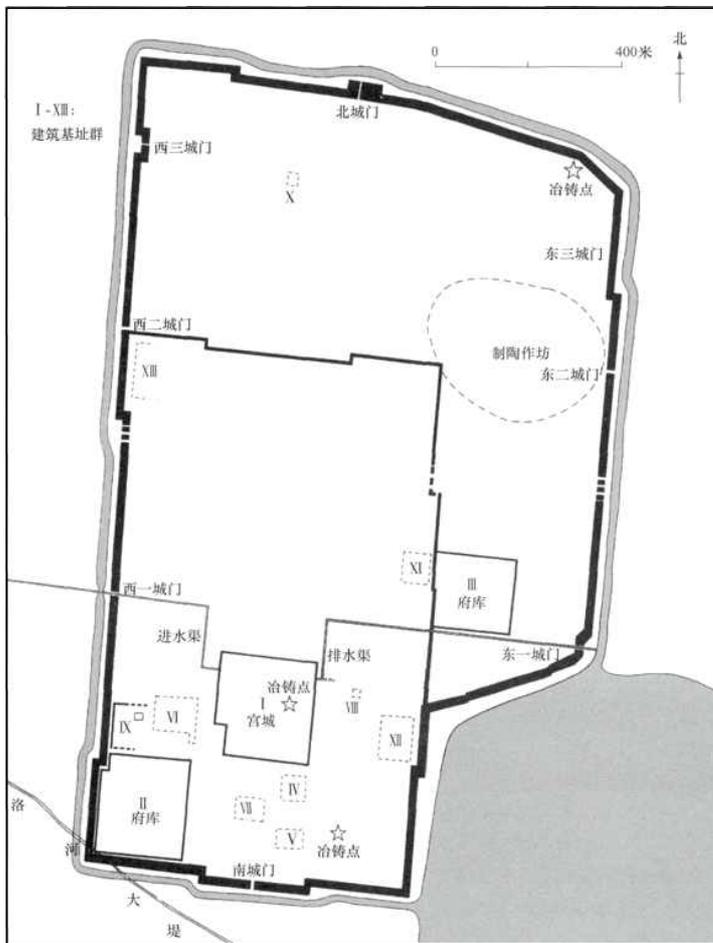
<도 2> 이리두 유적지 평면도 (그림 출처: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이리두 연구팀, 하남인사시 이리두 유적 궁전구역 5호 궁터 발굴 요약보고서, <고고학(考古)> 2020년 No. 1, 그림 1)

궁성은 대략 장방형으로 동서 방향의 넓이가 약 300m, 면적은 약 10.8만㎡에 달한다. 1호, 2호 궁전과 궁성은 이리두 3기에 수축된 것이며 이 외에도 2기의 5호 궁전과 동시기의 귀족 고분을 발견하였다. 궁성부근에서는 동기(銅器) 공방, 터키석 공방, 귀족고분, 거주지, 제사구역이 발견되었으나 분포는 밀집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아직 외부의곽성(郭城)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24)</sup>.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이 유적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매우 커서 일부 학자들은 하대(夏代)의 침심(斟鄩, 즉 도성)이라고 주장하며 어떤 학자들은 상대(商代)의 도성막(都城亳, 즉 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의 관점에서

24) 리우칭주(劉慶柱) <조기중국 도읍유적의 고고학적발견과 연구> / 리우칭주 편집 <중국 고대도성의 고고학적발견과 연구>,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6년, p. 60-70.

불 때 이러한 논쟁은 성문자료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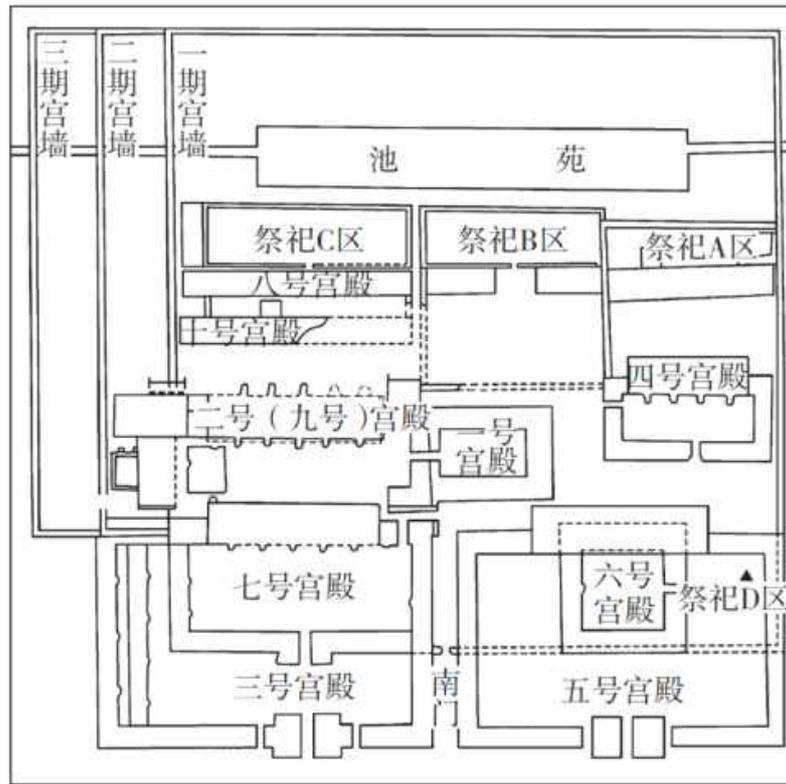
**언사상성(偃師商城) :** 이리두 유적지 이후에 언사상성(偃師商城)과 정주상성(鄭州商城)이 나타났다. 정주상성은 현재의 허난성(河南省) 정주시(鄭州市)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대 도시 아래에 눌러 있는 관계로 발굴이 비교적 어려워 이에 대한 연구지식도 비교적 제한적이다. 언사상성은 낙양분지 동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리두 유적지에서 동쪽으로 6km 위치한 낙하 이북에 있고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1983년 고고학자들은 수양산전기공장(首陽山電廠) 확장공사를 도우면서 탐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 성터를 발견하게 되었다. 40년의 조사와 발굴을 거쳐 현재는 궁성, 조기곽성, 만기곽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먼저 지어진 것은 조기곽성 중앙남부의 궁성이다. 대략 네모난 형태이며 남북으로 180~185m, 동서로 190~200m이며 면적은 45,000㎡에 달한다(도 3-2). 궁성 내에서는 9개의 궁전 건축을 발견하였고 모두 세 시기의 건축으로 나뉜다. 이 뜻은 궁전 건축이 두 번에 걸쳐 중건되었으며 이 궁성에는 두 번의 확장공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궁전들은 이리두 유적지의 2호 궁전과 유사하고 핵심 건물은 북측에 자리 잡도록 건축되었고 동, 남, 서 세 방향으로는



회랑이 있어 거대한 정원을 이루고 있다. 다른 점은 핵심 건축물이 북쪽의 회랑을 대신했다는 점이다. 그 중 제 3기의 5호, 3호 궁전의 규모가 가장 크며 동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5호 궁전은 동서로 104m, 남북으로 91.3m, 면적은 9,000㎡에 달한다. 이러한 동서로 대칭을 이루며 동시에 만들어진 궁전은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궁성의 북부에서는 대형 제사지역과 연못이 발견되었다. 조기의곽성 형태는 비교적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져 있었다. 장방형으로 길이는 1100m, 넓이는 740m이다. 이후 조기의곽성은 확장건축을 통해 칼자루 모양의 형상으로 변모해 가서 길이는 1710m, 북쪽 성벽은 길이가 1,200m(도 3-1)에 달한다. 초기곽성과 후기곽성 안에 발굴된 것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후기에 중부지역과 북부지역에만 청동기, 도예, 뼈공예 제작공방과 소형 고분이 일부 발굴되었다<sup>25)</sup>.

<도 3-1> 언사상성 평면도 (천귀량(陳國良): 언사상성유적지 부락형태의 초보적 고찰, <3대 고고학(三代考古)>, 2015년, 그림1)

25) 리우칭주 <언사상성 유적지의 고고학적 발견 및 연구>, 리우칭주 편저 <중국 고대도시의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사회과학문화출판사, 2016년, p. 8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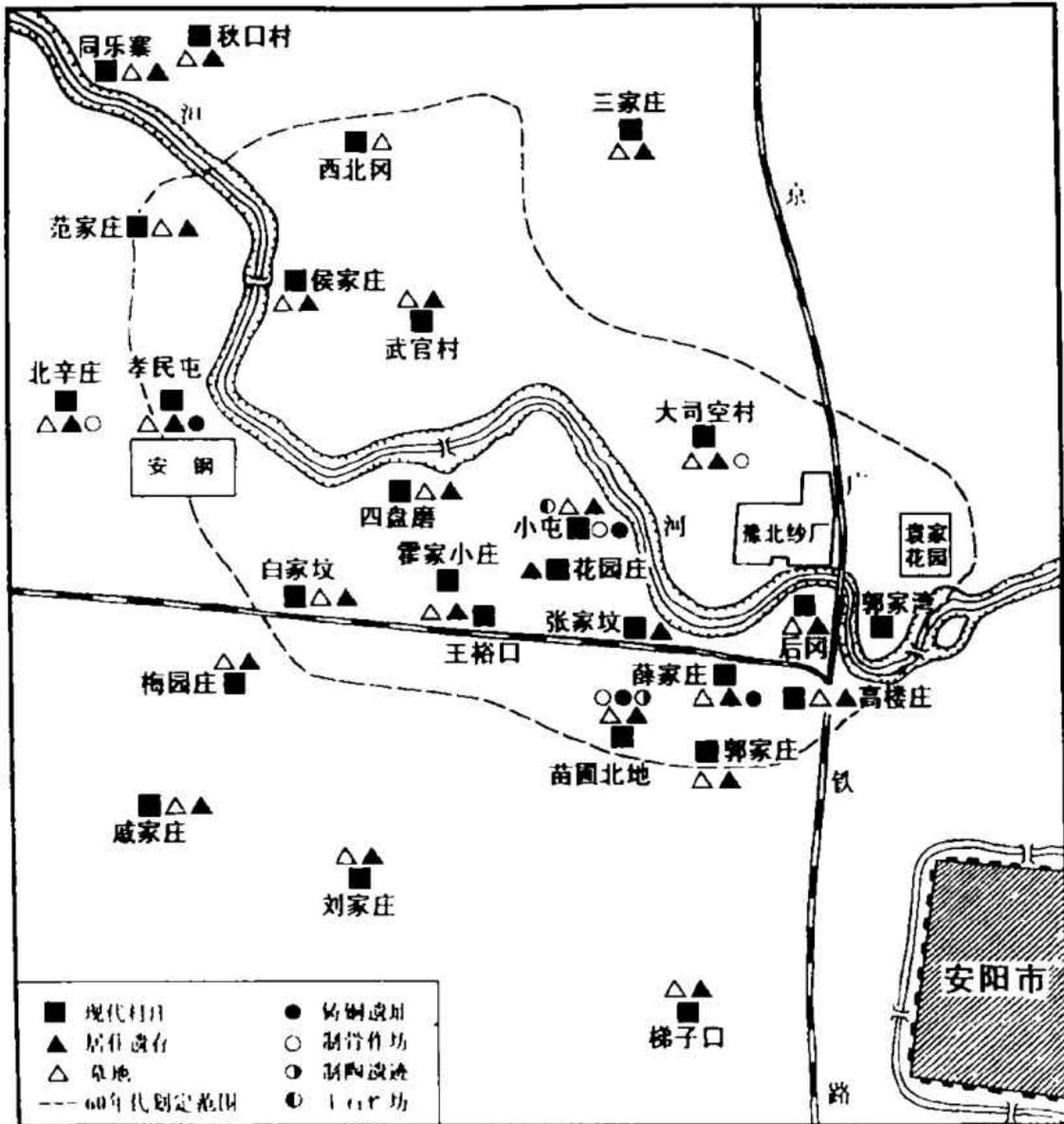


<도 3-2> 연사상성 궁성 평면도 (중국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허난 제2작업팀: 허난 연사시연사상성 궁성제사 D구역 발굴 요약보고, <고고학(考古)> 2019년 No.11, 그림 1)

**은허(殷墟) :** 연사상성과 정주상성 이후, 고고학자들은 정주소쌍교(鄭州小雙橋), 환북상성(洹北商城) 등 도성급의 성터를 발견했는데 그 형식이 연사상성, 정주상성과 비슷하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기술하지 않겠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것은 상대(商代) 후기(晩期) 도성인 은허(殷墟)이다. 은허는 허난성(河南省) 안양시(安陽市) 서쪽 교외, 환허(洹河 환하) 남안(南岸)에 위치하고 있다. 20세기에 갑골문의 출토로 중국 학술계의 주목을 받은 곳으로 1928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시작해 그 후에도 80여년간 발굴작업을 이어와 그 구조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알려졌다. 궁전터는 샤오투(小屯)와 화원장(花園庄)에 위치하고 있으며 1930년대에 53개의 궁궐터를 발굴했다. 하지만 당시 발굴기술의 한계로 인해 이 궁궐터의 전체적인 구조는 명확하지 않았다(도 4).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부 학자들은 이들 궁전건축은 원래 모두 장방형의 사합원 구조로 건축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고고학자들이 일부 건축터를 발견하면서 앞서 말한 학자들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소위 ‘궁성(宮城)’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지 서쪽의 대회구(大灰溝, 큰 회색 도랑)와 궁전의 북측과 동측을 지나 흐르는 환허(洹河)가 서로 연결된 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발굴자들은 이들이 환허와 함께 어우러져 성을 수호하는 원을 이루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러한 원 안에 궁전건축 뿐아니라 대형 연못과 갑골문 문서들을 저장했던 재구덩이(灰坑), 고급 고분, 청동기공방, 옥기공방, 뼈공예 공방, 도예 공방 등을 발견하였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궁전구역은 서쪽으로 회구서편까지 확장되었다. 이렇게 궁전구역의 유적은 종류가 많고 궁전건축물, 각종 수공업공방, 고분을 포함하고 있어 상(商) 왕족의 거주지였음을

설명해 준다. 궁전 이외의 북서가교(北徐家橋), 이민둔(李民屯)에서 고고학자들은 이와 비슷한 주거지 유적(우물, 굴혈, 회갱) 다수와 수송업 공방, 고분이 어우러진 귀족들의 “족읍(族邑)”을 발견하였다.

은허(殷墟) 유적은 총 4기(期)로 나눌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족읍(族邑)과 왕족읍(王族邑)이 제1기에서 점형으로 분포되었고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차 확대되고 연결되면서 군락을 형성하게 되었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리두(二里頭) 유적과 마찬가지로, 은허(殷墟) 유적에서도곽성(郭城)은 찾을 수 없었다<sup>26)</sup>.



<도 4> 은허 평면도 (그림 출처: 정뤄쿠이(鄭若葵), 은허(殷墟)'대읍상(大邑商)'족읍(族邑) 분포 탐구, <중원문화> 1995년 No.3, 그림1)

**풍호(丰镐) :** 역사 문헌에 따르면, 문왕(文王)과 무왕(武王) 등 주(周)의 왕은 자제와 공신

26) 허위링(何毓靈) : <은허(殷墟)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 리우칭주(劉慶柱) 주필 <중국 고대 수도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6년, p.99-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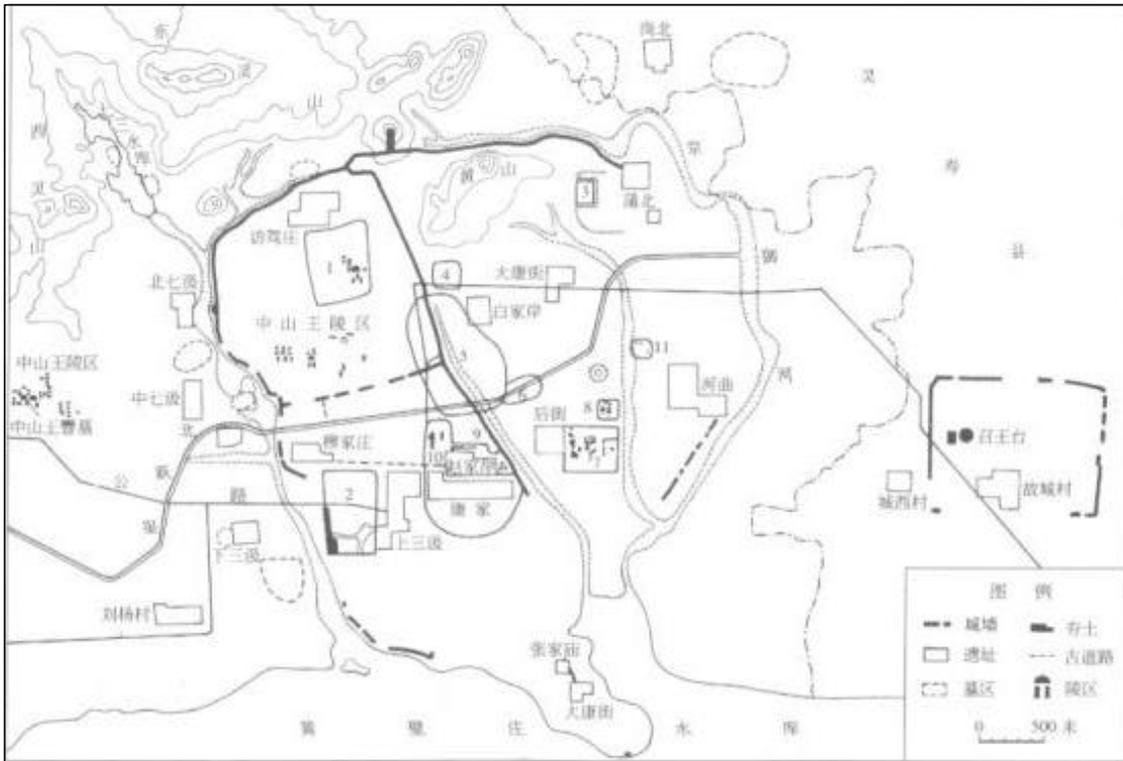
(功臣)들을 제후(諸侯)로 분봉(分封)했다. 각 제후(諸侯)는 참배와 조공의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 외에는 상당한 자치권을 갖고 있었다. 주문왕(周文王)은 직접 '작읍우풍(作邑於豐 : 풍 땅을 도움으로 삼는다)' 하였고, 무왕(武王)은 호경(鎬京 : 지금의 서안 인근)에 도움을 두었다. 현재 우리는 풍경(豐京)과 호경(鎬京)이 산시성 시안시 남서쪽의 예하(灃河) 양안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역사 문헌에 따르면 고고학자들은 1930년대부터 풍호(豐鎬)유적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1950년대부터 발굴을 시작해 현재는 이미 풍경(豐京)은 예하(灃河) 서안(西岸) 지역에 호경(鎬京)은 동안(東岸) 지역에 위치했음을 확인했다. 예하(灃河) 이서(以西) 지역의 마왕진(馬王鎭)에서는 궁전 건축으로 보이는 네 가지 대형 흙을 다져 만든(夯土) 건축 기지(基址)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보존 상태가 좋지 않고 궁성(宮城)도 발견하지 못했다. 마왕진(馬王鎭)에서 서쪽 지역에 있는 장가과(張家坡)에서는 종족묘지 한 기와 쌍묘도(雙墓道)가 있는 대묘(大墓) 한 기가 발견되었다. 그 부근에서는 청동기 저장고와 뼈공예 공방(制骨作坊)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곽성(郭城)은 발견되지 않았다. 예하(灃河)에서 동쪽에 있는 호경(鎬京)도 서한(西漢) 시기 곤명지(昆明池)를 건설할 때 크게 손상되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주문진(門門鎭) 이북 지역에서 십여 개의 대형 흙을 다져 만든(夯土) 건축 기지(基址)를 발견했다. 그 중 다섯 번 째 터는 공(工)자 형태로 독특한 모습을 보였는데 주 건물 중간에 양쪽에 부속 건물이 있었다. 이러한 기지(基址) 부근에서도 일부 고분이 발견되었다. 풍경(豐京)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궁성(宮城)과 곽성(郭城)은 발견되지 않았다.<sup>27)</sup> 그러나 풍경(豐京), 호경(鎬京), 은허(殷墟)와 비슷하게 역시 왕족읍(王族邑)에 속한다. 하지만 주원(周原)에는 은허(殷墟)와 비슷하게 다양한 고등급 건축, 고분, 수공예 공방과 청동기 저장고가 있는 귀족 족읍(族邑)이 분포하여 존재했다.

영수성(靈壽城). 주(周) 왕실이 낙양(洛陽)으로 도움을 옮긴 이후 왕실의 힘이 점차 약해졌고, 제후국(諸侯國)의 힘은 점차 강해졌다. 이들은 작은 나라를 합병하고 패권을 다투면서 춘추오패(春秋五霸)와 전국칠웅(戰國七雄)의 형국을 보였다. 그 결과 성건축이 활발했는데 <좌전(左傳)>에 기재된 신축성터(新築城址)만 해도 63개였고,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성터(城址)만 해도 30개가 넘는다<sup>28)</sup>. 이러한 성터(城址)는 규모가 크고 보존 상태가 다 달랐다. 고고학적 작업은 고대(高臺) 건축, 고등급 고분(墓葬), 수공업 공방(作坊)에 집중되었고 연대와 분포는 모두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고고학자들이 대부분의 제후국(諸侯國) 도움에서 곽성(郭城)은 발견했지만 명확한 궁성(宮城)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비교적 특징이 명확한 중산국(中山國) 영수성(靈壽城)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 영수성(靈壽城)은 허베이성(河北省) 평산현(平山縣)에 있다. 호타(滹沱)강은 태항산(太行山)에서 흘러나와 기북(冀北) 평원의 하곡(河谷)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성(城)은 북방 유목 집단인 백적(白狄)의 선우(鮮虞)에 의해 건립된 중산국(中山國)의 전국시대 도움이다. 고고학자들은 1980년에 이 성터(城址)를 발굴하기 시작하여 1987년에 끝이 났다. 이미 발굴된 곽성(郭城) 외의 중산 왕 고분과 다른 고분으로 볼 때, 중산국(中山國)은 이미 완전히 주(周)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성(城)은 불규칙한 복숭아 모양이며 동서 너비가 약 4,000m, 남북으로 최대 4,500m다. 성 내부의 조사와 탐사를 한 결과 현재 11곳의 대형 건축터(基址)가 곽성(郭城) 내부의 중부 및 북동부에 분산되어 있고 궁성(宮城)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곽성(郭城) 내부의 중부와 남부에는 큰 면적의 수공업 공방(作坊)이 분포되어 있

27) 쉬룽궈(徐龍國) : <서주(西周) 수도 유적의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리우칭주(劉慶柱) 주필 <중국 고대 수도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6년, p. 148-159.

28) 중국사회과학원 고고학 연구소 편저: <중국 고고학>양주(兩週)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4년, p. 227.

고, 그곳에는 구리 주조, 주화 주조, 철 제련, 도기 제조 공방(作坊)이 있었다. 그후 무언가의 원인으로 인해 성터(城址) 중앙에 남북 방향의 성벽이 생겨 이 성(城)은 동서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서성(西城) 북쪽에는 두 개의 왕릉(王陵)과 순장묘(陪葬墓)가 있으며 그중 한 개는 이미 발굴되었다. 성터(城址)에서 서쪽 지역에도 한 개의 왕릉(王陵)과 부속된 순장묘(陪葬墓)가 있으며 이 왕릉(王陵)은 이미 발굴되었다.곽성(郭城)은 왕릉(王陵)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곽성(郭城) 이외의 왕릉(王陵)도 성벽을 세울 준비를 했지만 당시의 중산국(中山國)은 이미 거의 멸망한 상태라 세우지 못했다<sup>29)</sup>.



<도 5> 영수성 평면도 (그림 출처 :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학 연구소 편저, <중국 고고학>, 중국 사회과학출판사, 2004년, 그림7-8)

위의 몇 도움으로 볼 때 일부 (예: 석묘, 양저, 인사상성)은 궁성(宮城)과 곽성(郭城)을 건설했고 일부 지역(이리두, 은허, 풍호)에는 곽성(郭城)이 없었고 일부는 궁성(宮城)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명확한 공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궁전 지역은 중앙 지역에 있고 수공업 지역, 일반 주거 지역 및 고분 지역은 주위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 기능적인 지역은 하나의 왕족읍을 만들었다. 하지만, 은허에는 왕족읍(王族邑) 외에도 많은 족읍(族邑)이 분포되어 있다. 이런 주거지역, 수공업 지역, 고분이 하나로 이루어진 현상은 동주 시기의 도움에서도 계속 나타났다. 동주 시기 도움의 규모는 더 컸고 수공업은 비교적 분산 되었다. 역사 문헌에 기재된 일반적인 주거 지역은 '리(里)'이며, 현재까지의 고고학 작업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 2. 제 2 단계 : 진한(秦漢)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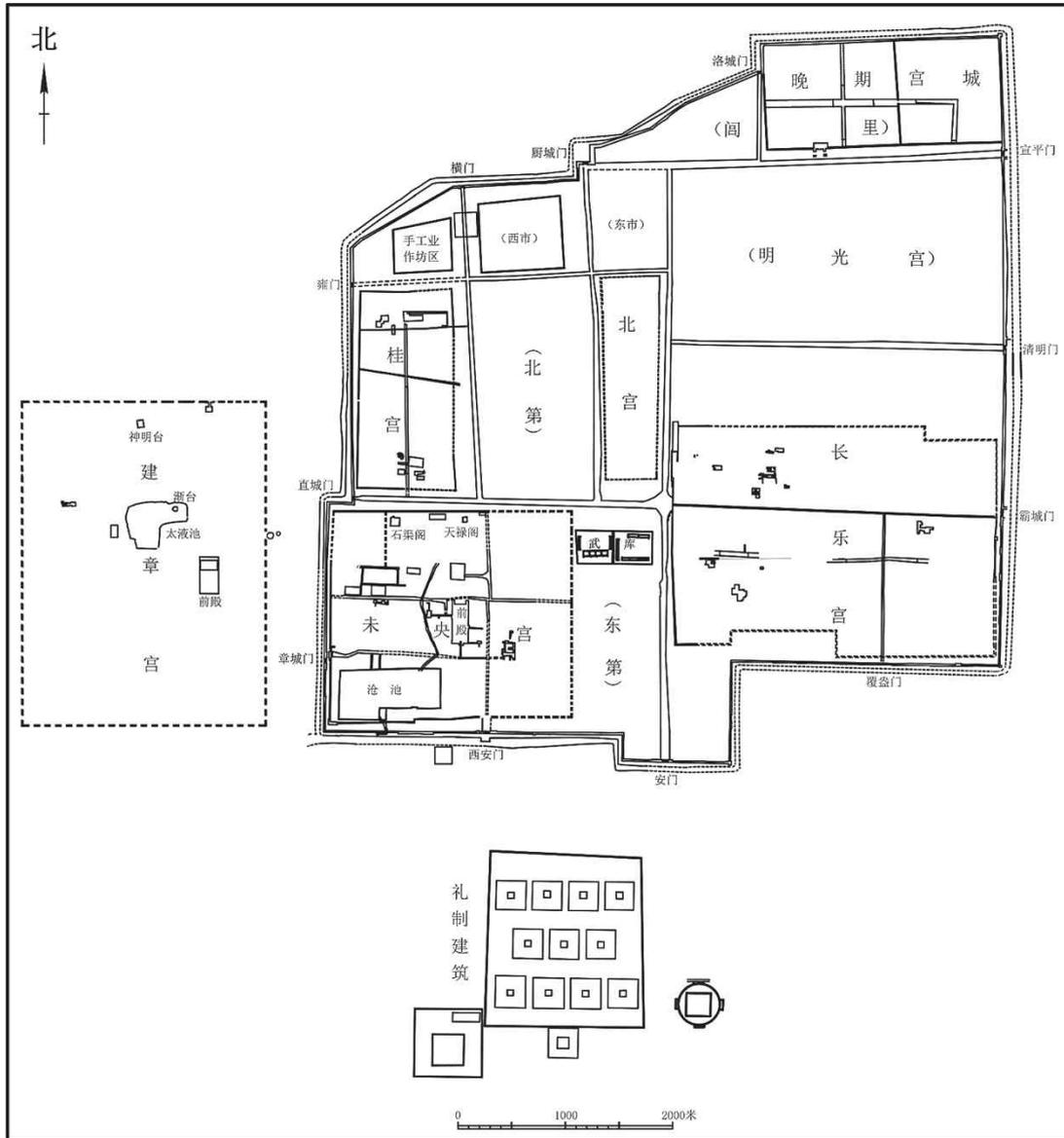
29) 허베이성 문물 연구소: <진국 중산국 영수성 1975-1993년 고고학 발굴 보고서>, 문물출판사, 2005년.

**진나라(秦) 함양성(鹹陽城)** : 진효공(秦孝公) 12년 (기원전 350년) 오늘날 함양시(鹹陽市)의 동쪽에 함양성을 건설했다. 먼저 위하(渭河) 북안(北岸)에 궁전 지역을 짓고 그 후 진왕(秦王)이 이어 궁전을 지었다. 위하 북안에서 남안으로 이어져 있는 곳에 흥락궁(興樂宮), 장대(章臺), 제묘(諸廟), 감천궁(甘泉宮), 상림원(上林苑)이 있다. 진시황이 6개국 통일할 때 한 국가를 점령할 때마다 위하(渭河) 북안(北岸)에 그 멸망시킨 국가의 궁전을 증건하였다. 후에 위남(渭南)에 신궁(信宮)과 감천전전(甘泉前殿)을 추가로 짓고 아방궁(阿房宮)을 짓기 시작했지만 완공은 하지 못했다. 이러한 위북과 위남의 궁전에는 함양에서 출토한 봉니(封泥)에 새겨진 '북궁(北宮)'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 이래로 고고학자들은 계속 조사, 탐험, 발굴을 해왔지만 궁성(宮城)만 발견했을 뿐 광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궁성은 전체적으로는 사다리꼴이며 북쪽 벽 길이는 843m, 서쪽 벽은 576m이다. 안에서는 7개의 대형 흙을 다져 만든(夯土) 건축 기지(基址)를 발견했다. 궁성의 동쪽과 서쪽에서는 탐사를 통해 26개의 건축 터를 발견했다. 그 중 일부 건축에서는 6국 특징이 있는 유물이 발견되었고 발굴자들은 이 건축 기지들이 진시황이 (멸망한 나라의 궁전을) 모방하여 만든 '육국궁실(六國宮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기(史記)>에 따르면 진(秦)은 함양 인근에 270여개의 궁관(宮觀)을 건설 했다. 이 궁관은 아마도 진시황이 이주시킨 '천하부호(天下富豪)' 12만 호(戶)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그 중의 일부분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궁성 서쪽의 섭가구(聶家溝), 후가구(胡家溝)에서는 관영 도기 제조 공방, 구리 제조, 철 제련 등 국가가 운영하는 공방들이 발견되었다. 궁성 남쪽에서는 시부(市府)와 민영(民營)의 도기 제조 공방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공방은 원래 진 왕실과 황실을 위함 이었다. 지금까지 궁성 주변에서는 관리 및 환관과 수공업자의 주거 지역은 발견 되지 않았지만 탑이파(塔爾坡), 임가취(任家嘴), 황가구(黃家溝) 등의 대형 묘지(墓地)들은 이 근방에 앞에서 기술한 거주 지역들이 있었음을 설명해 준다<sup>30)</sup>.

**한나라(漢) 장안성(長安城)** : 한나라 장안성은 사전에 계획된 도시가 아니다. 기원전 202년 한고조(漢高祖)는 진대(秦代) 이궁(離宮)이었던 흥락궁을 기초로 장락궁과 미양궁을 건설했다. 한혜제(漢惠帝)는 즉위한 후에야 성벽을 건설 해 기원전 190년에 완공 되었다. 한고조와 혜제는 즉위 기간에 북궁(北宮), 동시(東市), 서시(西市)를 또 건설했다. 후에 한무제(漢武帝)는 계궁(桂宮)과 명광궁(明光宮)을 추가로 건설 했다. 한나라 장안성의 형태는 불규칙적인데 동성벽의 길이는 5,916m, 남성벽의 길이는 7,453m, 면적은 34km<sup>2</sup>이다. 미양궁은 서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서 길이가 2,250m, 남북 너비가 2,150m, 면적이 5km<sup>2</sup>이다(도 6). 한 장안성의 지형은 남서쪽이 높고 북동쪽이 낮으며, 미양궁은 지형이 제일 높은 남서쪽에 건설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역사 문헌에 따르면 미양궁은 왕위 등극의식, 조서(詔書) 반포, 생신 축하 의식을 하는 곳이었고 그 내부에는 전전(前殿)이 있는 조정의 정사를 보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지원(池苑)의 창지(滄池), 황후가 거주하는 초방전(椒房殿), 다른 후궁(後宮) 건축물, 소부(少府), 중앙 관서(官署) 및 문서와 책을 보관하는 석거각(石渠閣)과 천록각(天祿閣) 등이 있었다. 따라서 미양궁은 조정, 행정, 거주, 문서보관, 휴양 등 다양한 기능이 모여 있는 궁성이었다. 계궁(桂宮), 북궁(北宮)도 후궁(後宮) 이었다. 이곳과 명광궁(明光宮) 외에도 한 장안성 내부에서는 병기를 보관하는 무기고와 고조에 제사를 올리는(奉祀 봉사)하는 고묘(高廟)도 발견되었다. 북서쪽에는 동시와 서시가 있다. 두 곳 모두 담이 있고 사면에는 각각 두 개의 문이 있었고 문 안의 동서와 남북에는 각각 2개의 거리가 있어

30) 리우칭주(劉慶柱), 리위팡(李毓芳): <진함양성(秦鹹陽城) 유적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리우칭주(劉慶柱) 주필 <중국 고대 수도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6년, p. 231-257.

서 시장을 9개 구역으로 나뉘었다.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서시 서쪽 지역에는 관영 수공업 공방이 있고 도기 제조, 철 제련, 주화 주조를 하였다. 동시는 상업 중심이다. 대소관원들과 시종들은 미양궁 동쪽의 동제(東第), 미양궁 북쪽의 북제(北第), 북동쪽의 여리(閭里)에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나라 장안성의 남교(南郊)에서 고고학자들은 서한(西漢) 말기 왕망(王莽)이 지은 종묘(宗廟), 벽옹(辟雍), 사직(社稷)을 발견했다<sup>31)</sup>. 진나라 함양성과 마찬가지로 제릉(帝陵)과 다른 거주민들의 고분은 모두 장안성 밖에 있었다. 본 논문 서두에서 내린 정의에 따라 미양궁, 장락궁 등은 본래 '궁성'이며 외성은 바로 '곽성'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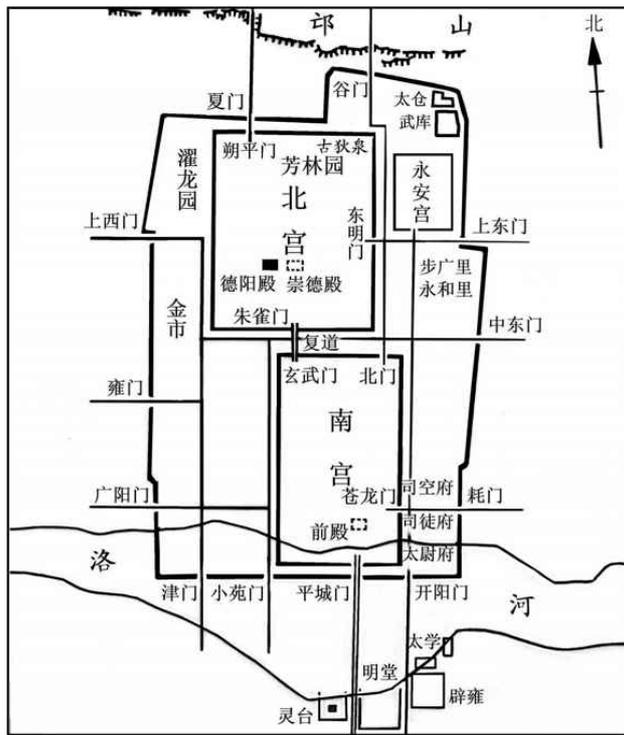
<도 6> 한 장안성 평면도 (리우진둥(劉振東): 한(漢)장안성(長安城) 성문 유적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화하고고> 2018년 No. 6, 그림1)

**동한(東漢)의 낙양성(洛陽城)** : 동한 낙양성은 현재의 허난성(河南省) 낙양시(洛陽市) 동

31) 리우칭주(劉慶柱) : <한 장안성 유적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리우칭주(劉慶柱) 주필 <중국 고대 수도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6년, 258-306. 리우칭주(劉慶柱), 리위팡(李毓芳): <한 장안성 고고학적 회고와 침망- 한 장안성 고고학 반세기 기념>, <고고학> 2006년 No.10, 12-21.

쪽 15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낙양 분지 중부에 위치한다. A.D 25년에 광무제(光武帝) 이곳을 도읍으로 삼고 그 후 동한의 12대의 황제가 이곳에 정착 했다. 1954년 이후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1978년 이전 중국 과학원에 예속)가 60여년간 출토 이 곳 성지(城址)를 탐사하고 발굴했다.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이 성(城)은 서주(西周), 동주(東周), 진대(秦代)의 성지(城址)를 이어받았고 남북 길이는 3,900m, 동서 길이는 2,700m이다. 성 내부는 마찬가지로 서한 장안성의 구조를 계승했고 이런 것에는 주로 북궁과 남궁이 다수를 차지한다.

한의 장안성과 비교했을 때 궁성의 수는 줄었다. 사람들은 후비(後妃)가 거주하는 궁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북궁의 서쪽, 황가북쪽 궁전의 서쪽에는 황가원유(皇家苑囿) 용원(龍園)이 있다. 동쪽에는 태후가 거주하는 영안궁(永安宮), 태창(太倉), 무기고 및 고위 귀족이 거주하는 보광리(步廣里), 영화리(永和里)와 같은 주거지역이 있다. 또한 일부 태위부(太尉府), 사공부(司空府), 사도부(司徒府) 같은 관서가 남궁의 동남쪽에서 발견되었다. 남궁의 북서쪽에는 금시장(金市)이, 동교(東郊)에는 말시장(馬市)이 있었다.



건무(建武) 5년 (A.D 29년)에 광무제는 남교(南郊)에 태학(太學)을 세웠고 중원(中元) 원년(元年) (A.D 56년) 명제(明帝)는 남시(南市)와 황가예제(皇家禮制) 벽옹(辟雍), 명당(明堂), 영대(靈臺)를 지었다. 명제(明帝)는 불경을 번역하기 위해 서교(西郊)에 백마사(白馬寺)를 지었다<sup>32)</sup>. 또한 고고학자들은 서교(西郊)에서 한 개의 대형 고분을 발견했고 동교(東郊)에서는 죄수(刑徒 형도) 묘지를 발견 했으며 500개의 고분을 발굴했다<sup>33)</sup>. 이로 볼 때 남궁과 북궁은 궁성이고 낙양성은 바로 광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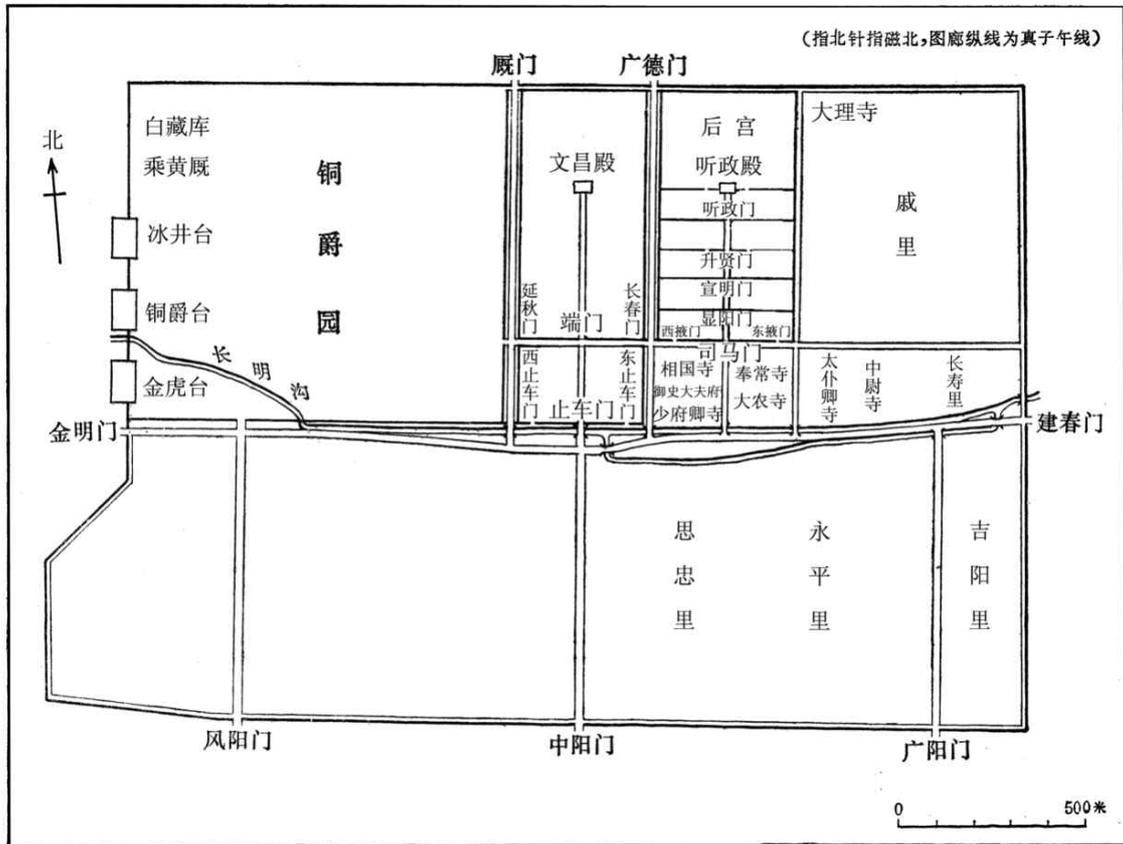
<도 7> 동한 낙양성 평면도 (그림 출처: 쥘리양(錢國祥), 중국 고대 한당 도성 형식제도의 발전-조위 태극전 당 장안성 형식제도의 유래를 논하다, <중원문화> 2016년 No.4, 그림2)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진한(秦漢)시대 이후 궁전 건축과 궁성이 차지하는 면적은 매우 컸지만 관아와 왕족이 거주하는 리(里)도 점차 광성 내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공업 공방과 시장은 일부 지역 내부에 집중 되었으며, 제릉(帝陵)과 각 급 관료 귀족의 고분은 광성 밖으로 옮겨졌다. 일부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아서(衙署)는 광성 안에서 나타났다. 이 단계에서 제국은 형성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족읍(族邑)도 막 무너졌다. 그리고 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도읍의 형태는 아직 형성되는 중이었다.

### 3. 제 3 단계 : 삼국 수(隋)당(唐) 시대

32) 왕중슈(王仲殊) : <중국 고대 도성 개설>, <고고학> 1982년 No.5.  
 33) 쉰룽궈(徐龍國) : <동한 낙양성 유적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리우칭주(劉慶柱) 주필 <중국 고대 수도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6년, p. 320-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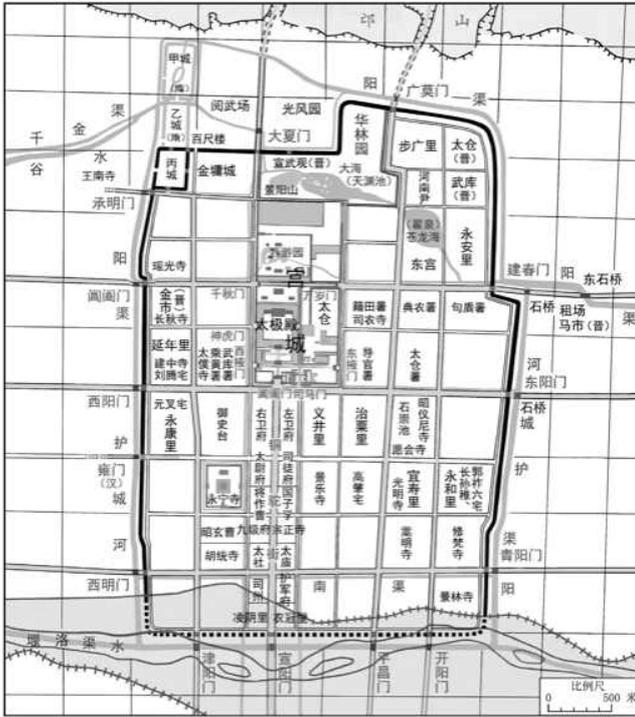
**조위(曹魏) 업성(鄴城) :** 업성은 허베이성(河北省) 린장현(臨漳縣)에 위치해 있다. 204년, 삼국 시대에 조조(曹操)는 업성을 짓기 시작했고 이후에 후조(後趙), 염위(冉魏), 전연(前燕), 동위(東魏), 북제(北齊)가 이어받아 사용하였고 총 370년 동안 사용되었다. 이 도읍에 관해 일본 학자 무라타 지로(村田治郎)와 아키야마 히데오(秋山日出雄)는 역사 문헌을 바탕으로 상세한 복원 연구를 했다<sup>34)</sup>. 또한 북평연구원과 베이징 대학교가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1983년 이후 중국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하북성 유물연구소는 업성 유적을 발굴했다. 앞에서 거론한 연구와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볼 때 이 성은 남성과 북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남성은 동위, 북제의 도성이 되었고 북성은 조위, 후조, 염위, 전연 도성이 되었으며 동서 너비는 2,620m, 남북 길이는 1,700m 이다<sup>35)</sup>. 이 성은 건춘문(建春門)과 금명문(金明門) 사이의 큰 길로 남북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도 8). 북부 중앙은 궁전 구역, 서쪽은 원유(苑囿)와 후궁(後宮), 동쪽은 왕족이 거주하는 '척리(戚里)'다. 남부는 사충(思忠), 영평(永平), 길양(吉陽), 장수(長壽) 등의 리(里)로 나뉘었고, 관서와 주거지역이었다. 중국 도시 계획의 역사에서 업성은 남북 중심축과 바둑판 모양의 리방(里坊)을 처음으로 만들었기에 이정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36)</sup>.



<도 8> 조위 업성 평면도 (첸귀샹(錢國祥): 중국 고대 한당 도성 형식제도의 발전 - 조위 태극전당 장안성 형식제도의 유래를 논하다, <중원문화> 2016년 No.4, 그림3)

**북위(北魏) 낙양성(洛陽城) :** A.D 190년, 동탁이 난을 일으켜 동한의 낙양성을 불태웠다.

34) 위웨이차오(俞偉超) : <중국 고대 도성 계획의 발전 단계성>, <문화> 1985년 No.2, 58.  
 35) 지양보(姜波) <위진남북조 도성 유적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리우칭주(劉慶柱) 주필 <중국 고대 수도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6년, p. 346.  
 36) 위웨이차오(俞偉超) : <중국 고대 도성 계획의 발전 단계성>, <문화> 1985년 No.2,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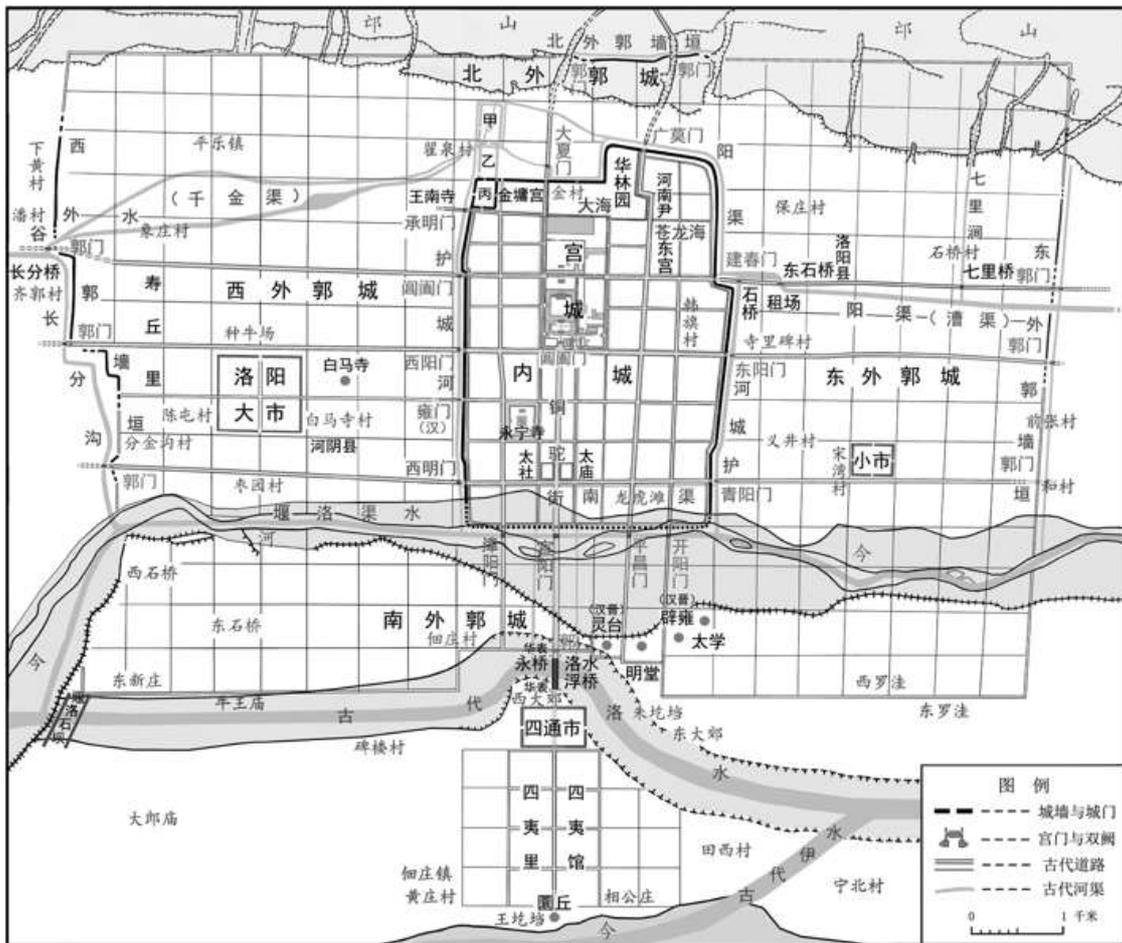


<도 9-1> 북위 낙양성 배치도(첸귀샹(錢國祥): 북위 낙양성 광성의 공간 구도 복원에 관한 첫 번째 연구, 화하고고> 2019년 No.4, 그림1)

A.D 220년, 조위 위문제(魏文帝)는 옛터에 도읍을 재건했다. 하지만 A.D 311년에 이르러 이 성은 영가(永嘉)의 난 때 다시 불태워졌다. 영안(永安) 2년(A.D529년)에 남조 진경지(陳慶之)는 낙양을 방문 후 '사람들이 한 때 낙양을 황무지라 불렀지만 북위 효문제(北魏孝文帝)가 낙양성으로 도읍을 옮긴 후 한화(漢化) 도읍이 되었다'고 말했다<sup>37)</sup>. A.D 495년, 북위 효문제가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다시 낙양을 재건했다. 동한 북궁에 낙양궁(洛陽宮)을 다시 지었지만 남궁은 재건하지 않았다. 이 때부터 이궁제(二宮制)가 일궁제(一宮制)로 바뀌었다<sup>38)</sup>. 북위는 조위 시대의 낙양궁 옛터에 궁성을 지었다. 건춘문(建春門)과 창합문(閭闔門) 사이의 동서대가(東西大街)는 궁성을 남북 두 부분으로 나누었고 남쪽 절반은 조당(朝堂), 북쪽 절반은 침궁(寢宮)과 화림원(華林苑)이다.

궁성의 동쪽은 태창서(太倉署), 적전서(籍田署) 등 관서, 원유(苑囿) 및 “동궁을 지으려 했던(擬作東宮)” 궁터이다. 서쪽은 원래 서진(西晉) 때 금시장이 있었던 곳인데 북위에 와서 장추사(長秋寺)로 바뀌었다<sup>39)</sup>. 궁성의 남쪽에 있는 동양문(東陽門)과 서양문(西陽門) 동서대가(東西大街) 남쪽 지역은 동타가(銅駝街)를 중심축으로 태묘(太廟), 태사(太社), 태위부(太尉府), 사도부(司徒府) 등의 관서가 있다. 나머지 공간에는 50 개의 리(里)를 수용할 수 있고 귀족이 기부해 지은 영녕사(永寧寺), 경림사(景林寺) 등 불교 사원 및 영강리(永康里), 치숙리(治粟里) 귀족, 관리, 환관이 거주하는 지역이다(도 9-1). 따라서 이 때의 낙양성 역시 광성이다. 경명(景明) 2년 (501)년, 선무제(宣武帝)는 인부 5만명을 징집해 낙양성 밖에 이궁 광성을 지었다. 고고학적 탐사에 따르면 동곽성(東郭城)은 동서 길이가 3,500m, 현재 실측 남북 너비는 1,800m이다. 서곽성(西郭城)은 동서 길이가 3,500~4,200m이며 남북의 실제 너비는 4,400m이다. 이를 추산해 보면 낙하(洛河)는 남계(南界)로 광성은 동서 20리, 남북 15리이고 이는 문헌 기록과 부합한다(도 9-2 참고). 광성 내에는 총 273개의 리(里)가 있다. 모든 리(里)주위에는 담이 쌓여 있고 4개의 문이 있다. 모든 문에는 이정(里正) 두명, 관리(吏) 4명, 문사(門士) 8명을 배치했다<sup>40)</sup>. 광성에는 큰 도시, 작은 도시, 사통시(四通市)가 분포하였다. 낙하 남쪽에 효문제는 동한의 태학(太學), 벽옹(辟雍), 영대(靈臺), 명당(明堂)을 지었다<sup>41)</sup>.

37) 쑤바이(宿白) : <북위 낙양성과 북방 능묘>, <문물> 1978년 No. 7, 42.  
 38) 쉰룽궈(徐龍國) : <동한 낙양성 유적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리우칭주(劉慶柱) 주필 <중국 고대 수도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에 기재,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6년, p. 329-330.  
 39) 쑤바이(宿白) : <북위 낙양성과 북방 능묘>, <문물> 1978년 No. 7, 42.  
 40) 양쉬안즈(楊銜之) 저, 상룽(尚榮) 역주 <낙양가람기> 제5권, 중화서국, 2010년  
 41) 지양보(姜波) <위진남북조 도성 유적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리우칭주(劉慶柱) 주필 <중국 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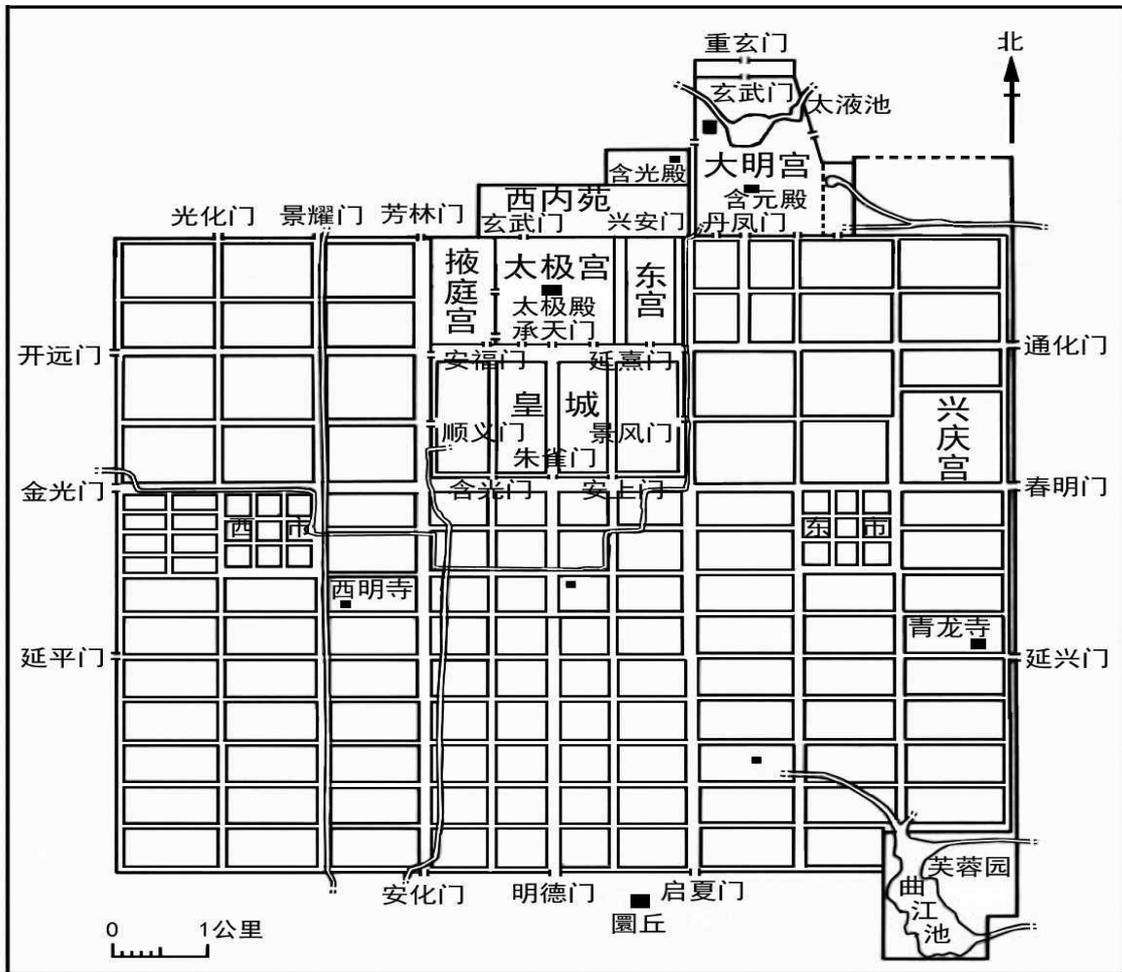
<도 9-2> 북위 낙양성 광성 배치도(첸귀샹(錢國祥):북위 낙양성 광성의 공간 구도 복원에 관한 연구-북위 낙양성유적 복원 두 번째 연구, <화하고고>, 2019년 No.6, 그림 1)

**수나라(隋) 당나라(唐)의 장안성(長安城) :** 개황(開皇) 2년 (A.D 582년), 수나라 문제(隋文帝)는 고영(高穎), 우문개(宇文愷) 등에게 한 장안성 동남쪽에 위치한 용수원(龍首原) 지역에 새로운 수도를 설립할 것을 지시했다. 그 당시 이름을 대흥성(大興城)으로 하고, 당나라에 이르러 장안성으로 개명했다. 이전 왕조의 도읍과는 달리, 수당 장안성과 관련해 당 학자 위술(韋述)은 <양경신기(兩京新記)>에서 장안성의 성방(城坊)의 기획을 기술하였다. 송(宋)학자 송민구(宋敏求)는 장안성유적을 답사한 뒤 <장안지(長安志)>를 저술했고 그 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고증 및 수정을 하였다. 1900년대에 들어 중국 및 해외 학자들이 장안성에 대한 조사와 발굴을 시작했다<sup>42)</sup>. 수당의 장안성이 북위 낙양성과 다른 점은 황성과 광성을 모두 계획에 포함시켜서 궁전 구역을 궁성 안에, 관서를 황성 안에, 기타 황족 친외척의 저택을 모두 광성 안에 두었다. 대흥성(大興城) 전체의 길이는 동서 9,721m, 남북 8,651m, 둘레는 36.7km이다. 정관(貞觀) 8년(634년) 당나라 태종은 궁성 동북쪽에 위치한 금원(禁苑)에 대명궁(大明宮)을 짓기 시작했다. 용삭(龍朔) 3년(A.D 663년)에 당나라 왕궁이 대명궁으로 이전하였다. 장안성

수도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에 기재,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6년, 332-344. 첸귀샹(錢國祥) : 북위 낙양 유적 복원 연구 1편, <화하고고학>, 2019년 No.4, 78-83. 첸귀샹(錢國祥) : - 북위 낙양성 유적 복원 연구 2편, <화하고고학> 2019년 No.6, 72-82.

42) 지양보(姜波):<수 대흥, 당 장안성 유적 고고학 발견 및 연구>,리우칭주(劉慶柱) <중국 고대 수도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6 년, p. 351-356

에는 남북으로 11개, 동서로 14개의 거리가 있다. 이 거리들은 광성을 108개의 방(坊)으로 나눴다(방(坊)은 북위시기 리(里)의 별칭이었음).朱雀대(朱雀大街)를 중심축으로 이 방(坊)들은 대흥(大興)과 장안(長安)의 두 현(縣)에 속한다. 도읍(都會)과 이인(利人) 두 개의 시(市)는 대청을 이루며 황성의 동남쪽과 서남쪽 양측에 위치해 있으며 각기 2개 방(坊)의 면적을 차지한다. 두 개 시(市) 주위에는 모두 담을 쌓았고 각각 8개의 문을 두었다. 담 안에는 정(井)자 모양의 거리가 있었고 교차로에는 시장을 관리하는 시서(市署)와 평준서(平準署)를 두었다. 다른 방(坊)에는 왕실, 관아, 사관(寺觀)을 두었다. 수나라 문제는 자신의 4명의 아들, 즉 촉왕(蜀王), 한왕(漢王), 진왕(秦王), 채왕(蔡王)이 귀의(歸義), 창명(昌明), 도덕(道德), 교화(教化) 등 4개 방(坊)에 저택을 두도록 했다. 우문개는 동남쪽 고지를 부용지(芙蓉池)로 개조하였고, 이궁(離宮)을 짓기 시작했다. 당 대화(大和) 개성(開成) 시기(A.D 827~840년)에 확장하여 오락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 부용원(芙蓉園)으로 개조하였다.



<도 10> 당 장안성 평면도 (그림 출처: 첸귀상(錢國祥), 중국 고대 한당 도성 형식제도의 발전-조위 태극진 당나라 장안성 형식제도의 유래를 논하다, <중원문물> 2016년 No.4, 그림10)

당 흥경궁(興慶宮)은 현종(玄宗)의 번저(藩邸 : 왕위에 오르기 전에 거처하던 곳)가 되었고, 그 후 현종(玄宗)이 번저(藩邸)를 궁으로 승격시켜 이 곳에서 집무를 보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수나라 시기에 사관(寺觀)을 많이 건설하기 시작했다. 대흥성(大興城) 내에는 100여 개의 사원과 10여 개의 도관(道觀)이 지어졌다<sup>43</sup>. 고고학자들은 현재 이미 신창방(新昌

坊)에 있는 청룡사(靑龍寺)와 연강방(延康坊)에 있는 서명사(西明寺)를 발굴했다<sup>44)</sup>. 치안을 위해 수나라는 방(坊)마다 치리사(置里司)를 두고 동서남북 모퉁이마다 무후포(武侯鋪)를 두었다. 이와 동시에 또 별개로 “좌우 금오위(金吾衛), 좌우 가사(街使)를 두어 육가(六街)의 순찰을 돌게 하였다”. 하지만 광성 남쪽의 사열방(四列坊)은 성당시대(盛唐)때까지도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다. 간혹 있어도 인구가 적어 농지로 용도가 변경되었다<sup>45)</sup>.

이 단계에서는 궁성과 시(市)뿐만 아니라 왕족, 관리, 환관와 불교 사원이 소재했던 리방(里坊)이 모두 계획 안에 포함되었다.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아서(衙署)는 북위 장안성에서 궁성 남쪽의 중심축에 배치되었는데, 수당 장안성에서는 궁성 남쪽의 황성으로 통합되었다.

## V. 맺음말

각 국의 학자들이 중국 고대 도읍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연구를 했고 많은 진전을 거두었으나 아직도 사각 지대가 존재한다. 이유는 역사 문헌과 고고학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사람들이 진(秦) 이전의 도읍 분포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연구자의 학술적 배경이 달라 역사 문헌과 고고학 자료가 다소 편중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고대 중국 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가의 형태, 성곽의 기능과 주민 구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고대 도읍은 본질적으로 족읍(族邑)이다. 즉 통치 지위에 있는 종족의 취락이다. 그 안에는 왕실이 거주하는 궁전, 기타 주민들이 거주하는 리(里), 수공업 공방과 고분이 있었다. 은허 같은 도읍은 몇몇의 족읍으로 구성되었다. 방어가 필요할 때, 궁성과 광성을 지어 각기 왕실과 주민들을 보호하였다. 하지만 광성의 주민(즉, 역사 문헌에서의 ‘민’)은 사실 각급 귀족 관리, 수공업자, 상인, 환관이었다. 북위 이후 광성에는 대량의 불교 사원이 나타났다. 동주 시대가 되어, 이러한 족읍(族邑)은 분봉제(分封制)와 종법제(宗法制)가 점차 와해되면서 진한(秦漢)시대 이후 제국의 도읍으로 변화되었다.

때문에 저자는 이러한 이유로 용산시대~당나라 사이의 중국 고대 도읍을 3단계로 나누었다. 용산~동주시대의 도읍 형태는 족읍이고, 왕궁, 일반 주거지역, 수공업 공방, 고분이 함께 모여 있다. 때로 한 도읍은 몇몇의 족읍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족읍은 서주 이전에 때로는 궁성이나 광성이 없었고, 때로는 궁성과 광성이 모두 있기도 하였다. 동주시대 이후 합병전쟁(兼並戰爭)이 심화되면서, 각 제후국은 점차 성곽을 지어 자신의 족읍을 보호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서(衙署)와 특정 수공업 지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인 진한시대는 궁성이 도읍의 대부분 면적을 차지했고 수공업 공방은 특정 ‘시(市)’ 내에 집중되었고, 아서(衙署)와 고위층 귀족이 거주하는 ‘리(里)’가 나타났다. 그리고 고분은 광성 외부로 이동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궁성, 수공업 공방 및 시장 외에도, 왕족이 거주하는 리방(里坊)까지 모두 기획이 잘 되어 지어졌다. 또한 분산되었던 아서(衙署)가 점차 집중되었다. 마지막으로 수당시대의 장안성이 황성 안에 포함되었다. 이와 동시에 황족의 종친 귀족들과 관료, 환관의 주택과 불교 사원이 빠르게 증가해 북위와 수당 시대에는 광성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었다. 이 시기 제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도성의 형태가 점차적으로 형성되면서 수당시대에 도성이 성숙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43) 쑤바이(宿白): <수당장안성과낙양성>, <고고학> 1978년No. 6, 409-421

44) 지양보(姜波):<수 대흥, 당 장안성 유적 고고학 발견 및 연구>, 리우칭주(劉慶柱) <중국 고대 수도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6 년, p. 369

45) 쑤바이(宿白): <수당장안성과낙양성>, <고고학> 1978년No. 6, 409-421

---

[제2부]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

---

日本 古代都市 外郭의 形成과 役割  
**일본 고대도시 외곽의 형성과 역할**

山本孝文

日本大學 教授

**야마모토 타카후미**

일본대학 교수

---



## 日本 古代 都市 外郭의 形成과 役割

야마모토 타카후미(山本孝文)<sup>1)</sup>

### <목차>

- I. 머리말 - 都市, 都城이 없는 國家形成期の 社會
- II. 古代 日本의 都市 變遷史
- III. 한양도성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과정
  - 1. 彌生時代 都市論과 古墳時代의 聚落
  - 2. 飛鳥時代의 宮과 地域範圍
  - 3. 藤原京의 京城範圍
  - 4. 平城京와 奈良時代의 都城
- III. 日本 古代 都市의 外郭
  - 1. 大宰府都城과 外郭
  - 2. 多賀城과 東北地方의 城
- IV. 맺음말 - 고대 일본에서 도시외곽의 출현배경과 역할

### I. 머리말 - 都市, 都城이 없는 國家形成期の 社會

동아시아 각 지역의 고대사회 발전 과정을 논의할 때 제외할 수 없는 요소는 성곽과 도시의 출현이다. 성곽, 도시의 출현은 해당 사회가 국가적 면모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항상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지만 이 요소가 다른 요소들보다 가장 늦게 나타나는 특이한 지역이 고대 일본열도 사회이다. 일본의 古墳時代(3세기 중엽~6세기 말)는 기념비적 왕묘로 볼 수 있는 대형 분묘의 축조, 외래계 문물을 비롯한 위세품의 집적과 재분배 행위, 수공업 생산의 집중적 관리와 유통의 장악 등이 확인되듯이 왕권의 성장과 광역 통제를 시도하는 사회였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거의 유일하게 결여된 것이 도시나 성곽이다. 거대한 前方後圓墳에 매장된 중앙과 지방의 지배자들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도성)에는 거주하지 않았고 일반 취락과 약간 떨어진 장소에 비교적 작은 豪族居館(首長居館)을 건설하였다. 일반 사회 구성원 역시 성벽이 있는 도시에는 거주하지 않았고 방어시설이나 안팎의 경계가 애매한 원초적 취락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본열도 고대사회에서 방어성이 높은 거점 취락은 彌生(야요이)時代 환호취락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계보는 후대의 도성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며, 그 뒤에 수백년에 걸친 성벽 없는 역사를 지냈다. 7세기 이후 飛鳥(아스카)時代부터는 도성, 성곽, 산성이 西日本 각지에서 건설되나, 그들은 일본열도 사회의 수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출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외부에서의 영향 내지 외국 세력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축조된 것이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본 발표에서는 고대 일본의 도시, 도성 발달사를 개관한 다음, 원래 고대 도시나 도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요소인 외곽시설이 일본의 도성 변천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1) 日本大學 교수

대해 유례는 적지만 구체적인 유적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본 발표를 통해 고대 일본의 도시 외곽이 對內的으로는 큰 기능이 없었고 주로 對外的인 역할이 기대된 상징물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外郭, 羅城 등 용어는 원래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新宮學 2011), 일본에서는 이를 구별해서 적용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헌기록이나 시설 명칭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나성’, 주로 유구를 지칭할 때에는 ‘외곽’을 사용하기로 한다.

## II. 古代日本の 都市 變遷史

이 장에서는 일본 고대사 속에서 도시적인 성격을 띤 거점적, 집중적 거주가 이루어진 시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아울러 그러한 시설을 둘러싸는 외곽이나 경계가 일본의 역대 고대 도시에서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개관한다.

도시 변천사의 개관에 앞서 발표자가 가지고 있는 ‘都市外郭’의 역할과 개념을 정리해 두고자 한다. 우선 외곽은 도시의 내부와 외부로 구별하는 경계 내지 경계선의 역할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고대 도시나 도성이 단순한 취락이 아니라 일정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그 내부와 외계는 확실히 구별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부와 외부에 사는 사람들을 구별할 심적 장벽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곽을 거쳐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또는 반대로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전환되는 작용이 있었을 것이다. 둘째로 외곽은 방어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성벽의 기능이 외적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는 역할이 제일인만큼, 외곽의 구조 및 위치와 주변 지형, 지리환경과의 관계는 도시 방위상의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고 도시 전체의 모양(평면형태)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도시외곽은 그 내부에서 완결되는 정비된 정치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다. 정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하는 지배계층과 그 시스템 속에서 행동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구성원을 내포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심인 도시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둘러싸인 공간은 그 내부에서 일단 완결되는 통치시스템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sup>2)</sup>. 마지막으로 도시외곽은 외관상의 상징성을 갖추고 있다. 중국의 역대 중앙 및 지방 도시의 외곽에서 볼 수 있듯이 외곽 성벽은 그 자체가 도시의 威容을 상징하고 對內的, 對外的으로 국가나 도읍, 거점도시를 어필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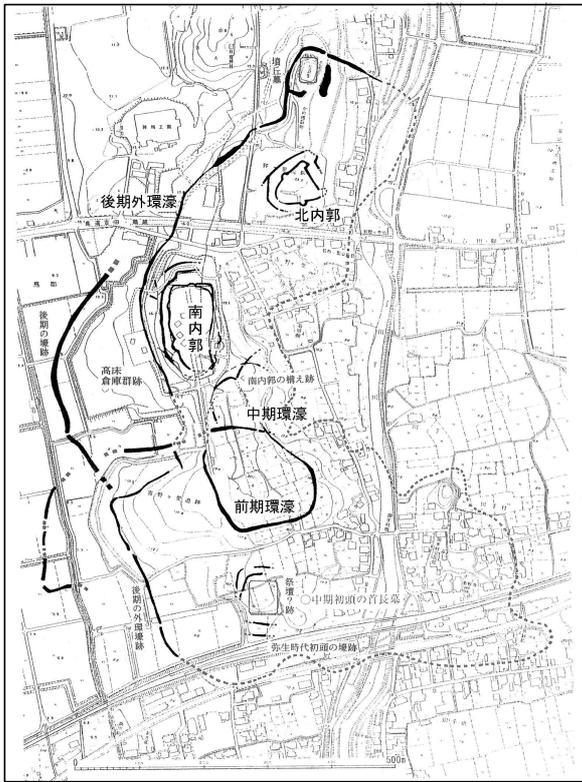
이러한 기능적, 상징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외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시가 고대 일본에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1. 彌生時代 都市論과 古墳時代의 聚落

외곽과 유사한 경계, 방어 시스템을 갖춘 시설은 일본열도에서는 야요이시대 환호취락에서 볼 수 있다. 이주나 교섭을 포함한 한반도 사회와의 접촉으로 농경사회로 이행한 일본열도에서는 생업체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아 취락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환호취락의 출현은 농업사회가 초래한 취락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취락 주위를 돌아가는 구와 목책 등은 방어, 경계가 필요한 사회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佐賀縣 吉野ヶ里(요시노가리) 遺蹟의 사례(도 1)처럼 취락 내부가 중층적으로 구획되고 그 내부 공간의 이용법에도 계층차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거론하여 彌生都市論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大阪府 池上曾根(이케가미소네) 遺蹟이나 奈良縣 纏向(마키무쿠) 遺蹟과 같은 야요이시대 대형

2) 물론 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 정치시스템은 다음 단계에 보다 넓은 공간 범위(정치영역)에 적용되고 정치시스템망을 형성하게 된다.

취락을 도시로 보는 견해는 취락 내 인구, 수공업 생산 및 유통의 중심적 역할, 수장이 주도하는 정치적, 종교적 센터로서의 역할, 주변 취락과의 착취, 피착취의 관계 등을 들고 있다. 다만, 야요이시대 대형 취락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계획된 공간배치나 규모를 갖춘 것이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 개조된 구조였고 지역 내에서의 구심력이나 생산과 유통의 통제, 정치시스템과 연결되는 도시 기능이 발달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도저히 도시로 평가할 수는 없다. 아울러 외곽의 성격도 방어성, 경계성은 인정되지만 상징성 면에서는 다른 지역의 도시 외곽에 비하면 약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대형화된 야요이 취락이 다음 시대에 특정한 지역으로 집약되는 상황을 보이지 않고 쇠퇴되기 때문에 이를 도시 발달사의 일부로 편입시키기가 어렵다.



<도 1> 사가현 요시노가리 유적

성, 상징성이 확실한 ‘都市景觀’을 갖춘 도시는 고분시대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현시점에서 고분 시대는 ‘외곽도시 부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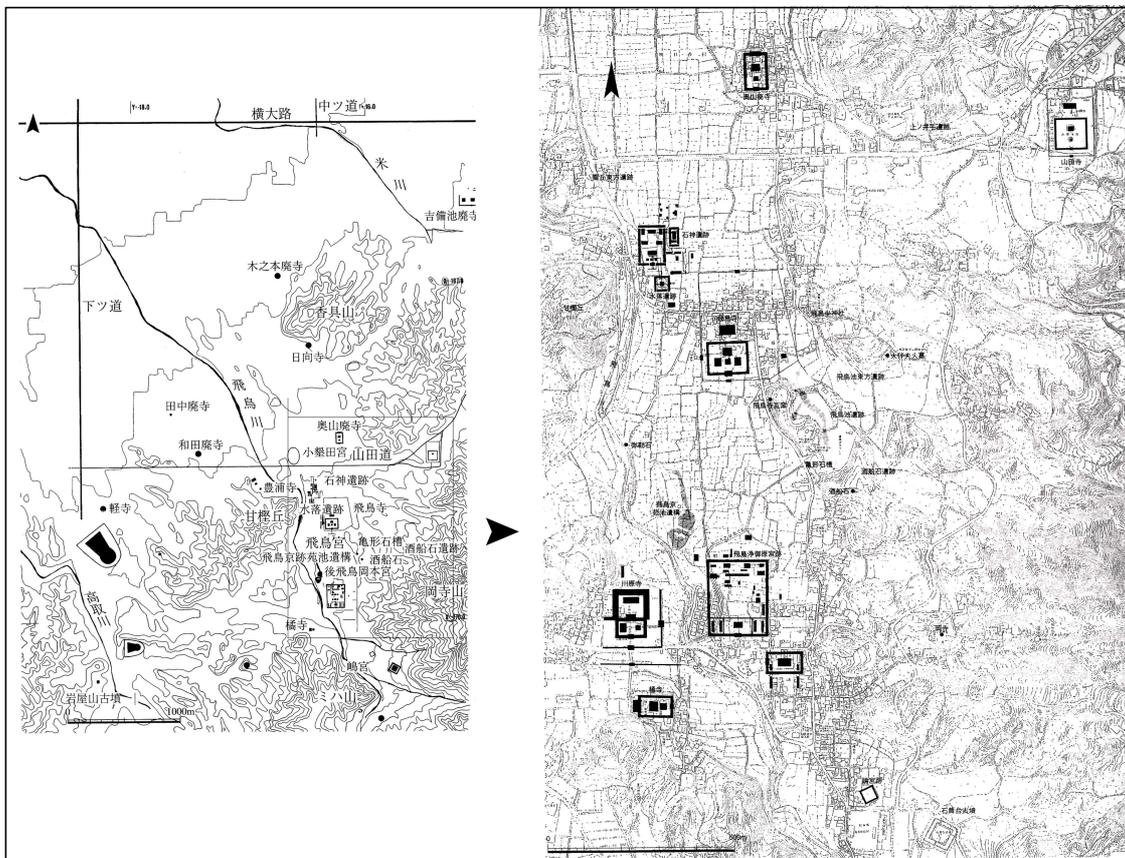
다음 고분시대에는 도시외곽에 준하는 시설은 사회 전체에서 사라지게 된다. 야요이 시대에 취락 내 특정한 지구에 자리 잡았던 지배자 계층의 거주시설과 무덤이 고분시대가 되면서부터 취락 내에서 벗어나 단독적 입지를 보이게 된다. 群馬縣 三ツ寺(미츠데라) I 遺蹟의 조사로 널리 알려지게 된 豪族居館(首長居館)은 일반 취락과 약간 떨어진 장소에 만들어진 구와 울타리로 둘러싸인 시설군으로, 도시라기보다 단독 저택이다. 일반 취락에도 외곽의 역할을 하는 방어성이 높은 환호나 목책이 설치되지 않았고 얼핏 보기에는 고분 시대 취락은 계층적 차별이 없는 사회의 원시 취락처럼 보인다. 최근에는 고분시대의 몇몇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집중화, 각종 생산행위의 기능 분화, 농업생산물의 외부 의존 등의 관점에서 고분시대의 도시화 과정을 논의하는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大庭重信 2020, 南秀雄 2018·2020)<sup>3)</sup>. 다만, 도시의 외관 및 기능 면에서 중요한 경계성, 방어

## 2. 飛鳥時代의 宮과 地域範圍

『日本書紀』나 『古事記』 등 초기 문헌기록에 의하면, 고대 일본에서는 최고계층인 天皇(大王)이 바뀔 때마다 궁전의 위치를 옮겨 다녔다고 되어 있고 그 이동 범위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있다. 고분시대에 해당되는 천황의 궁전터로 전해지는 지역에서 확실히 그와 관련되는 유적으로 판단되는 시설이 확인된 바는 없으며, 궁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거나 성곽으로 둘러싼 구조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3) 科學研究費補助金에 의한 「古墳時代における都市化の實証的比較研究」(研究代表者:南秀雄) 등 종합적 연구도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 어느 정도 한정된 지역 내에 궁전을 조영하게 되는 시기가 아스카 시대이다. 일반적으로 아스카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시점은 推古(수이코)天皇이 豊浦宮(토유라노미야)에서 즉위한 해(593년)이다. 이후 여전히 천황의 대가 바뀔 때마다 궁전의 위치를 옮겨 다니긴 하지만, 그 범위는 기본적으로 飛鳥地方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도 2). 이 시기 동안에 궁전을 비롯한 각종 시설을 건설한 지역 범위를 도읍으로 보고, 그것을 ‘飛鳥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때의 ‘京’ 개념은 중국적 도성제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즉, 일정한 공간을 구획하는 성벽이나 경계선이 없는 점, 시장이나 도로 등 도성에 불가결한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일반 구성원의 거주 공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京’이라기보다 여전히 ‘宮’의 집합적 공간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물론 이 지역 범위를 둘러싸는 외곽에 해당되는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 2> 飛鳥地域の 地形과 飛鳥宮

아스카시대의 역대 궁전이 건설된 ‘飛鳥’라는 지역을 엄밀하게 규정하면 奈良盆地 남쪽에 있는 大和三山の 하나인 香具山(카구야마)에서 더욱 남쪽에 위치하는 낮은 산들에 둘러싸인 지역에 해당된다(도 2). 구체적으로는 飛鳥川 東岸에 있는 飛鳥寺에서 그보다 600~700m 가량 남쪽에 있는 傳 飛鳥板蓋宮(아스카 이타부키노미야)址까지의 지역 및 飛鳥川을 사이에 두고 그 西岸에 위치하는 川原寺(가와라데라)를 포함하는 일대를 가리킨다. 즉, 이 극히 한정적인 지역이 아스카시대의 정치적 중심지인 ‘飛鳥’에 해당되며, 그 규모는 남북 약 1,600m, 동서 약 800m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넓지 않은 범위는 구릉 지대를 이용해서 외곽으로 둘러싸려고 하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외곽이나 산성과 같은 시설을 축조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일본열도가 내부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뒤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7세기 후반에 일어나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내부적인 혼란 시기에는 도읍 내지 궁 역시 그와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아스카시대 역대 천황과 그들이 건설한 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飛鳥時代の 歷代 天皇과 宮殿

천 황	건설년	궁 명	비 고
推古天皇	593	豊浦宮(토유라노미야)	
	603	小墾田宮(오하리다노미야)	
舒明天皇	630	飛鳥岡本宮(아스카 오카모토노미야)	636년 燒失
	636	田中宮(다나카노미야)	
	640	百濟宮(쿠다라노미야)	飛鳥地方 外の 궁
皇極天皇	643	飛鳥板蓋宮(아스카 이타부키노미야)	
孝德天皇	645	難波長柄豊碕宮(나니와 나가라토요사키노미야)	大阪의 궁
齊明天皇	655	飛鳥板蓋宮(아스카 이타부키노미야)	
	655	飛鳥川原宮(아스카 가와라노미야)	
	656	後飛鳥岡本宮(노치노아스카오카모토노미야)	
	660	朝倉橋廣庭宮(아사쿠라노 타치바나노 히로니와노미야)	九州의 궁 백제구원군 파견시에 건설
天智天皇	667	近江大津(오우미 오오츠)京	滋賀의 궁
天武天皇	672	飛鳥淨御原宮(아스카 키요미하라노미야)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궁전이 천황이 바뀔 때마다 이동하는 점과 더불어 비교적 먼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반드시 아스카지역, 즉 위에서 본 飛鳥宮 자리에 다시 돌아온다는 점이다. 이는 아스카궁이 비교적 이른 시기(고분시대 후반)부터 정치적 거점으로 인식되어 있었음을 말해 주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방어하는 명확한 시설은 축조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외곽에 해당되는 시설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는 궁으로 후술할 朝倉橋廣庭宮(아사쿠라노 타치바나노 히로니와노미야)과 天武(텐무)天皇 시대의 難波宮(나니와노미야)이 있다. 齊明(사이메이)天皇은 660년의 백제 사비성 함락시에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九州에 朝倉橋廣庭宮을 만들어 일시적으로 거처를 옮기지만, 결국 그 땅에서 사망한다. 이때의 궁전의 위치는 아직 명확치 않지만, 뒤의 大宰府(다자이후)가 설치된 자리의 하층(大宰府政廳 I 期 古段階)에 그에 해당되는 유구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相原嘉之 2019, 2020; 赤司善彦 2009, 2010). 難波宮는 원래 孝德天皇이 천도한 궁이지만, 天武天皇 시기에 副都로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日本書紀』天武天皇八年(679)十一月條에는 ‘初置關於龍田山 大坂山 仍難波築羅城’이라는 기록이 있어 이 때 難波京에 나성을 축조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도 있으나(積山洋 2020), 京 남단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나성 및 나성문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백제 사비도성 함락에 이어 왜의 백제 구원군이 백강전쟁에서 패배함에 따라九州地方을 비롯한 일본 서부지역 각지에 산성 등 방어시설이 축조된다. 외부에서의 침공에 대한 대비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된 시설이 大宰府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보루와 산성을 종합한 방어 외곽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축조되었다. 大宰府는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條坊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도 밝혀지고 있으며(鏡山猛 1968; 井上信正 2018), 외곽을 포함하여 도시적인 경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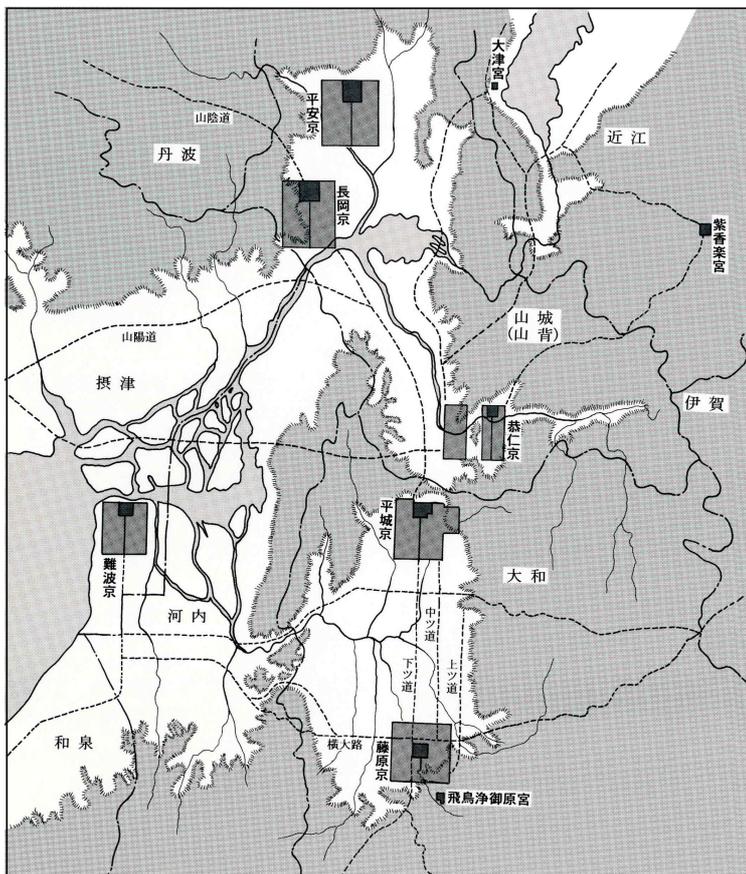
갖춘 일본에서는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齊明天皇의 뒤를 이은 天智(텐지)天皇은 667년에 현재 滋賀縣의 近江大津京에 천도하는데, 아스카에서 내륙의 大津京으로 이동한 이유는 唐과 신라의 공격에 대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을 방어하기 위해 瀬戶内海 연안과 畿内地方에 한국식 산성이 축조되었지만, 大津京 주위를 둘러싸는 외곽이 만들어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天智天皇의 동생인 天武天皇은 齊明天皇의 後飛鳥岡本宮을 확장시켜서 飛鳥淨御原宮(아스카 키요미하라노미야)을 조영했는데, 이 궁이 아스카지방에서의 마지막 궁전이 되었다.

### 3. 藤原京의 京城範圍

위에서 본 것처럼 대부분의 아스카시대 정치적 중심지는 천황의 교체와 함께 쉽게 이동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뜻으로 중심지는 도시, 도성이라기보다는 단독적인 ‘궁전’으로서의 기능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을 ‘도성’ 내지 ‘京’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아스카시대 마지막 단계가 되면서부터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시적인 성격을 띤 도성이 성립되고 이후 안정된 도성의 시대가 된다(도 3). 그 첫 번째가 天武天皇에 의한 ‘新城’ 건설 계획의 결과인데, 藤原(후지와라)京이 그 新城에 해당된다. 藤原京은 아스카지방 북쪽, 소위 大和三山(香具山, 畝傍山, 耳成山)에 둘러싸인 땅에 위치한다. 藤原京의 건설은 676년에 계획된 이후 한 번의 중단을 거쳐 18년 만에 완성된다. 그간, 新都 건설을 발안, 주도한 天武天皇이 사망했고 정식으로 藤原京을 완성시켜 694년에 천도한 것은 天武天皇의 황후였다가 뒤를 이어 즉위한 持統(지토)天皇이었다.

藤原京이 그 전의 아스카 궁전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條坊制를 시행하고 지배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들도 함께 살게 한 계획적, 체계적 도시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이는 외국의 침공 위기와 内紛을 겪은 정권이 확고한 국내통치 시행을 도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도성이 중국 도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이 시기에 대외적으로 처음으로 ‘天皇’이라는 칭호와 ‘日本’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거나 律令<sup>4)</sup>을 정비하는 등 외국을 의식한 각종 국내통치 아이템이 도입되었다. 이후 710년의 平城(헤이조)京 천도까지 藤原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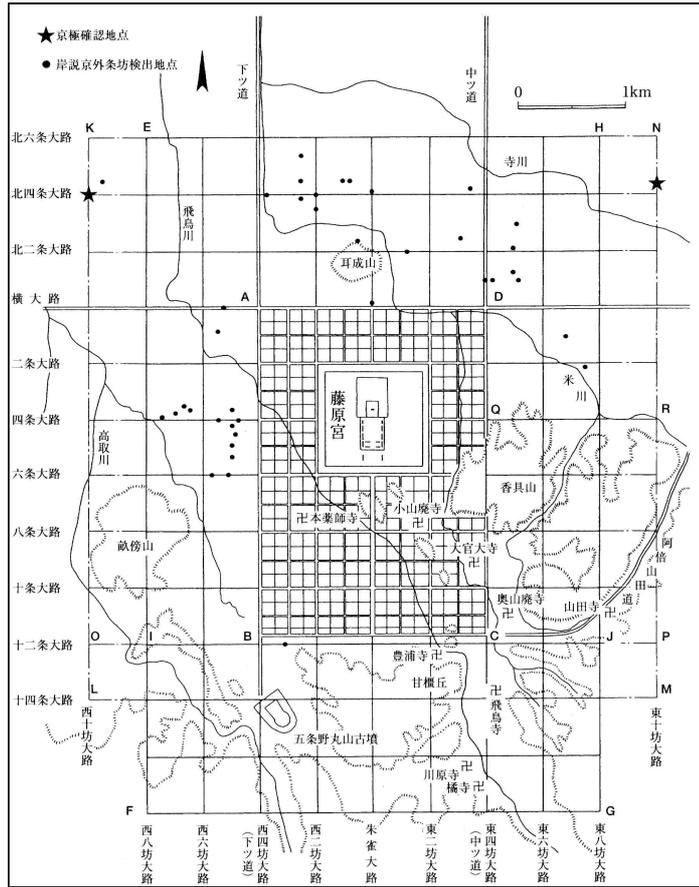
<도 3> 日本 古代都城 位置圖

4) 藤原京의 건설 계획과 궤를 같이하여 飛鳥淨御原令의 발안 및 시행이 이루어졌고, 701년에는 최초의 완비된 율령이라고 할 수 있는 大寶律令이 반포되었다.

持續, 文武(문무), 元明(겐메이)이라는 삼대에 걸친 친황의 도움이었다.

藤原京은 조방으로 내부를 구획한 도성이었지만, 도성 전체를 둘러싸는 성벽(羅城)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완전한 중국식 도성과는 차이가 있다. 원래 성벽이 없는 구조는 京의 범위 자체를 확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藤原京의 범위에 대한 연구는 藤原宮의 규모가 밝혀진 1969년에 岸俊男(키시 토시오)가 京域과 조방의 복원안을 제시한 것이 시작이다(岸俊男 1988). 그는 奈良縣을 지나가는 3개의 고대 도로를 각각 京域의 경계(京極)로 보았다(도 4). 즉, 横大路(요코오오지)를 北京極, 中ツ道(나카즈미치)를 東京極, 下ツ道(시모즈미치)를 西京極으로 보고<sup>5)</sup> 이들 도로로 둘러싸인 부분을 京으로 보는 견해로, 그 공간에 좌우각 4坊(총 8坊), 남북 12條의 조방이 부설되었다고 보았다(1坊의 규모는 한 변 약 265m). 南京極은 安部山田道(아베야마다미치)를 이용했다고 보았다. 宮城인 藤原宮은 이 범위의 북반에 위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제시된 岸俊男에 의한 藤原京 경역 및 조방 복원안은 이후 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조방도로 유구 등으로도 입증되었으며, 이후 오랫동안 통설로 받아들였다.



<도 4> 藤原京의 京域範圍와 諸說

ABCD: 岸俊男說, EFGH: 阿部義平說, EIJH: 秋山日出雄說, KLMN: 小澤毅·中村太一說

그런데, 1979년에 岸俊男 경역 복원안의 외부에 해당되는 奈良縣 下明寺(게묘지)遺蹟, 院上(인노우에)遺蹟, 大福(다이후쿠)遺蹟, 四條(시조)遺蹟 등에서 藤原京의 조방도로에 해당되는 도로유구가 발견되면서 종전의 藤原京 복원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들 유적의 도로유구는 모두 종전 복원안에서의 도로의 연장선상에서 발견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四條遺蹟의 조사에서는 동서-남북 방향의 도로유구로 둘러싸인 구획 안에 굴립주건물들이 밀집 분포되었으며, 藤原京 경역 내부의 택지 공간과 차이가 없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岸俊男 藤原京 경역 복원안 바깥에서 발견되는 도로유구 및 조방(택지)유구에 대한 해석으로 제시된 것이 藤原京의 원래 규모를 보다 큰 것으로 보는 소위 ‘大藤原京說’이다(도 4). 다만, 경역이 원래 확실보다 상당히 넓었다는 점이 인식된 후에도 실제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도 4). 1996년 土橋(츠치하시)遺蹟, 上之庄(우에노쇼)遺蹟에서 각각 大藤原京의 西京極, 東京極으로 추정되는 도로유구가 발견되어 그 위치를 바탕으로 藤原京의 동서 경계가 대체로 확정되었다. 그 후 축적된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제출된 것이 藤原京을 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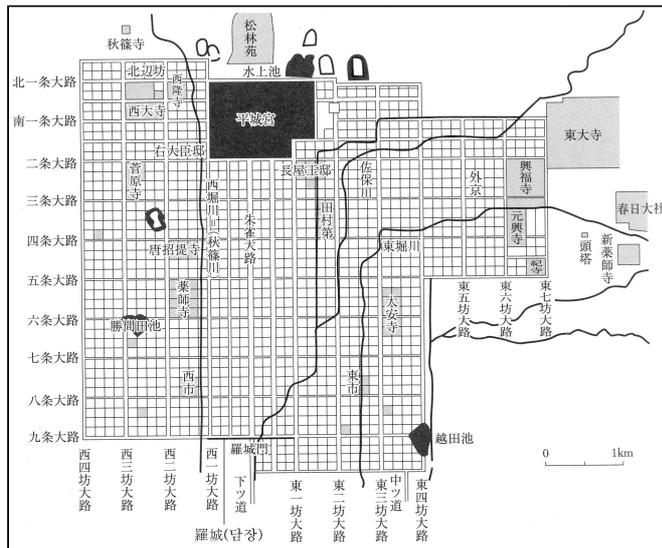
5) 横大路, 中ツ道, 下ツ道는 藤原京 시대 이전에 이미 부설되었던 大和地方의 古道로, 奈良盆地를 동서(横大路), 남북(中ツ道, 下ツ道)으로 관통한다.

10坊, 南北 10條(1坊의 규모는 한 변 약 530m)로 보는 학설이다(小澤毅 1997; 中村太一 1996). 이 견해에 따르면 구릉지대에 해당되는 南京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藤原京 경역의 평면형태는 정방형이 되고 藤原宮이 경역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게 된다. 그렇다면 藤原京의 형태와 구조는 중국의 고전인 『周禮』考工記에 기록된 도성의 이상형과 매우 흡사하게 되기 때문에, 藤原京은 중국의 이상적인 도성 형태를 모델로 조영된 도읍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발굴조사와 문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시된 학설로, 현시점에서는 유력한 학설이라 할 수 있으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 외곽과 관련되는 문제를 보면, 우선 藤原京의 朱雀大路는 발굴조사 결과 도성 南端까지 부설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또한 보통 朱雀大路 南端에 배치될 羅城門 역시 그 위치가 구릉지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도성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성문이나 나성 자체를 건설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적 효과가 기대되는 도성으로서 큰 문제이다. 도성 경계에서 담장이나 성벽의 흔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도로유구만이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藤原京에는 외곽에 해당되는 시설이 부설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大藤原京 추정 범위보다 바깥까지 방형 토지구획이 부설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어 확실한 경역을 추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작업일 수도 있다(山中章 2011). 이 경우 藤原京은 경 범위를 의식하지 않았던 도성이고 물론 외곽의 설치를 애초부터 예정하지 않았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다. 16년만에 폐기되는 최초의 도성은 완성된 도읍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 4. 平城京와 奈良時代의 都城

현재의 奈良市 일대에 위치하는 平城京(헤이조)京은 藤原京이 안고 있던 각종 문제점을 극복하고 唐 長安城 내지 北魏 洛陽城 등을 모방해서 건설된 도성이다. 다만, 710년에 천도했을 때에는 內裏(천황의 거처)와 大極殿, 그리고 기타 官舎가 정비되었을 뿐, 도성 내 사찰이나 저택들은 京都의 長岡京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단계적으로 조영되었다고 추정된다. 平城京의 구조는 방형 구획의 조방이 남북 9條, 동서 8坊으로 나누어지고 경역 동쪽에는 동서 3坊의 外京을 설치하였다(도 5). 경의 남북 거리는 약 4.5km, 동서 거리는 외경을 합하여 약 5.5km에 달한다. 1坊의 규모를 한 변 500m로 설정하였다.



<도 5> 平城京 平面圖

平城京에는 羅城門이 있다. 『續日本紀』 天平十九年(747) 六月條의 ‘於羅城門雲’, 『續日本紀』 宝龜八年(777) 四月條에 ‘遣唐大使佐伯宿祢今毛人等辭見 但大使今毛人到羅城門 稱病而留’ 등으로 나와 있어 나성문이 제사장 내지 경계로서의 기능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나성문은 성벽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문만이 독립적으로 건설된 점에서 중국 도성의 문과는 차이가 있다. 나성문 양쪽에 수십 미터 정도의 담장이 연결되어 있으나, 그 외에는 나성에

해당되는 외곽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성이나 나성문 자체에 도시 방어 기능은 없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藤原京이나 平安京 등 다른 도성과 공통된다. 나성문과 한정적인 담장은 단순한 도성 현관문임과 더불어 외국에서의 사신을 맞이하거나 遣唐使를 보내는 장소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으로, 도성 안과 밖의 경계, 그리고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한 시설이었다<sup>6)</sup>. 朱雀大路와 九條大路가 교차하는 위치는 남쪽으로 30m 가량 돌출된 광장이 있으며, 바깥쪽에는 해자가 돌아간다. 그 광장 남면 중앙에 나성문이 있다<sup>7)</sup>.

奈良時代는 주로 平城京이 도읍이었던 시기를 가리키는데, 실제로는 나라시대 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平城京에서 다른 지역으로 천도된 바가 있다. 元明(겐메이)과 元正(겐쇼)의 두 명의 여성 천황을 거쳐 즉위한 聖武(쇼무)天皇은 내란이나 기근 등을 경험하여 조정의 동요 속에서 도읍을 옮겨 다니게 된다. 이때 聖武天皇이 연속적으로 천도한 궁전이 恭仁(쿠니)京, 難波(나니와)宮, 紫香樂(시가라키)宮이고, 이 세 도읍을 거쳐 결국 다시 平城京으로 천도한다. 이들 단기간의 도읍들은 그 성격상 안정된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 전체를 둘러싸는 외곽은 설치되지 않았다.

### 5. 長岡京과 平安京

奈良時代와 平安(헤이안)時代를 구분하는 기준은 桓武(칸무)天皇에 의한 794년의 平安京 천도이다. 그러나 桓武天皇은 현재의 京都 시가지에 해당되는 지역에 平安京을 조영하기 전에 그와 약간 떨어진 지역에 長岡(나가오카)京을 건설하였다. 長岡京은 784년부터 794년까지 현재의 京都府 向日市, 長岡京市, 京都市 西京區에 있었던 도성으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정식적인 도읍으로 건설되었다.

長岡京은 平城京에서 북으로 40km 가량 떨어진 長岡의 땅에 조영되었는데, 이는 平城京의 지리적인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長岡京 주변에는 桂川, 宇治川 등 3개의 큰 하천이 합쳐져서 淀川이 되는 합류점이 있다. 전국에서 물자를 효율적으로 운반하고 도성 내에 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으로 육상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平城京의 문제점을 해소한 면이 있다. 長岡京은 聖武天皇 시대의 難波京에서 구조적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되나 難波京 역시 나성 및 나성문의 존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외곽의 존재를 유추하기는 어렵다(山中章 2011).

桓武天皇은 794년 10월에 이 도읍으로 옮겨와 11월에 ‘平安京’이라고 명명하였다. 平安京은 현재의 京都府 京都市 중심부에 해당되며, 동서 약 4.5km, 남북 약 5.2km에 달하는 평면 장방형으로 구획된 도성이었다. 도성 북쪽 중앙에 大内裏를 배치하고 그 위치에서 남쪽으로 朱雀大路가 지나간다. 주작대로를 기준으로 左右에 左京·右京을 두는 평면형은 기본적으로 平城京을 계승한 것이다.

平安京 역시 중국 도성을 비교적 충실하게 모방한 도성이었지만, 平城京과 마찬가지로 경 전체를 둘러싸는 성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平安京의 나성은 그 동안 실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9년의 발굴조사로 경 남단에 해당되는 九條大路와 담장 기반으로 보이는 유구가 발견되어 나성문 근처에 실제로 나성(담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延喜式』 左·右

6) 平城京의 나성은 동서의 구릉지대를 연결함으로써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阿部義平 2003). 여기서는 大宰府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도읍 주변의 자연조건과 인공시설을 종합함으로써 계획적으로 방어성이 높은 도시를 조영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藤原京 이후 계속적으로 축조되는 도읍에는 주변에 산성 등 방어시설이 없으며, 자연지형만으로 방어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7) 2005년의 발굴조사로 平城京 남단으로 생각된 九條大路보다 남쪽에서 조방이 확인되어 원래 나성문 및 나성이 현재 추정되는 위치보다 남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山中章 2011).

京職 京程條에 의하면 平安京 남단에 대한 설명으로 ‘南極大路十二條 羅城外二丈垣基半三尺 犬行七尺 溝廣一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나성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나성문 역시 아직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문헌기록에는 그 존재가 언급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고대 都城·都市史를 통해 도시 외곽 내지 나성의 존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중국의 『隋書』東夷傳 倭國條에 ‘無城郭’으로 기록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특이하게 여긴 중국측의 관점이 내포되고 있다. 특히 藤原京, 平城京, 長岡京, 平安京 등 구조적으로 중국 도성을 참고로 축조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도성은 모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성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平城京과 平安京에서 경 남면에 나성문 및 그와 부속되는 담장이 건축된 점으로 보아 도성 정면의 상징성과 경계성은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도시 전체를 방어하려는 의도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천도 이후 각각의 도성이 폐기될 때까지 나성을 건설해서 도읍 전체를 지키려고 하는 의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 시대를 통해 ‘성벽 없는 도시’ 개념은 일본 도시사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 Ⅲ. 日本 古代 都市의 外郭

위에서 본 것처럼 일본 고대도시(도읍)에서는 기본적으로 방어를 목적으로 한 외곽이 발달되지 않았음을 살펴보았다. 다만, 일본에서도 특별한 지역이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특정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성벽과 같은 기능을 가진 외곽이 축조되었으며, 그 내용이 문헌에 기록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大宰府(다자이후)와 多賀(타가)城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大宰府都城과 外郭

九州는 한반도와 중국에 가장 가까운 지리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이는 교섭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동아시아 각 지역이 국가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에도 그 상황은 계속되었으나, 한반도에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하고 통일국가를 성립시켜 가는 과정에서 국제적 분쟁이 일어난 시기에九州의 역할은 교류 창구임과 동시에畿内の 왕권을 방어하는 군사적 전선이 되기도 하였다. 그것을 시작으로九州地方을 통괄한 시설인 大宰府는 이후 『續日本紀』神護景雲三年(769)十月條에 ‘天下之一都會也’라고 기록되기에 이르렀고 현대 연구자들이 ‘大宰府都城’이라고 부를 만큼 도시로서의 기능을 완비한 시설로 성장한다.

전술한 바처럼 현재 福岡縣의 大宰府 자리에 백제 구원군을 파견할 때 천황이 거처를 두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sup>8)</sup>, 그것이 나중에 중요한 지방지배의 거점이 되는데, 백강전쟁 패전 후에 大宰府를 방어하기 위한 각종 산성이나 외곽이 마련되었고(도 6) 동시에 조방 구획의 정비도 진전되었다(相原嘉之 2020). 大宰府의 방어 시설 축조 및 수축과 직접 관련하여 기록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日本書紀』天智天皇三年(664)

‘是歲 於對馬嶋 壹岐嶋 筑紫國等置防與烽 又於筑紫築大堤貯水 名曰水城’

『日本書紀』天智天皇四年(665)八月

‘遣達率德禮福留 達率四比福夫於筑紫國築大野及椽(基肄)二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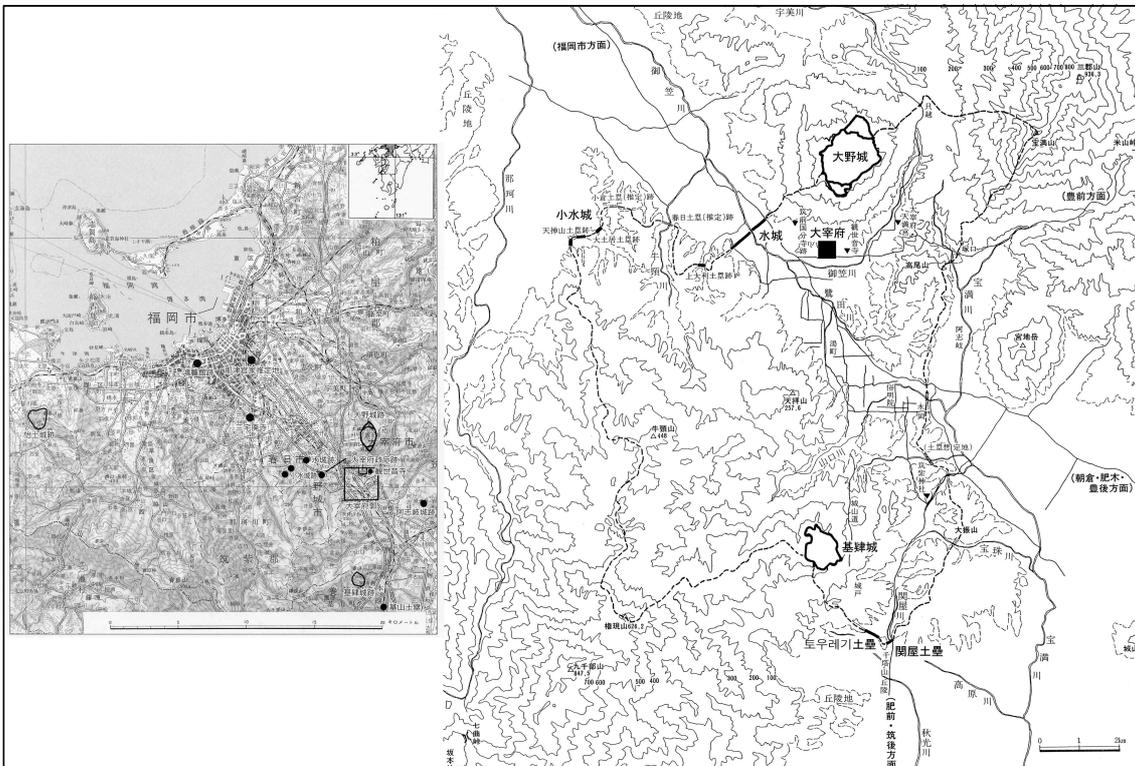
『日本書紀』天智天皇九年(670)二月

‘又修高安城積穀與塩 又築長門城一 筑紫城二’

8) 齋明天皇의九州에서의 궁전 자리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다(小田和利 2017).

- 『日本書紀』持統三年(689)九月  
 ‘遣直廣參石上朝臣麿 直廣肆石川朝臣虫名等於筑紫 給送位記 且監新城’
- 『續日本紀』文武二年(698)五月  
 ‘令大宰府繕治大野 基肄 鞠智三城’
- 『續日本紀』文武三年(699)十二月  
 ‘令大宰府修三野 稻積二城’
- 『續日本紀』天平神護元年(765)三月  
 ‘大宰大貳從四位下佐伯宿祢今毛人爲築怡土城專知官 少貳從五位下采女朝臣淨庭爲修理水城專知官’

이를 보면 백강전쟁(663년) 이후 水城(미즈키), 大野(오오노)城, 基肄(키이)城 등 大宰府를 직접 방어하기 위한 성곽과 산성을 바로 축조한 점, 그들 시설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수축하거나 기능 강화를 위해 성을 추가적으로 만들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政廳, 사찰, 조방 등 내부 시설도 8세기 전반까지는 정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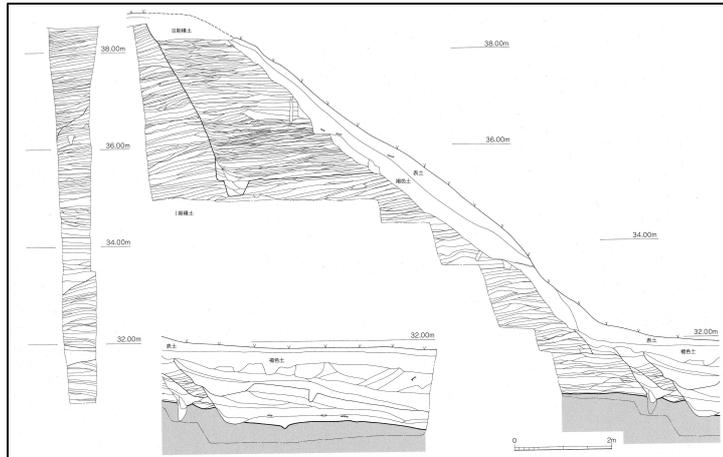


<도 6> 大宰府 周邊圖와 外郭想定圖(阿部義平 1991을 편집)

大宰府의 외곽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우선 664년에 축조된 것으로 기록된 水城이 주목된다. 水城은 大野城이 있는 산지와 반대편 대지 사이의 평야부를 직선적으로 차단하는 길이 약 1.2km의 성벽으로, 성 외측에는 역사서에 기록된 것처럼 폭 약 60m, 깊이 약 3m의 헤자가 있다. 성벽은 높이 10m, 기저부 폭 약 80m, 상단부 폭 약 15m의 이단구조로 동서에 끝부분에 문이 설치되었다. 성벽 기저부를 관통해서 물이 지나가는 홈통이 매설되었다. 성벽 벽체는 하단부에 대량의 나무가지나 나뭇잎을 까는 敷葉工法을 사용하여 기초지반을 강화하였으며, 백제 성벽과의 공통성이 지적되고 있다. 성벽 상층은 판축으로 흙을 단단하게 다졌다(도 7).

또한 水城 서쪽(大宰府 서북쪽)에는 구릉지대 사이사이를 막는 위치에 소규모 토루유구가

있다(도 6). 水城과 일률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小水城(쇼미즈키)이라고 불린다. 이와 같이 大宰府를 중심으로 그 주위를 둘러싸듯이 축조된 토루에는 大宰府 남쪽에 關屋(세키야)土壘, とうれぎ(토우레기)土壘, 上津(카미즈)土壘 등이 있으며, 大宰府를 둘러싸는 외곽(나성)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도 7> 水城 城壁 断面圖(西上成土壘 西門地區)

大野城과 基肄城은 각각 大宰府 북쪽과 남쪽에 있는 산지의 표고 400m 가량 되는 위치에 축조된 산성으로 위에서 본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백강전쟁 이후 바로 축조된 大宰府 방어 상의 핵심 시설이다. 특히 大野城은 서쪽 성벽에서 산 능선을 내려가면 水城 東端에 연결되는 위치에 있으며 水城와 연계되어 大宰府 북방의 방어 체계를 이룬다(도 6). 남쪽의 基肄城과 토루 역시 남방에서 진입하는 외적을 상정한 방어 체제로 볼 수 있다.

大宰府 羅城存在說은 水城, 大野城, 基肄城, 그리고 단편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토루를 연결해서 大宰府를 방어하는 외곽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학설로(鏡山猛 1968), 全周하는 것으로 보는 설(阿部義平 1991)과 부분적으로 개방된 방향이 있다는 설(小田富士雄 2013) 등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水城과 小水城을 제외하면 아직 장거리를 돌아가는 성벽의 존재는 불분명했으나, 2016년에 大宰府 남동쪽에 위치하는 前畑(마에하타)遺蹟에서 동 시대의 토루가 확인되어 大宰府 나성의 존재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筑紫野市教育委員會 2016).

실제로 이러한 성벽, 토루, 산성을 연결하는 선으로 大宰府를 둘러싸는 나성이 존재했다면 총 길이 50km를 넘는 거대한 방어선을 이루게 되지만, 토루가 축조된 위치나 방향을 근거로 나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설(山田隆文 2020)도 제시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水城, 大野城, 基肄城, 토루들은 大宰府를 둘러싸는 외곽이 아니라, 북변과 남변을 지키기 위한 서로 독립된 교외 방어시설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大宰府 나성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유구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大宰府 주변의 토루와 산성 배치는 위에서 본 665년에 백제인의 지도로 산성을 축조했다는 기록을 전제로 백제 사비도성을 모방한 구조라는 점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었으며, 현재까지 양 지역을 직접 비교하는 시각이 유지되고 있다(九州歴史資料館 2009). 이에 대해서도 나성 없이 산성이 분산적으로 분포하는 신라 경주의 방어체제와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으며(山田隆文 2020)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2. 多賀城과 東北地方의 城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九州의 방어시설과는 달리 일본열도 북방의 이민족(蝦夷/에미시)에 대한 정복 활동을 위해 외곽을 수반하는 시설이 東北地方에 축조되었다. 城柵이란 일본에서 7세기 경부터 11세기 경까지 왜왕권(야마토왕권)이 일본 동북지방의 蝦夷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축조된 방어시설을 가리킨다. 지배의 거점적 시설인 관아로서의 역할과 함께 군대가 주둔하거나 柵戶라고 불리는 주민들을 거주하게 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본 大宰府에 부속되는

외곽이나 산성에 비하면 방어성이 약하고 체계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蝦夷와의 전쟁을 위한 군사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는데, 외곽 내부에서 政廳과 관련된 유구가 많이 조사되면서 관아유적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동북지방 성곽의 성립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多賀(타가)城, 胆澤(이자와)城 등 왕권이 설치한 군사적 거점성을 지닌 관아적 성곽이고 또 하나는 桃生(모노우)城이나 伊治(이지)城 등 원래 주민이 거주했던 취락을 외곽으로 둘러싼 성곽이다. 전자의 多賀城은 낮은 구릉상에 입지하며 지형조건 때문에 외곽은 약간 부정현 방형(東邊 약 1000m, 西邊 약 700m, 南邊 약 880m, 北邊 약 860m)이지만 내곽은 정현한 방형 구획(동서 약 106m, 남북 약 170m)으로 중심에 정청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二重構造城柵은 多賀城에서 확립된 것으로, 이후 성곽의 기본구조가 된다. 한편, 후자의 伊治城은 일반적인 정청을 둘러싸는 내곽과 목책 내지 담장으로 바깥쪽을 돌아가는 외곽, 그리고 그 외부의 거주지역을 다시 최외곽으로 둘러싸는 삼중구조의 성곽이다. 최외곽이 북쪽을 돌아가는 것은 북방 이민족으로 인식된 蝦夷에 대비하는 의미가 있다.

#### IV. 맺음말 - 고대 일본에서 도시외곽의 출현배경과 역할

위에서 본 것처럼 고대 일본에서는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구성원의 집중 거주 구역의 형성이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매우 늦은 감이 있다. 이는 지리적 내지 사회 발전 단계적 이유가 컸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열도 내부의 역사 배경으로서 장기간에 걸쳐서 서로 대립되는 동등한 힘을 가진 정치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나 한국의 경우처럼, 지배자와 그 주변의 민중을 모아서 살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일체적으로 정치적 거점지역을 지켜야 하는 상황은 ‘도시’라는 기능의 발전을 진전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역사 조건을 가진 지역의 도시에는 방어와 경계,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 위용을 어필하기 위한 상징적인 성벽(외곽/나성)도 저절로 갖추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고대 일본 사회에서는 고분시대까지 넓은 범위에서 어느 정도 문화적 동질성이 달성되었고 정치적으로도 왕권과 동등한 적대 세력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시기에 외부 세력(외국 내지 이민족)과의 대립 관계가 표출되었고, 외부와의 분쟁에 대비하는 과정에 한해서 거점을 방어하는 시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九州에 축조된 산성이나 토루이자 東北地方에 축조된 성곽이다. 즉, 당시 고대 일본사회에서 외곽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는 도시(외곽도시)가 출현할 조건은 외부세력과의 접촉에 한한 것으로, 특히 백제의 멸망, 신라의 한반도 통일, 중국 당의 동방 진출이라는 특수한 국제 정세가 크게 작용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相原嘉之, 2019, 「王都「飛鳥」からみた大宰府都城の成立」, 『論集 葬送・墓・石塔』, 狭川真一さん還暦記念会.
- 相原嘉之, 2020, 「王都「藤原京」からみた大宰府都城の成立」, 『難波宮と古代都城』, 同成社.
- 赤司善彦, 2009, 「朝倉橘廣庭宮推定地の伝承について」, 『九州国立博物館紀要 東風西声』, 5.
- 赤司善彦, 2010, 「筑紫の古代山城と大宰府の成立について」, 『古代文化』, 61-4, 古代学協会.
- 秋山日出雄, 1980, 「藤原京と飛鳥京の京域考」, 『地理』, 25-9.
- 阿部義平, 1991, 「日本列島における都城形成 - 大宰府羅城の復元を中心に - 」,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36.
- 阿部義平, 2003, 「藤原京・平城京の構造」, 『古代王権の空間支配』, 青木書店.
- 石松好雄, 1987, 「大宰府発掘」, 『古代を考える 大宰府』, 吉川弘文館.
- 井上和人, 1998, 「平城京羅城再考」, 『条里制・古代都市研究』14, 条里制・古代都市研究会.
- 井上信正, 2018, 「大宰府条坊論」, 『大宰府の研究』, 高志書院.
- 今泉隆雄, 1993, 『古代宮都の研究』, 吉川弘文館.
- 上田正昭 編, 1976, 『日本古代文化の探究 都城』, 社會思想社.
- 大庭重信, 2020, 「農業生産物の需給からみた古墳時代の都市形成過程」, 『難波宮と古代都城』 同成社.
- 小澤毅, 1997, 「古代都市『藤原京』の成立」, 『考古学研究』, 44-3, 考古学研究会.
- 小田和利, 2017, 「I期大宰府の成立について」, 『九州歴史資料館研究論集』, 42.
- 小田富士雄, 2013, 「総説・大宰府都城制の成立」, 『福岡大学考古学論集』2, 福岡大学考古学研究室.
- 鏡山猛, 1968, 『大宰府都城の研究』, 風間書房.
- 狩野久, 1990, 『日本古代の国家と都城』, 東京大学出版会.
- 岸俊男, 1988, 『日本古代宮都の研究』, 岩波書店.
- 岸俊男, 1993, 『日本の古代宮都』, 岩波書店.
- 岸俊男 編, 1987, 『日本の古代9 都城の生態』, 中央公論社.
- 北村優季, 1992b, 「藤原京と平城京」, 『東北文化論のための先史学歴史学論集』.
- 鬼頭清明, 2000, 『古代木簡と都城の研究』 塙書房.
- 九州歴史資料館, 2009, 『水城跡 - 上巻・下巻 - 』.
- 酒井芳司, 2010, 「大宰府・水城」, 『史跡で読む日本の歴史3 古代国家の形成』 吉川弘文館.
- 佐川正敏, 2003, 「中国都城の発展史と古代日本への影響」, 『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学V』, 同成社.
- 積山洋, 2020, 「難波羅城と天武朝難波宮の外郭」, 『難波宮と古代都城』, 同成社.
- 千田稔, 1991, 「古代朝鮮の王京と藤原京」, 『古代の日本と東アジア』, 小学館.
- 高橋誠一, 1994, 『日本古代都市研究』, 古今書院.
- 館野和己, 2001, 『古代都市平城京の世界』, 山川出版社.
- 田中琢, 1984, 『古代日本を発掘する3 平城京』, 岩波書店.
- 筑紫野市教育委員会, 2016, 『新発見 大宰府を守る土塁』(前畑遺跡第13次発掘調査現地説明会資料).
- 坪井清足編, 1987, 『古代を考える 宮都発掘』, 吉川弘文館.
- 寺崎保広, 2002, 『藤原京の形成』, 山川出版社.
- 寺崎保広, 2007, 『古代日本の都城と木簡』, 吉川弘文館.
- 中尾芳治他編著, 2007, 『古代日本と朝鮮の都城』, ミネルヴァ書房.

- 中村太一, 1996, 「藤原京と『周礼』王城プラン」, 『日本歴史』582, 日本歴史学会.
- 新宮学, 2011, 「中国近世における羅城 - 明代南京の京城と外郭城の場合 - 」, 『東アジア都城の比較研究』, 京都大学学術出版会.
- 仁藤敦史, 1998, 『古代王権と都城』, 吉川弘文館.
- 橋本義則, 2000, 「『藤原京』造営試考」, 『研究論集』XI,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
- 林部均, 1993, 「藤原京の周辺でみつかるとる条坊遺構」, 『関西大学考古学研究室開設四十周年記念考古学論叢』.
- 林部均, 2004, 「藤原京の『朱雀大路』と京城」, 『条里制・古代都市研究』20, 条里制・古代都市研究会.
- 林部均, 2008, 『飛鳥の宮と藤原京 -よみがえる古代王宮-』, 吉川弘文館.
- 堀内明博, 2009, 『日本古代都市史研究』, 思文閣出版.
- 南秀雄, 2018, 「上町台地の都市化と博多湾岸の比較 - ミヤケとの関連」, 『大阪文化財研究所研究紀要』19.
- 南秀雄, 2020, 「日本列島における5~7世紀の都市化」, 『難波宮と古代都城』, 同成社.
- 八木充, 1996, 『研究史 飛鳥藤原京』, 吉川弘文館.
- 山田隆文, 2020, 「大宰府羅城説再考」, 『難波宮と古代都城』, 同成社.
- 山中章, 2011, 「日本古代宮都の羅城をめぐる諸問題」, 『東アジア都城の比較研究』, 京都大学学術出版会.
- 山中章, 1997, 『日本古代都城の研究』, 柏書房.
- 吉村武彦・山路直充編, 2007, 『都城 古代日本のシンボリズム』, 青木書店.
- 渡邊晃宏, 2001, 『日本の歴史04 平城京と木簡の世紀』, 小学館.



좌장

**박순발** | 충남대학교

토론자

**성정용** | 충북대학교

**이상준**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前)

**김병희** | 한성문화재연구원

**조운재** | 고려대학교

**우재병** | 충남대학교

---



## 『고대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에 대한 토론문

성정용<sup>1)</sup>

이 글은 우리나라 삼국의 도시 특히 도성의 등장과 전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는 한편, 특히 학술대회의 핵심 주제인 도성의 외곽이 언제 어디에서 축조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외곽의 출현시기와 관련하여 과거 輕部慈恩이 웅진도성에도 외곽이 있었을 것이라 주장한 바 있으나 공주 일대에서 외곽의 흔적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필자가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고대 도시유적에서 외곽이 축조된 곳은 사실상 백제 사비도성과 고구려 장안성 두 곳뿐이다. 사비도성 외곽의 축조 시점이 고구려보다 빠르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천도가 사전에 충분한 계획 아래 진행된다는 점과 사비기에 고구려 요소가 다수 확인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사비도성 외곽의 축조는 도성의 도시화라는 변화 속에서 백성들을 수용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북조의 영향을 받아 자체적으로 지형 및 상황에 맞게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국 도성의 변화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사비도성 외곽의 축조시기와 의의를 논한 필자의 해석에 적극 동감하기 때문에 논지에 문제제기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다. 다만 두어 가지 점을 생각해보고 싶다.

외곽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집안으로의 천도시기와 관련하여 필자는 유리왕대설을 유력하게 보는 듯하다. 그런데 《三國史記》에 의하면 산상왕 2년(198)에 丸都城을 쌓고, 13년(209) 겨울 10월에 환도로 천도하였다고 한다. 발표문에도 있듯이 집안 지역에서 유리왕대 천도설을 뒷받침할만한 고고학적 자료도 잘 보이지 않고 있거니와 문헌사에서도 산상왕대 기록의 신뢰성을 높게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또 고국원왕 12(342)년조의 국내성 축조기록과 더불어 국내성 일대에서 이보다 올라가는 고고학적 자료 또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2세기 후반~3세기 초 무렵 초기 천도지를 조금 더 이른 시기의 고분이 보이는 마선구지역으로 보려는 생각들도 있는 듯하다. 어쨌든 환도 천도시기를 유리왕대까지 올려보는 것은 문헌과 고고학적으로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소급해 보는 것은 조금은 자의적 해석이 아닐까? 또 논란이 많은 졸본지역의 고구려 초기 도성제에 대해 오히려 백제 한성의 상황이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고구려와 백제는 왕실도 한 뿌리이지만, 도성의 변천 과정도 고구려가 졸본→환도→평양으로 백제는 한성→웅진→사비로 각기 두 번의 천도를 단행한 점까지 꼭 닮아 있다. 각기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졸본→환도로의 천도와 한성→웅진으로의 천도가 각기 외부세력(고구려는 漢, 백제는 고구려)의 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평양과 사비천도가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계획적 천도라는 점까지 역사적 과정이 너무나 이상하리만치 흡사하다. 두 나라의 도성에 외곽이 출현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귀결처럼 보이기도 한다. 552년에 천도를 결정하고, 566년에 축조를 시작하여 593년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진 장안성보다 사비도성 외곽이 이르다고 본 것에 대해 토론자도 전혀 이의가 없다. 다만 사비도성의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 점에서 토

1) 충북대학교 교수

론자는 웅진으로의 천도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급박하게 이루어져, 일상적인 도시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곳으로 천도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왕-무령왕대를 거치며 회복한 국력을 웅진도성 내 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불비할 수밖에 없으므로, ‘更而強國’의 나라를 천명한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일 수 있겠다. 이 때 도성은 단순히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 경영의 모든 이념이 집약적으로 투영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최고지배층의 거소인 왕궁과 함께 정신적 통합 역할을 하는 사원과 사묘, 지배층의 권위를 상징하는 기념물적인 고분 등 지배에 필요한 각종 장치들이 기획되어 담기게 되며, 사비도성의 경관은 바로 이를 웅변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학술대회의 나성의 조사 성과에 대한 발표에서 축조시기가 자세히 다루어지겠지만, 능사 건립에 따라 외곽의 변화가 있다고 하여 전체적인 축조시기를 늦추어보는 견해는 그리 타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비도성은 천도를 전후하여 왕궁과 외곽성과 같은 도성의 기본 틀이 이미 계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동일 공간에서 옹진 장안성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계획부터 실행-완공에 이르기까지의 긴 과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능사 주변은 그 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필자는 사비도성은 성이 없고 외곽만 있다고 보고 있는데, 왕성이 별도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럴 수도 있겠다. 일반적으로 부소산성은 후원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부소산성이 비록 평상시 거처는 아니더라도 부소산성과 외곽이 결합된 것을 사비도성의 특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비도성 외곽의 공식명칭은 ‘부여 나성(사적 제58호)’으로 되어 있는데, 나성이 역사성을 반영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토론자도 외곽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공식 명칭과의 혼돈도 있을 수 있다. 지정 명칭을 바꾸는 것이 타당할까?

## 『한반도 중세(통일신라~고려) 도시 외곽의 발달과 전개』에 대한 토론문

이상준<sup>1)</sup>

발표자는 고려 도성을 비롯한 중세 도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논문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 만월대 발굴에 장기간 참여하면서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재 정책에 대해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발표문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중세 삼국의 도성 형성 과정을 다루었다고 봅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별도의 논쟁이 필요한 부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발표문에서 발표자의 견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과 상기 주제와 관련하여 토론자가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발표문에는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근거로 “자비마립간 18년(475)에 명활성으로 왕이 거처를 옮겼으며, 소지마립간 9년(487)에 월성에 대한 대대적인 개축 이후 다음 해에 왕이 월성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월성의 수리 기간을 따져보면 불과 4개월 만에 대대적인 수리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월성 발굴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주지하다시피 철원도성은 내·외성이 모두 남북이 긴 장방형의 평지도성입니다. 동서가 긴 장방형인 발해 동경성이나 수당 장안성과는 평면 형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지세에 따라 부정형 외성을 건설한 개경 도성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도성 내 중요 시설물인 궁성을 도성 북편에 배치한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철원도성은 어떤 도성을 모델로 건설하였는지가 궁금합니다.

3. 철원도성은 외성에 비해 내성이 너무 큼니다. 철원도성의 내성 규모는 외성의 35%에 이릅니다. 이점은 동아시아 고대 도성의 상례에 맞지 않습니다. 예컨대 장안성이나 동경성의 경우 내성은 외성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성을 먼저 쌓고 외성을 나중에 쌓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철원도성의 존속기간을 생각할 때 타당할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발표자가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록상 고려 왕릉의 위치를 성동, 성서, 성남, 성북, 남교, 북교 등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도성 내 5부(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나성 건설 이전에도 비록 인공적인 경계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도성 안과 밖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도성 안밖의 분명한 구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1) 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 『한양도성의 도시구조적 특징과 변화양상』에 대한 토론문

김병희<sup>1)</sup>

발표문은 조선시대 한양도성 건립의 사상적 배경을 검토하고, 그 유교적 이념에 의하여 설계되었던 한양 도시 내부 공간에 대하여 행정치소 및 제resh설, 교통로와 행정구역, 성곽, 상업지역, 거주구역 등으로 성격에 따라 나누어 각 내용과 시기별 사회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양도성은 고려 왕조의 몰락과 새로운 왕조 ‘조선’이 건국되면서 건국 주체 세력의 유교 사상적 기반 아래 건립된 신왕도입니다. 발표문 내용처럼 당시 정치·사회적인 상황과 서울의 자연지리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도시의 설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의 수도로 계획되어 건립된 한양도성은 500년 동안 조선왕조의 수도로 경영되었으며, 발표자가 언급하였듯이 현실 문제와 직면하여 변화양상을 보이며 발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표자의 “한양도성의 도시구조적 특징과 변화양상”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양도성의 준립 시기가 500년이 넘고, 전쟁으로 인한 파괴, 사회·정치적인 요인들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한양도성의 구조적 변화 단계양상은 구체적인 시기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발표문은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세분하여 그 변화양상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시기구분에 따라 (예를 들면 조선왕조 건립과 수도 건설 - 조선전기 평화기 - 임진왜란 이후 변동기 - 조선후기 상공업의 발달 - 개항과 자본주의 성장기) 도시 구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발표자께서 맺음말에 언급하신 것과 같이 추후 분야별로 나누어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의 내용에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통하여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선시대 왕궁 즉 궁궐에 관한 것입니다. 궁궐은 왕조시대 국왕이 머무는 공간으로서 조선시대 정치,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중심축에 해당됩니다. 궁궐의 위상과 위치 등에 따라 한양도성의 내부 공간 활용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성 건설 초기 사상적 기반 아래 유교적 공간 기준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시기가 지난 이후 상황에 따라 궁궐 건축물이 새로 배치되었을 것입니다. 조선 왕조의 정변, 내란, 사화 등의 정치적 변동과 임진왜란 등 전쟁으로 인하여 수차례 국가의 중심 이동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궁들은 내부 건축물의 배치 형태는 규격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복궁이 임진왜란에 의하여 소실되고 난 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심이 이동되면서 연간별로 궁궐 내부 건축물이 필요에 따라 건립되고 배치가 변화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께서 조선 궁궐의 각 구조적 특징과 도성 내부 공간의 활용 변화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한양도성 내부의 도시구조 재편과 한양도성 외부 확대 및 교통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업지역과 거주구역의 확대는 한양도성의 공간 변화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1) 한성문화재연구원 원장

태종대 개경의 시장개설을 금지하고, 한양으로 모민정책을 통한 도성으로서의 기능적인 부분을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기에는 성균관 주변에 형성된 반촌이나, 정조대 경모궁 인근의 모민정책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단편적인 사례에서도 경제적인 혜택이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유교적 관점의 통치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구축하는데 도성의 역할이 중요했다면, 후기에는 조선시대 경제 중심적인 역할이 한양도성의 큰 특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조선의 경제적인 활성화는 후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인구의 증가 역시 경제적인 여건이 조성되는 17, 18세기에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의 변화과정에서 상업지역과 거주구역의 확대가 사대문 밖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성저십리의 활성화, 그리고 도성에서의 성저십리의 역할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양도성의 도시구조의 변화의 가장 큰 요소는 조선후기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중심지로서 한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조선후기 상공업의 발달과 함께 도시 확대 차원에서 조선후기 한강 나루 및 한성으로 진입하는 교통로의 변화관계에 대한 견해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도성은 도시유산으로 지세와 지형을 잘 이용한 계획도시로 자연적인 지세에 따라 도시 형태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선 건국시점 유행한 풍수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양도성의 도시 구조에 있어 자연 지리적 특징과 풍수지리적 개념, 그리고 그것이 도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中國古代都城的郭城問題』에 대한 토론문

조운재<sup>1)</sup>

남경대학의 張良仁 교수는 중국 선진시기 문명발생 및 상주시기 고고학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의 발표문은 中國都城發展史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城”과 “郭”의 개념을 개진한 기존 논쟁을 정리하고 개별 학설 혹은 견지에 대한 오류 혹은 비논리적 사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담고 있다. 동아시아의 城郭問題를 다시금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 및 서술은 시기별 성지 유적과 논점의 정리로 이루어져 있어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보다 일부 논쟁에 대한 필자의 입장과 최근 연구경향의 변화를 들어보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다.

\* 중국 선사시기 古城의 기원과 변천을 살펴보는 노고는 선사시기 사회발전 및 문명화 진척을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인식의 틀을 제공해줄 수 있다. 선사시기 초기의 殘跡으로 남아 있는 중국의 성지유적에서는 사회복잡화 혹은 계층화의 조짐이 제법 높은 해상도로 나타난다. 발표문에서 제시한 대표적 유적 외에도 장강유역의 城頭山遺迹, 良渚 莫角山遺迹, 反山遺迹 등을 꼽을 수 있다. 성지 내부에서는 핵심구성원들의 주거유적, 매장유적, 또 그와 공반되는 차별적 위계성을 표출하는 “威信財” 등 소위 “神權”과 “王權”을 암시하는 특수부장품이 등장하고 있다. 중국학계에서는 이러한 제현상을 초기국가 重心地의 자격요건들로 간주하고 있다.

1. 명료하고 간단한 정의라고 여기지만 다음의 용어들은 실제 빈번하게 혼효(混淆)되어 그 의미와 개념을 어지럽게 한다. 중국학계에서 정의되는 城, 都城, 城廓, 郭城, 城牆 등에 대해 簡要的한 설명 부탁드린다.

2. 최근 용산시기(BC 2,600~1,800년) 石峁城, 良渚, 石家河 및 陶寺城址 등의 발견으로 이 시기 도시 혹은 도성의 집중적 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정식조사에서 皇城臺, 內城 및 外城으로 구성된 성지로 밝혀졌다. 출토유물로는 鑄造銅器 석범, 석조인물상, 채색벽화 등이 확인되었다. 성지 연대는 BC 2,300~1,80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성대, 내성 및 외성의 공간에서 각각 확인된 주거유적의 위계차도 감지되고 있어, 초기국가 단계의 도성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발표자는 석묘성 성지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초기국가 단계의 도성 단계로 보는지, 도성조영 주체는 어떠한 집단인지, 의견을 부탁드린다.

3. 二里頭遺迹은 하대의 궁전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二里頭文化의 존속기간은 선후시기에 따라 4기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중국학계에서는 二里頭遺迹이 과연 夏代의 都城으로서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발표자는 유의미한 문자자료의 발견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표명하였다. 그렇다면 발표자는 二里頭遺迹이 도성일(夏의 斟鄩 혹은 商의 亳)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고견을 듣고자 한다.

\* 秦漢時期로 접어들면서 통일제국의 도성은 서주시기 국가작동의 틀로 활용되었던 “宗法體系”가 그 효용을 다하면서 또 다른 변모가 시작된다. 진의 독특한 다궁제는 한으로 교체되며 광성 내부에 布局을 갖추며 집중형 도성구조로 변화한다. 漢武帝 시기 이후 궁성의 배치

1) 고려대학교 교수

일부 계획되고 황실구성원과 귀척의 주거공간이 생산공간 및 상업공간과 이격된다. 또한, 조위, 양진, 남북조를 거쳐 수당시기 정치한 里坊과 중축배열형 포국을 갖춘 반듯한 방형 도성체계가 완성된다.

1. 알려진 바와 같이 漢 長安城의 경우 秦의 興樂宮 舊址의 기초 위에 長樂宮과 未央宮을 수축하였다. 궁성의 입지에 따라 광성이 축조됨에 따라 장안성의 郭城 평면 형태가 다소 특이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발표자는 본문에서 “사실상 외성이 바로 광성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성 내부에 “民”의 공간이 보이지 않는 장안성에 광성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경청하고 싶다.

2. 北魏 洛陽城은 493년 孝文帝가 平城에서 洛陽으로 들어와 曹魏·西晉 洛陽城의 서북쪽에 이전 金墉城을 확대하는 등 부분적인 개수하였다. 천도 후 501년에 기존의 洛陽城 밖에 별도의 외곽성을 축조하여 사방 1리(300步)의 정방형 坊里 320개 설치하였다. 外郭城을 축조함으로써 都城 구조는 宮城·內城·外郭 등 三重城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중국 都城發展史에서 새로운 획기로 평가할 수 있다. 제시한 도면과 같이 3중성으로 확장된 북위 낙양성의 경우 외곽성 밖에 거주하는 “民”의 성격은 어디(도성 혹은 도성 외부의 행정치소)에 歸屬되는지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北魏 洛陽外郭城 坊市 추축 복원도(錢國祥 2019)

## 『日本 古代都市 外郭의 形成과 役割』에 대한 토론문

우재병<sup>1)</sup>

야마모토 교수는 일본 야요이시대(한국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의 환호취락부터 8세기말 교토 헤이안경까지의 도시 발달사와 이와 관련된 도시 외곽 성립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연구 성과에 대한 비평은 금후의 연구에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요이시대 환호취락은 발굴된 정황을 분석하면, 인구 밀집도 매우 적었지만 식량, 생활 필수품 등을 외부에 의존하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야마모토 교수도 지적하였지만 도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고분시대(한국 삼국시대)가 되면, 왕궁이나 수장 저택을 중심으로 공방과 시장, 촌락이 형성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직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흔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거대 왕릉 예를 들어 오사카의 모즈·후루이치 고분군과 같은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능읍과 같은 도시는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고분시대의 도시 흔적 양상은 백제 수도였던 공주에서 공산성 이외에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흔적이 아직 보이지 않는 양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50~1960년대 서울 청계천 주변의 인구 밀도를 보면 도시를 부정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발굴 조사를 통하여 과거에 청계천변에 존재하였던 엄청난 숫자의 판잣집을 찾아 도시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지요. 현대사회의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일본 고분시대의 도시 존재 문제는 추후의 이론적 토론과 발굴조사의 진행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고대 도성인 아스카경, 후지와라경, 헤이조경의 경우, 도시로서 인정할 수는 있지만, 고대 중국 도성의 내·외곽성, 백제의 사비 나성과 같은 모습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야마모토 교수도 지적하였지만, 여러 국가간에 계속적으로 전쟁이 이어지는 중국이나 백제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한해협이 거대한 성벽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다는 어떠한 고대 중국 도성의 내·외곽성, 백제의 사비 나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천연 외곽이라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일본의 경우,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지만 외적 방어라는 실용성은 미미한 나성의 축조를 서두를 필요는 없었겠지요. 다만 야마모토 교수도 지적하였지만, 백제 멸망이라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일본열도 주요 교통로 상에 백제식 산성 축조라는 방식으로 외적 방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즉 만약 당·신라 등 외적이 일본 본토를 공격하였을 경우에는, 산성으로 피난하여 농성하는 백제식 전략을 구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나성으로 외적을 방어하는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후쿠오카 타자이후와 그 주변의 산성을 연결하는 백제식 나성 방어시스템을 추정하기도 하지만, 현지를 답사해 보면 해안가 외곽 방어선인 미즈키와 주변의 산성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산성 방어시스템으로 추정됩니다. 백제의 사비 나성에서 많은 힌트를 얻은

1)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방어시스템이지만 똑같은 방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백제식 산성들이 당시 후쿠오카에서 일본 수도 나라로 향하는 항로상의 요충지, 산맥을 통과하는 요충지 등 방어에 유리한 곳에 건설된 점을 고려하면, 당·신라 등 외적의 침입을 상정한 실용적 방어시스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만 백제식 산성을 건설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토론자는 일본 고대 도성에 외곽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해외 정보의 부재가 아닌 바다로 격리된 지리적 위치,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의도적 선택이었다고 판단합니다.



---

[제3부] 발굴조사 최신 성과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방안

---

日本朝鮮式山城の登場と展開過程  
일본 조선식 산성의 등장과 전개과정

向井一雄

古代山城研究会代表

무카이 카즈오

일본 고대산성연구회 회장

---



# 日本朝鮮式山城の登場と展開過程

向井一雄<sup>1)</sup>

- I. はじめに
- II. 朝鮮式山城以前
- III. 朝鮮式山城
- IV. 東北城柵
- V. 古代城柵以後の北東北における環濠集落・館
- VI. 中世武士居館から近世城下町まで
- VII. むすび

## I. はじめに

日本の城の歴史は変化に富んでおり、質量共に、「お城の国」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そのような城郭文化がどうして日本列島に出来上がったのか - そこには海外からの影響と列島内でのガラパゴス的進化を見ることができる。

今回は朝鮮半島から導入された朝鮮式山城築城の背景と日本での変容をご紹介します、その後の日本城郭文化への影響について論じたい。

## II. 朝鮮式山城以前

### 1. 環濠集落と高地性集落

7世紀に朝鮮式山城が導入される以前の日本の古代城郭について概観しておきたい。城郭的な遺跡は弥生時代の環濠集落から始まる。

環濠集落は弥生時代の始まり(紀元前千年前~)から見られるので、稲作文化とともに大陸・半島から伝わったと考えられる。北九州地方では貯蔵穴エリアを囲む小型環濠も多かったが、弥生中期(~紀元前1世紀)になると、近畿地方を中心に直径1.5kmもの巨大な環濠集落(拠点集落)が並び立つようになった。近畿の大型環濠集落は濠<sup>2)</sup>を何重もめぐらし、周辺にいくつもの枝村を従え、祭祀センターとしての神殿や青銅器の工房なども発見されている。後期には、北九州でも巨大な環濠集落が登場してくる。『魏志倭人伝』に登場するクニグニの首都「国邑」と考えられている。環濠集落は中期後半以降、弥生文化のフロンティアである関東地方まで拡がり、全国で約500ヶ所確認されている。

弥生中期末頃になると、大阪湾岸から中部瀬戸内海沿岸に高地性集落と呼ばれる一種の山城

1) 古代山城研究会代表

2) 弥生時代の環濠集落は、濠の内側ではなく外側に土塁をめぐらしているといわれてきた。吉野ヶ里遺跡(佐賀県吉野ヶ里町)や大塚遺跡(神奈川県横浜市)の復元整備では外土塁上に木柵を設けている。外側に土塁がめぐることから、環濠を防御施設とみない説もあるが、環濠内の面積を広く活用するためや少人数で防御する工夫とする説もある。ただし外土塁そのものは残っておらず、環濠へ流れ込んだ土層からの推定なので、最近では濠外に土塁はなかったとする意見も多い。

のような遺跡が出現する。立地は尾根の先端や山頂・山腹で平地や海を広く展望できる位置にある。環濠や堀切状の防御施設を持つものもあり、戦いと関係がある遺跡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るが、高地性集落の中には宗教的な聖地を守るような特殊な遺跡もあるとみられる

弥生後期(1~3世紀前半)に入ると近畿の巨大環濠集落は解体してしまう。後期後半から庄内期(2~3世紀)になると、高地性集落の分布は東部瀬戸内や山陰、北陸方面にも拡大していく。戦乱の拡がり示すのか首長層の出現・台頭と関係があるのか、諸説あるが、弥生時代が古墳時代に向けて大きな社会的変動期に入っていたことは間違いない。

## 2. 豪族居館

環濠内に住む人と濠外に住む人という区別(身分差)が生じ、さらに濠内には方形区画(方形環濠)が出現する。方形区画は首長層(王族)の住居と考えられているが、方形区画は環濠の外につくられるようになり、古墳時代(3世紀後半~)に入ると環濠集落が消え、方形区画のみとなる(武末2002)。これが豪族居館に発展していく。

高地性集落も古墳時代に入ると姿を消す。我が国の古墳時代豪族や大王は武力で権力を握った「城塞王」とはいえないが、高地性集落(城塞王)から古墳(祭祀王)へ首長たちの性格が変化していったのかもしれない。

古墳時代の豪族居館は全国で100ヶ所ほど確認されているが、大型(一辺85m以上)から小型(一辺30m以下)まで規模は様々で、外郭施設は石垣を貼った濠から小型の堀など規模に応じて異なっている。濠の内側には柵や土塁がめぐって、環濠集落に比べると後の城郭と類似した構造になり、濠内に向けた張出し部を持つ居館もある。平地や台地上に立地することが多いが、丘陵上につくられているものもある<sup>3)</sup>。

圀形(かこいがた)埴輪という特異な埴輪があり、かつては防柵の埴輪、古墳時代の城柵の埴輪だとされていた。その後、出土事例が増加して豪族居館や浄水の祭祀場を表わした埴輪だとわかってきた。圀形埴輪の中に導水施設と覆屋のミニチュアが入った埴輪も見つかっており、石敷きの水の祭祀場が発見されている。古墳時代の豪族居館が豪族たちの権威を示すと共に非常にマジカルな空間であったことを窺える。古代日本では大王の代替わりごとに宮を新たに建替える「歴代遷宮」が行われていたが、豪族たちの居館も存続期間はごく短期で、一代限りのものだった可能性がある。

## Ⅲ. 朝鮮式山城

### 1. 日本史初の本格的な築城

7世紀の半ば頃、朝鮮半島情勢の変化と唐・新羅の軍事的脅威に対処するため、西日本各地に朝鮮式山城(古代山城)が築かれた。この朝鮮式山城がわが国における初めての本格的な築城といえる。

古墳時代には豪族居館や大王の王宮はあったが、半島諸国のように山城は築かれなかった<sup>4)</sup>。

- 
- 3) 古墳時代の豪族居館としては、三ツ寺 I 遺跡(群馬県高崎市)が有名だが、大規模な濠の中に居館の各種建物をコンパクトに配置(C型居館)していて、古墳中期後半以降の北関東地域に特有のものとの指摘がある。方形区画を持つ祭祀空間を核にその周辺に首長の居住空間や工房、倉庫、従者の住居など諸施設を配置した事例(A型居館)が多く、さらに南郷遺跡群(奈良県御所市)のようにA型を大規模に展開させたもの(B型居館)もある(辰巳2006)。
- 4) 飛鳥京を守る防衛施設があったとする説もある(相原2004)。蘇我氏邸宅と推定される甘檜丘東麓遺跡や酒船石遺跡は城郭としては不完全なものだが、半島の城郭に影響されて設けられた可能性はあるだろう。

## 2. 神籠石論争

西日本の古代山城には、『日本書紀』など史書に記録の残るものと記録に見えない山城がある。これまで記録の残る山城は「朝鮮式山城」、記録のない山城は「神籠石(こうごいし)系山城」と呼ばれてきた。

文献記録の残る山城は、その築城契機・築城主体についてわかっていたが、記録のない山城については、その年代観と築城主体をめぐって長く論争が続いてきた。文献記録がない山城は神籠石系山城と呼ばれているが、「神籠石」という不思議な名称は明治時代の神籠石論争までさかのぼる<sup>5)</sup>。

戦前の神籠石論争以来、1960年代の発掘調査までは、神籠石系山城(特に北部九州の山城)はその分布から邪馬台国や筑紫君・磐井といった九州の在地勢力に関係するもの、年代も文献史料になく伝承も残されていないことから、かなり古い時代に造られ忘却された遺跡とする考えが支配的だった。「神籠石系が古く、朝鮮式は新しい」という年代観も固定された先入観となっている。

しかし、現在までの調査で長期間にわたる継続使用や改築の痕跡は確認されていない。近年の研究では、朝鮮式山城と神籠石系山城の両者には基本的に大きな違いはないため「古代山城」として一括して捉え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

## 3. 古代山城の分布

『日本書紀』『続日本紀』などに築城・修築記事のみえる山城は12城を数え、文献に記録のない山城は、1999年に福岡県で新たに2城(阿志岐山城、唐原山城)が発見され全部で16城となり、古代山城は合計28ヶ所となった(遺跡不明の城が6ヶ所含む)。

日本の古代山城は北部九州～瀬戸内～畿内までベルト状に分布し、特に北部九州には14城が濃密に分布し、大宰府を中心とした同心円状の配置をとっている。山城群の分布は一見大陸からの防衛ラインを成しているが、王都である畿内には高安城1城のみで朝鮮諸国のような王都を守る防衛網はない。また大陸に近い日本海側にも分布していない。

## 4. 古代山城の構造

### 1) 規模と縄張り(占地プラン)

日本の古代山城も山地を石塁や土塁で囲い込んで防御施設としている点は朝鮮半島の山城と変わらない。形態は基本的に単郭である。朝鮮半島では、周囲が数10mの堡塁のようなものから数kmにおよぶ巨大山城までであるが、日本の場合、山城の規模は周長が1.7～6.3kmで、2～3km程度のもが多い。また水城(福岡県太宰府市・大野城市)や小水城のような「遮断城」と呼ばれる関隘型式の城もある。

朝鮮半島の山城では占地形態からみた「包谷式」と「テメ式(山頂式・鉢巻式)」の分類が広く使われており、百濟ではテメ式の山城が多い。日本の古代山城は百濟人の指導で築城されたとされるが、山城の規模やプランに関しては大型の包谷式ばかりで、高句麗山城を指向している。

日本の古代山城の占地によって「嶮山城」と「緩山城」の大きく二つのタイプがある。嶮山城の多

5) 「神籠石」とは本来列石ではなく磐座や石神のような「神体石」を指した名称であり、現在では学史的に使われているに過ぎない。文献に記録のあるなしによる分類は考古学的分類としては実態にそぐわない(向井2016)。

くは独立峰に選地し、縄張として「複郭プラン」をとっている場合が多い。具体的な遮断線を持たなくても、周辺地形(湾、丘陵、段丘)を利用して外城ラインとし、城内最低点を背後の谷盆地側に開く状況は嶮山城の多くの山城で指摘でき、防御性を考慮した縄張とみることができる。

これに対し緩山城は、城壁最低点である水門部が平地まで下り、平野側に正面を向けて縄張りされている。独立峰でなく主山塊を背後に持つ支峰に選地し、城域背面側には一部城壁を設けていない場合もある。嶮山城に比べて防御性は劣り、特殊・様式化された占地といえる。嶮山城は北部九州～瀬戸内沿岸に広く展開するのに対し、緩山城は北部九州～中でも有明海沿岸を中心に集中分布している。

嶮山城では城外からの進入経路を守城側に有利となるよう、城門位置を尾根筋から若干脇に置いて進入路をクランクさせ横矢を掛けたり、谷部では城壁を前方へ張り出して左右から俯瞰・挟撃できるよう縄張りしている。門を入った場所に遮蔽物(塀・岩)を置く事例もある。逆に緩山城ではこのような防御上の配慮はほとんどみられない。

## 2) 城壁の構造

城壁には「石築」と「土築」があるが、日本の古代山城の外郭線は基本的に版築土塁が多く、石塁の中にも百済式の「土芯石築」構造のものがある。城壁線が谷を通過する箇所では土築城でも石塁を高く築き、石塁中に暗渠状の通水溝(水門・水口)を設けている。

城壁の形態について「夾築(両壁式)」と「内托(外壁式)」の二種がある。朝鮮半島の山城では内托形が一般的であるが、日本の古代山城では城内側を山の斜面に持たせ掛けるような土段(壇)状の土塁が多い。城壁幅は6.5～9mで、内托式土塁の城壁高は3～5mと高く対人遮断性に優れ、塁の背後には城内通路が付設されている。土段状土塁の城壁高は1.5～3mと低い。

石塁の石積みには野面積みや若干整形加工を施した割石積みと精緻な切石積みがあり、横に目が通る布積みと呼ばれる技法が取られている。外壁面角度は60～80度、切石積みでは90度に近い。切石積み石塁では内部はグリ石が充填されており、石塁の構築方法に変化が生じている。

土塁構造については、神籠石系山城＝列石あり、朝鮮式山城＝列石なし、といったイメージが従来定着してしまっていたが、調査の進展によって大野城や鞠智城、讃岐城山城など朝鮮式山城とされていた山城でも土塁基底部の列石が確認されるに及んで、列石の有無だけでは分類指標として意味を持たなくなってきた。列石に関する調査所見で重要な事実、列石の「非露出(いわゆる埋め殺し)」である。非露出の場合、本来土塁完成時には列石は見えていなかったのであり、列石の有無が分類指標として絶対のものでないとすると、列石の非露出・露出こそ指標として注目される。そして列石の非露出・露出は列石の切石使用とも関係している点は見逃せない。

韓国でも土塁基底部に列石(基壇石)を持つ山城が確認されているが、割石を1～2段積みとしており、北部九州のような切石列石はみられない。三国時代末頃から列石使用が始まり統一新羅時代(8～9世紀)に普及しており、韓国における列石使用の開始は日本の古代山城導入期とほぼ同時代といえる。

列石前面に柱列が伴う事例も多く、版築工事の堰板支柱とみられている。土塁内部から柱列が検出される事例も増加しており、土塁構築前に立てられ埋め殺しにされている。土塁内外の柱は対となり、柱列間隔は1.6～1.8m(大野城・鞠智城)、1.8m(御所ヶ谷城)、2.19m(石城山城)など短いものもあるが、3m間隔の事例が多い。韓国での永定柱間距離の研究から、3m間隔の事例が後出すると想定できる。一方、版築技法で構築されていても列石前面柱を持たない土塁もあり、雷山城や杷木城、唐原山城のように列石のみ配し上部の土塁を築いていない山城でも前面柱は検

出されていない。

外郭線が直線を一単位として走行し接続部に「折れ構造」を持つ山城が瀬戸内の諸城と北部九州の一部の山城にみられる。有明海沿岸部の緩山城は「曲線」走行を基本としており、外郭線走行に大きく東西二つのタイプが存在している。文献に記録のある山城についても折れが確認されている。

### 3) 城門と城内施設

山城の諸施設としては、城壁本体に伴う城門、雉城、内甕城などと城内の建築物(倉庫、兵舎、管理棟など)や貯水池・井戸などがある。

城門には「平門式」と「懸門式」があり、日本でも懸門式の確認事例が増加してきた。また古代山城の城門には門礎石(唐居敷)の残る事例が多く、円形や方形の掘立柱用の割り方を持つものと礎石建てのものがある。瀬戸内の山城には共通して方形割り方を持つ「ユの字型唐居敷」がみられ、様式・寸法が酷似し同一の築城主体や年代を想定させる。

大野城(福岡県太宰府市・宇美町)や基肄城(佐賀県基山町)では城内に礎石倉庫建物群が40~60棟確認されているが、他の山城では建物の検出事例は少なく、築城当初は掘立柱建物が主体だったとみられている。鬼ノ城(岡山県総社市)では倉庫建物、兵舎、鍛冶工房など機能別の配置が判明しつつあるが、神籠石系山城の多くでは城内施設は未確認である。

#### (1) 白村江の敗戦後、天智朝に対外的な緊張に応じて築城

660年(斉明6)の百済滅亡後、倭は百済復興運動を支援して出兵したが、663年(天智2)の白村江の戦いで大敗し半島から撤退する。百済復興の夢はついえ去ったが、強大な唐の陸海軍が百済征服の余勢を駆って日本へ来襲するかもしれない危険が生じた。

敗戦の翌年、664年(天智3)に対馬・壱岐・筑紫に防人と烽(とぶひ)を設置し、水城が築造されている。水城は博多湾奥に防衛線として築造された大土塁で、高さ10m、基底部幅80m、長さは約1.2kmにおよぶ。博多湾側には幅60mの水濠があった。水城築造の翌年665年(天智4)8月には、百済人・憶礼福留らを派遣して大野・基肄城と長門国に築城されている。

大野城は大宰府の北、四王寺山(標高410m)に周囲6.3kmの土塁がめぐっている。大宰府南方の守りとしては基肄城が設けられ、水城・小水城と一体となって大宰府を囲む一種の羅城を形成している。マスタープランとして百済扶余との関連が指摘されている。

大宰府は「人物殷繁にして、天下の一都会なり」と評された通り、他国と違って条坊による街区が存在した。平城京は、朱雀大路の幅や京域が長安城のちょうど2分の1スケールで設計されているが、大宰府はその平城京の半分の規模で造られている。藤原京や平城京と同様、大宰府にも羅城はないが、その代わり大野城や水城など大宰府を取り囲む山々には防衛施設が設けられていた。水城の西側には丘陵の谷間を塞ぐように小規模な土塁が数ヶ所築かれており、小水城と呼ばれている。

最近、前畑遺跡(福岡県筑紫野市)で丘陵上に長さ約500mの土塁が見つかり、大宰府を囲む周囲50kmに及ぶ羅城が存在したのではないかと話題になった。しかしその後の調査で周辺の丘陵や山地には土塁はなく、版築の構造も古代山城や水城とは異なっていて、時期や性格について検討を要する<sup>6)</sup>。

6) 前畑遺跡について単独の小型山城とする新説も出されている(山田2020)。多くの研究者は大宰府南方の関屋・とうれぎ土塁(佐賀県基山町)は有明海からの侵入を防ぐ施設とするが、関屋土塁の旧状では北側

667年(天智6)3月近江大津宮に遷都し、11月には、高安・屋嶋・金田城を築き、長い縦深防衛シフトの構築を開始している。

### (2) 天武朝以降は国内支配の拠点として整備

文献に記載のない神籠石系山城については、『日本書紀』斉明四年是歳条分注の「繕修城柵」の記述から、百濟救援の陣頭指揮を取るため九州に下った斉明天皇によって築城されたとする説が唱えられ、北部九州の研究者を中心に支持された。しかし鬼ノ城の発掘調査の進展によって、その築城・維持された年代が7世紀第4四半期を中心としていることが明かとなり、斉明天皇築城説の研究者たちに再考を迫ることになった。御所ヶ谷城(福岡県行橋市)や永納山城(愛媛県西条市)など、文献に記載のない他の山城からも7世紀後半～8世紀初め頃の土器が出土する事例が増加し、文献に記載のない山城は古いという説が誤りであったことが判明した(向井2016)。

多くの山城の築城年代が7世紀後半であるとわかってくると、天武朝に大宰・総領が置かれた地域に集中して古代山城が築かれているという説が注目されてきた。西日本の要地である「筑紫」「周防」「伊予」「吉備」には670～680年の時期に広域行政ブロックが敷かれ、山城はその大宰・総領制の核となっていたらしい。山城築城は単に防衛網を築いただけではない。武器収公による集中管理と戸籍による民衆把握によって「軍国体制」を立ち上げることと連動した事業であり、豪族連合的な倭国を中央集権国家としてステップアップさせるための重要な「築城」であったと、考えられてきている(鈴木2011)。

古代山城の分布は山陰になく畿内周辺には高安城しかない。北部九州から瀬戸内海沿岸という6世紀後半～7世紀代の倭王権の地域支配の重点地域と重なり合う。その築城は、663年の白村江敗戦による大陸からの防衛を契機としながらも、西日本主要部の地域支配強化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ったことがうかがえる<sup>7)</sup>。

### (3) 九州の神籠石系の山城は「見せる山城」

これまでの研究によって、①大野城などの朝鮮式山城(天智紀山城、嶮山城)、②瀬戸内の神籠石系山城(嶮山城)、③北部九州の神籠石系山城(緩山城)の三つの類型が想定されている。「対外防衛」から「律令制化・地域支配」の拠点へという機能差として段階的に築造されていった様子が捉えられ、新しい時代になるにつれ軍事性は低下していく(①→②→③)。

特に北部九州の神籠石系山城では外郭線の一部が造られず、平野側のみ外郭線がめぐる事例が非常に多い。これらの城を未完成と見る意見もあるが、交通路からの視角を意識した構築状況と理解できる。このような山麓の駅路や官衙のような施設からの視角を重視した城郭を、戦闘・籠城用の山城に対して政治的示威を目的とした「見せる山城」と呼びたい(向井2016)。

が急傾斜で堀状の落ち込みもあったことから、当初は基肄城と共に博多湾側を意識した閑隘であった可能性がある(鏡山1968)。大野城や水城の築城時には九州の拠点は博多湾側の那津官家(那珂・比恵遺跡)にあり、大宰府政庁付近に筑紫大宰が建設されるのは7世紀第4四半期以降である。筑紫大宰から大宰府が整備されていく中でこの地域の防衛施設の機能が段階的に変化していった可能性も検討が必要だろう。

7) 古代山城築城よりさかのぼるが、瀬戸内海沿岸には地域支配強化と海外出兵のための航路確保を目的として凡直国造が設置された。また朝鮮半島での軍事・外交において活躍した紀氏とその同族集団も瀬戸内沿岸に濃密に分布している。この地域には、法隆寺荘倉と法隆寺式軒丸瓦が分布していて、上宮王家の領地との関係が指摘されている。上宮王家領となる以前は物部氏領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日本書紀』記載のミヤケの分布も日本海側にはない。

#### (4) 奈良時代になると次々と廃城

701年(大宝1)、高安城が廃され、719年(養老3)には備後国の茨城と常城が停止されているが、8世紀初頭、瀬戸内の古代山城の多くが廃城となり姿を消す。九州だけは太宰府という形で大宝令制下も西海道(九州)を総監する機構が維持されたため、大野・基肄の2城は維持されたらしい。

#### (5) 新羅征討計画と怡土城

奈良時代後半の756年(天平勝宝8)6月から怡土城(福岡県糸島市)の築城が開始された(完成は768年)。新羅征討計画に関連して企画されたといわれているが、征討計画自体の準備は759年から開始されたので怡土城起工が数年早い。

怡土城(福岡県糸島市)は、標高416mの高祖山に築かれた周囲8kmの日本最大の古代山城である。高祖山の山頂から平地部にかけて西斜面一帯を広く囲い込むように城郭を形成しており、中国の兵法に通じた吉備真備が築城を指導したことから、中国式山城ともいわれる。山頂から尾根伝いに9ヶ所の望楼(敵楼)が設けられ、西の山裾には外濠を伴う約2.5kmにわたる土塁(幅約20m、高さ約7m)がめぐっている。山麓には3ヶ所ほど城門跡が確認されている。未調査だが城内中央(陣ノ内)には官衙も想定される。

762年(天平宝字6)を目途に準備が進められていた新羅征討計画は軍船394隻、兵士47,000人を動員する本格的な遠征計画だったが、渤海と唐との関係改善によって渤海との軍事連携が崩れ、この年の暮れ頃、突然中止されてしまう。

#### (6) 大野城と基肄城は食糧備蓄基地化

大野城で60棟、基肄城で40棟という籠城に備えた倉庫群が城内に何十棟も立ち並ぶ姿は古代山城のイメージとして固定化している。ところが、金田城(長崎県対馬市)ではこれまで6棟の建物跡が確認されているが、小規模な掘立柱建物ばかりで倉庫のような総柱建物は1棟もない。鬼ノ城は礎石建ての側柱建物2棟、倉庫と考えられる総柱建物5棟が計画的に配置されているが、大野城などと比べると棟数は僅かである。

大野城の倉庫群建設時期について、現在では出土した瓦や礎石建物の柱間尺度から奈良時代-8世紀後半~9世紀代に倉庫群が次々と増築されていったと考えられてきている(赤司2014)。倉庫は備蓄米を貯えた不動倉であったとみられ、いわば食糧備蓄基地化といえるが、当時は貨幣経済ではないので、備蓄米=財源という側面が強い。太宰府は独自の財政基盤がなく、西海道6国の税収に支えられて運営されていた。それが8世紀後半頃から諸国からの税収が滞りがちになり、太宰府の独自財源確保の努力が9世紀にかけて続けられた。大野・基肄城の倉庫群も太宰府の独自財源の一部であったと思われる。

大野・基肄城と共に698年(文武2)に修築された鞠智城(熊本県山鹿市・菊池市)が再び文献記録に登場するのは858年(天安2)のことだが、この時は「菊池城院」と呼称も変わっていた。鞠智城は8世紀前半に一旦廃止されたが、9世紀代に太宰府と肥後国を中心とする飢饉対策-公営田制の基地=倉庫群として再利用されている。

#### (7) 9世紀後半-古代山城の終焉

奈良時代末の774年(宝亀5)、大野城に四王院が新羅など異敵調伏祈願のため設けられた。現在でも山頂には毘沙門堂が残る。経塚も多数発見されている。鬼ノ城では瓦塔片が出土しており、

城内の礎石建物があつた場所を再利用する形で平安期に山岳寺院が造られている。

他の古代山城でも廃城後、平安期に宗教施設が設けられている事例は多い。高良山城の高隆寺(高良大社)や石城山城の石城神社、屋嶋城の屋島寺、常城の青目寺、高安城の信貴山朝護孫子寺など、瀬戸内の古代山城を中心に山岳寺院や式内社が設けられている。平安期は国家仏教の時代であり、山城の跡地が国家の管理下にあつたことがうかがえる。

大野城や鞠智城が山城としていつ頃使われなくなったかは記録がなく、よくわかっていない。

#### IV. 東北城柵

##### 1. 山城と城柵

古代日本では東西の辺境に古代城郭が設けられた。これまで、山城 = 対外防衛施設、城柵(じょうさく) = 東北支配の拠点(官衙)と捉えられ、性格の異なる施設とされてきた。しかし近年の調査の進展によって、城柵にも土塁と堀による強力な外郭線が備わっていたことが判明しつつある<sup>8)</sup>。

##### 2. 蝦夷支配と城柵

7世紀半ばから9世紀初頭にかけて、東北地方には蝦夷(えみし)との境界領域に城柵が設置された。これらの城柵は古代国家が蝦夷支配の拠点として造営した施設である。

蝦夷とは東北地方に住む土着の人たちを広く指した言葉である。蝦夷の呼称の内実は、時代や地域によって大きく異なり、その性格を一義的に規定することを困難にしている。律令国家がこの地域に本格的に進出していく7世紀に限ってみれば、一種の疑似的なエスニック集団 - 倭王権からみた「辺民」といえる。東北中部の地域は4~5世紀代にかけては北海道を中心とする続縄文系集団が南下し、南の古墳文化人と雑居の状態にあつた。この時期の続縄文文化は、狩猟など遊動性の高い生業であつたと推定されている。東北中部の拠点的集落には続縄文文化人と古墳文化人が共生しており、皮革加工用の石器(皮なめし用のラウンドスクレーパー)が多量に出土することから、毛皮交易が盛んであつたらしい。

城柵については、戦前は開拓史観に基づいて蝦夷征伐の城砦と捉えられていたが、戦後1960年代以降の発掘調査によって、中心部の政庁などが国府に酷似し、外郭が土塁ではなく築地や材木堀と判明したため、役所説が提唱されるようになった。

日本の古代の官衙には、国府や郡衙(郡家)がある。律令国の統治拠点である国府は平城京など都城のミニチュア版といえるが、国府や郡衙の諸施設を囲む外郭施設(築地、柵、堀など)は設けられていない。官衙の政庁部分は50~100mほどの方形区画の中に正殿と東西の脇殿がユの字型に配置され、周囲は築地や堀によって囲まれて南門が開くといった形式を取っている。都の朝堂院の縮小版であるが、建築的には古代寺院と変わるところはなく城郭の要素はない。

##### 3. 城柵の構造

太平洋側では内陸の北上川を北進して志波城(岩手県盛岡市)まで達し、日本海側では点々と潟湖(ラグーン)を港として利用しながら北上、秋田城(秋田県秋田市)が最北端の城柵となる。約160

8) 城柵に櫓状建物が付設されていたことは調査当初から知られていたが、その軍事性は低評価だった。城内中央部の構造が官衙的であることがその理由といえる。堀や土塁だけでなく、多賀城の東辺城外側には逆茂木が設けられ、名生館官衙遺跡と天神前遺跡(宮城県大崎市)では陥馬坑と考えられる遺構も指摘されている(古川2017)。

年間に設置された城柵は20を数える。

城柵の立地は平地あるいは丘陵地で、平地の場合は平面形が正方形だが、丘陵地では地形に制約されて不整形になる。施設中央部には政庁を設け、その周囲には曹司(実務官衙)を配し、外郭は材木列、築地、土塁などで囲んでいる。外郭の要所に櫓状建物が設置されており、防御を固めている。規模は、最大級の多賀城で900m四方、志波城は840m四方でさらに外濠がめぐる。最小の徳丹城(岩手県矢巾町)は350m四方である。政庁区画は100~150m四方を築地塀で囲み、正殿と東西脇殿がコの字型配置をとる。

基本は方形の政庁と外郭で囲まれた二重外郭構造をとっているが、8世紀後半以降、蝦夷との軍事衝突が本格化すると、城外の隣接地にあった集落を城内に取り込む三重外郭構造となった。多賀城では条坊が設けられ、城柵に付属する都市も形成されていた。

東北城柵は、蝦夷に対する軍事的な拠点でもあったが行政的な施設でもあり、この点が西日本に築かれた古代山城と大きく異なる点である。城内の施設内容は律令国を統治する国府・政庁によく似ており、いわば「武装された官衙」といえる。

#### 4. 淳足・磐舟柵と郡山遺跡

647年(大化3)と翌年、越国に淳足柵(新潟県新潟市東区沼垂(ぬったり)か?)と磐舟柵(新潟県村上岩船か?)が築かれた。両柵の遺跡はまだみつからないが、郡山遺跡(宮城県仙台市)の発掘調査によって、陸奥国側にも同時期に城柵が設置されていたことが明らかとなってきた。

郡山遺跡の官衙は新旧二時期ある。I期官衙は7世紀後半に造営されており、北で東に約30度傾いた東西300×南北600mの長方形の区画を持つ。外郭は材木塀で内部がさらにいくつかの区画にわかれていた。郡山廃寺が付属する新しいII期官衙は7世紀末頃に建替えられたもので、正方位をとる4町四方(428m)の規模で外郭は材木塀と大溝をめぐらしている。中央にコの字型配置をとる政庁域と石敷き広場、玉石組みの方形池などが検出されており、平面プランは藤原宮に類似している。

7世紀代の東北南部では、関東系土器が出土する囲郭集落が福島県から宮城県北部でみついている。囲郭集落は周囲に区画溝と材木塀をめぐらし防御的な構造を持つ。関東系土器が多量に出土しており、この時期、関東から多数の移民がやってきたことは間違いない。史書では、城柵の建設→柵戸(移民集落)の設置となっているが、東北への関東から移民→囲郭集落の出現→官衙型の城柵造営という遺跡の状況から、事実は逆らしい。当初、城柵は関東系移民の東北進出の後追いとしてつくられ、東北中部の交易拠点を軍事的に押さえていった。

#### 5. 多賀城の創建と天平五柵

713年(和銅6)の丹取郡の設置、715年(霊亀元)の東国六国の富民千戸の陸奥への移配はこの時期最大級の規模で、大崎平野への入植が本格化した。この動きと連動して724年(神亀元)に多賀城(宮城県多賀城市)が造営され、郡山遺跡から陸奥国府が移転した。

737年(天平9)の天平五柵は多賀城創建と同じ頃、大崎・牡鹿地方に置かれた城柵でいくつかの遺跡が判明しつつあり、大崎平野を中心として大規模な植民と城柵官衙の整備によって東北中部における蝦夷支配体制の強化が行われたことが窺える。

多賀城は、松島丘陵の先端に立地し、郡山遺跡に比べて高所にある。外郭の形はゆがんだ方形で、周囲は基底部2.7m、高さ5mの築地塀で囲み、南・東・西に門が開かれている。城内中央部に重要な政務や儀式、宴会などの場所である政庁があり、城内の各所には曹司(実務官衙群)や兵

士の住居などが配置されていた。最近の調査によると、創建期の外郭南門は、多賀城碑がある丘の上で発見されている外郭南門跡よりも約120m北側(内側)で確認され、創建期南門には材木堀がともなっていた。

## 6. 桃生城と伊治城

8世紀半ば以降になると、陸奥国では海道に桃生城(宮城県石巻市)が、山道に伊治城(宮城県栗原市)が築かれた。大崎・牡鹿地方の支配をさらに拡大しようと企図したのである。

759年(天平宝字3)に築かれた桃生城は比較的急峻な標高80mの丘陵上につくられており、東北地方の城柵の中では最も古代山城に近い占地をとる。東西800m、南北650mの外郭線は地形に合わせた不整形で、中央の政庁のある内郭の東西に複郭が取りつく独特な平面プランであった。767年(神護景雲1)に造営された伊治城は河岸段丘上に立地する。集落を取り囲む外郭の南側に平行四辺形の内郭と政庁を設けている。外郭は東西700m、南北900mに及ぶ。北辺では幅7.5m、高さ2.5mの土塁とその内側に幅10m、深さ3.5mの大溝(堀)が検出されている。

桃生城の北側と伊治城の外郭は二重の土塁になっており、それまでの城柵に比して厳重に防御を固めている。両城は蝦夷の領域への侵略拠点であり、そのため蝦夷からの強い反発・抵抗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

東山官衙遺跡群(宮城県加美町)では、外郭の丘陵地に東西600m、南北1.2kmにわたって二重の堀と土塁(早風遺跡)がめぐり、古代山城を彷彿とさせる。東山官衙遺跡の南方では多賀城と似た条坊都市(壇の越遺跡)が確認されており、その西方段丘の縁に沿って築地と材木堀からなる区画施設が構築されている。東山官衙遺跡群は737年(天平9)に始められた陸奥・出羽連絡路開削事業の起点として建設された加美郡衙とみられ、東北城柵の中では内城と条坊都市、外城という最も整備された三重外郭構造を備えている。

伊治城の南方に位置する宮沢遺跡(宮城県大崎市)は比高15~35mの緩やかな丘陵を中心に周囲の平地も取り込む変則的な占地をしている。北西部の部分的な発掘調査によって、築地・土塁・溝によって構成される外郭施設が確認され、東西1.4km、南北850mが遺跡の範囲と想定されている。

## 7. 出羽国側の城柵

陸奥国側の多賀城設置と大崎・牡鹿地方の支配強化に次いで出羽国側でも城柵の北進が計画された。733年(天平5)出羽柵が秋田村高清水岡へ移転する - 秋田城の設置である(天平宝字年間に改称)。

秋田城(秋田県秋田市)は雄物川の河口近くの標高40mほどの丘陵上に位置する。外郭は不整形な方形で、政庁は七時期の変遷が確認されている。外郭は基底部幅2mの築地で後に掘立柱堀に建替えられた。外郭の12ヶ所で櫓状建物が検出されている。政庁の東門から大路が伸びる鶺ノ木地区から迎賓館ではないかと推定される遺構や池、付属寺院などが検出されている。

878年(元慶2)の元慶の乱では北秋田・米代川流域の俘囚が蜂起し、反乱勢力によって秋田城が落城した。乱の被害報告の史料によると、官舎161宇、城櫓28宇、城柵櫓27基、郭柵櫓61基が焼失したと記録されている。

陸奥・出羽連絡路に沿った内陸の横手盆地には第二次雄勝城と目される払田柵(秋田県大仙市・美郷町)がある。払田柵は真山と長森の小丘陵を楕円形に外柵で囲んでいる。外柵は角材を並べた材木堀で、角材の年輪年代は801年(延暦20)頃の伐採と判明している。

## 8. 胆沢城と志波城

774年(宝亀5)の海道の蝦夷による桃生城の落城以降、三十八年戦争が始まる。780年3月の伊治峯麻呂の乱では、道島大楯らが殺害され、伊治城や多賀城が襲撃を受けて落城した。789年(延暦8)3月には5万人を越える征討軍が巢伏の戦い(岩手県奥州市水沢区)で大敗を喫したが、801年(延暦20)、征夷大將軍・坂上田村麻呂の征討によって大墓公・阿弋利爲らは和平に応じ降伏した。

延暦年間の征夷の結果として、胆沢城と志波城が築かれた。胆沢城は802年、志波城は翌年の築城である。志波城の城内には官衙群だけでなく、外郭築地内側に千棟を越す竪穴住居(兵舎)があるとみられている。また南門の左右に各7棟。計14棟の檣状建物が配置されていた。

志波城は東北地方最大級の城柵であり、築城当初の重要性は胆沢城を凌いでいたと考えられる。両城は三十八年戦争のさなかにつくられたのではなく蝦夷征討の終了後に築かれた。両城は胆沢～志波地域を統治するための拠点であり、平地に立地し防衛的なプランではない。

## 9. 征夷と饗給

城柵では、朝貢してきた蝦夷に対し、城司が天皇に代わって蝦夷に饗給を行った。城柵の任務は、軍事的な征服だけでなく、饗給に関わる部分も大きかった。朝貢と饗給には、朝廷(倭人)側にとっても北方の特産品を入手するという経済的な意味もあった。城柵はいわば「交易センター」としての性格も持っていたことになる。熊や鹿の毛皮、馬、砂金、昆布などの北方の特産品は都の王臣や国司らに珍重されたため、蝦夷との私的取引活動の禁制が出されるほどであった。蝦夷の側でも取引によって入手する武器や農具などの鉄製品、繊維製品、米、酒、塩などの食料品を入手することができた。これらの倭人側の産物は集団内部での族長の権威を高め、周辺の他集団との取引にも用いられた。

朝貢・饗給システムの影響は北海道にまで及んでいた。802年(延暦21)には渡嶋(北海道)の狄が来朝して種々の毛皮などを貢じており、東北地方から多く発掘される蕨手刀などが北海道のオホーツク文化の墳墓からも出土している。

## 10. 征夷の終了

811年(弘仁3)には文室綿麻呂の建議による爾薩体(にさったい、岩手県二戸市仁左平)・弊伊(へい、岩手県宮古市)の二村の征討が最後の征夷として実施された(三十八年戦争終結)。志波城は水害を理由に、812年頃、南15kmに移転する。律令国家最後の城柵となる徳丹城(岩手県矢巾町)である。徳丹城は9世紀半ばまで維持され、胆沢城へ吸収される。

多賀城に置かれていた鎮守府が胆沢城に移されると、胆沢鎮守府の機構整備が進められ、胆沢城も9世紀後半に礎石建て、瓦葺きに建替えられる。10世紀まで存続した城柵は6城柵だった。

## 11. 10世紀後半 - 城柵の終焉

東北の城柵は10世紀半ば～後半には衰退・消滅する。城柵の周辺では既に9世紀後半頃から政庁に似た建物配置の遺跡が出現していた。国司館や城司館と想定される遺構で、方一町程度の規模を持ち、主殿を中心に脇殿などを備えた邸宅である。国司や城司が受領化し政務が徴税請負的性格に特化した体制下では、律令制的な儀礼を行う施設の維持の必要性が薄れ、国司館などに中心が移っていった。

## V. 古代城柵以後の北東北における環濠集落・館

### 1. 北東北の防御性集落

10世紀後半になると、北東北(青森県・岩手・秋田県北部)では堀をめぐらした環濠集落や山地に立地する高地性集落など、敵の攻撃に備えた集落-防御性集落が出現してくる。約100ヶ所の集落が水系に沿ってグループ化している状況は弥生時代の高地性集落に酷似している。防御性集落にはいくつかの類型がみられるが、立地から大きく二つの類型に分けられる。比高差のある高地に立地するものと台地上や岬状地形の先端部に立地するものである。また環濠のめぐらせ方からは、主要な数軒の竪穴住居を空堀で囲み、後背地に集落を配置する「上北型」と集落全体を囲む「津軽型」に分けられる。

防御性集落は律令国家による征夷終了後、律令国家の圏外である北東北に出現しており、蝦夷の世界に戦争の時代が到来していたらしい。防御性集落は12世紀までに一斉に姿を消す。これは11世紀末の奥州藤原氏の平泉政権の樹立によって北東北の社会が安定化すると考えられる。

### 2. 安倍・清原氏の柵と奥州藤原氏の城館

11世紀には陸奥の安倍氏が奥六郡司となって糠部(青森県東部)から亘理・伊具(宮城県南部)にも支配を広げていった。出羽の清原氏は雄勝城の在庁官人の出身で、俘囚長に任ぜられ、山北三郡を支配したとされる。安倍氏は六郡内各地に12の柵(たて)を築いて、一族や有力家臣を配置し、柵を拠点として地域支配を行った。

防御性集落と比べて、安倍・清原氏の拠点はきわめて規模が大きく、鳥海(とのみ)柵(岩手県金ヶ崎町)のように複数の区画にわかれ、城内に四面廂付建物など大型の公的建物がある点が異なっている。しかし大鳥井山遺跡(秋田県横手市)の空堀が二重の横堀や外土塁をめぐらす点は防御性集落の伝統と考えられ、奥州藤原氏の柳之御所遺跡(岩手県平泉町)にも大鳥井山遺跡に似た大規模な外堀がめぐっている。

奥州藤原氏の関連城館は、北は青森県の中崎館(青森市)、岩手県の比爪館(紫波町)、稻荷町遺跡(盛岡市)、南は福島県の陣ヶ峯城(会津坂下町)など、大規模な堀・土塁で囲まれた館跡が東北各地で確認されつつある。

平泉防衛のため築かれた阿津賀志山防塁(福島県伊達郡国見町)は3.2kmにも及ぶ長大な防塁だが、二重の堀と三重の土塁からなり、防御性集落や安倍・清原氏の柵と同じような構築法を採っている。この構築法は城柵の外郭施設までさかのぼることができる。

### 3. 古代的城郭の終焉

奥州藤原氏は1189年(文治5)源頼朝に滅ぼされる。奥州藤原氏の滅亡によって堀と土塁からなる古代的城郭の築造も途絶える。単郭で堀と外土塁をめぐらす古式の山城は山形県を中心とする地域の鉢巻式山城や長崎県の壱岐・松浦地域に分布する松浦型の城郭など一部地域で残存するが、その後の日本の城のタイプとしては少数派である。

武士の館-方形館の成立は通説では鎌倉時代とされる。しかし近年、発掘調査によって平安時代後期(9世紀後半~11世紀)の館跡が各地で発見されている。この時期の方形館は田堵(有力農民)のような「富豪の輩」の拠点もあるが、郡衙など官衙に関連した施設とみられるものや、四面廂付の大型建物や緑釉陶器のように中央との繋がりを強く示す荘園の政所的な施設もあり、複雑な様相を呈している。囲郭施設としての溝も幅1~2mと概して狭く、防御的な役割は弱い。

## VI. 中世武士居館から近世城下町まで

### 1. 方形館の時代から山城の出現

水堀と方形の土塁に囲まれた館(方形館) - 鎌倉時代の武士の館のイメージである。「一遍上人絵伝」に描かれた武士の館や各地に残る鎌倉武士の伝承を持つ方形館の遺跡の存在から、近年に至るまで鎌倉期の武士は方形館に住んでいたと考えられてきた。しかし、発掘調査が進むと、方形館として地表に残る遺跡は、多くは14~15世紀頃に築かれたものと判明した。12~13世紀段階の居宅は前時代に比べると堀幅は広くなるものの土塁の存在は微妙である。南北朝の戦乱が起こる14世紀辺りに防御的な武士居宅への転換点があるとみられる。

日本の中世城郭の特徴は、複数の曲輪の組み合わせによる多重防御的な縄張りプランにある。弥生の環濠集落や防御性集落などで時に二重~三重の環濠がみられるが、これらは遮断線を厚くすることで防御機能を高めており、曲輪の組み合わせによる多郭化=横矢がかりと虎口防御を駆使する、とは異なる。

日本の中世城郭では、まず方形館で多郭化が始まる。当初は単純に中心区画の相似形的に外郭を設けていたが、やがて複雑化していく。内城-外城の二重方形区画の城館は、内城(実城)-中城-外城という三重構造の戦国期城館へ発展していく。

平地もしくは丘陵上城館に比べると、中世山城の誕生は謎に包まれている。山城の出現は南北朝期に始まるが、徐々に高い山に占地するのではなく、いきなり最初から高山を利用している。当時、山岳寺院が盛んに城郭として利用されたことも高山利用の理由だが、山地での土木造作の困難さから天険を利用したという面が大きい。防御構築物としては掘切を連ねる形が多く、臨時仮設的な阻塞類(バリケード)を山地の要所に設けていく手法といえる。曲輪となる部分は概して削平が甘く未削平の部分も多い。

古代山城や城柵のパーツともいえる阻塞類を再構成していくことで、中世山城が成立していくといえるが、山城で大規模な普請工事が行われるようになるのは、15世紀後半の享徳・応仁の乱後の軍事的な必要性和動員力の増大を待たなければならない。

### 2. 中世城下町から近世城郭へ

この後15~16世紀に、平地城館は籠城用の山城(詰めの城)とセット化し、日本中世城館のスタンダードが成立する。

中世城下町遺跡の典型例は越前朝倉氏の一乗谷遺跡(福井県福井市)であるが、東西約500m、南北約1.7kmの狭小な谷間に城下町が建設され、中央に堀と土塁をめぐらせた居館がある。南と北の谷の入口は土塁で塞がれ、城戸が設けられている。居館の東方山頂には一乗谷城が築かれ、全体として一つの大きな城郭を形成している。

戦国期には、寺内町や貿易港・堺(大阪府堺市)も環濠・土塁をめぐらせていて、日本においても都市外郭が出現してくる。

### 3. 総構え(そうがまえ)の出現

関東を支配した後北条氏の小田原城(神奈川県小田原市)は、周囲の城下町と共に堀幅20m、総延長約9kmの大外郭=総構えで囲まれていた。玉縄城、小机城、滝山城、八王子城など「ラインの城」と呼ばれる一線防御の縄張りプランは後北条氏系の城郭の特徴である。

16世紀末に全国統一を成し遂げた織田・豊臣政権によって築かれた織豊系城郭はテクニカル

な曲輪・枡形虎口配置と石垣を特徴とするが、文禄・慶長の役時の倭城築城では登り石垣による外郭築城が導入される。

小田原城と倭城の総構え築城技術が大坂城(大阪府大阪市)など近世城郭の総構えへ発展していく。曲輪の多郭化による複雑な縄張りプランを特徴とした日本の中世城郭の独特な構造は、戦国末期の動員兵力や籠城期間の大規模化によって大きく様変わりしていった。総構えは聚楽第築城を契機として京都にも導入されて御土居(周囲22.5km)が築かれた。日本の近世城下町は基本的に都市外郭を持っ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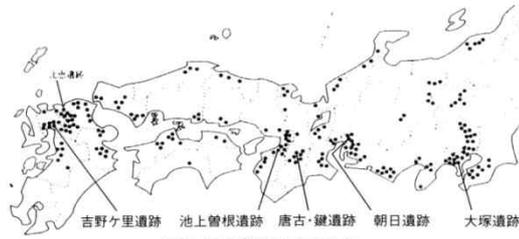
## VII. むすび

古代の環濠集落から対外的危機による朝鮮式山城の導入、古代都城や東北地方での城柵の建設を通じて、日本の古代城郭は一旦終焉する。その後長い中世の時代を通じて古代国家の官衙政庁をモデルにした平地居宅・居館が発展して日本独自の平地城館が成立する。南北朝にはじまる中世の戦乱は平地城館の防御を縄張りの複雑化の方向で発展させたが、戦乱の長期化と籠城戦の大規模化は「都市外郭」という世界的なスタンダードを再び出現させたといえ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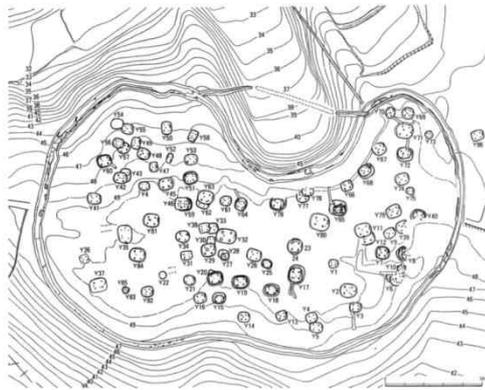
## ※ 参考文献

- 鏡山猛, 1968, 『大宰府都城の研究』, 風間書房.
- 向井一雄, 1991, 「西日本の古代山城遺跡 - 類型化と編年についての試論 - 」, 『古代学研究』125, 古代学研究会.
- 向井一雄, 2004, 「山城・神籠石」, 『古代の官衙遺跡II 遺物・遺跡編』, 奈良文化財研究所.
- 向井一雄, 2016, 『よみがえる古代山城(歴史文化ライブラリー440)』, 吉川弘文館.
- 齋藤慎一・向井一雄, 2016, 『日本城郭史』, 吉川弘文館.
- 酒井龍一, 1997, 『弥生の世界(歴史発掘6)』, 講談社.
- 村上幸雄・乗岡実, 1999, 『鬼ノ城と大廻り小廻り(吉備考古ライブラリー2)』, 吉備人出版.
- 飯村 均・齋藤慎一, 2001, 「III 城と館」, 『図解・日本の中世遺跡』, 東京大学出版会.
- 武末純一, 2002, 『弥生の村(日本史リブレット3)』, 山川出版社.
- 小笠原好彦, 2003, 「首長居館と王宮」, 『古墳時代の日本列島』, 青木書店.
- 相原嘉之, 2004, 「倭京の“守り” - 古代都市飛鳥の防衛システム構想 - 」, 『明日香村文化財調査研究紀要』4(『古代飛鳥の都市構造』2017所収).
- 辰巳和弘, 2006, 「古墳時代の『居館』と大型建物」, 『弥生の大型建物とその展開』, サンライズ出版.
- 進藤秋輝, 2010, 『東北の古代遺跡 - 城柵・官衙と寺院』, 高志書院.
- 鈴木靖民, 2011, 「第三章 七世紀後半の日本と東アジアの情勢 - 山城造営の背景 - 」, 『日本の古代国家形成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 稲田孝司, 2012, 「古代山城の技術・軍事・政治」, 『日本考古学』34, 日本考古学協会.
- 赤司善彦, 2014, 「古代山城の倉庫群の形成について - 大野城を中心に - 」, 『東アジア古文化論』2-III 原始古代の考古学, 中国書店.
- 樋口知志, 2016, 『前九年・後三年合戦と兵の時代(東北の古代史5)』, 吉川弘文館.
- 古川一明, 2017, 「古代城柵官衙遺跡の「陥馬坑」についての試論」, 『研究紀要』18, 東北歴史博物館.
- 近江俊秀, 2018, 「第2章 白村江の敗戦と古代山城 - 歴史時代の考古学の落とし穴 - 」, 『入門 歴史時代の考古学』, 同成社.
- 山田隆文, 2020, 「大宰府羅城説再考 - 百済や新羅の都城防衛体制との比較の観点から - 」, 『難波宮と古代都城』, 同成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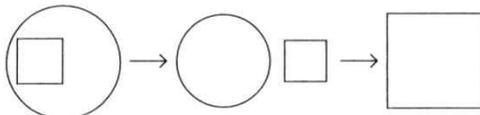
Fig. 1



弥生時代環濠集落の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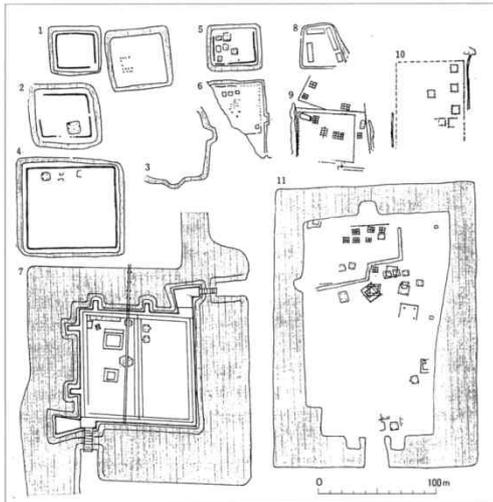


横浜市大塚遺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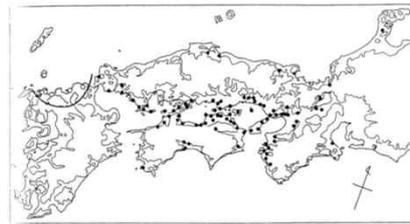
A類型 円形の中の方形 B類型 円形の外の方形 C類型 円形のない方形

環濠集落から豪族居館への変遷 (武末モデ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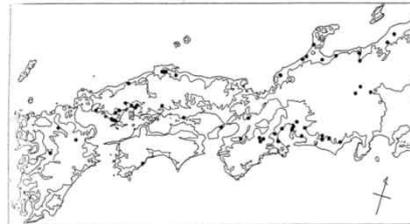


1: 小迫止原遺跡 2: 登内遺跡 3: 奥谷遺跡 4: 国生本屋敷遺跡  
5: 丸山遺跡 6: 菟紙免子遺跡 7: 三ツ寺遺跡 8: 大宮遺跡  
9: 松野遺跡 10: 藤原宮東方官衙下層遺跡 11: 原之城遺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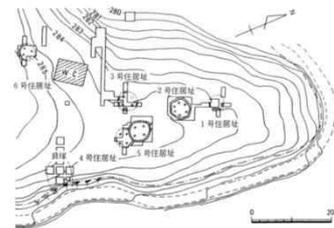
古墳時代の豪族居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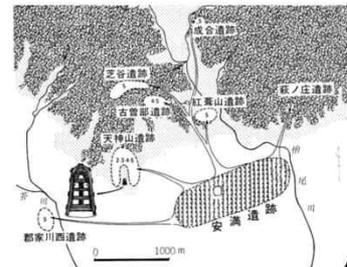
第一次高地性集落(紀元前1世紀後半)



第二次高地性集落(2~3世紀)  
第一次と第二次の高地性集落の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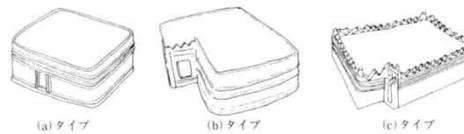
岡崎市貝殻山遺跡(高地性集落)



高槻市安満遺跡の母村と分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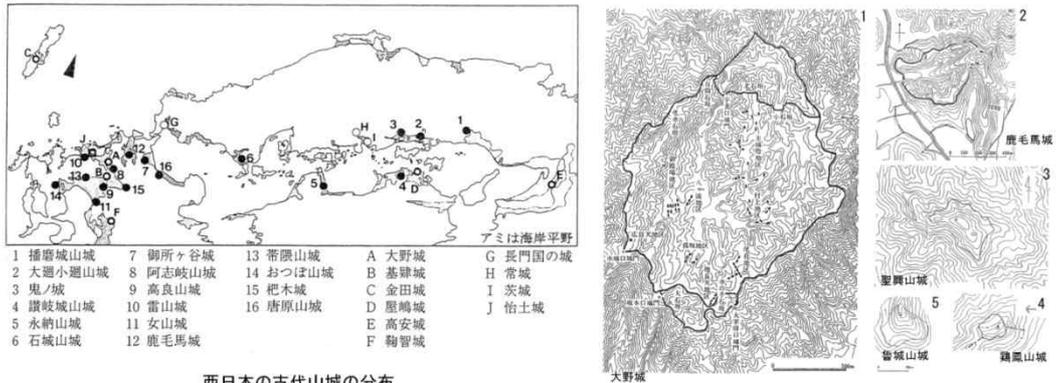


浜松市大平遺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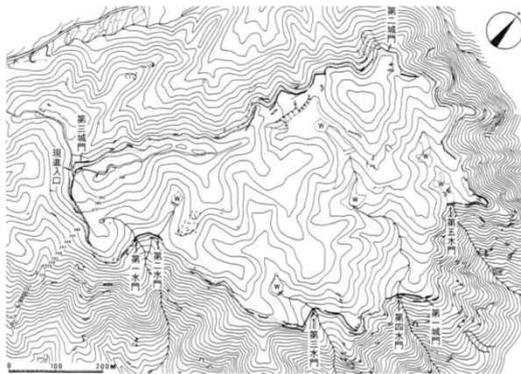
(a)タイプ (b)タイプ (c)タイプ  
円形埴輪

Fig. 2



西日本の古代山城の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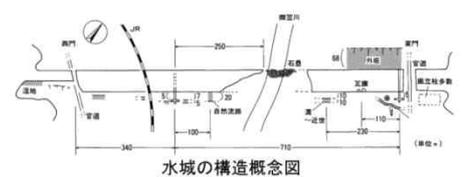
古代山城の規模比較 (3-5: 百済山城)



総社市鬼ノ城 (嶮山城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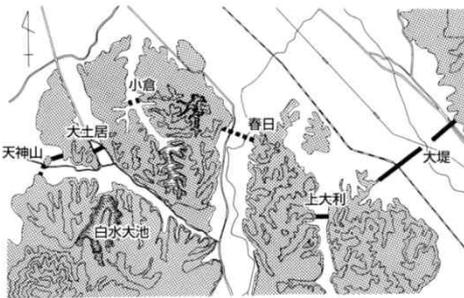
武雄市おつぼ山城 (緩山城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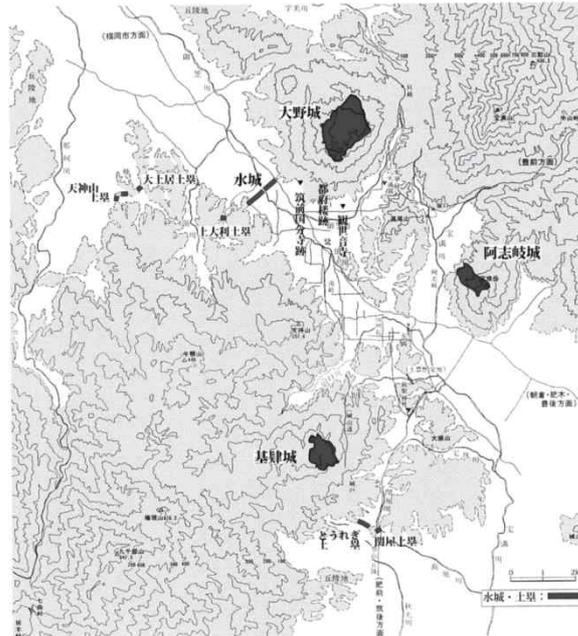
水城の構造概念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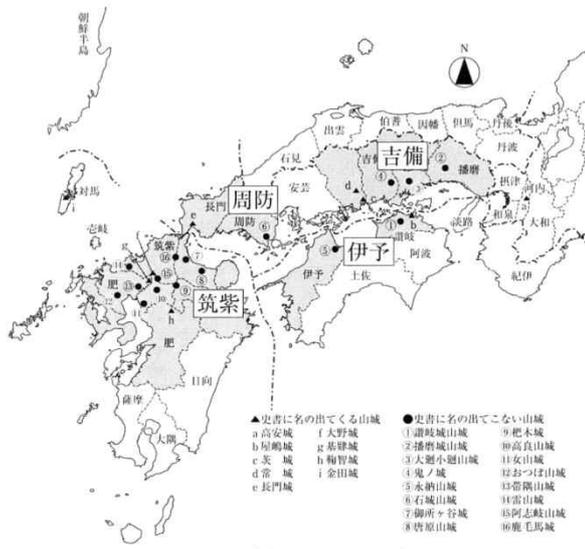
水城断面模式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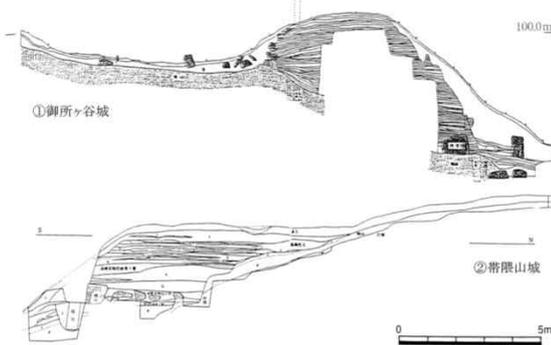
水城大堤と小水城



大宰府羅城の山城・水城



大宰総領制と古代山城



内托土塁①と土段状土塁②



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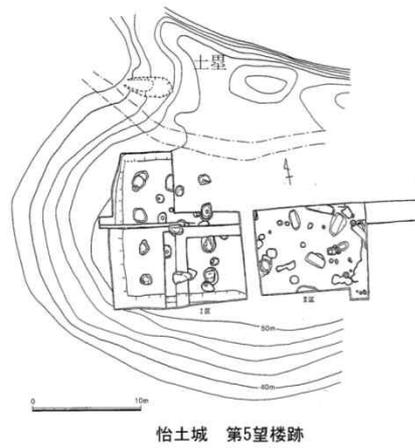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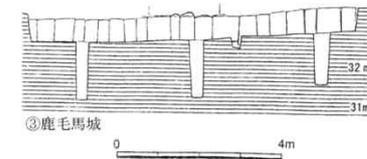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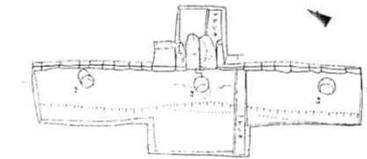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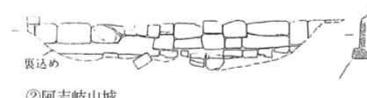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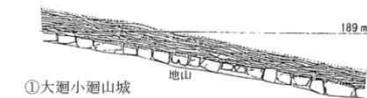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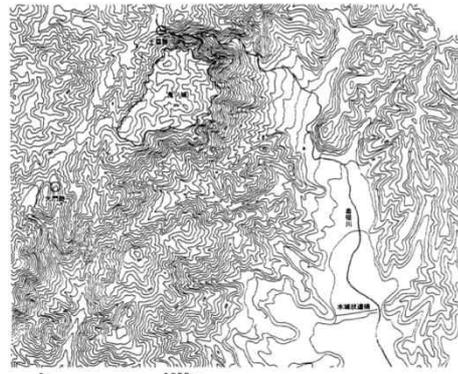


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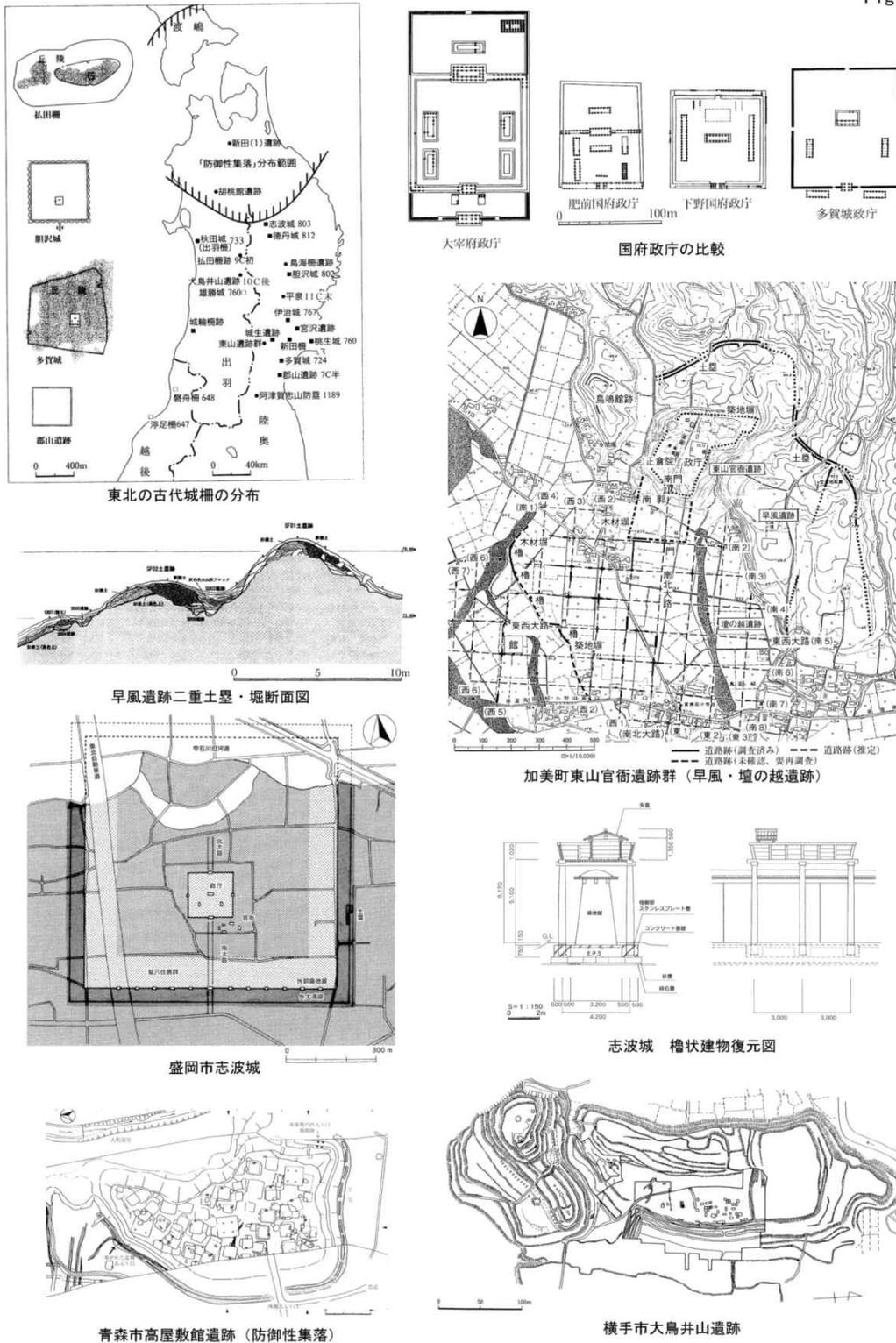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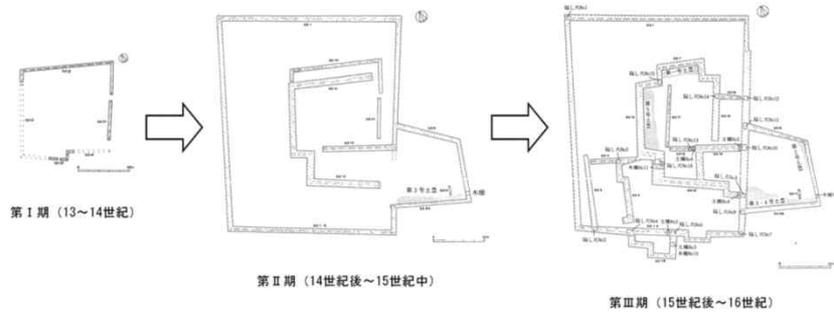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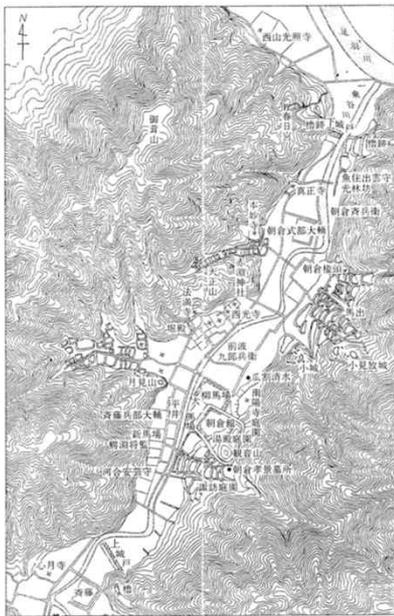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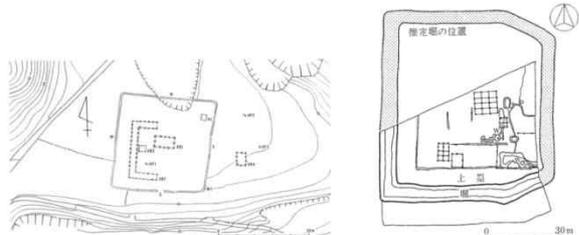
Fig. 5



屋代城の変遷 (龍ヶ崎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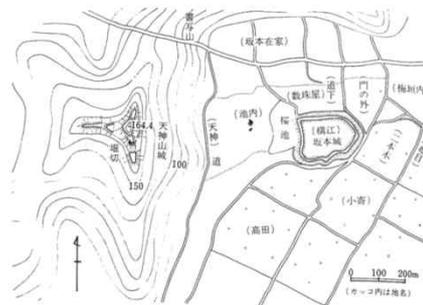


福井市一乗谷朝倉氏遺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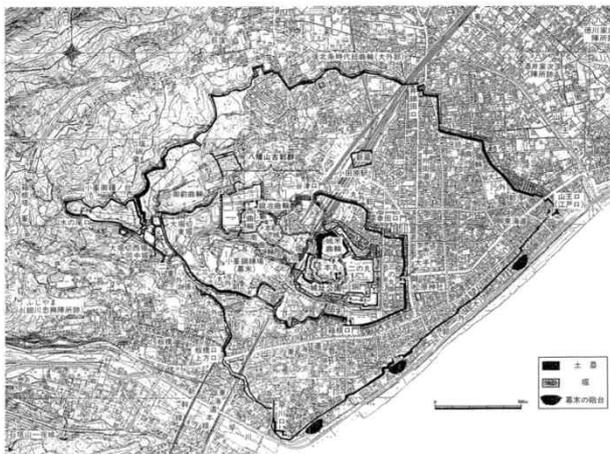


横浜市神隠丸山遺跡 (10世紀)

堺市日置荘余部城 (14世紀)



守護館と山城 (姫路市坂本城)



小田原城の総構え (小田原市)



京都市御土居

## 일본 조선식 산성의 등장과 전개과정

무카이 카즈오(向井一雄)<sup>1)</sup>

### <목차>

- I. 머리말
- II. 조선식 산성 이전
- III. 조선식 산성
- IV. 토호쿠(東北) 성책
- V. 고대성책이후의 북토호쿠의 환호취락·관
- VI. 중세식 토거관에서 근세 성하마을까지
- VII. 맺음말

### I. 머리말

일본성곽의 역사는 변화가 풍부하며 양과 질의 양면에서 “성곽의 나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성곽문화가 왜 일본열도에 만들어 졌는지 - 여기에는 해외로부터의 영향과 열도 내부의 갈라파고스적 진화를 볼 수 있다.

이번에는 한반도에서 들어온 조선식 산성 축성의 배경과 일본에서의 변용을 소개하고 그 후의 일본 성곽문화에 대한 영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II. 조선식 산성 이전

#### 1. 환호취락과 고지성 취락

7세기에 조선식산성이 도입되기 이전의 일본 고대 성곽에 대해 개관해두고자 한다. 성곽스러운 유적은 야요이 시대의 환호취락에서 시작한다.

환호취락은 야요이 시대의 시작(기원전 1,000년~)시기부터 보이기 때문에 경작문화와 함께 대륙·반도에서 전해져왔다고 생각된다. 북큐슈지방에서는 저장혈 지역을 둘러싼 소형 환호도 많았지만 야요이 중기(~기원전 1세기)가 되면 긴키지방의 중심에 직경 1.5km나 되는 거대한 환호취락(거점취락)이 늘어지게 되었다. 긴키지방의 대형환호취락은 호<sup>2)</sup>를 여러 겹으로 돌리고 주변에 복수의 지촌을 거느리며 제사의 중심으로써의 신전과 청동기 공방 등도 발견되고 있다. 후기에는 북큐슈에서도 거대한 환호취락이 등장하게 된다. 『위지왜인전(魏志倭人伝)』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의 수도 「국읍(國邑)」이라고 생각된다. 환호취락은 중기 후반 이후, 야요이 문화의 프론티어인 칸토지방까지 확대되어 전국에서 약 500개소가 확인

1) 일본고대산성연구회 회장

2) 야요이시대의 환호취락은 호의 내측이 아니라 외측에 토루를 쌓는다고 알려져 왔다. 요시노가리(吉野ヶ里:사가현 요시노가리초)유적이거나 오즈카(大塚: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유적터의 복원정비에서는 바깥 토루 위에 나무담장을 설치했다. 바깥쪽에 토루를 돌리는 것 때문에 환호를 방어시설이라고 보지 않는 설도 있지만 환호내의 면적을 넓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소수인원으로 방어하기 위한 궁리라고 하는 설도 있다 단 바깥 토루 그 자체는 남아있지 않고 환호로 흘러들어간 토층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최근에는 호 바깥쪽의 토루는 없었다고 하는 의견도 많다.

되었다. 야요이 중기말 경이 되면 오사카만 연안에서 중부 세토나이해 연안에 고지성 취락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산성같은 유적이 출현한다. 입지는 능선의 끝부분이나 산꼭대기·산허리에서 평지나 바다를 넓게 전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환호나 능선 등을 끊어낸 호리키리(堀切) 모양의 방어시설을 가진 것도 있으며 전투와 관련이 있는 유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고지성 취락 중에는 종교적인 성지를 지키는 것과 같은 특수한 유적도 있다고 보인다.

야요이 후기(1~3세기전반)에 들어가면 긴키(近畿)의 거대한 환호취락은 해체되어 버린다. 후기후반에서 쇼나이 시기(2~3세기)가 되면 고지성 취락의 분포는 동부 세토나이해 산인(山陰)·호쿠리쿠(北陸)방면으로 확대되어 간다. 전란의 확대를 나타내는 것인지 수장층의 출현과 대두와 관계있는 것인지 여러 설이 있지만 야요이 시대가 고분시대를 향해 커다란 사회적 변동기에 들어섰다는 것은 틀림없다.

## 2. 호족거관(豪族居館)

환호 안에 거주하는 사람과 호 밖에 사는 사람이라는 구별(신분의 차이)이 생겨나고 나아가 호 내부에는 방형구획(방형환호)이 출현한다. 방형구획은 수장층(왕족)의 주거라 생각되는데 방형구획은 환호의 외부에 만들어지게 되고 고분시대(3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환호취락이 사라지고 방형구획만 남게된다.(武末 2002) 이것이 호족거관으로 발전해 간다.

고지성취락도 고분시대에 들어서면 자취를 감춘다. 일본 고분시대 호족과 대왕은 무력으로 권력을 거머쥔 “성채왕”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고지성취락(성채왕)에서 고분(제사왕)으로 수장들의 성격이 변화해 간 것일지도 모르겠다.

고분시대의 호족거관은 전국에서 100개소 정도 확인되는데 대형(한 변이 85m이상)에서 소형(한 변이 30m이하)까지 규모는 다양하고 외곽시설은 돌담을 붙인 호(濠)에서 소형 해자(堀) 등 규모에 따라 다르다. 호의 내측에는 울타리나 토루가 둘러쳐져 있어서 환호취락과 비교하면 성곽과 유사한 구조이고 호의 안쪽으로 돌출부를 가지는 거관도 있다. 평지와 대지 위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릉 위에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sup>3)</sup>.

카코이가타(囿形)하니와라고 하는 특수한 하니와가 있는데 과거에는 방책을 위한 하니와, 고분시대의 성책을 위한 하니와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그 후에 출토사례가 늘어나 호족거관이나 정화수가 있는 제사장을 표현한 하니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카코이가타 하니와 중에 수도시설과 복당(覆屋)의 미니어처가 들어간 하니와도 발견되었으며 납작한 돌바닥이 깔린 물의 제사장이 발견되었다. 고분시대의 호족거관이 호족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동시에 몹시 신비로운 공간이었다는 점을 엿볼수 있다. 고대일본에서는 대왕의 대가 바뀔 때마다 궁을 새로 건축하는 “역사친궁”이 행해 졌는데 호족들의 거관도 존속기간은 매우 짧았으며 한 세대만 사용하는 것 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 Ⅲ. 조선식산성

### 1. 일본역사상 첫 본격적 축성

7세기 중반 경,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당/신라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각지에 조선식산성(고대산성)이 지어졌다. 이 조선식산성이 일본의 첫 본격적 축성이라 할 수 있다.

3) 고분시대의 호족거관으로서 미즈데라 I(三ツ寺:군마현 타카사키시)유적이 유명한데 대규모의 호 안에 거관의 각종건물을 콤팩트하게 배치(C형거관)하고 있으며 고분중기 후반 이후의 기타칸토지역 특유의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방형구획을 가지는 제사공간을 핵으로 그 주변에 수장의 거주공간과 공방, 창고, 시종의 주거 등 제반 시설을 배치한 사례(A형거관)이 많고 더 나아가 난고유적군(南郷遺跡群:나라현 교쇼시)처럼 A형을 대규모로 전개시킨 것(B형거관)도 있다(辰巳2006).

고분시대에는 호족거관이나 대왕의 왕궁은 있었지만 반도의 여러 나라와 같은 산성은 만들어지지 않았다4).

## 2. 고고이시(神籠石)논쟁

서일본의 고대산성에는 『일본서기(日本書紀)』 등 사서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것과 기록에 보이지 않는 산성이 있다. 지금까지 기록에 남아있는 산성은 “조선식산성”, 기록이 없는 산성은 “고고이시(神籠石)계 산성”이라고 불리어왔다.

문헌기록이 남아 있는 산성은 그 축성계기와 축성주체를 알 수 있었으나 기록이 없는 산성에 대해서는 그 연대관과 축성주체를 둘러싸고 오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문헌기록이 없는 산성은 고고이시계 산성이라고 불리고 있었는데 “고고이시”라는 이상한 명칭은 메이지 시대의 고고이시 논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5).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고고이시 논쟁부터 1960년대의 발굴조사까지는 고고이시계 산성(특히 북부 큐슈의 산성)은 그 분포에서 야마타이코쿠(邪馬台國)나 치쿠시노키미 이와이(筑紫君·磐井) 등 큐슈의 지역세력에 관계있는 것으로, 연대도 문헌사료에 없고 구전으로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시대에 만들어져 잊혀진 유적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고고이시계가 오래된 것, 조선식은 새로운 것”이라는 연대관도 고정된 선입견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장기간에 걸친 계속사용이나 개축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조선식산성과 고고이시계 산성에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대산성”으로 묶어서 다루게 되었다.

## 3. 고대산성의 분포

『일본서기(日本書紀)』, 『속일본기(續日本紀)』 등에서 축성/보수 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 산성은 12개 성이며 문헌에 기록이 없는 산성은 1999년에 후쿠오카현에서 새로 2개성(아시키(阿志岐)산성, 토바루(唐原)산성)이 발견되어 전부 16개 성이 되었으며 고대산성은 함께 28개소가 되었다(유적불명의 성 6개소 포함).

일본의 고대 산성은 북부 큐슈~세토나이~키나이(畿内)까지 띠모양으로 분포하고 특히 북부큐슈에는 14개성이 밀집 분포하며, 다자이후(大宰府)를 중심으로 동심원상의 배치를 보인다. 산성군의 분포는 얼핏 대륙에 대한 방어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왕도인 키나이(畿内)에는 타카야스(高安)성 1채만 있어 한반도의 여러나라처럼 왕도를 지키는 방위망은 아니다. 또한 대륙에 가까운 대한해협(일본해)쪽에도 분포되어 있지 않다.

## 4. 고대산성의 구조

### 1) 규모와 영역(입지 플랜)

일본의 고대산성도 산지를 석루나 토루로 둘러싸 방위시설로 삼고 있다는 점은 한반도의 산성과 다르지 않다. 형태는 기본적으로 단곽이다. 한반도에는 둘레가 수십미터인 보루 같은 것부터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 산성까지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산성의 규모는 전체

4) 아스카쿄(飛鳥京)를 지키는 방위시설이 있었다고하는 설도 있다(相原2004). 소가씨(蘇我氏)저택으로 추정되는 아마카시노오카(甘檉丘) 동쪽기슭 유적이거나 사카이부네이시(酒船石)遺跡은 성곽으로서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한반도의 성곽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5) “고고이시(神籠石)”란 원래 열석이 아니고 이와쿠라(磐座)나 이시가미(石神)와 같은 “신체석(神體石)”을 가리키는 명칭이며 현재는 학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헌에 기록이 있고 없고에 의한 분류는 고고학적 분류로서는 실태에 맞지 않는다(向井2016).

둘레가 1.7~6.3km이고 2~3km정도 되는 것이 많다. 또 미즈키(水城 : 후쿠오카현 다자이후 오노조시)나 쇼미즈키(小水城)와 같은 “차단성”이라 불리는 관애형식의 성도 있다.

한반도의 산성에서는 입지형태로 본 “포곡식”과 “테피식(산정식·하치마키식)” 분류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백제에는 테피식 산성이 많다. 일본의 고대 산성은 백제인의 지도로 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산성의 규모나 플랜에 관해서는 대형 포곡식 뿐이고 고구려산성을 지향하고 있다.

일본의 고대 산성의 입지에 따라 “협산(嶮山)성”과 “완산(緩山)성”으로 크게 두가지 타입이 있다. 협산성의 대부분은 독립봉우리에 선지되었으며, 배치는 “복곽플랜”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차단선을 가지지 않더라도 주변지형(만, 구릉, 단구)를 이용하여 외성 라인으로 삼고 성내최저점을 배후의 계곡 분지쪽으로 여는 상황은 협산성의 많은 산성에서 지적할 수 있으며 방어성을 고려한 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완산성은 성벽 최저점인 수문부가 평지까지 내려오고 평야쪽에 정면을 향하게 하여 배치되어 있다. 독립봉우리가 아니라 주산괴를 배후에 가지는 지봉에 선지하여 성역 배면측에는 일부 성벽을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협산성에 비해 방어성이 떨어지고 특수·의식화된 입지라 할 수 있다. 협산성은 북부 큐슈~세토나이 연안에 넓게 전개되는 데 비해 완산성은 북부큐슈 중에서도 아리아케해 연안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다.

협산성에서는 성 밖에서의 진입경로를 수성에 유리하도록 성문위치를 능선줄기에서 약간 옆으로 두고 진입로를 돌아들어가게 만들어 측면 화살공격을 하거나 계곡부에서는 성벽을 전방으로 내어 달아 좌우에서 부감·협공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다. 문을 들어간 장소에 차폐물(벽·바위)을 둔 사례도 있다. 반대로 완산성에서는 이 같은 방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 2)성벽의 구조

성벽에는 “석축”과 “토축”이 있는데 일본의 고대산성의 외곽선은 기본적으로 판축토루가 많고 석루 중에서도 백제식 “토심석축” 구조로 된 것이 있다. 성벽선이 계곡을 통과하는 개소에는 토축성의 경우에도 석루를 높이 쌓았고 석루 안에 암거형태의 통수구(수문·수구)를 설치하고 있다.

성벽의 형태에는 “협축(양벽식)”과 “내탁(외벽식)” 두 종류가 있다. 한반도의 성벽에서는 내탁형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의 고대산성에서는 성 내측에 산의 사면을 두고 걸치듯이 만들어진 토단(壇) 모양의 토루가 많다. 성벽 폭은 6.5~9m이고 내탁식 토루의 성벽 높이는 3~5m로 높아서 대인차단성이 뛰어나고 루의 배후에는 성내 통로가 부설되어 있다. 토단 모양 토루의 성벽 높이는 1.5~3m로 낮다.

석루의 돌쌓기는 야면쌓기나 약간 정형가공을 한 할석쌓기와 정교한 절석쌓기가 있으며 가로로 줄눈이 지나가는 켜쌓기(누노즈미:布積み)라고 불리는 기법을 취하고 있다. 외벽면 각도는 60~80도, 절석쌓기에서는 90도에 가깝다. 절석쌓기 석루에서는 내부는 율석으로 채웠으며 석루의 구축방법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토루구조에 대해서는 ‘고고이시(神籠石)계 산성=열석 있음, 조선식 산성=열석 없음’이라는 이미지가 기존에 정착되어 있었지만, 조사의 진전에 따라 오노성(大野城)이나 기쿠치성(菊智城), 사누키키야마성(讃岐城山城) 등 조선식산성이라고 여겨져 왔던 산성에서도 토루 기저부의 열석이 확인되기에 이르러 열석의 유무만으로는 분류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었다. 열석에 관한 조사 소견에서 중요한 사실은 열석의 “비노출(이른바 묻어버리기)”이다. 비노출의 경우, 본래 토루 완성시에는 열석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며 열석의 유무가 분류지표

로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열석의 비노출 노출이야말로 지표로서 주목된다. 그리고 열석의 비노출·노출은 열석의 절석사용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에서도 토루 기저부에 열석(기단석)을 가지는 산성이 확인되고 있는데 활석을 1~2단 쌓아 올렸으며 북부 큐슈와 같은 절석열석은 보이지 않는다. 삼국시대 말경부터 열석 사용이 시작되어 통일신라시대(8~9세기)에 보급되었으며 한국의 열석 사용이 시작된 시기는 일본의 고대산성 도입기와 거의 같은 시대라 할 수 있다.

열석 전면에 주열(柱列)이 동반되는 사례도 많으며 판축공사 흙막이널의 지주로 보인다. 토루 내부에서 주열이 출토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토루 구축 전에 세워진 후 그대로 묻힌 것이다. 토루 안팎의 기둥은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열간격은 1.6~1.8m(오노성·기쿠치성), 1.8m(고쇼가다니성), 2.19m(이와키산성) 등 짧은 것도 있지만 3m 간격의 사례도 많다. 한국의 영정주(永定柱)간 거리의 연구로 미루어 3m 간격의 사례가 나중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판축기법으로 구축되었어도 열석 전면주를 가지지 않는 토루도 있으며 라이잔성이나 하키성, 토바루산성처럼 열석만 배치하고 상부의 토루를 만들지 않은 산성에서도 전면주는 출토되지 않았다.

외곽선이 직선을 한 단위로 주행하여 접속부에 “격이는 구조”를 가지는 산성이 세토나이의 여러 성들과 북부 큐슈의 일부 산성에서 보인다. 아리아케해 연안부의 완산성은 “곡선”주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외곽선 주행에 크게 동서 두가지 타입이 있다. 문헌에 기록이 있는 산성에 대해서도 격임이 확인되고 있다.

### 3)성문과 성내시설

산성의 제반시설로서는 성벽본체에 동반되는 성문, 치성, 내용성 등과 성내의 건축물(창고, 병사, 관리동 등)과 저수지·우물 등이 있다.

성문에는 “평문식”과 “현문식”이 있으며 일본에서도 현문식의 확인 사례가 증가해왔다. 또 고대산성의 성문은 문초석(지주석)이 남아 있는 사례가 많고 원형이나 방형의 굴림주를 세우기 위한 용도로 파낸 자리가 있는 것과 초석을 세운 것이 있다. 세토나이의 산성에는 공통적으로 방형으로 잘라낸 자리가 있는 “그자형 지주석”이 보이고 양식과 치수가 몹시 유사하여 축성주체나 연대가 동일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오노성(大野城 :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 우미초)이나 키이성(基肄城:사가현키야마초)에서는 성내에 초석 창고 건물군이 40~60동 확인되었으나 다른 산성에서는 건물의 발견사례는 적고 축성초기에는 굴림주건물이 주체였다고 보여진다. 키노성(鬼ノ城:오카야마현 소자시)에서는 창고건물, 병사, 대장간 등 기능별 배치가 판명되고 있지만 코고이시(神籠石)계 산성의 대부분에서는 성내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 (1) 백촌강전투 패배후 덴지천왕조(天智朝)에 대외적인 긴장에 따라 축성

660년(齊明6)의 백제 멸망후, 왜는 백제부흥 운동을 지원하여 출병했지만 663년(天智2)의 백촌강 전투에서 대패하고 한반도에서 퇴각한다. 백제부흥의 꿈은 허물어버렸지만 강대한 당의 육해군이 백제정복의 여세를 몰아 일본으로 쳐들어 올지 모르는 위험이 생겨났다.

패전 다음해 664년(天智3)에 츠시마(對馬)·이키(壹岐)·츠쿠시(筑紫)에 수비병 사키모리와 봉화를 설치하고 미즈키(水城)가 축조되었다. 미즈키는 하카다만 안쪽에 방위선으로서 축조된 대형 토루로 높이 10m, 기저부 폭 80m, 길이는 약 1.2km에 이른다. 하카다만 쪽에는 폭

60m의 수호(水濠)가 있었다. 마즈키 축조 다음해인 665년(天智4) 8월에는 백제 사람 오쿠라이 후쿠류(憶禮福留) 일행을 파견하여 오노·키이성과 나가토노쿠니(長門國)에 축성했다.

오노성(大野城)은 다자이후(太宰府)의 북쪽 시오지산(四王寺山 : 표고410m)에 둘레 6.3km의 토루가 둘러져있다. 다자이후 남쪽의 수비를 위해서는 키이성(基肄城)이 만들어졌고 미즈키(水城)/쇼미즈키(小水城)와 하나가 되어 다자이후를 둘러싸는 일종의 나성을 형성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으로서 백제 부여와의 관련이 지적되고 있다.

다자이후는 “사람과 물건이 크게 흥하는 천하의 대도시(人物殷繁にして、天下の一都會なり)”라 평해진 것처럼 타국과 달리 조방제도에 따른 거리구획이 존재했다. 헤이조쿄(平城京)는 주작대로의 폭이나 면적이 중국 장안성의 2분의 1 축도로 설계되었는데 다자이후는 그 헤이조쿄의 절반 규모로 만들어졌다. 후지와라쿄나 헤이조쿄와 마찬가지로 다자이후에도 나성은 없지만 그 대신 오노성(大野城)이나 미즈키(水城)등 다자이후를 둘러싼 여러 산들에는 방위시설이 만들어졌다. 미즈키의 서쪽에는 구릉의 계곡을 막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소규모의 토루가 몇군데 만들어졌고 쇼미즈키(小水城)라고 불리고 있다.

최근 마에하타(前畑)유적(후쿠오카현 치쿠시노시)에서 구릉위에 길이 약 500m의 토루가 발견되어 다자이후를 둘러싸는 둘레 50km에 이르는 나성이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후의 조사에서 주변의 구릉이나 산지에는 토성이 없고 판축의 구조도 고대산성이나 미즈키와는 달라 시기나 성격에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sup>6)</sup>(주5).

667년(天智6) 3월에 오미오츠노미야(近江大津宮)에 천도하고 11월에는 타카야스(高安)·야시마(屋嶋)·카나타(金田) 성을 축조, 긴 중심방어로의 이행 구축을 시작했다.

## (2) 텐무왕조 이후는 국내지배의 거점으로써 정비

문헌에 기록이 없는 고고이시(神籠石)계 산성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사이메이 천왕 4년 제사이조(是歲條) 분주(分注)의 “繕修城柵”의 기술에서 백제구원의 진두지휘를 맡기 위해 큐슈에 내려간 사이메이 천황에 의해 축성되었다고 하는 설이 주장되어 북부 큐슈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키노성(鬼ノ城)의 발굴조사가 진전됨에 따라 그 축성·유지된 연대가 7세기 제 4분기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사이메이 천황 축성설의 연구자들에게 재고가 요구되게 되었다. 고쇼가다니성(御所ヶ谷城 : 후쿠오카현 유쿠하시시)이나 에이노산성(永納山城 : 아이치현 사이조시)등 문헌에 기록이 없는 다른 산성에서도 7세기 후반~8세기 초경의 토기가 출토되는 사례가 증가했고 문헌에 기록이 없는 산성은 오래되었다는 설이 오류로 판명되었다(무카이 2016).

많은 산성의 축성 연대가 7세기 후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텐무왕조에 다자이·총령이 위치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고대산성이 만들어졌다는 설이 주목받게 되었다. 서일본의 요지인 “츠크시(筑紫)”, “스오(周防)”, “이요(伊予)”, “키비(吉備)”에는 670~680년의 시기에 광역 행정블록이 깔렸고, 산성은 이 다자이·총령제의 핵이 된 듯하다. 산성 축성은 단순히 방위

6) 마에하타(前畑)유적에 대해 단독의 소형산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설도 있다(山田2020). 많은 연구자는 다자이후 남쪽의 세키야·토레기토루(關屋・とうれぎ:사가현 키야마초)는 아리아케해에서 의 침입을 막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세키야토루의 옛모습에서는 북쪽이 급경사로 해자처럼 폭 파진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키이성(基肄城)과 함께 하카타만 쪽을 경계한 관애였을 가능성이 있다(鏡山1968). 오노성(大野城)이나 미즈키(水城)의 축성시에는 큐슈의 거점은 하카타만 쪽의 나노츠노미야케(那津官家(那珂·比惠遺跡)에 있으며 다자이후부근에 츠크시다자이(筑紫太宰)가 건설된 것은 7세기 제 4분기 이후이다. 츠크시다자이에서 다자이후가 정비되어 가는 가운데 이 지역의 방위시설 의기능이 단계적으로 변화해 갔다는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망을 구축하는 것만이 아니다. 무기를 거두어들여 집중관리하고 호적을 통해 민중을 파악함으로써 “군국체제”를 수립하는 것에도 연동된 사업이며 호족연합과 같은 왜국을 중앙집권국가로서 한단계 상승시키기 위한 중요한 “축성”이었다고 여겨져 오고 있다(스즈키 2011).

고대 산성의 분포는 산인(山陰)에 없고 키나이(畿内)주변에는 다카야스성(高安城)밖에 없다. 북부 큐슈에서 세토나이해 연안이라는 6세기 후반~7세기대의 왜왕권의 지역지배의 중심지역과 겹친다. 그 축성은 663년의 백촌강 전투패배로 인한 대륙으로부터의 방위가 계기가 되었지만 서일본 주요부의 지역지배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도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sup>7)</sup>.

### (3) 큐슈의 고고이시(神籠石)계 산성은 “보여주는 산성”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해 ①오노성(大野城) 등의 조선식산성(텐치기(天智紀)산성, 험산성), ②세토나이의 고고이시(神籠石)계 산성(험산성), ③북부큐슈의 고고이시(神籠石)계 산성(완산성)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대외방위”에서 “울령제화·지역지배”의 거점으로라는 기능차이로 단계적으로 축조되어 간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대가 됨에 따라 군사성은 저하되어 간다(①→②→③).

특히 북부큐슈의 고고이시(神籠石)계 산성에서는 외곽선의 일부가 만들어지지 않고 평야측만 외곽선이 둘러쳐지는 사례가 매우 많다. 이들 성을 미완성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교통로로부터의 시각을 의식한 구축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산기슭의 역로나 관아와 같은 시설로부터의 시각을 중시한 성곽을, 전투·농성용 산성에 비해 치적 시위를 목적으로 한 “보여주는 산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무카이 2016).

### (4) 나라시대가 되면 잇따른 폐성

701년(大宝1), 다카야스성(高安城)이 폐쇄되고 719년(養老3)에는 빈고국(備後國)의 이바라성(茨城)과 츠네성(常城)이 정지되는데 8세기 초두, 세토나이의 많은 고대산성이 폐성되어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큐슈만은 다자이후(太宰府)라고 하는 형태로 타이호(大宝) 울령제하에서도 사이카이도(西海道:큐슈)를 총감하는 기구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오노(大野)·키이(基肄) 두 성은 유지된 듯하다.

### (5) 신라정벌계획과 이토성(怡土城)

나라시대 후반인 756년(天平勝宝8) 6월부터 이토성(怡土城:후쿠오카현 이토시마시)의 축성이 시작되었다(완성은 768년). 신라정벌계획에 관련하여 기획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벌계획 자체의 준비는 759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토성의 기공이 몇 년 빠르다.

이토성(怡土城:후쿠오카현 이토시마시)은 표고 416m의 타카스산(高祖山)에 지어진 둘레 8km의 일본 최대의 고대 산성이다. 다카스산의 꼭대기에서 평지부에 걸쳐 사면 일대를 넓게 둘러싸듯이 성곽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의 병법에 능통한 키비노마키비(吉備眞備)가 축성을 지도했다는 점에서 중국식 산성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산꼭대기에서 능선을 따라 9개소에 망루(적루)가 만들어졌고 서쪽 산기슭에는 외호를 동반하는 약 2.5km에 이르는 토루(폭 약

7) 고대산성축성에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세토나이해 연안에는 지역지배강화와 해외 출병을 위한 항로확보를 목적으로 한 凡直國造가 설치되었다.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외교에 있어 크게 활약한 紀世와 그 동족집단도 세토나이해 연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호류지(法隆寺)莊倉과 호류지식 수막새 기와가 분포되어 상궁왕가(上宮王家)의 영지와와 관계가 지적되고 있다. 상궁왕가령이 되기 이전에는 모노노베씨(物部氏)령이었다고 생각된다. 『일본서기』에 기재된 미야케의 분포 역시 대한해협(日本海)쪽에는 없다.

20m, 높이 약 7m)가 둘러져있다. 산기슭에는 3개소 정도 성문터가 확인된다.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성내 중앙(陣ノ内)에는 관아도 있었을 것이다.

762년(天平宝字6)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던 신라정벌계획은 군선 394척, 병사 4,700명을 동원하는 본격적인 원정 계획이었지만 발해와 당의 관계개선에 의해 발해와의 군사연대가 무너지고 그 해 말경, 갑자기 중지되어 버린다.

#### (6) 오노성(大野城)과 키이성(基肄城)은 식량비축기지화

오노성(大野城)에서 60동, 키이성(基肄城)에서 40동이라는 농성에 대비한 창고군이 성내에 몇십동이나 늘어서있는 모습은 고대산성의 이미지로서 고정화해 있다. 그런데 카나타성(金田城:나가사키현 쓰시마시)에서는 지금까지 6동의 건물터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소규모의 굴립주만 있고 창고와 같은 모든 칸에 기둥을 세운 총주건물(總柱建物)은 한동도 없다. 키노성(鬼ノ城)은 초석을 세운 측주건물(側柱建物) 두 동, 창고라고 생각되는 총주건물이 5동 계획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오노성(大野城)과 비교하면 동 수는 얼마 안된다.

오노성(大野城)의 창고군 건설시기에 대해 현재는 출토된 기와나 초석건물의 기둥간 거리를 바탕으로 나라시대-8세기 후반~9세기대에 창고군이 잇달아 증축되었다고 생각된다(아카시 2014). 창고는 비축미를 모아둔 부동창이었다고 보여지며 이른바 식량비축 기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는 화폐경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축미=재원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다자이후는 독자의 재정기반이 없고 사이카이도(西海道) 6국의 세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것이 8세기 후반 경부터 모든 나라들로부터의 세수가 정채되게 되었고 다자이후의 독자재원확보 노력이 9세기까지 걸쳐 계속되었다. 오노(大野)·키이성(基肄城)의 창고군도 다자이후 독자재원이 일부였다고 생각된다.

오노(大野)·키이성(基肄城)과 함께 698년(文武2)에 보수된 키쿠치성(鞠智城:쿠마모토현 야마가시·키쿠치시)이 다시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858년(天安2)의 일인데 이 때는 키쿠치성원(菊池城院)이라고 호칭이 바뀌어 있었다. 키쿠치성(鞠智城)은 8세기 전반에 일단 폐지되었으나 9세기에 다자이후와 히고국(肥後國)을 중심으로 하는 기근대책-공영전제도의 기지=창고군으로서 재이용된다.

#### (7) 9세기 후반 - 고대산성의 종말

나라시대 말기 774년(宝龜5), 오노성(大野城)에 사왕원(四王院)이 신라등 이적의 항복을 기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도 산꼭대기에는 히사문도(毘沙門堂)가 남아있다. 경총(經塚)도 다수 발견되었다. 키노성(鬼ノ城)에서는 와탑편이 출토되었으며 성내의 초석건물이 있었던 장소를 재이용하는 형태로 헤이안기(平安期)에 산악사원이 만들어졌다.

다른 고대 산성에서도 폐성 후, 헤이안기에 종교시설이 만들어진 사례가 많다. 코우라산성(高良山城)의 코류지(高隆寺(코라다이지))나 이와키산성(石城山城)의 이와키 신사(石城神社), 야시마성(屋嶋城)의 야시마사(屋島寺), 츠네성(常城)의 쇼모쿠지(靑目寺), 타카야스성(高安城)의 신키산 초고손시사(信貴山朝護孫子寺) 등 세토나이의 고대산성을 중심으로 산악사원이나 시키나이샤(式内社)가 만들어졌다. 헤이안기는 국가불교의 시대이며 산성터가 국가의 관리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노성(大野城)이나 키쿠치성(鞠智城)이 산성으로서 언제쯤 사용되지 않게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고 알려져 있지 않다.

#### IV. 토호쿠(東北) 성책

##### 1. 산성과 성책

고대 일본에서는 동서의 국경지역에 고대 성곽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산성=대외방위시설, 성책=토호쿠의 지배거점(관아)라고 파악하고 성격이 다른 시설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조사의 진전에 의해 성책에도 토루와 해자를 이용한 강력한 외곽선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sup>8)</sup>.

##### 2. 에미시(蝦夷)지배와 성책

7세기 중반부터 9세기 초두에 걸쳐 토호쿠지방에는 에미시와의 경계영역에 성책이 설치되었다. 이들 성책은 고대국가가 에미시 지배의 거점으로 만든 시설이다.

에미시라는것은 토호쿠지방에 사는 토착민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에미시라는 호칭의 실질적인 의미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서 그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율령국가가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7세기에 국한해서 본다면 일종의 의사적 에스닉 집단 - 왜왕권입장에서 본 “촌놈”이라 할 수 있다. 토호쿠의 중부지역은 4~5세기대에 걸쳐서는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하는 조쿠조몬(續縄文)계 집단이 남하하여 남쪽의 고분문화인들과 섞여사는 상태에 있었다. 이 시대의 조쿠조몬문화는 수렵 등 유동성이 높은 생업이 바탕이 되었다고 추정된다. 토호쿠 중부의 거점적 취락에는 조쿠조몬문화인과 고분문화인이 공생하고 있으며 피혁가공용 석기(가죽을 무두질하기 위한 라운드스크래퍼)가 다량 출토된다는 점에서 모피교역이 성행했던 것 같다.

성책에 대해서는 세계대전 전에는 개척사관에 바탕하여 에미시 정벌을 위한 성책이라고 파악하고 있었지만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이후의 발굴조사에 의해 중심부의 관청 등이 중앙관청(國府)와 매우 흡사하고 외곽이 토루가 아니라 토담이나 목재담장이라고 판명되었기 때문에 관청설이 제창되게 되었다.

고대 일본의 관아에는 고쿠후(國府)나 군아(郡衙)가 있다. 율령국의 통치거점인 고쿠후는 헤이조쿄(平城京)등 도성의 미니어처관아라고 할 수 있는데 코쿠후나 군아의 제반 시설을 둘러싼 외곽시설(토담, 울타리, 해자 등)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관아의 관청부분은 50~100m 정도의 방형구획 안에 정전(正殿)과 동서로 뻗은 협전(脇殿)이 그자 형으로 배치되고 둘레에는 토담이나 해자로 둘러쳐져 남문이 열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수도의 조도인(朝堂院)의 축소판인데 건축적으로는 고대사원과 다른 점은 없으며 성곽의 요소는 없다.

##### 3. 성책의 구조

태평양쪽에서는 내륙의 키타카미가와(北上川)를 북진하여 시와성(志波城)까지 이르고, 대한해협(日本海)쪽에서는 군데 군데 석호(라군)를 항구로 이용하면서 북상, 아키타성(秋田城)이 최북단의 성책이 된다. 약 160년 동안 설치된 성책은 20에 이른다.

성책의 입지는 평지 혹은 구릉이고 평지의 경우에는 평면형이 정사각이지만 구릉지에서는

8) 성책에 망루모양의 건물이 부설되어 있었다는것은 처음 조사할 때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그 군사성은 저평가되어 있었다. 성내 중앙부의 구조가 관아같다는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해자나 토루 뿐 아니라 타가성(多賀城)의 동쪽부근 성외측에는 가시나무 울타리가 쳐져있었고 묘다테관아유적(名生館官衙遺跡)과 텐진마에유적(天神前遺跡:미야기현 오사키시)에서는 陷馬坑이라고 생각되는 유구도 지적되고 있다(古川2017).

지형의 제약을 받아 부정형이 되었다. 시설 중앙부에는 관청을 두고 그 주위에는 조사(실부 관아)를 배치하고 외곽은 목재열, 토담, 토루 등으로 둘러쌌다. 외곽의 필요한 부분에 망루와 같은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방어를 굳히고 있다. 규모는 최대급인 타가성(多賀城)이 사방 900m, 시와성(志波城)은 사방 840m이고 거기에 외호가 둘러싸고 있다. 가장 작은 토쿠단성(徳丹城:이와테현 야하바초)은 사방 350m이다. 관청 구획은 사방 100~150m를 토담장으로 둘러싸고 정전과 동서협전이 그자형배치를 이루고 있다.

기본은 방형의 관청과 외곽에서 둘러싸는 이중외곽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8세기 후반 이후, 에미시와의 군사충돌이 본격화하자 성 밖의 인접지에 있었던 취락을 성내로 끌어들이는 삼중외곽 구조가 되었다. 타가성(多賀城)에서는 조방이 만들어졌고 성책에 부속하는 도시도 형성되었다.

토호쿠 성책은 에미시에 대한 군사적인 거점이기도 했는데 행정적인 시설이기도 하며 이 점이 서일본에서 만들어진 고대산성과 크게 다른 점이다. 성내의 시설내용은 범령국을 통치하는 고쿠후·관청과 많이 비슷하여 이른바 “무장한 관아”라고 할 수 있다.

#### 4. 누타리노사쿠(湍足柵)·이와후네노사쿠(磐舟柵)와 코오리야마유적(郡山遺跡)

647년(大化3)과 이듬해 코시노쿠니(越國)에 누타리노사쿠(湍足柵:니가타현 니가타시 히가시구 누타리)와 이와후네사쿠(磐舟柵:니가타현 무라카미시 이와후네)가 만들어졌다. 두 성책의 유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코오리야마유적(郡山遺跡:미야기현 센다이시)의 발굴조사에 의해 무츠노쿠니(陸奥國)쪽에도 동시기에 성책이 설치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코오리야마유적(郡山遺跡)의 관아는 신구 두 시기가 있다. 1기 관아는 7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으며 북쪽에서 동쪽으로 약 30도 경사진 동서 300m×남북 600m의 장방형의 구획을 가진다. 외곽은 목재 담장이고 내부는 다시 몇 가지의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다. 코오리야마 하이 지(郡山廢寺)가 부속하는 새로운 2기 관아는 7세기 말경에 개축된 것으로 정방위를 가지는 4정사방(428m)의 규모로 외곽은 목재담장과 큰 도랑이 둘러싸고 있다. 중앙에 그자형 배치를 하는 관청구역과 돌바닥의 광장, 둥근자갈을 깔 방형 연못 등이 출토되었으며 평면플랜은 후지와라궁과 비슷하다.

7세기대의 토호쿠(東北)남부에서는 칸토(關東)계 토기가 출토되는 위곽취락이 후쿠시마현에서 미야기현 북부에 걸쳐 발견된다. 위곽취락은 주위에 구획고랑과 목재담장을 두른 방위적인 구조를 가진다. 칸토(關東)계 토기가 다량 출토되었으며, 이 시기 칸토에서 다수의 주민이 이동해 왔다는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서에서는 성책 건설→책호(柵戶:이민취락)의 설치로 이어지는데 토호쿠로의 칸토에서의 이주→위곽취락의 출현→관아형 성책건설이라는 유적의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반대인 듯하다. 애초에 성책은 칸토계 이민의 토호쿠 진출을 따라 만들어 졌고 토호쿠 중부의 교역거점을 군사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 5. 타가성(多賀城) 창건과 덴표(天平) 5책

713년(和銅6)의 니토리군(丹取郡)설치, 715년(靈龜元)에 아즈마노쿠니(東國) 6국에서 부유한 농민 천 세대가 내륙의 안쪽으로 이주해 왔는데 이것은 이 시기 최대급 규모이고 오자키(大崎) 평야로의 입식이 본격화했다. 이 움직임과 연동하여 724년(神龜元)에 타가성(多賀城:미야기현 타가초시)이 축성되고 코오리야마(郡山)유적에서 미오치코구후(陸奥國府)가 이전했다.

737년(天平9)의 덴표 5책은 타가성(多賀城) 창건과 같은 무렵 오사키·오시카 지방에 지어진 성책으로, 몇가지의 유적이 판명되고 있으며 오사키평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식민과 성책

관아의 정비에 의해 토호쿠 중부의 에미시 지배체제의 강화가 이루어진 점을 엿볼 수 있다.

타가성(多賀城)은 마츠시마 구릉의 끝 부분에 입지하여 코오리야마(郡山)유적과 비교하면 높은 곳에 있다. 외곽의 형태는 찌그러진 방형이고 주위는 기저부 2.7m, 높이 5m의 돌담으로 둘러쳐져 있으며 남·동·서에 문이 뚫려있다. 성내 중앙부에 중요한 정무나 의식, 연회 등의 장소가 있는 관청이 있으며 성내의 각 장소에 조사(曹司:실무 관아군)나 병사의 주거 등이 배치되어 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창건기의 외곽남문은 타가성비가 있는 언덕위에서 발견된 외곽남문 터보다도 약 120m 북측(안쪽)에서 확인되었고 창건기 남문에는 목재담이 둘러져 있었다.

### 6. 모노우성(桃生城)과 이지성(伊治城)

8세기 중반이후가 되면 무츠노쿠니(陸奥國)에서는 카이도(海道)에 모노우성(桃生城: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이, 산도(山道)에 이지성(伊治城:미야기현 쿠리하라시)이 만들어졌다. 오사카·오시카 지방(大崎·牡鹿地方)의 지배를 더 확대하려고 기획한 것이다.

759년(天平宝字3)에 만들어진 모노우성(桃生城)은 비교적 급사면을 이루는 표고 80m의 구릉 위에 만들어졌으며 토호쿠지방의 성책 중에서는 가장 고대 산성에 가까운 입지를 가진다. 동서 800m, 남북 650m의 외곽선은 지형에 맞춘 부정방형이고 중앙의 관청이 있는 내곽의 동서에 복곽이 만들어지는 독특한 평면 플랜이었다. 767년(神護景雲1)에 만들어진 이지성(伊治城)은 하안단구 위에 입지한다. 취락을 둘러싼 외곽의 남측에 평행사변형의 내곽과 관청이 설치되었다. 외곽은 동서 700m, 남북 900m에 이른다. 북쪽 끝에는 폭 7.5m, 높이 2.5m의 토루와 그 내측에 폭 10m, 깊이 3.5m의 큰 도랑(해자)이 발견되었다.

모노우성(桃生城)의 북측과 이지성(伊治城)의 외곽은 이중 토루로 이루어져 있고 이전의 성책에 비해 엄중히 방어를 굳히고 있다. 이 두 성은 에미시의 영역에 대한 침략거점이며 때문에 에미시로부터 강한 반발·저항을 받게 되었다.

히가시야마 관아유적(東山官衙:미야기현 카미마치)에서는 외곽의 구릉지에 동서 600m, 남북 1.2km에 이르는 이중 해자와 토루(하야카제早風유적)가 둘러져있고 고대 산성을 방불케 한다. 히가시야마 관아유적의 남쪽에서는 타가성(多賀城)과 비슷한 조방도시(단노코시壇の越유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서쪽 단구의 끝을 따라서 돌담과 목재담으로 이루어진 구획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히가시야마 관아유적군은 737년(天平9)에 시작된 무츠노·데와 연락로 구축사업의 기점으로 건설된 카미군이라고 보여지며 토호쿠성책 중에서는 내성과 조방도시, 외성이 있는 가장 잘 정비된 삼중외곽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지성(伊治城)의 남쪽에 위치하는 미야자와유적(宮澤遺跡:미야기현 오사키시)은 비교 고도 15~35m인 완만한 구릉을 중심으로 주위의 평지를 감싸는 변칙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 북서부의 부분적 발굴조사에 의해 담장·토루·고랑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곽시설이 확인되었고 동서 1.4km, 남북 850m가 유적의 범위라고 생각된다.

### 7. 데와노쿠니(出羽國) 쪽 성책

무츠노쿠니(陸奥國)쪽의 타가성 설치와 오사카·오시카지방의 지배강화에 이어 데와노쿠니 쪽에서도 성책의 북진이 계획되었다. 733년(天平5) 데와성책(出羽柵)이 아키타 다카시미즈오카(秋田村高清水岡)로 이전한다 - 아키타성(秋田城)의 설치이다. (天平宝字年間に 개칭)

아키타성(秋田城:아키타현 아키타시)은 오모노가와(雄物川)의 하구 근처, 표고 40m 정도의 구릉위에 위치한다. 외곽은 부정형 방형이고 관청은 일곱 시기의 변천이 확인되고 있다. 외

곽은 기저부 폭 2m의 토담이고 후에 굴림주 담으로 개축되었다. 외곽의 12개소에서 망루건물이 발견되었다. 관청의 동문에서 대로가 이어지는 우노키(鵜ノ木)지구부터 영빈관이 아닐까 추정되는 유구나 연못, 부속사원 등이 출토되고 있다.

878년(元慶2)의 간교의 난(元慶の亂)에서는 아키타·요네가와 유역의 부수(귀순한 에미시)가 봉기하여 반란세력에 의해 아키타성이 함락되었다. 반란의 피해 보고의 사료에 따르면 관사 161채, 성루 28채, 성봉루 27기, 광봉루 61기가 소실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무츠·데와 연락로를 따라 이어지는 내륙의 요코테분지(横手盆地)에는 제2차 오카치성(雄勝城)이라고 주목받는 훗타성책(拂田柵:아키타현 다이센시 미사토초)이 있다. 훗타성책은 신잔과 나가모리의 작은 구릉을 타원형으로 외책이 둘러싸고 있다. 외책은 각재를 늘어세운 목재담장인데 각재의 연륜연대는 801년(延曆20)경의 벌채라고 판명되었다.

### 8. 이사와성(胆澤城)과 시와성(志波城)

774년(宝龜5), 카이도의 에미시에 의한 모노우성(桃生城) 함락 이후, 38년 전쟁이 시작된다. 780년 3월의 고레하리노 아자마로(伊治昔麻呂)의 난에서는 미치시마노오오다테(道島大楯) 등이 살해되고 이지성(伊治城)이나 타가성(多賀城)이 습격을 받아 함락되었다. 789년(延曆8) 3월에는 5만명을 넘는 정벌군이 스부세진투(巢伏の戦い:이와테현 오슈시 미즈사와구)에서 대패를 맞보았는데 801년(延曆20), 정이대장군·사카노우에노타무라마로(征夷大將軍·坂上田村麻呂)의 정벌로 타모노키미·아테루이(大墓公·阿弼利爲)등이 화평에 응해 항복했다.

엔라쿠(延曆)력 동안의 에미시정벌의 결과로서 이자와성(胆澤城)과 시와성(志波城)이 만들어졌다. 이자와성은 802년, 시와성은 그 다음해에 축성되었다. 시와성의 성내에는 관아군 뿐 아니라 외곽 축지 내측에 천동이 넘는 수혈주거(병사)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 남문의 좌우에 각 7동. 합계 14동의 망루상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시와성은 토호쿠지방 최대급의 성책이며 축성당시의 중요성은 이자와성을 능가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두 성은 38년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에미시 정벌이 끝난 후에 축조되었다. 이 두 성은 이자와~시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거점이었으며 평지에 입지하여 방위적 플랜이 아니다.

### 9. 에미시 정벌과 향급(饗給)

성책에서는 조공을 해 오는 에미시에게 성주(城司)가 천황을 대신해서 향급을 실시했다. 성책의 임무는 군사적 정복뿐 아니라 향급과 관련된 부분도 컸다. 조공과 향급에는 조정(왜인) 측에게 있어서도 특산품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의미도 있었다. 성책은 이른바 “무역센터”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된다. 곰이나 사슴의 모피, 말, 사슴, 다시마 등의 북방 특산품은 수도의 왕신과 국사들에게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에미시와의 사적 교역 활동을 금지하는 제도가 나올 정도였다. 에미시 입장에서도 무기와 농기구 등의 철제품, 섬유제품, 쌀, 술, 소금 등의 식료품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왜인들 쪽의 산물은 집단내부에서의 족장의 권위를 높이고 주변 타집단과의 교역에도 이용되었다.

조공·향급 시스템의 영향은 홋카이도에까지 미쳤다. 802년(延曆21)에는 와타리노시마(渡嶋:北海道)의 북방민이 조정에 찾아와서 다양한 모피 등을 바쳤으며 토호쿠 지방에서 많이 발굴되는 켈수도가 홋카이도의 오호츠크문화의 분묘에서 출토되기도 한다.

### 10. 에미시 정벌의 종료

811년(弘仁3)에는 혼야노와타마로(文室綿麻呂)의 건의로 니삿타이(爾薩體:이와테현 니노헤시 니사이타이)·헤이(弊伊:이와테현 미야코시) 두 마을의 정벌이 마지막 에미시 정벌로 실시되었다(38년 전쟁 종결). 시와성은 수해를 이유로 812년경 남쪽 15km로 이전한다. 율령국가 최후의 성책이 되는 토쿠탄성(徳丹城:이와테현 야하바초)이다. 토쿠탄성은 9세기 중반까지 유지되었고 이사와성(胆澤城)으로 흡수된다.

타가성(多賀城)에 있었던 진수부(鎭守府)가 이사와성으로 옮겨지자 이사와 진수부의 기구 정비가 진행되었고 이사와성도 9세기 후반에 초석기둥, 기와지붕으로 개축되었다. 10세기까지 존속한 성책은 여섯 성책이었다.

### 11. 10세기 후반-성책의 종언

토호쿠의 성책은 10세기 중반~후반에는 쇠퇴·소멸한다. 성책의 주변에서는 이미 9세기 후반 경부터 관청과 비슷한 건물배치의 유적이 출현하고 있었다. 국사관(國司館)이나 성사관(城司館)이라고 생각되는 유구에서 방-초(町:마을)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 주전(主殿)을 중심으로 협전 등을 갖춘 저택이다. 국사(國司)나 성사(城司)가 받아들여져 정무가 징세청부적 성격으로 특화된 체제하에서는 율령적 의례를 행하는 시설을 유지할 필요성이 흐려지고 국사관 등으로 중심이 옮겨갔다.

## V. 고대성책이후의 북토호쿠의 환호취락·관

### 1. 북토호쿠의 방어성취락

10세기 후반이 되면 북토호쿠(아오모리현·이와테현·아키타현 북부)에서는 해자를 두른 환호취락이나 산지에 입지하는 고지성취락 등 적의 공격에 대비한 취락 - 방어성취락이 출현한다. 약 100개소의 취락이 수계를 따라 그룹화해가는 상황은 야요이시대의 고지성취락과 매우 흡사하다. 방위성취락에는 몇 가지 종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입지에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비고차가 있는 고지에 입지하는 것과 대지 위 또는 꽃 모양 지형의 선단부에 입지하는 것이다. 또 환호의 배치형태에 따라 주요한 몇 채의 수혈식주거를 카라보리(空堀:물이없는 해자)로 둘러싸고 후배지에 취락을 배치하는 “카미키타형(上北型)”과 취락전체를 둘러싸는 “즈가루형(津輕型)”으로 나눌 수 있다.

방어성취락은 율령국가에 의한 에미시 정벌 후 율령국가의 권외에 있는 북토호쿠에 출현했으며 에미시의 세계에 전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방어성취락은 12세기까지 일체히 모습을 감춘다. 이것은 11세기 말의 오슈후지와라시(奥州藤原氏)의 히라이즈미(平泉)정권이 수립되면서 북토호쿠 사회가 안정된다고 생각된다.

### 2. 아베·키요하라시(安倍·清原氏)의 책(柵)과 오슈후지와라시의 성관(城館)

11세기에는 무츠(陸奥)의 아베씨가 오쿠로쿠(奥六) 군사(郡司)가 되어 누카베(糠部:아오모리현 동부)에서 와타리·이쿠(亘理·伊具:미야기현 남부)까지도 지배력을 넓혀갔다. 데와(出羽)의 키요하라시는 오카치성(雄勝城)의 재청관인 출신으로 부수장(俘囚長)에 임명되어 센보쿠(山北) 3郡을 지배했다고 여겨진다. 아베씨는 6郡 내의 각지에 12책을 쌓고 일족이나 권력이 있는 가신을 배치하여 책을 거점으로 하여 지역을 지배하였다.

방위성 취락과 비교해 아베·키요하라씨의 거점은 규모가 매우 크고 토노미책(鳥海:이와테현 카네가사키초)처럼 복수의 구획으로 나뉘어, 성내에 4면 차양달린 건물 등 대형의 공적건물이 있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오토리아야마(大鳥井山:아키타현 요코테시)유적의 카라

보리가 두겹의 황굴 혹은 외토루를 두르는 접은 방어성취락의 전통이라고 생각되며 오슈후지와라시의 야나기노고쇼(柳之御所: 이와테현 히라이즈미쵸)유적에도 오토리아야마와 비슷한 대규모의 소토보리가 둘러져 있다.

오슈후지와라시의 관련성관(城館)은 북쪽은 아오모리현의 나카자키칸(中崎館:아오모리시), 이와테현의 히즈메칸(比爪館:시와쵸), 이나리쵸유적(稻荷町遺跡:모리오카시), 남쪽은 후쿠시마현의 진가미네성(陣ヶ峯城:아이즈반게마치) 등 대규모의 해자·토루로 둘러싸인 관터가 토호쿠 각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히라이즈미 방위를 위해 만들어진 아즈카시야마(阿津賀志山:후쿠시마현 다테군 쿠니미마치) 방루는 3.2km에 이르는 장대한 방루인데 이중의 해자와 삼중의 토루로 이루어져 방위성취락이나 아베·키요하라의 책(柵)과 같은 구축법을 취하고 있다. 이 구축법은 성곽의 외곽시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 3. 고대적성곽의 종언

오슈후지와라씨(奥州藤原氏)는 1189년(文治5), 미나모토노요리토모(源頼朝)에게 멸망당한다. 오슈후지와라씨의 멸망에 의해 해자와 토루로 구성되는 고대적 성곽의 축조도 맥이 끊기게 된다. 단곽으로 해자와 외토루를 둘러싸는 옛날식 산성은 야마가타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테피식산성이나 나가사키현의 이키노·마즈우라(壹岐·松浦)지역에 분포하는 마즈우라형 성곽 등 일부지역에서 잔존하지만 그 후의 일본의 성 타입으로서는 소수파이다.

무사관(武士の館) - 방형관의 성립은 통설에서는 카마쿠라시대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발굴조사에 의해 헤이안시대 후기(9세기 후반~11세기)의 관 터가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시기의 방형관(方形館)은 타토(유력농민)와 같은 “부호배”의 거점도 있는데 군아 등 관아에 관련된 시설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나 4면 차양이 달린 대형건물이나 녹유도기처럼 중앙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표현하는 장원의 정소적 시설도 있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주곽 시설로서의 해자도 폭 1~2m로 이미 좁고 방어적 역할은 약하다.

## VI. 중세식 토거관에서 근세 성하마을까지

### 1. 방형관의 시대에서 산성의 출현

물이 있는 해자와 토루로 둘러싸인 관(방형館) - 카마쿠라시대의 무사관의 이미지이다. “일편상인그림전”에 그려진 무사관이나 각지에 남아있는 카마쿠라무사의 전승을 가지는 방형관 유적의 존재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카마쿠라기의 무사는 방형관에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발굴조사가 진행되자 방형관으로서 지표에 남아있는 유적은 많은 부분이 14~1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명되었다. 12~13세기 단계의 거택은 전시대와 비교하면 파는 폭은 넓어지지만 토루의 존재는 뭐라 말하기 힘들다. 남북조의 전란이 일어나는 14세기 정도에 방어적 무사 거택으로의 전환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일본 중세성곽의 특징은 복수의 곡륜 조합을 통한 다중적 방위적 배치 플랜에 있다. 야요이 환호취락이나 방어성취락 등에서 때로 이중~삼중의 환호가 보이는데 이것은 차단선을 두껍게 함으로써 방위기능을 올리는데 있으며 곡륜의 조합에 의한 다곽화 = 측면화살공격담당과 호구방위를 구사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일본의 중세 성곽에서는 우선 방형관에서 다곽화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단순히 중심구획과 비슷한 형태로 외곽을 만들었지만 점차 복잡화해간다. 내성-외성의 이중방형구획을 가지는 성관은 내성(실성)-중성-외성의 삼중구조의 전국기 성관으로 발전해간다.

평지 혹은 구릉상의 성곽과 비교하면 중세 산성의 탄생은 수수께끼에 둘러싸였다. 산성의 출현은 남북조시대에 시작되지만 서서히 높은 산으로 입지를 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처음부터 높은 산을 이용하고 있다. 당시 산악사원이 활발히 성곽으로 이용되었던 것도 높은 산을 이용하는 이유였지만 산지에서의 토목조작의 어려움 때문에 자연의 협준함을 이용하고자 했던 면이 크다. 방어구축물로서는 능선이나 구릉을 끊어버리는 호리키리를 반복하는 형태가 많고 임시가설적인 조색류(바리케이트)를 산지의 요소에 설치해가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곡륜이 되는 부분은 대개 삭평에 공을 들이지 않았고 삭평하지 않은 부분도 많다.

고대 산성이나 성책의 부속이라고 할 수 있는 조색류를 재구축함으로써 중세산성이 성립되어 간다고 할 수 있는데 산성에서 대규모의 건축공사를 시행하게되는 것은 15세기 후반의 교토쿠·오닌의 난(享徳·応仁の亂) 이후의 군사적인 필요성과 동원력 증대를 가져야만 한다.

## 2. 중세 성하마을에서 근세 성곽으로

이후 15~16세기에 평지성관은 농성용 산성으로 셋팅되고 일본중세성관의 스탠더드가 성립된다. 중세 성하마을 유적의 전형적 사례는 에치젠 아사쿠라시(越前朝倉氏)의 이치조다니(一乘谷:후쿠이현 후쿠이시)유적인데 동서 약 500m, 남북 약 1.7km의 협소한 계곡에 성하마을이 건설되고 중앙에 해자와 토루를 두른 거관이 있다. 남쪽과 북쪽 계곡의 입구는 토루로 막혀 있고 성문이 만들어졌다. 거관의 동쪽 산꼭대기에는 이치조다니성(一乘谷城)이 만들어져 전체로서 하나의 커다란 성곽의 형태를 이룬다.

전국시대에는 지나이초나 무역항·사카이(界:오사카후 사카이시)도 환호·토루를 둘렀으며 일본에서도 도시외곽이 출현하게 된다.

## 3. 소가마에(總構え)의 출현

칸토를 지배한 고호쥬씨(後北條氏)의 오다와라성(小田原城:카나가오현 오다와라시)은 주위의 성하마을과 함께 폭 20m, 총연장 약 9km의 대외곽 = 소가마에로 둘러싸여 있었다. 타마나와성(玉縄城), 코즈쿠에성(小机城), 타키야마성(瀧山城), 하치오지성(八王子城) 등 “라인의 성”이라고 불리는 일선방어의 배치플랜은 고호쥬씨 성곽의 특징이다.

16세기 말에 전국통일을 이룬 오다·토요토미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쇼쿠보계성곽(織豊系城郭)은 테크니컬한 곡륜·뒤틀림형 호구배치와 돌담을 특징으로 하는데 임진왜란 때의 왜성 축성에서는 경사가 있는 돌담인 노보리이시가키(登り石垣)에 의한 외곽 축성이 도입된다.

오다와라성(小田原城)과 왜성의 소가마에(總構え) 축성기술이 오사카성(大坂城) 등 근세 성곽의 소가마에로 발전해간다. 곡륜의 다곽화에 의한 복잡한 배치플랜을 특징으로 한 일본의 중세 성곽의 독특한 구조는 전국말기의 동원병력이나 농성기간의 대규모화에 따라 크게 변화해갔다. 소가마에는 추가쿠다이(聚樂第) 축성을 계기로 교토에도 도입되어 우도이(御土居:주위 22.5km)가 만들어졌다. 일본의 근세 성하마을은 기본적으로 도시외곽을 가지고 있다.

## VII.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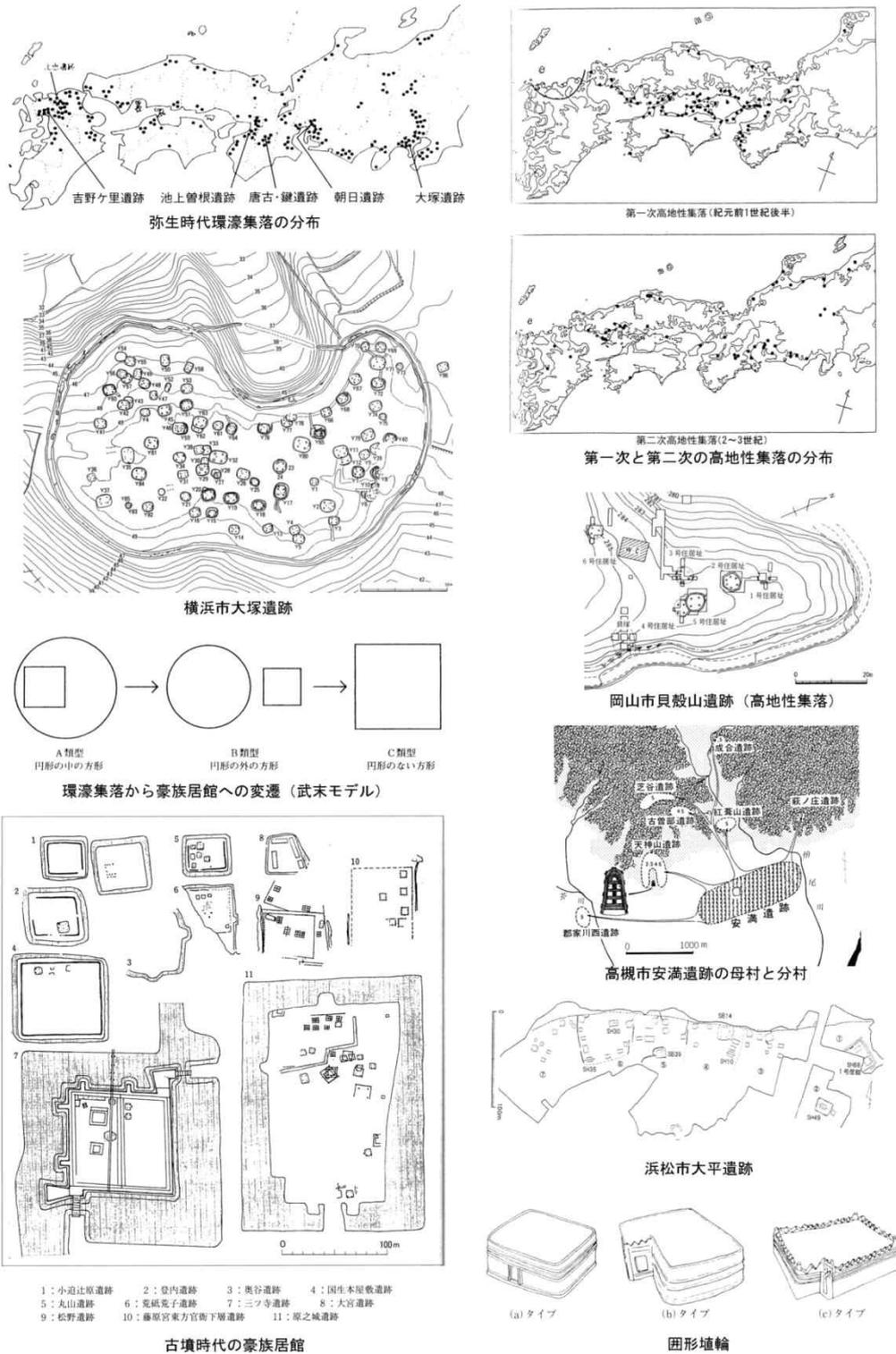
고대의 환호취락에서 대외적 위기에 의한 조선식 산성의 도입, 고대도성이나 토호쿠지방에서의 성책 건설을 통해 일본의 고대 성곽은 일단 종식된다. 그 후 긴 중세시기를 통해 고대 국가의 관아관청을 모델로 한 평지거택·거관이 발전하여 일본 독자의 평지성관이 성립한다. 남북조에서 시작되는 중세의 전란은 평지성관의 방어를 배치의 복잡화 방향으로 발전시켰으나 전란의 장기화와 농성전의 대규모화는 “도시외곽”이라는 세계적인 스탠더드를 다시 출현시

켰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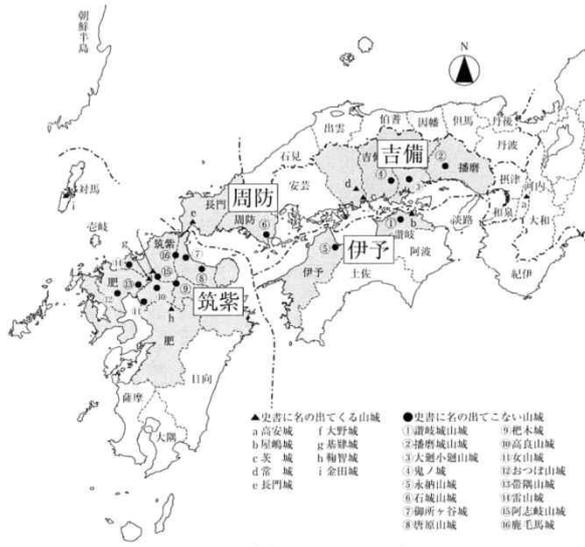
※ 참고문헌

- 鏡山猛, 1968, 『大宰府都城の研究』, 風間書房.
- 向井一雄, 1991, 「西日本の古代山城遺跡 - 類型化と編年についての試論 - 」, 『古代学研究』125, 古代学研究会.
- 向井一雄, 2004, 「山城・神籠石」, 『古代の官衙遺跡II 遺物・遺跡編』, 奈良文化財研究所.
- 向井一雄, 2016, 『よみがえる古代山城(歴史文化ライブラリー440)』, 吉川弘文館.
- 齋藤慎一・向井一雄, 2016, 『日本城郭史』, 吉川弘文館.
- 酒井龍一, 1997, 『弥生の世界(歴史発掘6)』, 講談社.
- 村上幸雄・乗岡実, 1999, 『鬼ノ城と大廻り小廻り(吉備考古ライブラリー2)』, 吉備人出版.
- 飯村 均・齋藤慎一, 2001, 「III 城と館」, 『図解・日本の中世遺跡』, 東京大学出版会.
- 武末純一, 2002, 『弥生の村(日本史リブレット3)』, 山川出版社.
- 小笠原好彦, 2003, 「首長居館と王宮」, 『古墳時代の日本列島』, 青木書店.
- 相原嘉之, 2004, 「倭京の“守り” - 古代都市飛鳥の防衛システム構想 - 」, 『明日香村文化財調査研究紀要』4(『古代飛鳥の都市構造』2017所収).
- 辰巳和弘, 2006, 「古墳時代の『居館』と大型建物」, 『弥生の大型建物とその展開』, サンライズ出版.
- 進藤秋輝, 2010, 『東北の古代遺跡 - 城柵・官衙と寺院』, 高志書院.
- 鈴木靖民, 2011, 「第三章 七世紀後半の日本と東アジアの情勢 - 山城造営の背景 - 」, 『日本の古代国家形成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 稲田孝司, 2012, 「古代山城の技術・軍事・政治」, 『日本考古学』34, 日本考古学協会.
- 赤司善彦, 2014, 「古代山城の倉庫群の形成について - 大野城を中心に - 」, 『東アジア古文化論攷』2-III 原始古代の考古学, 中国書店.
- 樋口知志, 2016, 『前九年・後三年合戦と兵の時代(東北の古代史5)』, 吉川弘文館.
- 古川一明, 2017, 「古代城柵官衙遺跡の「陥馬坑」についての試論」, 『研究紀要』18, 東北歴史博物館.
- 近江俊秀, 2018, 「第2章 白村江の敗戦と古代山城 - 歴史時代の考古学の落とし穴 - 」, 『入門 歴史時代の考古学』, 同成社.
- 山田隆文, 2020, 「大宰府羅城説再考 - 百済や新羅の都城防衛体制との比較の観点から - 」, 『難波宮と古代都城』, 同成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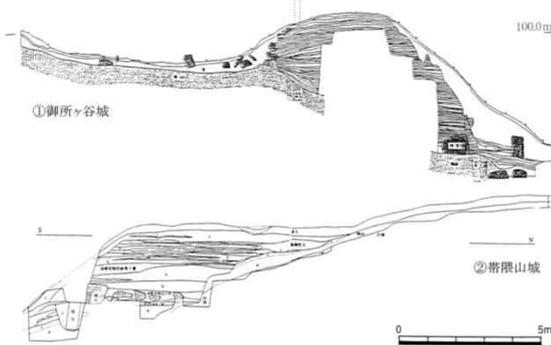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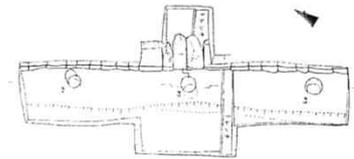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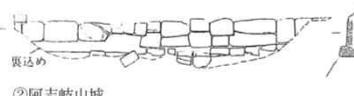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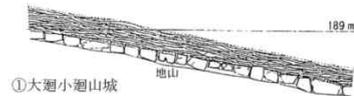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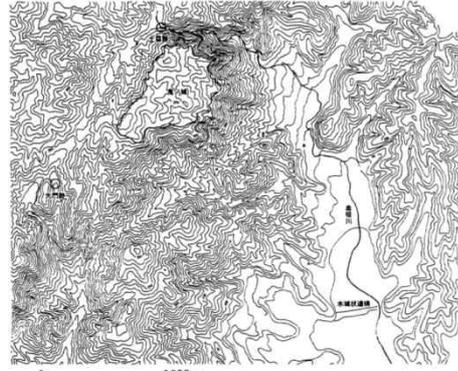
大宰総領制と古代山城



内托土塁①と土段状土塁②



Fig. 3



土塁基底部の列石と柱穴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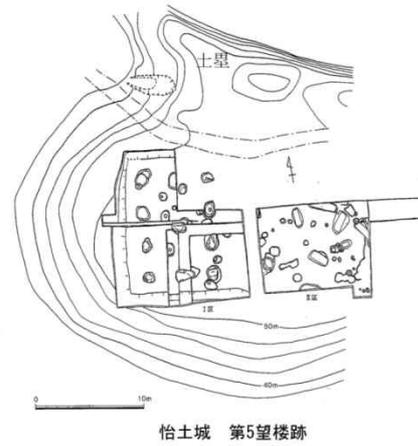


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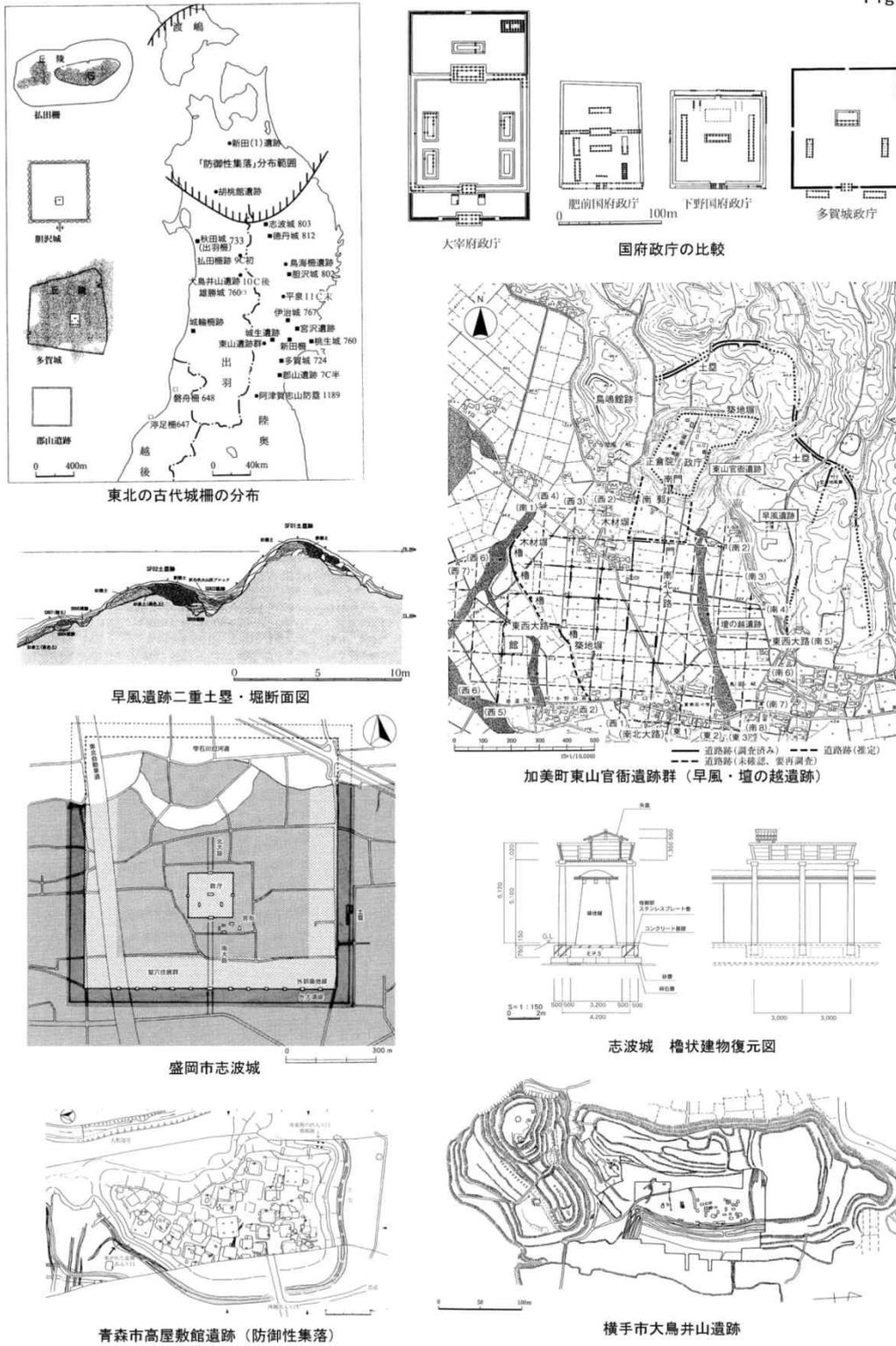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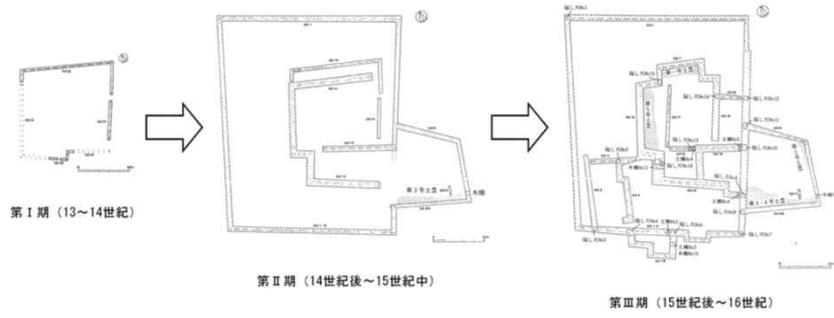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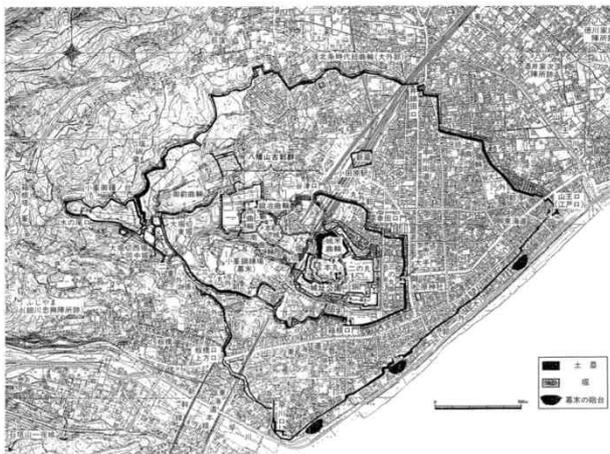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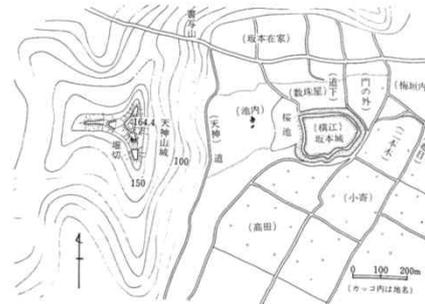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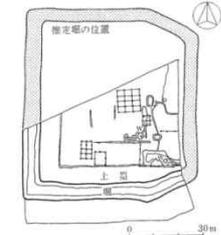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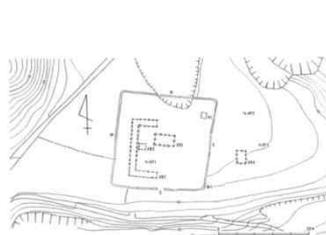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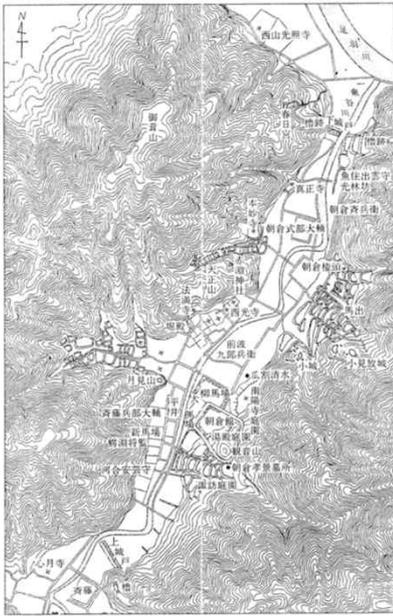


Fig. 5



屋代城の変遷 (龍ヶ崎市)





---

[제3부] 발굴조사 최신 성과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방안

---

## 부여 나성의 최신 발굴조사 성과

성 현 화

백제고도문화재단 문화재조사부 팀장

---



# 부여 나성의 최신 발굴조사 성과

성현화<sup>1)</sup>

<목차>
I. 머리말
II. 부여 나성의 조사현황
III. 최신 발굴조사 성과
IV. 맺음말

## I. 머리말

부여 나성은 백제 마지막 수도인 사비도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성의 외곽을 둘러싼 성으로 그 형태가 반달과 같다고 하여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半月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비도성은 왕궁을 비롯한 정치 중심지의 배후에 산성을 두고 이와 연결된 나성으로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도성제 자체는 물론이려니와 그 축조시점이 6세기 전반경으로 비정될 수 있어 백제도성의 변천과정과 나아가 동아시아 고대 도성사상에서도 매우 독특한 특징(박순발 2000)을 가진다.

이러한 부여 나성은 일반적인 백제의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축성기록이 없고, 후대에 전해지는 기록도 매우 소략하여, 문헌자료를 통한 부여 나성의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여 나성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고고학적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부여 나성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30여 차례의 조사를 통하여 토축부와 석축부로 구축된 내탁식 산성으로 사비 천도 전에 사비도성의 계획 하에 완성된 성벽임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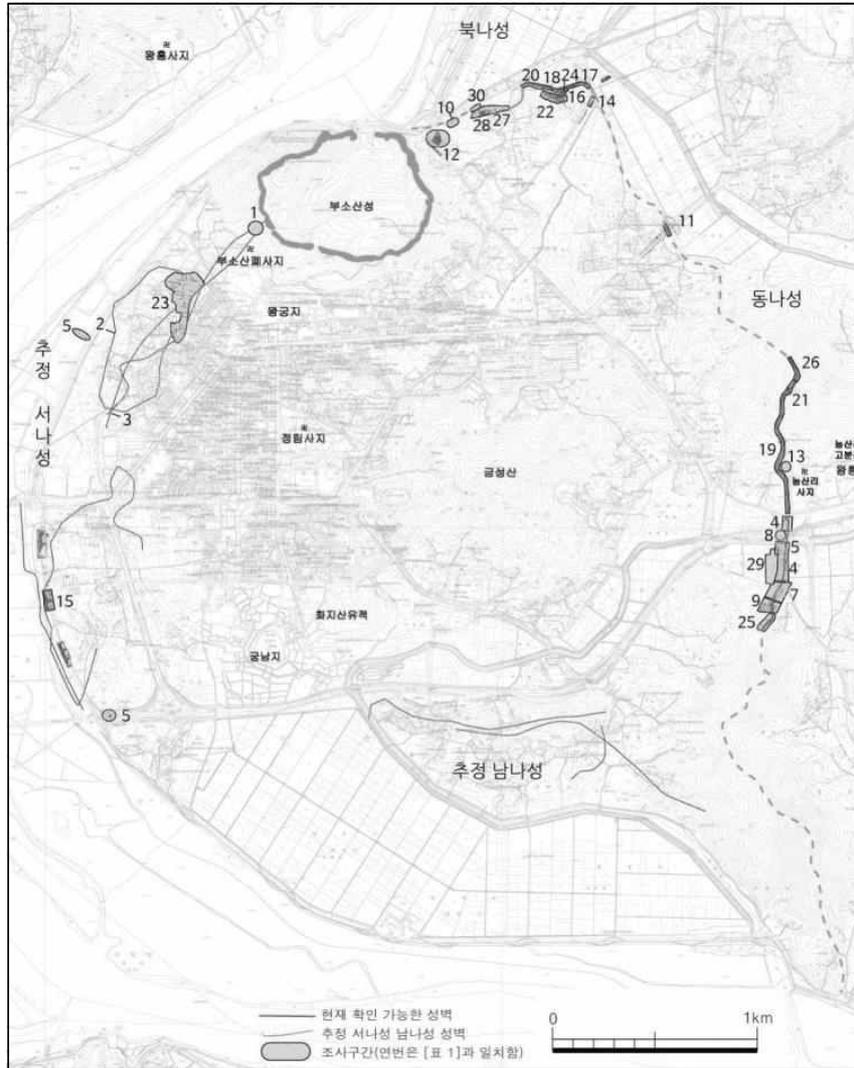
본고에서는 이러한 부여 나성의 전체 현황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최근 10여 년간 백제 고도문화재단에서 조사된 성과(2011~2019년)를 바탕으로 성벽선, 축조기법, 성벽과 관련한 시설 및 출토유물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II. 부여 나성의 조사현황

백제시대 후기의 수도인 사비도성은 서남편으로는 금강에 의해 감싸여 있고, 북동쪽으로는 100m 정도의 구릉성 산지(부소산, 금성산, 필서봉, 오석산, 파진산)가 병풍처럼 드리워진 지형을 가진다. 도성 내부는 하천 범람원인 저평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도시화되기 이전 자연촌락은 대체로 부소산과 금성산 등의 산록 끝자락에 위치하였다.

부여 나성은 도성을 보호하고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사비도성의 동북편 외곽을 반달처럼 감싼 형태이며 평면은 부정형에 가깝지만, 도성의 4면을 따라 존재할 것으로 이해하고 그 방위에 따라 북나성, 동나성, 서나성, 남나성으로 명명(홍재선 1981, 성주탁 1984, 이도환 2012)되어 불리고 있다.

1) 백제고도문화재단 문화재조사부 팀장



〈도 1〉 부여 나성 조사현황

부여 나성은 현재까지 지표 및 발굴조사를 통하여 북나성과 동나성의 존재만이 확인되었고, 서나성과 남나성은 그 존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실체가 확인된 부여 나성의 전체 길이는 6.6km<sup>2</sup>)로, 부소산성 북문지 동쪽의 가증천 정비공사에서 확인된 북나성의 체성 일부를 시작으로 쌍북리 뒷개마을의 뒷산을 지나 청산 - 월함지 - 석목리(국도40호선)-석목리 논절마을 - 능산리산(해발 116m) - 능산리 서쪽 능선 - 동문교(왕포천, 국도4호선)-필서봉(해발 118m)-군들고개 - 염창리산(해발 134m)-염창리 565-3번지로 이어지며, 동나성의 끝자락에서는 체성의 성돌이 노출된 상태이다.

부여 나성은 1938년 11월 25일 고적으로 지정되었고, 1963년 1월 21일 국가사적 제58호로 고시되어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부여 나성은 일제강점기부터 중요성이 인정되어 지형도(1915년, 1918년, 1925년 제작)에 일부 성벽선을 표기하였고, 전체적인 성벽선은 1916년 『조선고적도보』 3권 도면 4와 1950년대 도면에 북나성과 동나성이 제시되었다.

2) 부여 나성의 전체 길이는 현재 그 실체가 확인 가능한 북나성과 동나성으로, 잔존하고 있는 성벽의 최고지점을 TOPCON GMS로 2012년 도보 답사하여 측량한 수치이다.

부여 나성 대한 연구는 1978년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의 부여지구유적조사 및 정비계획안 작성에 따른 지표조사와 이를 토대로 나성과 沼池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나성의 평면형태를 이해(홍재선 1981)하고 서나성과 남나성의 성벽선을 제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서나성과 남나성은 북나성과 동나성이 먼저 축조된 이후 각각 범람에 대비하여 순차적으로 조성되었다는 견해(田中俊明 1990)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나성 성벽의 실체에 대한 연구는 2000년 백제연구소의 지표조사를 통해 북나성과 동나성에 대한 성문, 장대, 건물지 등의 자료를 얻게 되었고, 반면에 서나성과 남나성의 실체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부여 나성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백제문화권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1991년 현 능산리 고분군의 남서쪽인 능산리에서 염창리로 이어지는 진입로 부근(왕포천 동문교 북쪽과 남쪽)의 구릉 및 저평지 일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나성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조사[표 1]를 수행하였다.

〈표 1〉 부여 나성 조사 현황표

보고명	조사기간	조사유형	조사지점	유구	성벽현황	비고	연번
부여지구유적조사 및 정비계획	1978	지표	전구간	성벽선 제시	서나성과 남나성 인정	-	1
백제사비성연구	1981	지표	전구간	성벽선 제시	서나성과 남나성 인정	홍재선	2
백제성지연구	1984	지표	전구간	성벽선 제시	서나성과 남나성 인정	성주탁	3
부여 나성	1991, 1993, 1998	시발굴	능산리 동나성 저지대, 능산리 동문지	성벽 45m, 동문지	석축성벽 잔고 2.5m 성벽 잔고 5m 동문지 1	-	4
사비도성	2000	발굴	능산리 동나성 저지대, 군수리 서나성 추정 제방	성벽 기저부	기저부 확인 서나성 성벽 없음	지엄부설시설, 목책, 해자	5
백제사비나성	2000	지표조사	전구간	성벽선 및 문지 제시	성벽 잔고 4.5m 서나성과 남나성 부정		6
백제사비나성Ⅱ	2000	발굴	능산리 동나성 구릉부(필서봉, 능사 서북쪽)	성벽 90m	석축성벽 잔고 3.0m 성벽 잔고 6.0m	성벽축조이전층 자매기편 출토	7
부여 능산리 동나성 내외부 유적	2001~2, 2004	발굴	능산리 동나성 저지대	성벽 기저부	기저부 확인	지엄부설시설	8
백제사비나성Ⅲ	2002	발굴	능산리 동나성 구릉부(필서봉)	성벽 47m	석축성벽 잔고 3.6m 성벽 잔고 4.7m	석축성벽 작업분단구간	9
가중천 정비공사 중 수습조사	2003	수습	쌍북리 북나성 저지대(가중천변)	성벽	석축성벽 확인	-	10
부여 석목리 나성 유적	2004, 2007	시발굴	석목리 동나성 저지대	성벽32.8m	석축성벽 잔고 2.5m 성벽 잔고 5m	-	11
부여 쌍북리 현내들 북포유적	2006	발굴	쌍북리 북포	건물지, 도로	성벽 없음	-	12
능산리사지 10차	2007	발굴	능산리 동나성	성벽	성벽 흔적 확인	-	13
부여 뒷개 유적	2010	시굴	쌍북리 동나성	성벽	성벽관련 성토층 확인	-	14
부여 군수리 경작유적	2010	시발굴	군수리 서나성 추정 제방	건물지	서나성 성벽 없음	-	15
북나성Ⅰ	2011	시굴	쌍북리 북나성 구릉부(청산)	성벽	성벽 흔적 확인	-	16
북나성Ⅱ	2011~2	발굴	쌍북리 북나성 구릉부(청산)	성벽 180m	석축성벽 잔고 2.1m 성벽 잔고 4.5m	치	17
북나성Ⅲ	2012	발굴	쌍북리 북나성 구릉부(청산)	성벽 73m	석축성벽 잔고 1.2m 성벽 잔고 3.5m	명문석, 성벽축조이전 유구유물	18
동나성Ⅰ	2012~3	발굴	능산리 동나성 구릉부(능사서쪽)	성벽 744m	석축성벽 잔고 1.57m 성벽 잔고 4.98m	각자성석	19
북나성Ⅳ	2013	발굴	쌍북리 북나성 구릉부(청산)	성벽 113m	석축성벽 잔고 1.56m 성벽 잔고 6.23m	개보수구간	20
동나성 2문지	2013	발굴	능산리 동나성 구릉부(능사서쪽)	문지	동문지 2	-	21

북나성ⅤⅥ	20145	발굴	청산 정상부	건물지	-	대지조성	22
서나성	2015	시굴	구교리 서나성 추정 구릉부	-	성벽없음		23
북나성Ⅶ	2016	시발굴	쌍북리 북나성 구릉부 치 내측	치	-	치 내부, 연화문진	24
동나성Ⅲ	2016	발굴	능산리 동나성 구릉부 (필서봉)	성벽 120m	석축 성벽 잔고 2.0m 성벽 잔고 5.3m	작업분단구간, 기저부 보강시설	25
동나성Ⅳ	2016	발굴	능산리 동나성 구릉부	성벽 120m 치	석축 성벽 잔고 1.9m 성벽 잔고 5.8m	치, 기저부 보강시설	26
북나성 시굴	2017	시굴	쌍북리 북나성 구릉부 (가증천변)	성벽	성토층 확인	-	27
북나성Ⅷ	2018	발굴	쌍북리 북나성 구릉정상부 (가증천변)	성벽 건물지	석축 성벽 확인	-	28
동나성Ⅴ	2019	시발굴	능산리 동나성 내측부 (필서봉말단부)	벽 주 건물지, 축구(도로시설)			29
북나성Ⅸ	2019	시발굴	쌍북리 북나성 구릉-저지 대연결부(가증천변)	성벽 7.5m	석축 면석 최대 10단	기저부 보강시설	30

### Ⅲ. 최신 발굴조사 성과

부여 나성은 최근 10여년(2011년~2019년)간 총 15차례 이상 발굴조사 되었고, 이를 구간 별로 살펴보면, 북나성 9차, 동나성 5차, 서나성 1차로 조사되었다. 조사 목적별로 보면 주로 성벽선 및 체성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성벽과 관련한 시설물 및 성 내측부 조사, 성벽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구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부여 나성 중 북나성 0.37km(전체 약 1km), 동나성 1.2km(전체 약 5.5km)에 대한 성벽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축조 방식 및 성벽 관련 시설물 등이 확인되었다.

#### 1. 평면형태(성벽선)

부여 나성의 성벽선은 부소산성 북문지 동쪽에서 가증천을 지나 청산성 동사면 끝자락까지를 북나성으로 월함지에서 능산리산 - 필서봉 - 염창리로 이어지는 구간을 동나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성벽의 실체가 아직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서나성은 부소산성 서문지에서 연접하여 구교리 장승백이 부근의 구릉부 일대와 군수리 성말마을 일대에 성벽선이 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중정리 1리와 2리의 야산을 지나는 추정 남나성과 함께 그 존재 여부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는 실정이다. 이중 북나성과 서나성에 대해서는 최근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명확한 성벽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나성은 과거 부소산성 북문지 부근에서 가증천에 연접하여 일직선상으로 청산성과 이어지는 견해(홍재선 1981)와 부소산성 동문지의 약간 북쪽지점에서 구릉을 따라 청산으로 연결되는 견해(홍사준 1971, 성주탁 1984)가 있었으며, 청산성 부근에서는 청산성의 산 중턱으로 성벽이 지나가는 견해(홍재선 1981)와 청산의 동쪽 말단부인 가증천 연안을 돌아서 월함지로 이어지는 견해(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가 있었다.

이에 북나성의 성벽선에 대한 그간의 조사결과, 북나성 성벽선은 가증천 정비공사 중 발견된 북나성 성벽(2003년)에서 쌍북리 뒷개마을의 뒷산(해발 27m)의 북서쪽 능선 아래에서 구릉부로 올라타 청산성 북사면 중턱부를 지나 월함지로 이어지는 명확한 진행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증천에서 부소산성으로 이어지는 성벽선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를 통하여 밝혀내야할 것이다.

서나성은 부소산성의 서문지에서 시작하여 구교리와 군수리 사이에 위치한 유수지를 사이에 두고 각기 독립된 단위성으로 존재하였을 견해(홍재선 1981)와 일직선상으로 된 단일 성

벽이 존재하였을 견해(성주탁 1984), 방어상 긴요성이 적어 제방으로써의 기능을 담당하였을 견해(田中俊明 1984)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군수리 일대의 서나성으로 추정되는 제방에 대한 조사에서 성벽의 흔적이 확인(충남대학교 박물관 2003,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013)되지 않아 군수리 일대의 서나성의 존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구교리 일원의 서나성이 경유할 것으로 추정되는



〈도 2〉 부여 나성 추정 성벽선

구릉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성벽의 체성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백제시대 대지조성토, 저장공 및 건물지 흔적 등만이 확인되어 서나성의 존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 2. 축조기법

그간 발굴조사를 통하여 부여 나성의 체성은 내부 토축부와 외면 석축부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산지 및 평지, 저습지 그리고 축조 장소 등에 따라 세부적인 면에서 축조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저습지의 연약지반은 부엽시설 암말침하배수공법과 무리말뚝공법을 사용하여 기저부를 조성한 뒤 체성을 구축하였고, 산지인 구릉부는 산사면을 계단식으로 절토하여 기저부를 조성하고 내탁식 체성부를 구축하였다. 축조 작업 구간의 단위는 석축부의 면석 조성상태에 따라 대략 21~24m인 점 등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즉, 부여 나성은 사비도성을 에워싼 성으로 사비는 비교적 낮은 야산과 저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성벽 또한 산지와 평지 그리고 소하천인 왕포천 등을 극복하여 조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체성에는 구간마다 서로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축성의 원칙은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체성은 토축과 석축으로 구축하고, 성벽의 진행은 산지의 경우 지형에 따른 요철이 있는 곳은 'S'자 형태로, 저평지는 일직선으로 조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부여 나성의 최근 조사는 주로 동나성과 북나성 중 산지구간에 집중되어 산지구간의 축조기법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산지구간의 기본적인 축성방식은 산사면을 절토하여 내탁식으로 성벽을 체성하는 것으로 성벽은 기반정지 → 기저부조성 → 토축부조성 → 석축부조성 → 성벽 정상부 마감 순이라는 기본적인 공정순서를 가진다.

### 1) 기저부 조성

부여 나성의 현존하는 체성부의 높이는 대략 3~6m 정도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평지에서 경사진 곳으로 지형이 변곡되는 지점이나, 치와 연결되는 지점 등이 비교적 높을 뿐이고, 대체로는 성벽의 높이가 일정하게 확인된다. 또한 성벽이 잔존하는 높이와 평행하게 기단부가 조성되는데, 이로 인하여 기저부 조성 방식에 차이가 확인된다. 즉, 해당 지형의 원지반과

체성 기반부의 높이차에 따라 원지반이 높을 경우는 원지반을 'L'자로 삭토하여 기저부를 마련한 후 기반석을 놓지만, 반대로 원지반이 낮고 기반이 놓일 위치가 높을 경우는 기저부를 흙이나 돌로 쌓아서 지면을 올린 후 기반석을 조성하였다. 또한, 성벽선 진행방향에 따라 경사가 급한 곳은 계단식으로 굴토하여 석축을 맞물려 축조하기도 하였다.

성벽선의 직교방향의 사면 경사도에 따라서는 급경사를 이루는 곳은 거의 원지형에 기대어 내탁식 성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뒷채움시설의 폭이 비교적 좁은 반면에 완경사를 이루는 지형은 토축부를 조성한 후 토축부에 기대어 석축부가 조성되기 때문에 석축부의 뒷채움시설 폭이 비교적 넓게 굴착되는 차이가 있다.

기저부가 조성된 후 기반석의 축조는 성벽선 진행방향에 따라 도랑처럼 구를 조성하여 석축부의 밀림 및 붕괴를 방지하고 있다. 특히, 급경사지이거나 연약지반일 경우 구의 깊이를 배가하여 석축부의 붕괴요소를 감소하거나 기반석 전면부를 성토다짐하여 체성을 견고하게 하였다.



〈사진 1〉 동나성 구간 기저부



〈사진 2〉 급경사구간 계단식 기저부



〈사진 3〉 북나성 급경사구간 기저부



〈사진 4〉 동나성 완경사구간 기저부



〈사진 5〉 체성 기저부 종방향 구(도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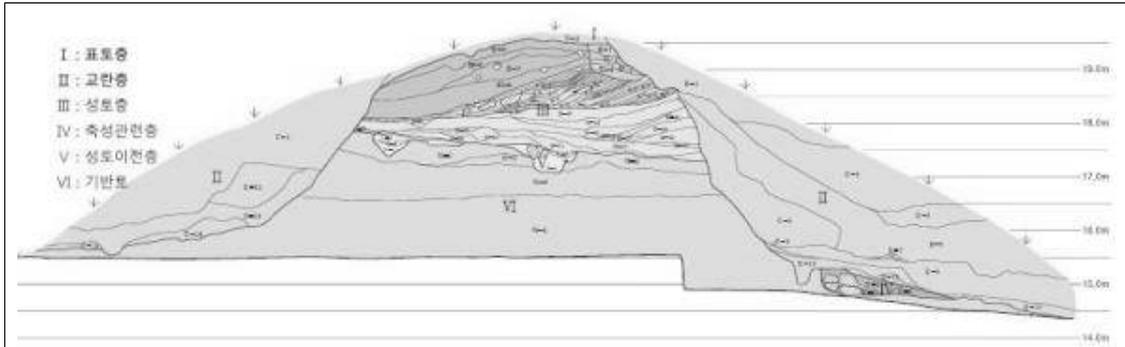
〈사진 6〉 체성 기반부 전면 성토다짐

## 2) 토축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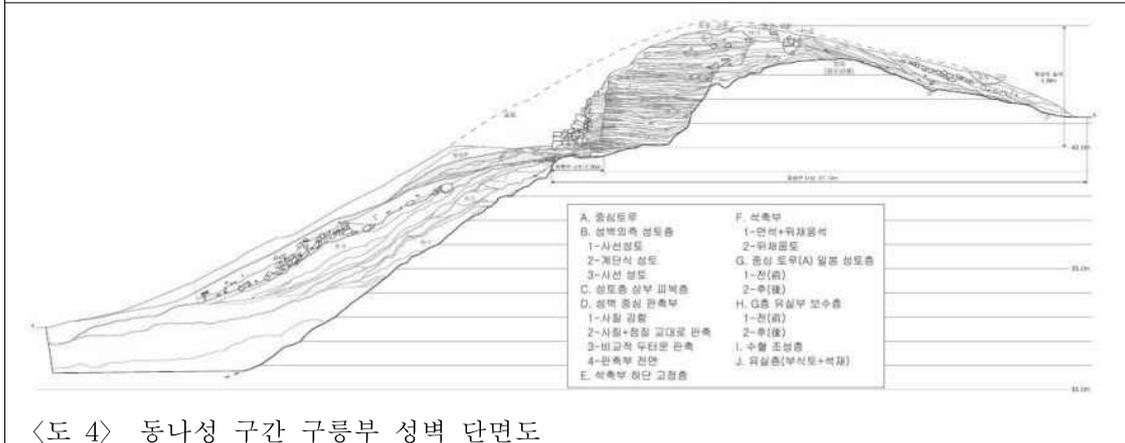
부여 나성은 부소산성과 마찬가지로 체성의 대부분이 토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토축부 조성에 있어서 부소산성과 나성은 차이가 있다. 부소산성은 목가구를 설치하여 산흙 위주로 체성을 관측하면서 쌓아올렸다. 이로 인해 기저부에 영정주공이나 두줄의 溝와 토층에 횡장목과 종장목, 판목의 흔적이 관찰되며, 토축을 구성하는 흙은 점질토가 대부분이다. 또한 체성의 횡단면은 하부부터 성외측이 낮은 사선방향으로 관측하던 토층이 체성의 약 1/3지점에서 수평을 이루고 상부까지 계속 수평상을 이루며 관측되었다.

이에 비해 나성은 체성의 중심부인 토축부 내에서 목가구를 설치한 흔적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또, 토축부의 흙도 산흙이 주를 이루지만 풍화암반 부스러기와 논흙 같은 점질토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체성의 횡단면 토층도 하부부터 성외측부가 약간 높게 성토하여 상부로 가면서 성내측으로 살짝 경사지게 하여 토축부 체성을 구축하였다(심상육·이명호 2014).

동나성 능산리사지 구간은 2지점에서 성벽 단면을 절개 조사하여 체성의 조성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나성의 토축부 조성은 성벽선과 종방향으로 보았을 때 원지형이 완경사를 띠는 지형으로 구릉 정상부를 정지한 후 중심 토루를 비교적 두텁게 성토(1차성토)하고 있으며, 1차 성토부의 외측으로 덧대어서 조성된 2차 토루는 수평으로 관측에 유사하게 구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목가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각 유사관측되는 토축부 전면에 토압을 지탱하기 위한 기법이 확인된다. 즉, 구릉부 성벽 절개 조사로 보았을 때 토축부 전면에 점질토를 부분적으로 촘촘히 넣어주면서 뒤쪽의 흙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이 목가구 없이도 토축부를 단단하게 쌓아올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 3> 동나성 구간 구국도 4호선 일대 성벽 단면도



<도 4> 동나성 구간 구릉부 성벽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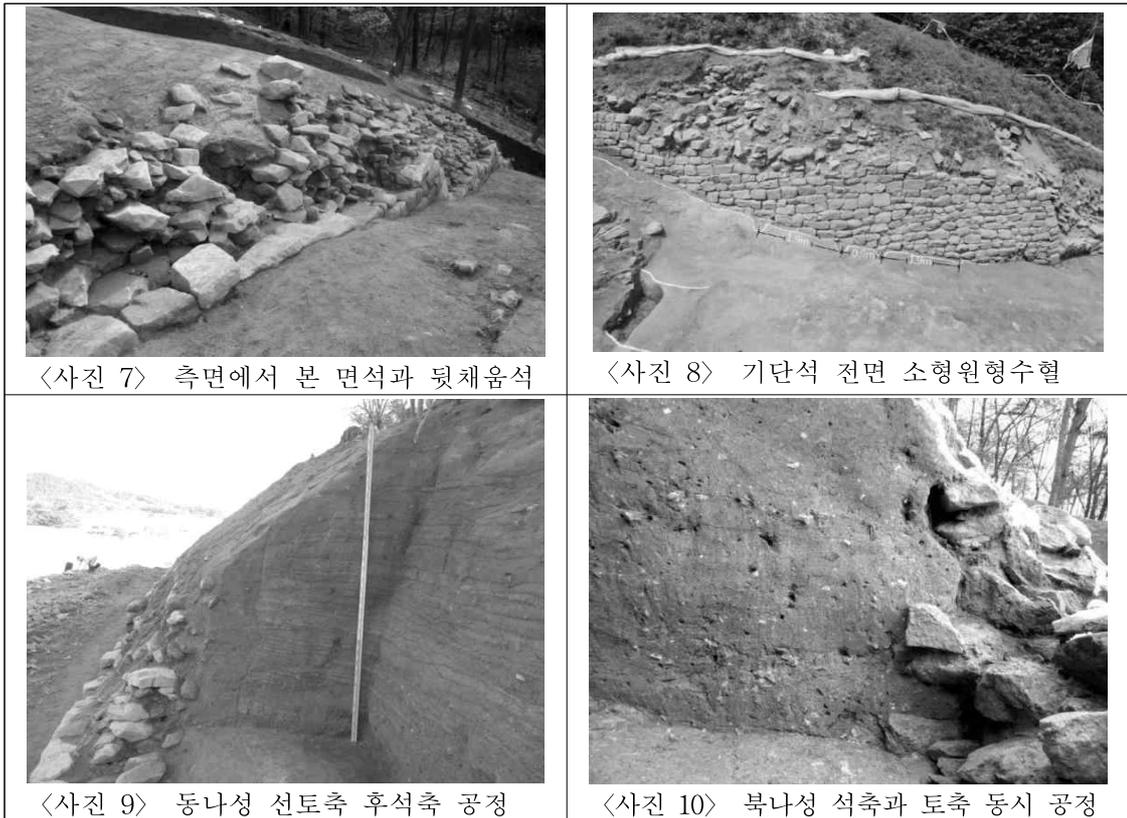
토축부는 성질이 다른 흙으로 교호성토하여 다져서 쌓았으며, 성분은 대부분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사질토, 점질토, 마사토, 풍화암반 석재편 등을 혼용하여 축조하고 있다.

### 3) 석축부 조성

석축부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토축부의 전면 및 성토한 기저부 혹은 원지반인 암반을 계단상으로 정지하고 석축을 바로 올리는 형태로 축조되고 있으며, 석축의 면석은 퇴물림하여 쌓고 있다. 면석은 기본적으로 전면은 모따기로 다듬어서 정연한 상태이고, 후면은 켜기돌 형태로 다듬어졌다. 그러나, 일부구간에서 면석이 모따기를 하지 않은 석재와 혼재된 상태로 축조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간은 성벽이 붕괴된 이후 개축되면서 1차 성벽과 뒤채움석을 혼용하여 쌓은 특징으로 보인다. 또한, 면석 중 일부는 건물지 등에서 사용하다 재사용된 석재도 관찰된다. 면석은 대체로 67°~75°사이로 쌓아 올렸지만, 상단부까지 이 각도를 유지했는지는 알 수 없다. 성벽의 기단석 바로 전면에는 성벽의 설계선으로 추정되었던 소형 원형수혈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석축부와 토축부를 조합하는 방식은 동나성과 북나성 구간이 서로 다르게 확인된다. 동나성구간의 경우는 토축부를 조성한 후 석축되는 지점인 토축부 외면을 절삭한 후 석축하는 반면에 북나성구간의 경우는 기저부가 마련된 후 석축부와 토축부를 서로 맞물려가면서 동시에 조성하기 때문이다. 토축 후 석축을 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토성이었던 성벽에 석축이 부가되었다는 의견(박태우 2007)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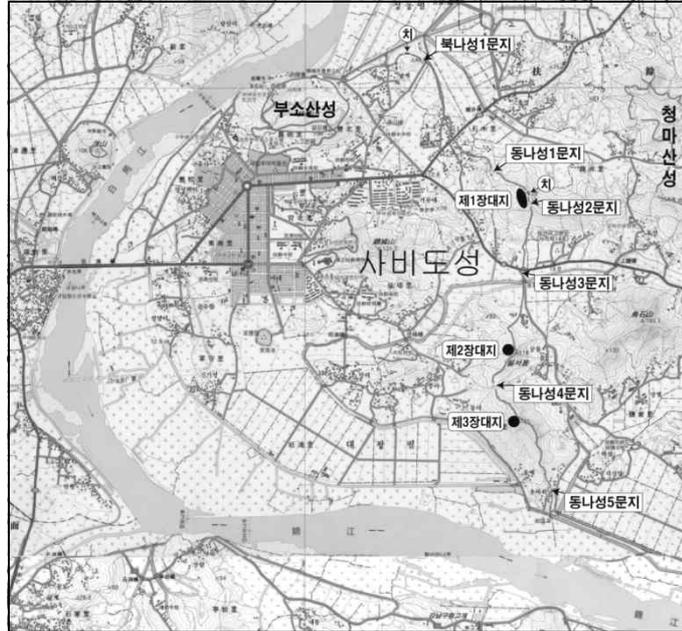
석축부의 면석 외곽 전면부에는 세굴을 방지하고 성벽 외곽으로 통행하기 용이하기 위한 기능의 보강시설이 확인된다. 보강시설은 기단석 면석 전면에 할석과 함께 점성이 매우 강한 점토로 피복하듯이 조성된다.



### 3. 성벽 시설(치와 문지)

부여 나성의 문지는 북나성 1곳, 동나성 5곳이 확인되어 모두 6곳의 문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동나성 3문지는 사비도성의 정문으로 인식되는 곳으로 문지 앞쪽으로 능산리 사지와 왕릉이 위치한다.

본고에서 소개할 곳은 동나성 2문지로 2013년에 조사되었다. 동나성 2문지의 위치는 해발 120m의 능산리산 능선 정상부에서 약 50m 떨어진 남서향하는 완만한 능선부로 사비도성의 내부와 동쪽의 청마산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 상에 입지하고 있다. 문지의 평면은 개구부가 어긋난 상태로 산 밑에서 올려다보면 문이 보이지 않는 구조를



<도 5> 부여 나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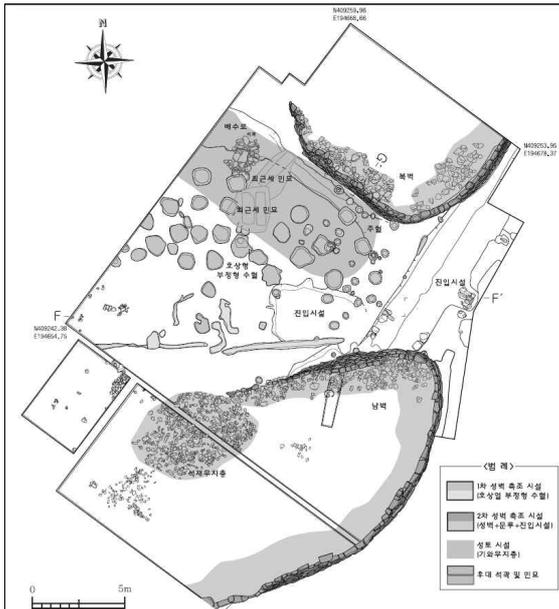
띠고 있다. 즉 북측 성벽은 일직선으로 내려오다 말각으로 꺾이면서 성 내측으로 개구부의 북측 벽석을 구축하고, 남측 성벽은 성외측으로 5m 이상 돌출시켜 호상으로 이어지게 개구부를 구축하다가 맞은편 개구부의 모서리에 맞추어 직각에 가깝게 꺾이면서 성 내측으로 성벽을 10여m이상 직선으로 진행시켜 마무리하였다. 이에 개구부의 평면은 입구가 좁고 성내측이 넓은 사다리꼴을 띠게 구축되었다. 개구부의 내부는 북측의 평탄면과 남측의 경사면으로 공간이 구분되며, 평탄면에는 호상열을 띠는 부정원형의 수혈군이 확인된다. 문지는 최소 두차례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차 문지는 호상열의 부정원형 수혈군과 관련된다. 이 호상열은 개구부 남측에서 보면 5열의 호상을 띠고 있다. 호상열의 수혈은 깊이가 20cm로 기둥을 세울만한 주공으로 보이진 않지만, 가장 북측의 수혈에서는 기둥을 세웠던 흔적이 확인되었고, 그 외곽으로 배수로가 설치되었다. 호상열의 남측으로는 성외측에서 내측으로 미미한 계단식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다. 이로 보아 1차 문지는 개구부 모두를 통행로로 사용하지 않고 남측부분만 계단식으로 이용하고 북측은 개구부의 일부를 막음과 동시에 문루와 같은 시설물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차 문지는 1차 문지와 통로부의 위치 및 모양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나, 개구부를 막는 시설은 북벽과 남벽 개구부 모서리 앞쪽에서 확인되는 수혈로 보아 대칭되는 시설물을 세워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성의 치는 2곳에서 확인되었다. 그 중 동나성 치성벽은 제1장대지(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2000)로 명명된 곳으로 동나성 2문지에서 북측으로 6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치가 위치하는 곳은 현재도 청마산성으로 가는 등산로가 나 있다. 규모는 길이 5.1m, 너비 22.4m이고 기단석에서 토축부 최상단까지의 높이 7m이다. 성벽의 면석 축조 기울기는 72° 정도이며, 기울기로 보았을 때 최상부의 추정 남북 너비는 18m 정도이다. 치의 체성 구조는 원지반을 사면 형태로 정지한 후 사질토와 점토를 경사지게 반복 성토하여 기저부 조성토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그 위에 세장방형의 석재로 기단받침을 두고 상부에 대형의 기단석을 쌓아 올렸다. 이후 면석은 퇴물림하여 경사지게 축조하여 단면 사다리꼴형태를 한다.

동나성 치는 백제시대에 축조된 치인 북나성과 부소산성의 치와 비교하였을 때 대형에 속

하며, 현존 삼국시대 치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북나성 치성벽은 나성의 성벽선과 서로 맞물려서 동시에 축조되었으며, 규모는 너비 13.1m이고 길이는 성벽선에서 1.2~1.4m 정도로 여타 치성벽에 비해 소형규모에 해당된다. 그러나, 치의 양쪽 성벽선 2~3m 전부터 조금씩 외측선을 앞쪽으로 돌출시키고 있고, 치가 조성된 입지도 청산의 북사면 9부 능선상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치성벽으로서의 돌출 효과를 더욱 부각시켜서 조성되어 있다.



<도 6> 동나성 2문지 현황도



<사진 11> 동나성 2문지



<사진 12> 동나성 치



<사진 13> 북나성 치

#### 4. 금석문자료(북나성 명문석과 각자성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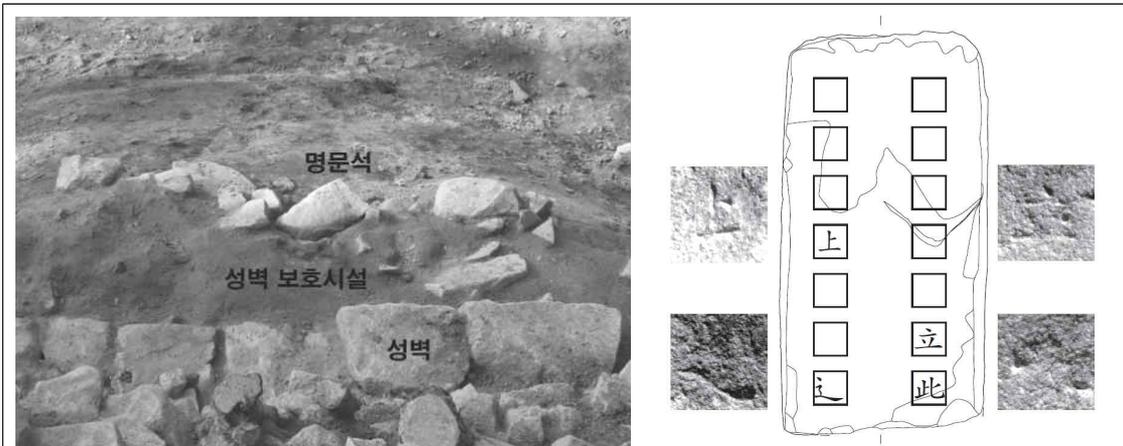
명문석은 북나성의 성외벽 보호시설로 추정되는 부석층에서 확인되었다. 성벽의 시설층에서 확인된 점과 출토 당시 글자가 새겨진 면이 땅에 접지된 상태였음에도 명문면의 마모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으로 보아 명문석은 원래의 용도에서 폐기된 후 성벽 보호시설의 석재로 재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명문석은 화강암으로 평면이 장방형을 띠게 만들어졌는데, 전체 크기는 길이 53.3cm, 폭 27.1cm, 두께 10cm 정도이다. 형태는 상부가 두껍고 하단이 좁은 형태이고, 명문이 길이 방향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아 ‘砂宅智積碑’처럼 세워져 쓰인 비로 추정된다. 비의 전면부와 측면부는 편평하게 다듬어 물갈이하였고, 전면부에 글씨를 음각하였다.

명문은 총 2열 7행 14자로 추정되며, 두열의 간격은 13.5cm, 각 행간은 6.5cm이고, 서체는 예서체이다.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한 글자는 ‘□□□□□立此, □□□上□ □」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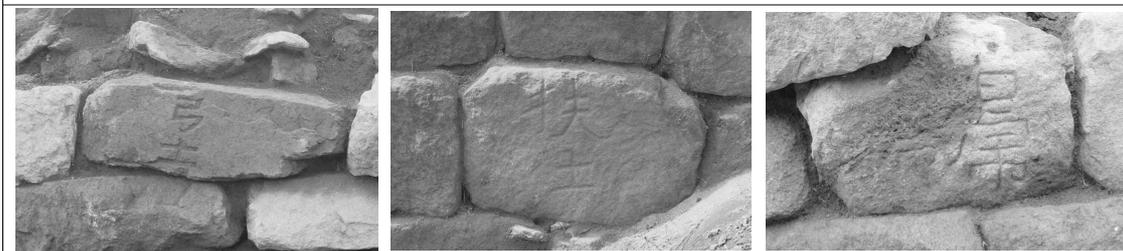
명문석의 내용은 판독할 수 있는 글자가 적기 때문에 부여 나성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上’이란 글자는 ‘~위에’, 혹은 백제 사비도성 오부(前·後·上·中·下)의 上部와 연관될 수도 있으며, ‘立此○’는 ‘이 ○을 세우고(다.)’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어 명활산성 작성비 등과 같이 역역동원과 관련한 내용이 적혀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자성석은 동나성의 능산리사지에서 동나성 2문지로 이어지는 환경사구간에서 2점이 확인되었다. 각석은 ‘扶土’, ‘弓土’, ‘白(?)虎口虎’銘이 새겨 있으며, 모두 상 - 하에 두 글자씩 각석되어있다. ‘扶土’銘각석의 북측으로 ‘弓土’, ‘白(?)虎口虎’銘각석이 서로 근접하여 확인되었다. 먼저, ‘扶土’銘각석은 화강암의 면석에 상하 음각으로 각석되었다. ‘弓土’銘각석은 다른 두 개의 각석에 비해 음각의 두께가 두꺼운 것이 특징적이다. ‘白(?)虎口虎’銘각석은 상하로 모두 두 번에 걸쳐 각석되어, 총 4글자가 각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각석의 의미는 함축적으로 생각되는데, ‘扶土’銘각석은 부여라는 지명과 관련될 것으로 보이고, ‘弓土’銘각석은 나성과 관련하여 거리단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白(?)虎口虎’銘각석은 사비도성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부소산성의 남측 말단부를 기준으로 북측을 바라보았을 때, 동측에 있는 동나성 능산리사지구간은 사방방위 수호신인 백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14〉 북나성 명문석



〈사진 15〉 각자성석

## 5. 축조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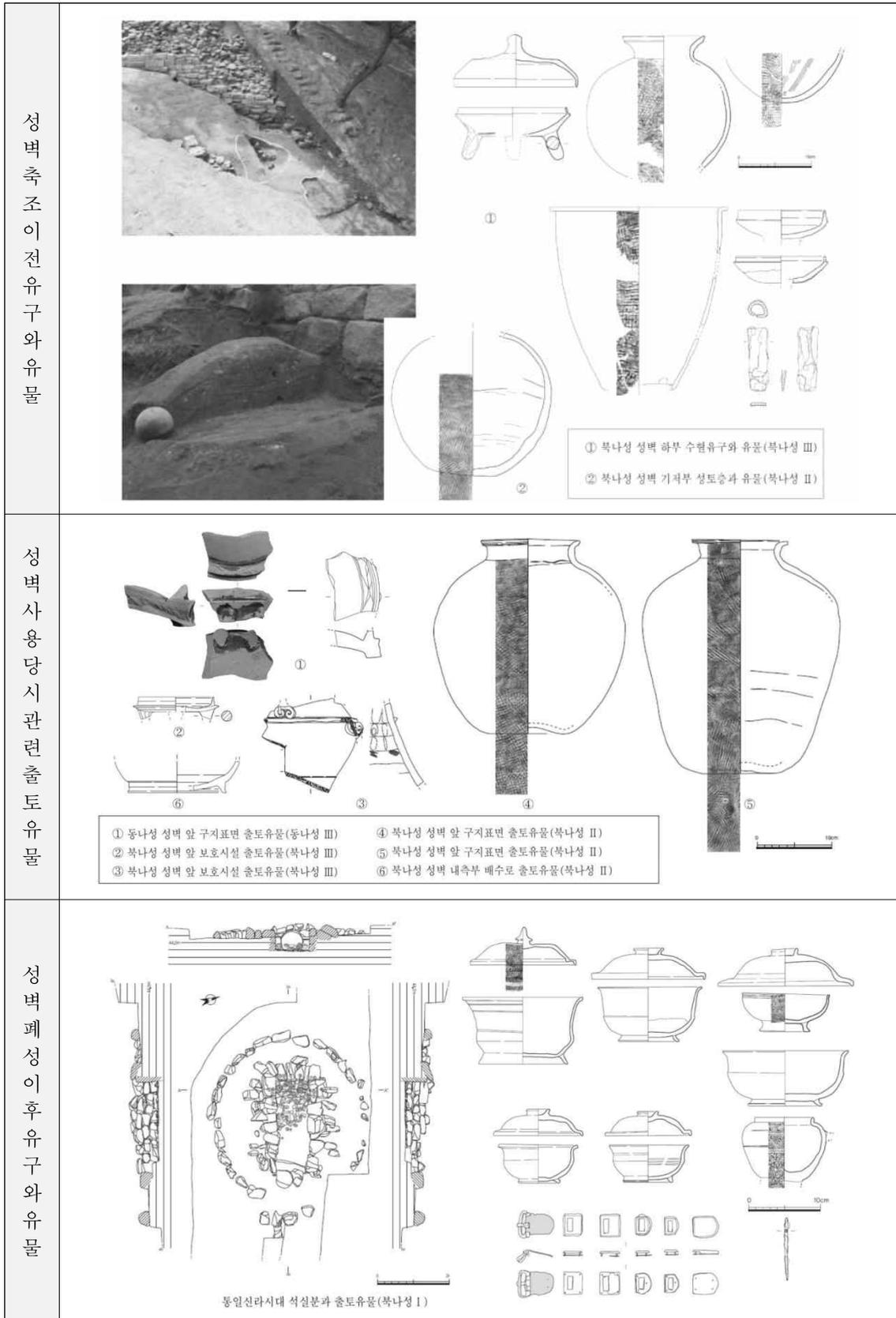
부여나성의 축조시기는 사비천도가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는 정황론적 입장에 따라 천도 전 나성이 완비되었다는 견해(田中俊明 1990, 박순발 2002)와 천도 후 도성제도가 정비되는 과정 중 신라에 대한 방비체계가 정비되는 위덕왕대 후반기(이남석 2014, 운영섭 2011)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하지만, 능산리사지가 567년에 창건된 점과 절의 조성배경이 되었을 성왕릉이 560년경에는 능산리 묘역에 안장되었던 것으로 유추됨에 따라, 늦어도 능력의 형성 시점이 나성의 하한(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벽이 백제시대에도 상당부분 개축된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초축은 사비기의 늦은 단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백제고도문화재단 2015)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부여 나성은 늦어도 560년대 이전에는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서 부여나성의 축조 및 폐성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을 살펴보면, 성벽 축조 이전에 선행된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 체성부 축조층 및 성벽을 사용한 당시 구지표면에서 출토된 유물, 성벽이 폐성된 이후에 조성된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성벽 축조 이전에 선행된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북나성 구간에서 확인된 저장공 혹은 수혈유구에서 출토된 고배와 삼죽기 등이다. 이 중 고배는 배신의 깊이가 얇지 않고, 뚜껑받이턱이 경사지게 처리된 모습 등이 공주 정지산 유적 17호 저장혈 출토품과 유사하다. 또한, 삼죽기의 경우는 논산 표정리 고분군 13호 출토품과 유사하여 5세기말~6세기 초로 비정될 수 있겠다. 즉, 북나성 구간에서 확인된 저장공과 수혈유구는 늦어도 웅진기 중반기에 매몰되었고, 그 후에 성벽이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동나성 왕포천 남쪽의 동나성 절개지에서 출토된 자배기편(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과 동나성 토축부 성토층에서 출토된 삼죽기편(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2)도 6세기 전반기경으로 비정되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나성의 축조 상한은 6세기 전반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나성이 축조된 후 운용되는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당시 구지표면이나 내부시설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 벼루편, 삼죽기, 단경호, 대부완 등 전형적인 사비기 양식의 유물이 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중 동나성 구간의 성벽 앞 구지표면에서 출토된 벼루편(도 2-1)은 청자계통으로서 연지와 연제, 연반 부분에만 흑유(갈유)가 시유되어 있고, 연면에서 연지까지는 호상을 이루고 있다. 이는 중국 隋代에서 初唐期에 유행한 형식으로 이해(山本孝文 2003)되므로 이 벼루의 사용시기는 백제 사비기 후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나성의 폐성시기는 나성이 도성의 외곽방어성이라는 기능을 잃고 다른 형태로 이용되는 시점부터일 것이다. 즉, 성벽 앞쪽이나 성 내측부 일대에서 분묘가 조성되면서 매장공간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나성 주변에서는 성벽의 붕괴석을 이용하여 후대에 조성된 석곽묘 등의 분묘유구가 많이 확인되었다. 이 중 북나성 구간의 청산 남사면 상단부에서 확인된 횡구식석실묘에서는 반원점문과 마제형문을 시문한 인화문토기와 과대, 시유도기 등의 7세기 후엽에서 8세기로 편년되는 유물이 부장되었다. 또한, 동나성구간 치성벽의 앞쪽에 대상과수가 부착된 백제 사비기 토기로 조영한 옹관묘나, 치성벽의 기저부 조성층을 기반으로 하여 지하식으로 조영된 사비기의 전통 형식을 이은 횡구식 석곽묘 등의 존재는 나성이 백제가 멸망한 뒤 점차 그 기능이 상실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도 7> 부여 나성 최근조사구간 출토유물

#### IV. 맺음말

부여 나성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도성의 외곽성으로서 이전 수도였던 웅진도성의 협소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도성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북쪽과 서쪽, 남쪽은 금강에 의해 자연적으로 보호되는 지형적 여건을 갖춘 곳을 택하는 한편, 북쪽과 동쪽에는 약 6.6km 길이의 성벽을 길게 축조하여 도성을 보호하는 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이해된다.

부여 나성은 축성기록이 없고, 후대의 기록 역시 매우 소략하여, 문헌자료를 통한 실체규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고고학적 자료에 의존하여 나성의 실체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 왔다. 1991년의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성의 구조가 토축부와 석축부로 구축된 내탁식 산성임이 확인되었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저습지 등 지리적 취약점은 부엽시설 압밀침하배수공법, 무리말뚝공법으로 기저부를 마련하는 등의 토목공법을 통해 극복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릉부의 경우에는 원지형을 계단식으로 삭토하여 기저부를 조성한 뒤 체성을 구축하는 방식 등으로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본고에서는 부여 나성에 대해 그간의 조사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최근 10년간 약 15차례에 걸쳐 시행된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 하였다. 최근 조사는 북나성과 동나성, 서나성에 대한 조사가 각각 9차례, 5차례, 1차례 시행되었으며, 조사 결과 성벽의 평면형태를 이해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축조기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벽 시설로서 문지와 치의 존재 및 구조를 확인하였다. 또한 북나성과 동나성에서 나성과 관련된 금석문 자료를 확인하였으며 출토유물을 토대로 나성의 축조시기가 늦어도 560년대 이전에는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부여 나성은 사비도성의 외곽성으로서 도성의 보호뿐만 아니라 도성 내부와 외부를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나성의 존재 의미만으로도 동아시아 도성사에서 백제만의 독특한 도성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30차례 가량의 조사 성과를 토대로 나성의 실체를 일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성의 실체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조사 성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나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백제시대 도성제의 발달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부여지역 발굴조사 마스터플랜」에 따라 2038년까지 나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능사 -부여 능산리사지 10차 발굴조사보고서-』 .
- 국립부여박물관, 2003, 『부여 나성』 .
-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013, 『부여 군수리 경작유적』 .
- 박순발, 2000, 「사비도성의 구조에 대하여」 『백제연구』 3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_\_\_\_\_, 2002, 「웅진 천도 배경과 사비도성 조성 과정」 『백제도성의 변천과 연구상의 문제점』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박태우, 2007, 「백제 사비나성 축조에 대한 검토」 『호서고고학보』 16. 호서고고학회
-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3, 『부여 뒷개 유적』 .
-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3, 『부여 나성-북나성 I -청산성시굴조사-』 .
-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3, 『부여 나성-북나성 II』 .
-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4, 『부여 나성-북나성 III』 .
- 백제고도문화재단, 2015, 『부여 나성 동나성 I -능산리사지구간-』 .
- 백제고도문화재단, 2015, 『부여 나성 동나성 II -동나성2문지-』 .
- 백제고도문화재단, 2015, 『부여 나성-북나성 IV』 .
- 백제고도문화재단, 2017, 『부여 나성-북나성 V · VI -청산성 정상부 건물지 조사-』 .
- 백제고도문화재단, 2017, 『부여 구교리 130번지 일원 조선 빙고 유적 -부여 나성(서나성)발굴조사-』 .
- 백제고도문화재단, 2017, 『부여 나성-북나성 VII -치성벽 내측조사-』 .
- 백제고도문화재단, 2018, 『부여 나성 동나성 III -필서봉구간-』 .
- 백제고도문화재단, 2018, 『부여 나성 동나성 IV -능산리구간 치 · 성벽-』 .
- 백제고도문화재단, 2019, 『부여 나성 북나성 시굴조사 -쌍북리 산지구간-』 .
- 백제고도문화재단, 2018, 『부여 나성(북나성) 8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
- 백제고도문화재단, 2019, 『부여 나성(동나성) 5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
- 백제고도문화재단, 2019, 『부여 나성(북나성) 9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
- 山本孝文, 2003, 「백제사비기의 도연」 『백제연구』 3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서정석, 2002, 『백제의 성곽-웅진·사비시대를 중심으로』 , 학연문화사.
- 성주탁, 1984, 『백제성지 연구』 , 동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심상육·이명호·김태익·김선옥, 2014, 「부여 나성 동나성 2문지 발굴조사의 의의」 『백제문화』 제51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윤영섭, 2011, 『백제 사비나성의 축조배경에 대한 연구』 ,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남석, 2014, 「사비도성의 경관과 나성의 축조배경」 『백제문화』 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이도학, 2012, 「사비성 천도와 도성 기, 그리고 정립사」 『정립사복원 국제학술심포지엄 정립사 복원을 위한 첫걸음』 , 부여군.
- 田中俊明. 1990, 「왕도로서의 사비성에 대한 예비적고찰」 『백제연구』 2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백제사비나성』 .
-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백제사비나성2』 .
-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2, 『백제사비나성3』 .
-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3, 『사비도성-능산리 및 군수리지점 발굴조사 보고서』 .

-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부여 능산리 동남리 내·외부 백제유적』 .  
충청문화재연구원, 2009, 『부여 석목리 나성 유적』 .  
충청문화재연구원, 2009, 『부여 쌍북리 현내들·북포 유적』 .  
홍재선, 1981, 『백제 사비성 연구』 , 동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홍사준, 1971, 「백제성지연구」 『백제연구』 제2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제3부] 발굴조사 최신 성과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방안

---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목록 등재 과정과 의의

이 동 주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센터장

---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목록 등재 과정과 의의

이동주 (李東周)<sup>1)</sup>

## <목차>

- I. 세계유산의 이해
- II.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준비 과정
- III. 등재 신청서 제출 이후 등재까지의 준비 내용
- IV. 세계유산적 가치의 전승을 위한 노력

## I. 세계유산의 이해

### 1. 세계유산 제도

세계유산 제도는 1960년 이집트 나셀 정부가 나일강 상류에 아스완하이댐을 건설하기로 함에 따라 수몰예정지역에 있던 아부심벨 사원을 포함한 고대 이집트의 유적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유네스코(UNESCO)에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한 유산들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행하였다. 따라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될 대상은 반드시 인류가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하 OUV)’가 있어야 하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시한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유산의 보존·관리(Protection and Management)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등재이후의 보존·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

세계유산목록 등재 제도는 1972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이하 WHC)를 구성하였으며, 산하 자문기구로 세계문화유산보존 및 복구연구센터(ICROM, 이크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코모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이 있다.

### 2. 세계유산의 분류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란 세계의 모든 인류가 주권·소유권·세대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의미한다.

1) 공학박사(建築歷史 전공)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센터장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멤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세계유산의 범위를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복합유산(Mixed Heritage)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세계유산 매뉴얼에서 제시한 유산별 분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세계유산협약(제1조)에는 문화유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1972년에 개발되었으며, 문화유산의 개념은 이후에도 확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는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왔다.

문화유산은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 즉 유형유산(Tangible Heritage)을 의미하며, 세부적으로는 기념물(monuments), 건조물군(groups of buildings), 유적지(sites),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로 구분된다.

- 기념물 : 건축물, 기념적 의의를 갖고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지 및 여러 요소의 복합체로서 역사, 예술 또는 학술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을 의미한다.
- 건조물군 : 독립건물 또는 연속된 건물의 군집체로서 건축특성, 동질성 또는 경관 속에 접한 위치로 인해 역사, 예술 또는 학술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성을 갖는 유산을 의미한다.
- 유적지 : 사람들의 삶의 흔적 또는 자연과 인간의 합작물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으로서 역사적, 미학적, 민족학적 또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을 의미한다.
- 문화경관 :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의거 ‘자연과 인간의 합작물’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세계유산 운영지침에서 문화경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 경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 첫째,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 창조된 경관
  - 둘째,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
  - 셋째, 결합적 문화경관

### 2)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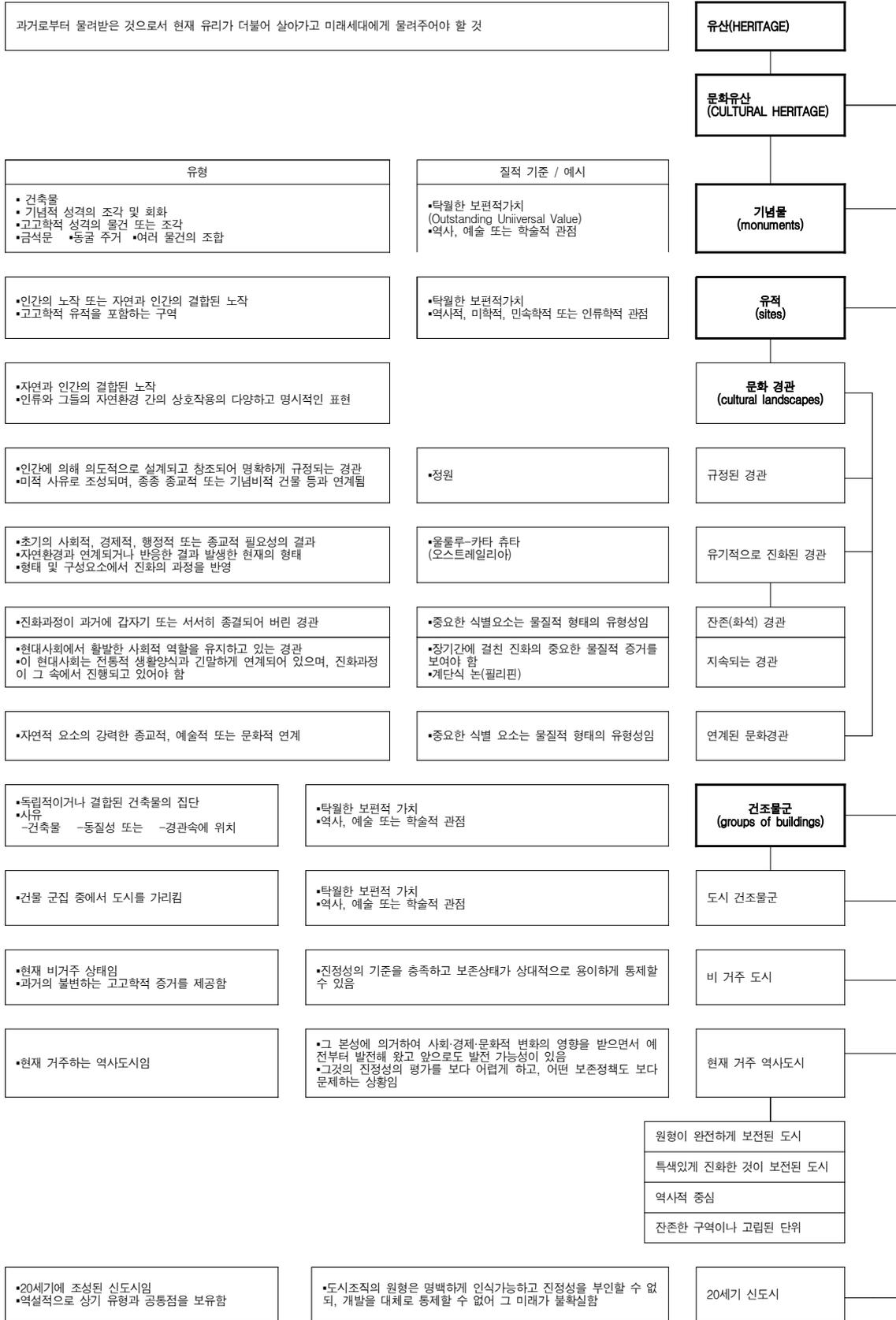
세계유산협약(제2조)에는 자연유산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이러한 생성물의 집합체로 구성된 자연의 특징물로서 미학이나 과학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지질학적, 지형학적 생성물 및 정확하게 구획된 구역 내에 위협받는 동물과 식물의 종의 서식지로서 과학이나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천연 명승이나 정확하게 구획된 천연구역으로서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3) 복합유산(Mixed Heritage)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정의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충족시키는 유산으로 정의한다. 즉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각각 1개 이상이 충족하는 유산을 의미한다.

<표 1> 세계 문화유산의 체계



### 3. 세계유산의 일반현황

#### 1) 세계유산 등재 현황

2020년 7월 기준으로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된 유산은 1,121건(167개국)에 이르며, 이중 문화유산이 869건, 자연유산이 213건, 복합유산이 39건이다. 현재, G20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중 유럽연합의장국을 제외한 19개 국가의 세계유산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G20 국가 세계유산 보유 현황

국가명	등재 건수	국가명	등재 건수	국가명	등재 건수
남아프리카 공화국	문화 05 자연 04 복합 01 합계 10	대한민국	문화 13 자연 01 합계 14	독일	문화 43 자연 03 합계 46
러시아	문화 18 자연 11 합계 29	멕시코	문화 27 자연 06 복합 02 합계 35	미국	문화 11 자연 12 복합 01 합계 24
브라질	문화 14 자연 07 복합 01 합계 22	사우디아라비아	문화 05	아르헨티나	문화 06 자연 05 합계 11
영국	문화 27 자연 04 복합 01 합계 32	이탈리아	문화 50 자연 05 합계 55	인도	문화 30 자연 07 복합 01 합계 38
인도네시아	문화 05 자연 04 합계 09	일본	문화 19 자연 04 합계 23	중국	문화 37 자연 14 복합 04 합계 55
캐나다	문화 09 자연 10 복합 01 합계 20	터키	문화 16 복합 02 합계 18	프랑스	문화 39 자연 05 복합 01 합계 45
오스트레일리아	문화 04 자연 12 복합 04 합계 20				

## 2) 대한민국 세계유산 현황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995년에 해인사 장경판전을 시작으로 2019년 7월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에 이르기까지 문화유산 13건, 자연유산 1건을 보유하고 있다.

<표 3> 대한민국 세계유산 등재 현황

유형	등재명칭(등재연도)
문화유산 (12건)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석굴암과 불국사(1995), 창덕궁(1997), 화성(1997),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경주 역사유적지구(2000), 조선 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마을과 양동마을(2010), 남한산성(2014),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7), 한국의 서원(2019)
자연유산 (1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 II.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준비 과정

지난 2015년 7월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감안해 볼 때 제대로 조명 받거나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기에 백제역사유적지의 세계유산 등재 소식은 너무도 감격스러운 소식이었다. 이와 같은 기쁨은 단순히 몇 년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장 첫발은 지난 1994년에 공주 무령왕릉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시키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센터에서 제시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옛 왕도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유산들을 포함시켜 연속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조언과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 2007년에 세계유산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공주·부여의 역사유적지구와 익산역사유적지구에 대해 기초 학술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백제문화를 알리기 위한 각종 연구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유산을 소개하는 도록의 발간이나 홍보물의 제작,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등재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며, 현지 실사과정에서도 그간의 활동 증거로 제시된바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0년 1월에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와 익산역사유적지구가 각각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되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에서는 각각의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신청하고자 하였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된 다음해인 2011년 2월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차기 세계유산 등재대상 선정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결과 공주와 부여, 익산지역을 통합

하고 백제시대의 유산으로 한정시킨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명칭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당해 연도 12월 11일에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장이 참석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더불어 공주와 부여, 익산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순수 민간조직인 ‘세계유산등재 주민추진협의회’가 각 지역에 결성되었다.

2012년 5월에는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관리단’이 출범하였고,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주민참여가 필수적 사항임을 공감하여 주민참여를 이끌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신청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 모색을 위한 국내·외 학술회의도 다음해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2013년도는 등재신청서가 작성되었는데, 우선 국문신청서가 작성되고 영문신청서 초안이 9월에 유네스코에 제출되었다. 이후 국문신청서의 보완작업과 영문신청서 작성 작업, 해외전문가 검토 등 숨가쁘게 이루어졌다.

통합보존관리기구의 구축, 등재신청서 작성 과정과 이후 등재까지의 내용은 다음의 절에서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 1. 통합보존관리기구의 구축

통합보존관리 조직의 필요성은 최근에 신청되는 유산의 다수가 연속유산으로 신청됨에 따라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원화로 인해 통합적인 보존관리의 불합리성에 제기되어 2,000년대 이후부터 통합보존관리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8개 단위유산들로 구성되어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 또한 통합관리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통합관리 조직은 세계유산 준비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과 함께 등재 이후 체계적인 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구심점이자 조직이기 때문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보존관리조직의 구상 단계에서 남한산성 보존관리사업단의 사례가 참고가 되었다. 남한산성의 경우에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에 관한 지원업무와, 진정성 확보를 위한 학술연구, 각종 홍보자료 제작, 아카이브 구축 및 보존관리계획 수립 등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추진하여 매우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다.

따라서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는 남한산성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통합보존관리기구를 구축하였다. 통합보존관리 조직구성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뒷받침하며, 역할은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정관에 관련근거를 두고 있다.

2011년 통합보존관리조직이 출범할 당시 조직체계는 이사회와 추진위원회를 두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무국으로 편성하였다. 이후에는 2013년 초에는 사무국에서 추진하는 세계유산등재 업무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분과위원회를 두어 행정가 5인으로만 구성된 사무국의 역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등재신청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사무국의 조직확대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년 12월에 기존 행정가 5인에서 6인으로 늘어나고, 세계유산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문화유산관련 민간 전문가 4인을 채용하여 2개팀 11명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후 2014년 하반기에 기존의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등재 이후 2016년 1월에 ‘백제세계유산센터’로 개칭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에 관한 내용

### 1)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sup>2)</sup>의 검토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사항은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re)에서 제시하는 운영지침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운영지침은 세계유산위원회에 의해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과거의 운영지침을 참고로 작성되다 보면 자칫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경우에는 2013년 제정된 운영지침에 의해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이밖에도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세계유산등재준비 매뉴얼(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과 세계문화유산관리 매뉴얼(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 등이 신청서 작성에 참고 되었다.

### 2) 등재신청 유산의 명칭

유산의 명칭은 잠정목록 등재시 부여된 명칭과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이후나, 심지어 신청서의 초안을 완성한 이후에 기존의 명칭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및 완전성이 드러날 수 있는 명칭으로 확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사례를 보면, 잠정목록 등재신청서에는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 ‘익산역사유적지구’로 명칭을 부여하였으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3개 지자체를 통합하고, 백제문화유산에 한정하여 우선등재대상으로 권고함에 따라 지금과 같이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명칭을 정한 바 있다. 또한 등재신청서 작성과정에서 영문 명칭을 ‘BAEKJE HISTORIC AREAS’로 확정하였다. 결국 유산의 명칭이 이와 같이 확정된 배경에는 등재유산이 ‘백제시대에 조성된 매장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연속유산’임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명칭이라 판단한 데에 있다.

실제로 신청유산의 명칭과 유산의 범위와 성격 및 내용이 부합되지 못해 등재되지 못한 경우도 발생되기도 하였다.

### 3)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술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간략한 진술문을 제시하고, 더불어 유네스코에서 제시하는 10가지 기준(문화유산 6개 기준, 자연유산 4개 기준)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적용 기준을 선정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i \sim vi$ 의 신청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기준  $vi$ 의 경우에는 단독으로는 적용할 수 없고 앞서 적용된 기준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표 4).

백제역사유적지구는 3개의 기초지자체에 분포해 있는 8개의 단위유산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유산의 유형은 모두 매장문화재(고고학 유적지)로써 왕궁관련시설과 성곽(산성 및 도시외곽성), 고분군(왕릉군)과 사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탁월한 보편적가치의 진술과 기준의 적용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구성하는 8개 단위유산에 대한 개별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증명이 아닌, 전체(8개 단위 유산)유산의 총합이 가지는 탁월한 가치가 진술되고 신청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2)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표 4> 세계유산(문화유산) 등재 기준

신청기준	내 용
문 화 유 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ii) 오랜 기간 동안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내에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반영할 것
	(iii)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특중한 증거일 것
	(iv) 인류역사의 중요단계를 입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일 것
	(v)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의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전통적 정주지, 토지이용의 사례 또는 해양이용의 탁월한 사례일 것
	(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문화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는 것(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략한 진술

대한민국의 중서부에 위치한 세 수도 관련 유적은 주변국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이른 백제후기를 대표한다. 백제는 한반도 삼국시대의 한나라로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약 700여년 간 존속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후기(475~660년) 여덟 개의 유적들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웅진왕도 관련 유적인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사비도성 관련 유적인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사비의 복도(複道)관련 유적인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적들은 백제가 중국으로부터 도시계획, 건축기술, 예술, 종교를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킨 뒤, 일본과 동아시아에 전해주었음을 증명한다.

(2) 등재신청 기준

기준(ii)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유적과 건축물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존재하였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간에 진행된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가져온 교류를 보여준다.

기준(iii) 수도 입지선정, 불교사찰, 고분, 건축물의 특징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독특한 문화, 종교, 예술의 뛰어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기준(iv)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동아시아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외곽성이 출현하던 시기에 발생한 도시계획상의 혁신을 고고학적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 중 하나이자, 국가통치이념으로 작용한 불교의 영향력이 반영된 수도의 구조에 대한 증언이다.

ICOMOS에서는 동 유산을 단위유산들의 총합으로 여기며, 하나의 단일한 도시계획이라기보다는 따로 떨어진 세 개의 도시유적의 조합으로 도시계획유형의 발전을 보여주는 만큼, 해당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4) 신청유산구역과 완충구역 경계의 설정

신청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경계설정은 유산의 유형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예로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여주는 구역이 신청유산구역이라 할 수 있는데, 신청유산의 경관이 OUV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범위가 매장문화재 구역 보다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신청유산구역은 유산의 존엄성을 위해 반듯이 보존되어야 될 범위라 할 수 있으며, 완충구역은 각종 압력에서 유산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구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보면 국내 문화재보호법에서 제시하는 문화재지정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의 개념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청유산이 당사국의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검증의 대상이다. 따라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개별 신청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정구역 내에서 설정되었다. 완충구역은 문화재 지정구역의 일부와 함께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경계를 설정하였다. 해당유적이 고고학적 유적지임에 따라 신청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범위는 다른 세계유산의 경계 범위보다 크지 않게 설정되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설명하기 위해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에 이르는 구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실사자로부터 신청유산과 완충구역의 경계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신청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경계와 관련하여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유산의 경계는 성곽의 외곽선, 유적과 관련 있는 경계에 따른다. 정립사지와 미륵사지의 회랑지 외면, 나성의 기저부를 포함하며, 관북리유적과 왕궁리유적의 발굴지를 포함한다.*

*완충구역의 경계는 지형적 경계, 길, 도로를 따르며 명확하게 인식 가능하다. 산성과 고분의 경우, 그와 관련 있는 지형과 경관을 포함한다.*

#### 5) 진정성과 완전성

연속유산의 경우 진정성은 개별유적이 원래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규명되어야 한다. 신청유산의 진정성에 대한 증거는 세부적으로 형태와 디자인, 출토유물, 입지와 환경, 용도와 기능, 기술과 관리체계, 정신과 무형유산에 대해 기술되어야 하는데, 반듯이 진실되고 신뢰성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완전성은 OUV를 증명하는 요소가 완전히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제시한 완전성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개의 유적들은 주변국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한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이른 백제 후기를 대표하는 왕도관련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웅진과 사비시기의 왕궁과 고분, 성곽과 사찰들을 포함하며, 그 당시의 도시계획, 왕실의 생활상, 상장의례, 종교적 신념에 대한 내용을 보여준다.*

*신청유산의 단위유적들은 전체로서 유산이 지녀야 할 필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유적들은 수도의 역사적 기능과 그 환경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유산의 경계는 고려시대에 진행된 정립사지의 재건과 활용, 조선왕조에 의한 공산성과 부소산성의 활용과 시설들의 보강 및 재건과 같은 후대 왕조들에 의한 도시의 발전을 나타내는 유적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백제시대의 유적들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많은 고분들은 발굴조사 이전에 도굴되었다. 부소산성 북문 주변 취수장은 시각적으로 경관에 영향을 주고, 관북리 유적 내에는 4가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이는 통제 가능한 대상이다. 유적지들은 개발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 6) 유사한 국내·외 유산과의 비교연구

비교연구의 대상은 신청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세계유산과 잠정목록에 등록된 유산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연구의 핵심은 신청유산과의 유사점 또는 신청유산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 중 가장 유사성 및 관계성이 깊은 사례는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신청유산과 차이점을 찾아냄과 동시에, 신청유산의 특성이 부각되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비교연구의 목적은 신청된 유산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경우에는 세계유산 111건을 선정하여 분석되었으며, 이 중 대한민국 소재의 “경주역사유적지구”와 북한 소재 “개성의 역사기념물과 유적”, 중국 소재 “고대 고구려왕국의 수도와 묘지”, 여타 도성제 관련 유산, 일본 소재 “고대 나라의 역사 기념물”, “고대 교토의 역사 기념물”, 베트남 소재 “탕롱의 제국주의 시대 성채”와 자세히 비교 분석되었다.

이밖에도 “평양역사유적지구”(북한), “아스카 후지와라”(일본) 등의 잠정목록 유산이 비교 분석의 대상이었다.

## 7) 보존관리 현황과 계획

### (1) 보존현황

신청유산의 현재 상태에 대한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 국가에 의해 법률적으로 유산이 보호되고 있고, 유적의 정비와 관리는 매뉴얼에 의해 적용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연속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경우에는 지구를 구성하는 개별 유산에 대한 보존 상태와 현재까지의 조사현황, 관리 상태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 이후, 개별 유산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유구, 단위 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개별유산에 대해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신청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표시하고, 구성요소의 위치를 간략히 표기하였다.

### (2)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존관리현황 및 계획부문의 진술은 법률적 조치에 의해 유산의 보호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사전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고, 예측 가능한 압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운용되고 있음을 진술하였다.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되었는데, 그 내용은 개발압력, 환경압력, 자연재해 및 위험대비, 유산지역을 찾는 방문객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개발압력은 신청유산이 각종 개발 사업에서 보호받고 있는 법적 보호조치를 기술하고, 완충구역의 경관관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보호받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둘째, 환경압력은 유산이 입지해 있는 위치에 따라 압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대기오염이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기술하고 이와 관련된 사전 및 사후조치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었다.

셋째, 자연재해 및 위험대비와 관련해서는 관련법령 및 매뉴얼에 근거하여 재난에 대응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 등의 안전조치 상황에 대해 기술하였다. 더불어

각종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여 현장통합지휘체계 및 통합지휘본부 구성 및 운영 체계를 제시하여 문화재의 재난에 대응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청유산지역을 찾는 방문객과 관련하여 약 5년간 방문객 현황을 집계하여 제시하고, 세계유산 등재이후에 신청유산구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의 수용력이 충분하다고 기술하였다.

## 8) 유산의 보호 및 관리

신청유산의 보호 및 관리현황과 계획을 진술하기 위해 먼저 신청유산 구역에 대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부분과 유산별 보호 상태와 완충구역의 현황에 대해 기술하고, 유산의 보호 및 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각종 법령과 관련 계획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국가 법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하고 관련계획은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문화유산 보존관련 계획을 망라하여 정리되었다. 결국 신청유산에 대한 보호 및 관리는 정부의 법령에 의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변화하는 상황에 부합된 계획이 주기적으로 재수립되어, 이를 기반으로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는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신청유산이 효율적으로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진술하였다.

더불어 보존관리와 관련된 주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행정조직과 더불어 연속유산일 경우에는 통합 보존관리 주체와 함께, 민간 조직에 대해서도 기술되었다.

유산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민간조직의 구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산의 보호 관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시하였으며,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도 내용에 포함되었다.

신청유산을 찾고 있는 방문객에서 제공되는 관람서비스 시설과 관련하여 박물관이나 전시관 주차장, 숙박시설 등의 현황에 대해 밝힘은 물론, 유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람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관람시설, 안내시설을 모두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산의 설명 및 홍보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유산을 소개하는 웹페이지 운영, 관광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축제와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관광안내 및 문화유산 해설사 프로그램, 보존관리기구 전담 기구 및 인력현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 9) 모니터링

모니터링의 목적은 신청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 관리하는데 있다. 따라서 신청유산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많은 조사를 통해 현황이 모니터링 되고 있음을 중점에 두고 기술되었다. 주요 내용은 전문가에 의한 현황조사 및 분석내용,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 의견검토 내용, 정밀 실측조사 및 안전점검(안전진단) 활동, 민간단체의 문화재 보존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각종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된 기록들은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보관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전문가 실사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제출되었다.

## 10) 부속자료(도면·고사진·고문헌·연구문헌·도면자료와 사진 및 영상자료 등) 준비

도면과 사진촬영 작업은 본 신청서 작성 이전 단계부터 진행되었는데, 신청유산의 범위와 구성요소의 개수에 따른 작업의 양이 많아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었다.

첫째, 부록으로 제출되는 도면자료집은 매장문화재일 경우에는 발굴조사도면이 중심이 되

었고, 유형문화재의 경우에는 실측도면이 중심이 되었다. 이와 같은 도면들은 기존에 발간된 발굴조사보고서나 문화재수리공사 보고서 및 정밀 실측조사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자료를 선별하여 캐드와 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작성하여 전산화하였다. 특히,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는 세부 구성요소들은 모두 도면화 하였으며, 현장 실측조사를 통해 현재상태가 그대로 표현된 도면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도면 데이터 자료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각종 홍보물이나 연구분야에도 활용되었다.

문헌자료는 고사진과 고문헌, 그간의 연구성과(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그동안 신청유산의 진정성과 OUV를 증명하는데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유용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둘째, 사진자료집은 사계절을 담은 사진자료를 작성하였다. 사진촬영의 목적은 수준 높은 예술성을 보이는 사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 유산의 상태와 가치를 잘 드러내는 구도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진촬영은 이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촬영되지만, 중간 결과물에 대해 세계유산 전문가와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선별되고 조정되었다.

영상물은 짧은 시간(약 12분 전후)에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극명하게 보여 주어 유산의 이해도를 높이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할 필요성을 공감시킬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제작되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유산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이루어졌다. 시나리오의 제작이나 검토 과정, 촬영되어야 할 대상 등 많은 부분에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 11) 영문번역 및 신청서 검토

신청서 작성 당해 연도에는 상반기에 국문 신청서 초안이 완성되고, 바로 번역작업을 진행하였다. 영문신청서 초안이 번역된 이후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경험과 실사 경험이 풍부한 해외 전문가(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를 초빙하여 면밀히 내용을 검토하고 문장의 기술방법이나 중점을 두어야 될 내용 등에 대해 꼼꼼히 정리함으로써 신청서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등재신청서의 검토는 국내 전문가가 아닌, 신청유산에 대해 깊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제적 전문가가 신청서에 기술된 내용을 보고 검증하는 것이므로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용어의 선정과 합리적인 기준에 맞추어 신청서의 내용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신청서를 보완한 이후에도 등재신청서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는 세계유산 등재 경험이 풍부한 국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보완된 이후에 신청서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 12) 신청서의 제출

신청서의 제출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제출되는데 매년 2월 1일이 마감일이다. 다만, 매년 등재심사가 40건으로 한정<sup>3)</sup>되어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신청서와 각종 부속자료들은 국제항공 배송기간을 감안하여 1월 21일 발송하였고,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고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1월 28일 접수되었다.

3)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접수된 순서로 마감하며, 제출되는 신청서가 많을 경우 차기년도로 심사가 넘어갈 수 있다.

### Ⅲ. 등재 신청서 제출 이후 등재까지의 준비 내용

#### 1. 실사준비

신청서가 제출된 이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운영지침에 맞게 신청서류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2월말이나 3월초에 신청국에 통지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신청서의 접수가 완료되었고 심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등재신청서 제출 이후에 바로 현지실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경우에는 현지실사 이전에 4차례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비실사를 거친바 있다.

첫 번째 실사는 4월 중순에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비실사로서 ICOMOS-KOREA 전문가와 신청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현지실사에 대비한 실사 동선의 적절성과 설명방법에 대한 조언을 통해 지적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실사는 5월 중순에 ICOMOS 해외전문가 1인을 초빙하여 실시하였다. 주요내용은 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실사 동선 설정과 관련된 자문과 질문내용에 따른 답변의 적절성 등을 점검한 후 지적사항과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본 실사 이전까지 준비·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이 도출하였다.

세 번째 실사는 7월말에 ICOMOS 해외전문가 2인을 초빙하여 실시하였다. 두 차례에 거친 예비실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본 실사와 동일한 일정으로 예비실사를 진행하였다.

네 번째 예비실사는 1차 예비실사에 참여한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실사 동선을 점검하고 설명 및 답변에 대한 적절성, 본 실사 대비 준비사항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예비실사를 총 4차례 실시하면서 유산의 탁월한 가치와 보존관리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상지와 위치의 선정이 이루어지고, 각 유산이 연계된 현지실사 동선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다. 더불어 유산의 상태와 보존관리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수준도 높아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여러 차례에 걸친 예비실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지실사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 점은 가장 큰 성과였다.

#### 2. 현지실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현지실사는 2014년 9월 15일~20일에 ICOMOS에서 파견된 해외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었다. 사전에 여러 차례의 예비실사를 통해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지만, 현지실사자에게 제공할 자료의 준비와 설명에 필요한 모형자료 등은 준비는 물론이고, 실사 동선에 대한 점검과 수행자들의 역할, 일정관리 등 추가적인 준비 사항도 필요하였다.

현지 실사자는 해당유산지역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 계속된 질의와 답변이 오갔으며, 해당유적 뿐만이 아니라 보존체계 점검을 위해 기관 방문도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공주에서는 인근 소방서를 찾아 화재예방활동과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공주시청 종합상황실을 찾아 유산지역에 설치된 무인감시체계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부여에서는 부소산성 내의 배수처리장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문화재사업소를 방문하여 유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익산지역에서는 미륵사지 석탑 해체보수현장을 찾아 보수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현지 실사자는 국제기구에 의해 등재신청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한 검증 임무를 부여 받게 된다. 그 중에서도 보존 관리상태가 제출된 신청서와 동일한지에 대한 검증이 주요한 임무중의 하나이었다.

### 3.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수정본 작성 및 제출

2014년 1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체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예비실사시에 지적된 문제도 함께 검토하여 등재신청서 수정작업이 이루어져 현지 실사 이전인 2014년 9월 초에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 수정본이 제출되었다. 수정본의 주요 내용은 신청서 내용과 관련된 오탈자 수정 정도의 경미한 내용이었다.

### 4. 실사 후 등재까지

ICOMOS에서는 총 2차례에 걸쳐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 첫 번째 추가자료 요청은 현지 실사 이전인 2014년 8월에 편지를 받고 내용을 작성하여 11월 제출되었다. 요청 내용은 연속유산 전체가 표현된 지도의 요청과 일부 사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요청, 유산구역의 법적 보호조치 사항, 방문객 시설과 관련된 도면 요청 등이었다

두 번째 추가자료 요청은 2014년 12월에 편지를 받고 2월에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석탑 해체보수에 대한 추가정보와 관광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향후 계획, 벽화고분 모니터링 주기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후 금년 5월에 ICOMOS에 의해 등재 권고 의견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되었고, 드디어 7월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 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재가 결정되었다.

등재결정문에는 추가적인 권고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첫째, 신청유산에 대하여 뛰어난 보편적 가치(OUV) 유지를 위한 개별 유적의 방문객 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 수립을 제시한 대로 완료하고, 둘째, 고분 벽화의 보존 상태와 고분 내부 환경변화의 모니터링 주기를 제시(3년)한 대로 조정하라는 권고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두 가지의 권고사항은 2차 추가자료 요청시 답변서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이행을 권고한 것이었다.

## IV. 세계유산적 가치의 전승을 위한 노력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는 백제인들이 남겨준 유산이 지방정부와 국가를 넘어 세계인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귀중한 유산이 되었으며, 유산의 가치와 진정성 및 완전성을 보존하여 미래 세대들에게 전수해야할 책무가 우리 세대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유산등재 이후에 국제기구와 국제전문가들은 유산의 원형유지를 위한 보존과 관리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에 권고한 내용도 이 같은 배경에서 유산의 모니터링 주기와 관광객에 의한 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객의 관리 전략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네스코 권고사항은 백제세계유산센터에 의해 모두 원활히 이행되고 있다. 유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광관리 전략이 마련되었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던 모니터링이 상시 모니터링<sup>4)</sup>체계를 전환되어 운영되고

4) 부여 능산리고분군의 실내 온습도 변화를 측정하는 모니터링 주기는 기존 5년에 한번 실시하던 것을 상시로 전환하였으며, 결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은 3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상시 모니터링 요원에 의해 8개 개별유산 구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

있다. 더불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전승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 및 교육, 활용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밖에도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매장문화재 중심인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공유할 수 방법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구성하는 8개 유산은 다른 세계유산과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문화재가 땅속에 매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불타지 않은 석조물이나 건물터의 기초부 정도만이 남아있고 땅속에서 발견된 유구는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반인들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적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유적 복원을 지향하기도 하나, 이러한 복원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 원칙적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개별유산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추정에 의한 건물의 복원이 아닌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는 최신기술을 이용한 3차원 기록화사업,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세계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각 유적의 원형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디지털 복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각적으로 많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유적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이면의 가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유적은 그 가치에 대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국 단점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극복하고, 장점은 극대화시키려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네스코에서는 20세기가 과학과 기술의 거대한 발전기인 ‘과학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즉 21세기의 탈이념 시대에서는 문화가 그 민족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드러내어 민족과 민족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문화수준 정도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척도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더불어 백제가 남겨준 문화유산으로 인해, 작게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국가적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이 확보되어 대한민국이 21세기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과 국가를 넘어 전 세계인을 상대로 백제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 참고문헌

- 문화재청, 2014,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신청서
- 이동주, 2015, 세계유산 포럼 발표집(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
- 이동주, 2016, 세계유산 남한산성 학술심포지엄 발표집(백제 성곽유산의 관리 및 활용)
- 유네스코, 2015,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결정문



---

[제3부] 발굴조사 최신 성과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방안

---

## 세계유산으로서 부여 나성의 관리 및 활용

최 희 균

백제고도문화재단 연구원

---



## 세계유산으로서 부여 나성의 관리 및 활용

최희균<sup>1)</sup>

### <목차>

- I. 머리말
- II. 부여 나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
- III. 부여 나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 과제
- IV. 맺음말

### I. 머리말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다.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2019년 기준 전세계 총 1,121점(문화유산 869점, 자연유산 213점, 복합유산 39점)이 등재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14점(문화유산 13점, 자연유산 1점)이 등재되었다. 그중에서 12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 바로 부여 나성이 속해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가 가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단위유산들이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이에 있었던 상호교류를 통해 이룩된 백제의 건축 기술의 발전과 불교 확산에 대한 증거를 보여줌과 동시에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볼 수 있는 수도의 입지, 불교 사찰과 고분, 건축학적 특징과 석탑 등은 백제 왕국의 고유한 문화, 종교, 예술미를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문화재청과 더불어 단위유산들이 입지하고 있는 2개 광역단체 및 3개 자치단체에서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지 5주년이 되는 해로 지금까지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노력들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단위유산 중의 하나인 부여 나성을 대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백제고도문화재단 연구원

## II. 부여 나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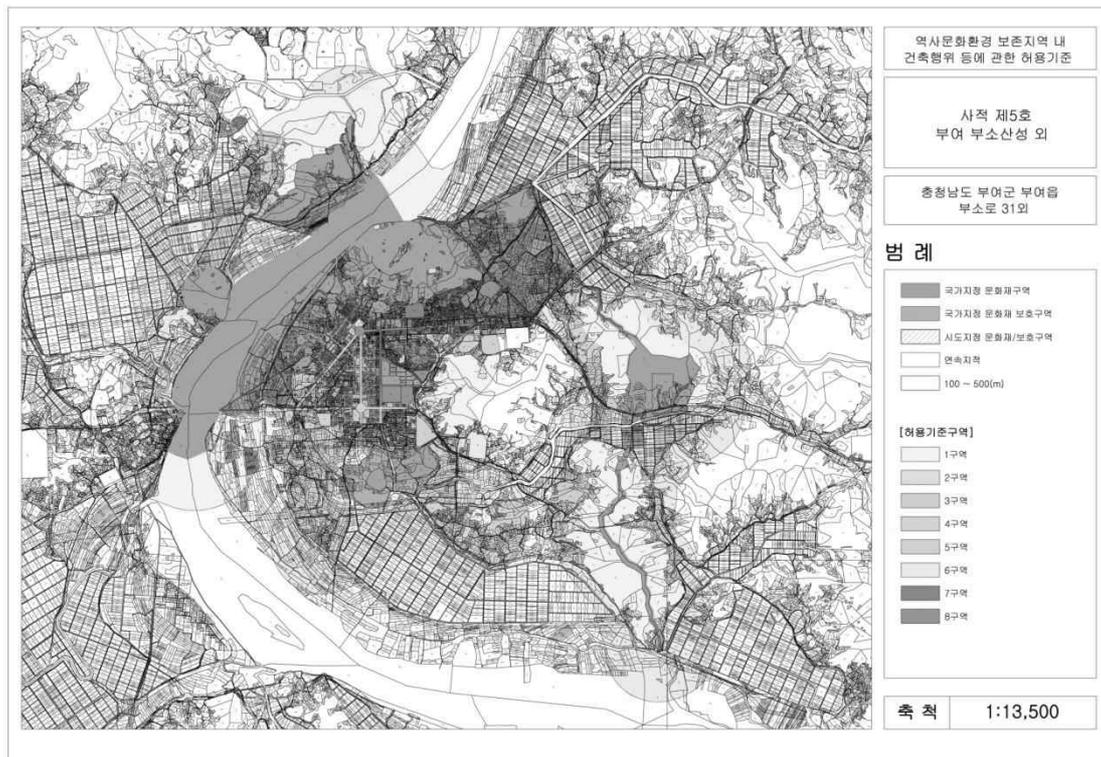
### 1. 관련법령 및 조례

부여 나성은 1963년 1월 21일 국가사적 제58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관리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지정,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 문화재에 대한 각종 조사 및 연구 등을 시행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보호법>을 토대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문화재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지방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부여 나성의 세계유산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은 모두 부여 나성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재 관련 법령 및 조례로 보호되고 있다. 특히 2009년 법령에 의해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최근 허용기준이 조정되어 고시되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부여 나성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은 대부분 신축행위가 불가하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고높이 5m이하(경사지붕의 경우 7.5m 이하)로 규제되고 있다.



<도 1> 부여 부소산성 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관한 허용기준

부여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적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로 평가받아 경주, 공주, 익산과 함께 ‘고도’로 지정된 도시로서 2005년에 제정된 <고도보존 및 육

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이다. 부여 나성의 경우 청산성 일원의 북나성 지역이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보호법>과 함께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도지역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사항들을 두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 형태, 색상 등을 제한하고 있다.

부여 고도지구 중 부여 나성이 지나가는 지역은 모두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주변은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법령에 정하는 각각의 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들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부여 나성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의 북쪽 일부만 고도지구로 포함되어 있어 현재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영향에서 대부분 벗어나 있다.

## 2. 관련계획

세계유산 등재 이후 부여 나성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리계획은 「부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2019)」과 「백제왕도 핵심유적 부여지역 발굴조사 마스터플랜(2019)」이 대표적이다.

「부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부여 나성은 2036년까지 총사업비 약 7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여 사유지매입, 발굴조사, 학술연구, 유적정비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유지매입은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발굴조사는 북나성과 동나성의 기 발굴조사 구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정비를 위한 동문지 일원, 월함지 조사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2031년까지 발굴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나성에 대한 학술연구로서 2021년 기록화 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2027년에는 나성에 대한 고증연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2031년~2034년에는 월함지에 대한 원형고증 및 심화연구가 계획되어 있다. 유적정비는 발굴성과에 따라 2031년까지 지속적인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며 2035년부터 2036년까지 그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부여지역 발굴조사 마스터플랜」은 유적별 성격을 고려한 심층적인 발굴조사 계획으로 2038년까지 부여지역의 핵심유적에 대한 조사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부여 나성의 경우 사비도성 외곽성의 실체규명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성벽구조확인, 도성 내·외부 연결 양상 확인, 나성과 도성 배수체계 관련 양상 확인 등의 3가지 전략과제를 토대로 9가지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9가지의 세부과제에 따라 조사지구를 설정하였으며 총 20차에 걸쳐 266,300㎡의 조사대상지에 대해 97.9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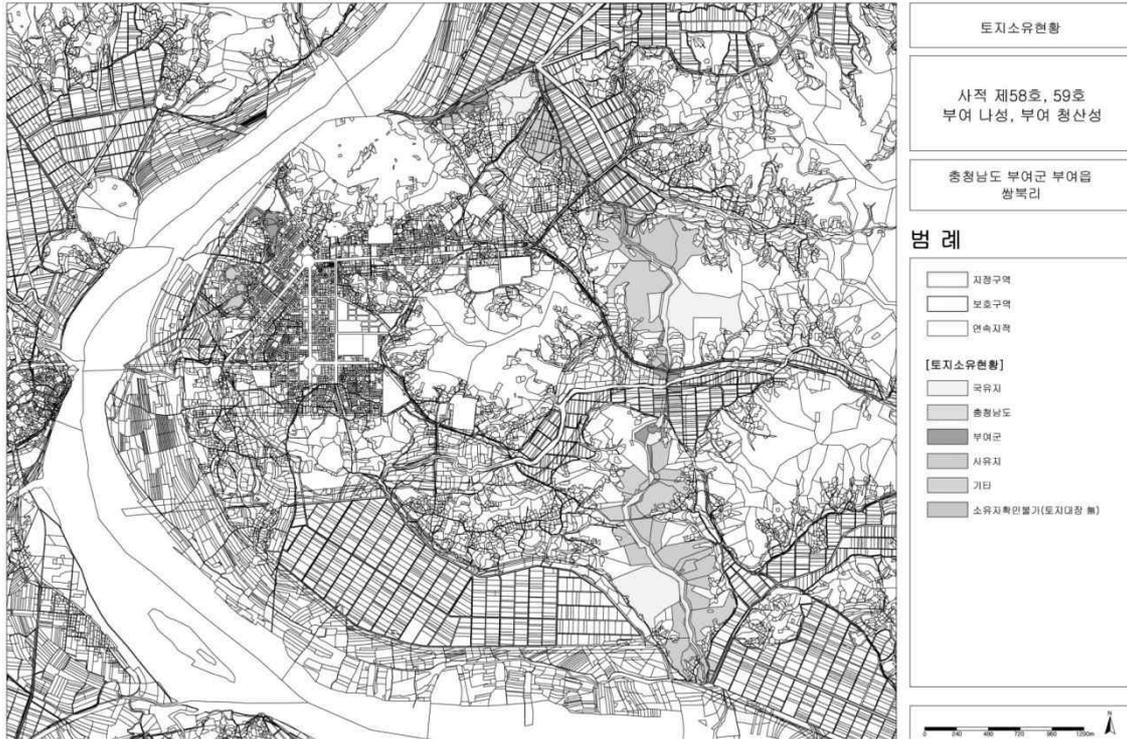
## 3. 보존관리 현황

### 1) 토지소유현황

부여 나성의 문화재구역은 총 678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지정면적은 703,528.4㎡이다. 부여군은 부여 나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정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문화재구역 내 국공유지는 353필지 370,813.4㎡로 전체 면적의 52.7%가량이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및 중중소유, 기타 등등의 토지는 전체 면적대비 4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여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국가지정문화재에 비해 비교적 사유지의 비

중이 높은 것으로 부여 나성의 입지 특성상 지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필지의 면적이 매우 넓어 지정구역에 포함된 일부만 분할하여 매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매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도 2> 부여 나성 문화재지정구역 내 토지 소유 현황

## 2) 발굴조사 연혁

부여 나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1991년 처음으로 나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최초의 조사는 부여 나성 발굴조사단에 의해 동나성 14개소에 대한 트렌치 조사로 시행되었는데 나성의 기초석렬과 적석층, 성토층 등이 확인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총 28차의 발굴조사가 시행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동나성의 경우 성벽을 상당 부분 노출시켜 정비하였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유구, 유물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북나성의 경우 최초 청산성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도중 청산의 북쪽 사면을 따라 연결된 북나성의 실체가 확인되었고 이를 계기로 최근까지 청산성~부소산성 구간의 북나성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서나성과 남나성은 현재까지 여러 차례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성곽의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표 1> 부여 나성 발굴조사 연혁

구분	조사지역	조사내용	조사기관
1991년	동나성구간 14개소 Tr조사	나성 기초석렬, 적석층, 성토층 확인	부여 나성 발굴조사단
1991년	동나성구간 A,B구역	경사지 및 평탄지에 조성된 나성 발견	부여 나성 발굴조사단
1993년	동나성구간 C~M구역	평탄지에 조성된 나성 발견	부여 나성 발굴조사단

1998년	동나성 동문지구간	동문지 유구 확인	국립부여박물관
1999 ~2000년	국도4호선 공사구간 동나성, 서나성	-동나성 : 고대 토목공법, 해자시설, 석 교용 부재 확인 -서나성 : 우물, 건물지, 수전 확인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년	군수제 개수공사 구간	적석유구 확인, 서나성의 흔적 미확인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년	나성 정밀지표 및 시굴조사	문지(북나성1개소, 동나성5개소)확인, 남나성, 서나성 존재 미확인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년	동나성 필서봉~능사 서북측 구간	성벽 축조기법 확인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2년	동나성 2차 정비복원 구간	성벽 축조기법 확인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4 ~2005년	국도40호선 도로확장공사구간	63m의 나성 성벽, 백제건물지 확인	충청매장문화재 연구원
2007년	국도40호선 도로확장공사구간 (추가조사)		충청매장문화재 연구원
2010년	서나성 군수제구간	군수제(추정 서문지) 제방 표본시굴	금강문화유산 연구원
2011년	서나성 군수제 경작유적	경작유적 3개지점 발굴조사	금강문화유산 연구원
2011년	청산성 구간	청산 북사면을 따라 통과하는 북나성 확인 (동나성과 연결)	부여군문화재 보존센터
2011년	북나성 구간 (190m)	북나성 성벽 외면 노출, 내탁부 노출 및 토층 단면 확인	부여군문화재 보존센터
2012년	북나성 구간 (73m)	북나성 성벽 외면 노출, 내탁부 노출 및 토층 단면 확인	부여군문화재 보존센터
2013년	북나성 구간 (113m)	북나성 성벽 외면 노출, 내탁부 노출 및 토층 단면 확인	부여군문화재 보존센터
2013년	동나성 능사구간		부여군문화재 보존센터
2014년	나성(청산성) 구간	계단식 대지조성, 건물흔적 확인, 와당, 도수관 확인	백제고도문화재단
2014 ~2015년	나성(청산성) 구간	정상부 조사, 굴립주건물지, 적심건물지, 대지조성시설, 기와무지, 추정담장지, 배 수시설 등 확인	백제고도문화재단
2015년	나성(청산성) 구간	대지조성시설, 성토층, 석렬 확인	백제고도문화재단
2016년	필서봉 구간	130m의 성벽 확인	백제고도문화재단
2016 ~2017년	동나성 구간	동나성 능산리구간 치·성벽 확인 동나성 2문지와 연결한 치 확인	백제고도문화재단
2017 ~2018년	북나성(시굴)	북나성 쌍북리 산지구간 성벽 흔적 확인	백제고도문화재단
2018년	북나성 구간 (가층천변)	석축 성벽 확인	백제고도문화재단
2018년	동나성(시굴)	백제시대 문화층 및 유구 확인	백제고도문화재단
2019년	북나성구릉- 저지대 연결부	성벽 7.5m(면석 최대10단) 확인 기저부 보강시설 확인	백제고도문화재단
2019년	동나성 구간	동나성 내측부 조사 기반조성층, 구지표층, 수혈 확인	백제고도문화재단

### 3) 보수정비 이력

부여 나성에 대한 보수는 1989년에 토성 286m 구간에 대한 보수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다양하게 시행되어왔다. 세계유산 등재 이전에는 대부분 동문지를 기준으로 남측과 북측 성벽에 대한 정비가 주를 이루었으며 2012년부터 발굴조사를 통해 북나성의 실체가 확인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8년에는 동문지에서 북측 정상부까지 복원된 성벽을 따라 야간조명이 설치되어 세계유산으로서 나성을 찾는 관람객의 야간 관람의 안전성 확보 및 외부에서 야간에 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표 2> 부여 나성 보수정비 연혁

년 도	보수정비 내역	년 도	보수정비 내역
1989년	토성 보수(L=286m)	2009년 ~2010년	성곽보수
1991년	나성 정비공사(9,917㎡)	2011년 ~2012년	성곽정비(L=180m)
1993년	나성 정비공사(3,305㎡)	2013년	잡목제거, 청산성구간 정비, 나성 평지형 성곽 정비(L=76m)
1995년	배수로 설치(215m), 석축 설치(46.5m)	2014년	나성 산지형 성곽 정비 지장수목 제거, 평지형 성곽 주변 배수시설 설치 나성 주변정비
1997년	콘크리트 포장	2015년	평지형성곽 주변정비
1999년	성곽보수(106m)	2016년	북나성 성곽 정비
2000년 ~2001년	성벽복원(109m), 벌목제근, 절토	2017년	북나성 발굴지 정비, 나성 탐방로 정비, 성곽정비
2003년	수목 및 잡목제거, 잔디식재, 집수정 설치(1기), 용수로정비	2018년	나성 경관조명 설치, 나성 탐방로 정비
2008년 ~2009년	성곽보수		

### 4) 유적 보존관리 현황

부여 나성의 발굴조사 결과 성벽, 문지, 장대지, 건물지, 해자 등의 다양한 단위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세계유산 등재 이전부터 국가사적으로서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 핵심구역으로 설정된 동나성 일원에 초점을 두고 보존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성벽의 경우 염창리에서 청산성을 지나 부소산성까지 연결되는 약 6.3km의 구간 중 동문지를 중심으로 북측 능선 정상부까지의 약 730m 구간과 남측 필서봉 능선 하단부까지의 약 350m 구간을 중심으로 발굴조사 이후 성벽이 정비되어 있으며 청산성 북측 능선부에서 확인된 약 320m의 성벽도 발굴조사 이후 정비가 시행되어있는 상태이다.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지 6개소, 장대지 3개소, 해자 1개소(폭 약 60m, 깊이가 약 1m)의 경우 현재까지 별도의 정비는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문지와 장대지의 경우에는 간이 안내판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해자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건물지의 경우 2000년 정밀지표조사 당시 건물지로 추정되는 평탄지 6개소를 확인하였으나 이후 세부조사가 시행되지 않아 현재 그 실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다만, 2014년과 2015년 청산성 정상부에서 확인된 굴립주건물지, 적심건물지 등은 2016년 정비계획<sup>2)</sup>을 수립하여 2017년 평면모식의 형태로 정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사진 1> 동문지 북측 성벽 정비 현황



<사진 2> 북나성 및 청산 정상부 정비 현황



<사진 3> 동문지~필서봉 구간 성벽 정비 현황

### 3. 활용 현황

부여 나성은 현재도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에서는 다양한 활용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9년에는 부여문화원 주관으로 2회에 걸쳐 관광객 및 군민을 대상으로한 세계유산 부여 나성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발굴조사가 시행되는 시기에는 발굴현장을 공개하여 일반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밖에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개관한 사비도성가상체험관과 능산리고분군 아트뮤지엄에서는 나성에 대한 정보를 ICT기술(인공지능, VR 등)을 이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2) 백제고도문화재단, 2019, 『특별보존지구 부여 나성 발굴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진 4> 부여 나성 걷기대회



<사진 5> 발굴현장 공개



<사진 6> 인공지능 도슨트  
트



<사진 7> 사비도성 항공 라이더 체험

이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나성에 대한 활용은 여전히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정비를 통해 활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스토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나성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방문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Ⅲ. 부여 나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 과제

#### 1. 부여 나성의 보존관리

##### 1)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

부여 나성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발굴조사 내용을 토대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발굴조사가 동문지 일원과 청산성 일원에 치중하여 시행되었고 정비 역시 해당 지역에 치중되어 시행되어왔다. 현재까지 발굴조사 및 정비가 완료된 구간의 전체 길이는 약 1.4km내외로 나성 전체 길이인 6.3km의 약 22.2%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조사와 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019년에 수립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과 『백제왕도 핵심유적 부여 지역 발굴조사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향후 2038년까지 부여 나성에 대한 조사, 연구, 정비

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포함 되어있어 나성의 보존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의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해당 계획이 부여 나성을 포함한 부여지역의 사적 11개소, 명승 1개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약 7천억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계획이라는 점이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은 계획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충청남도, 부여군은 계획이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산이 확보된 이후의 문제는 조사와 정비과정에서 세계유산의 가치와 진정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발굴조사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발굴이라도 유적의 원형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존·보호되고 있는 유적의 경우 더욱더 절제된 조사를 통해 정비와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3)</sup> 정비의 측면은 조사보다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나성의 정비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성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원하는 과정이 대부분으로 유산의 진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복원이란 중요한 가치나 원형이 소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원래 모습이나 특정 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를 말한다.<sup>4)</sup> 이는 곧 복원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철저한 고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칙과 기준이 설정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2) 확장등재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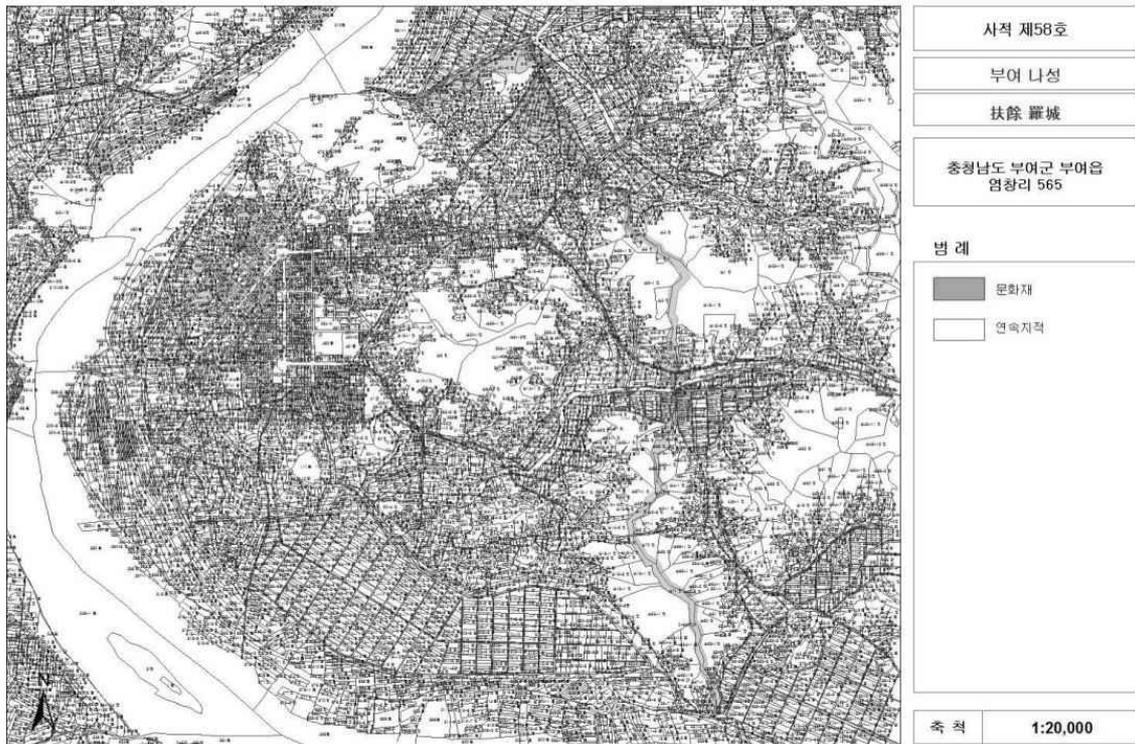
나성의 범위에 대한 인식은 시간의 흐름과 조사의 진행에 따라 점차 변화되어 왔다. 최근의 발굴조사 성과 및 연구성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시점에서 나성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염창리 끝단에서 북측으로 연결되며 청산을 기점으로 서측으로 돌아 부소산성의 동측 성벽에 맞닿은 형태의 약 6.3km 구간이 나성의 전체 범위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나성의 핵심구역은 나성의 전체를 포함하지 않고 동나성 약 4.66km 구간에 대해서만 핵심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등재 당시 법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사적 지정범위가 나성 전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발굴조사 및 정비 역시 지정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 이후 북나성의 실체가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서 사적 지정범위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18년 5월 석목리에서 청산을 지나 부소산으로 연결되는 지역이 모두 지정구역에 편입되었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나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 구간이 제도권의 관리 범위 안에 포함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더불어 세계유산으로서 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부여 나성은 사비도성의 외곽성으로서 도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산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을 완전하게 나타낼 만큼의 적정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세계유산의 완전성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당초 핵심구역을 확장하여 부소산성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3) 문화재청, 2019, 『백제왕도 핵심유적 부여지역 발굴조사 마스터플랜』.

4) 한필원, 2017, 「한국 세계유산의 보호·관리 및 홍보·활용 현황과 과제」, 『馬韓·百濟文化』 30,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도 3> 부여 나성 문화재 지정구역(2018.5.17. 고시)

### 3) 모니터링

문화재청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듬해인 2016년 6월부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연속유산의 특성상 단위유산의 관리주체가 서로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미리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모니터링 요원이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입력하는 방식과 일반인이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QR코드 방식)으로 운영된다. 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는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센터는 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내용을 비교·분석·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거나 관련 자치단체와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장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간단한 교육을 받은 모니터링 요원 또는 일반인이 모니터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2017년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개최된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관리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하는 제3차 정기보고를 공식절차로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정기보고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수행하여 2022년 7월에 세계유산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사국의 주도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세계유산과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생성하여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정기보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점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재)백제세계유산센터를 중심으로 백제역

사유적지구의 OUV, 진정성, 완전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전문가그룹이 직접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행정(문화재청, 충청남도, 부여군)과 주민단체가 점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또한, 보고를 위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5년마다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에 한하여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앞서 언급한 세계유산 정기보고 항목에 포함된 점검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면 점검과 계획이 상호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된다.



## 2. 부여 나성의 활용방안 제안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면서 서로 충돌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가치를 온전히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유산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보존참여를 이끌어 낼 수도 있겠지만 유산의 보존적 측면을 외면한 채 활용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유산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유산의 가치 훼손은 결국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의 활용을 준비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산의 가치 보존을 중심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부여 나성의 보존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1)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에서는 유산(heritage)을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과 더불어 현재 살고 있으며 미래의 세대에게 전승하는 것(Heritage is our legacy from the past, what we live with today, and what we pass on to future generations)”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세계유산은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여 그 가치를 온전히 유지한 채 미래세대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부여군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청소년 알리미 양성교육’과 ‘부여 나성 걷기대회’, ‘발굴현장 공개’ 등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들은 잠재적인 유산의 보존과 활용 주체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특정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등 분명한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은 문화유산에 대한 잠재적 보존 및 활용의 주체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명확한 목적과 체계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 해설사 또는 명예홍보단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민 해설사는 전문적인 문화유산 해설사의 개념보다는 일상에서 유산의 가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방문객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주민의 개념이다. 시민해설사의 양성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의 유산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강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유산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유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몸소 체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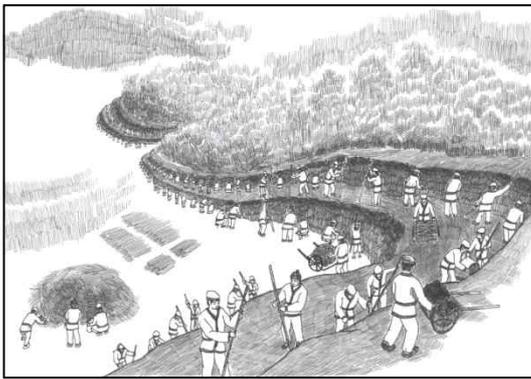
명예홍보단의 경우 지역의 경계를 넘어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SNS가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면서 다양한 정보의 루트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유산의 가치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SNS를 활용한 효과적인 정보전달 방법 등 다양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이수한 인원에 대해서는 명예홍보단 인증을 통해 공식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명예홍보단 양성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디지털 체험콘텐츠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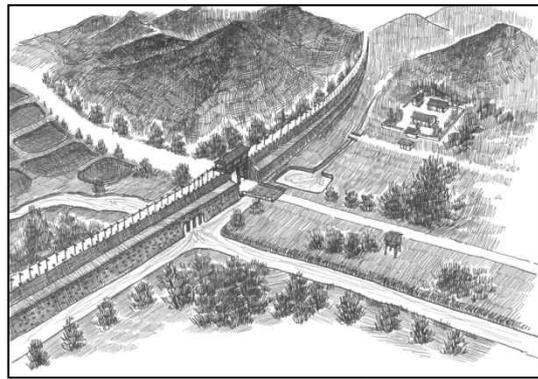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단위유산은 대부분 지하에 유산의 실체가 매장되어 있는 고고학 유산이다. 부여 나성 역시 일부 정비된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땅속에 매장되어 있거나 정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실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유산이 가지는 가치를 온전히 향유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ICT 기술들이 개발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면서 문화유산과의 융합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주 석굴암 HMD 트래블을 시작으로 초반에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기반의 콘텐츠들이 운영되었으며 점차 기술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인공지능(AI), 홀로그램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나아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되어 적용되는 과정에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웨어러블 기기 시장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데 이를 통해 점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매장된 고고학유산의 평면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유산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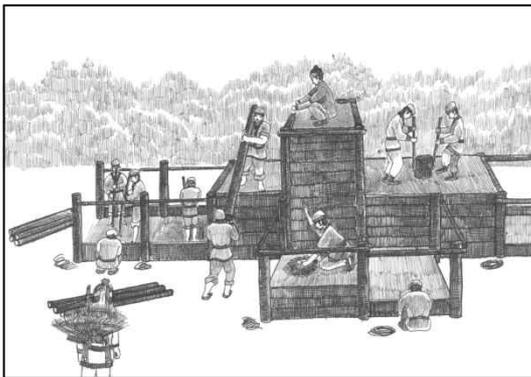
부여군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에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개관한 사비도성 가상체험관과 능산리고분군 아트뮤지엄이 대표적이다. 각각의 시설에서는 부여 나성에 대한 콘텐츠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안내형식의 간단한 콘텐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부여 나성의 가치를 온전히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여 나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나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 4> 부여 나성 축조 모습 예시



<도 5> 동문지 일원 나성 추정 복원도



<도 6> 관측공법에 관한 설명



<도 7> 부업공법에 관한 설명

부여 나성은 중국의 외곽성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백제인들의 토목기술을 접목하여 한반도 최초로 조성된 도시 외곽성이다<sup>5)</sup>. 최근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성벽유구와 문지 등의 시설이 확인되었고, 관측공법이나 부업공법과 같은 축성기술 또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반 관광객들은 해당 내용을 알기도 어렵고 해당 내용을 알게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백제인들이 성곽을 쌓는 모습을 현장에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볼 수 있다던지, 관측공법이나 부업공법과 같은 백제인의 독창적인 축조기술을 인터랙션(상호작용) 기능을 활용하여 체험하게 하는 등의 방식들을 도

5) 전칠수, 2017, 「세계문화유산 백제성곽의 보존관리와 활용사례에 관한 문화재행정적 접근방안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1, 한국융합학회.

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나성을 탐방하는 방문객에게 네비게이션의 기능과 함께 각 구간에 대한 설명, 사진등의 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

부여 나성의 활용을 고려할 때 현장 중심의 활용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뛰어난 기술과 전문가가 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만큼 효과적인 교육은 없기 때문이다. 부여 나성은 사비도성의 외곽성으로서 현재의 부여읍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어 사비도성을 조망하기에 매우 용이하고 도성 내부의 세계유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연계 동선을 구성하기에도 매우 용이하다. 또한 2038년까지 부여 나성 미발굴지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발굴조사 현장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이러한 장점들을 토대로 부여 나성 탐방을 중심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히 걸어서 나성을 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비천도에서부터 백제 멸망까지의 스토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며 스토리와 관련된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제안했던 교육프로그램 및 디지털콘텐츠 구축과도 연관되어 시행될 수 있을 것인데 사비도성과 관련된 스토리 제공을 시민해설사가 담당하게 하고 중간중간 필요한 장소에 거점을 마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체험에서 그치지 않고 미션을 부여하여 달성하는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V. 맺음말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부여 나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었다.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유적정비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부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과 <백제왕도 핵심유적 부여지역 발굴조사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2038년까지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되었다. 활용적 측면에서도 부족하지만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부여 나성 걷기대회와 발굴조사 현장공개,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의 활용사업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 일반인에게 부여 나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다만 그간의 성과들을 되짚어 볼 때 앞으로 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수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여 나성의 현재 여건과 수립되어있는 계획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보존관리적 측면에서는 계획에 기반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 부여 나성의 완전성 확보를 위한 유산구역의 확장등재, 유네스코 정기보고 내용을 포함하는 형태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으며,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해설사 및 명예홍보단 양성, 부여 나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콘텐츠 개발, 현장을 중심으로 한 탐방프로그램과 발굴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사항들이고 그간 추진된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제안하는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각각의 제안사항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 속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유산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잘 가꾸고 보존하여 미래세대에 전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유산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현재 세대의 몫이다. 이를 위해서 유산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보존관리와 활용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백제고도문화재단, 2019, 『특별보존지구 부여 나성 발굴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 부여군, 2018, 『부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
- 문화재청, 2019, 『백제왕도 핵심유적 부여지역 발굴조사 마스터플랜』.
- 전칠수, 2017, 「세계문화유산 백제성곽의 보존관리와 활용사례에 관한 문화재행정적 접근방안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1, 한국융합학회.
- 한필원, 2017, 「한국 세계유산의 보호·관리 및 홍보·활용 현황과 과제」, 『馬韓·百濟文化』 30,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 0 2 0  
백 제 왕 도  
핵 심 유 적  
국 제 학 술 대 회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